부산 구술사 총서 1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 구술사 총서 1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일러두기

1. 이 책은 부산시의 2022년 구술자료 수집 사업의 결과물인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에 정리한 열한 분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2. 이 책은 각 구술자로부터 자료 이용 및 도서 발간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하였다.
3. 구술내용 중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일부 내용은 삭제하였다.
4. 이 책은 구술자가 말한 그대로를 옮긴 녹취록이 아니라, 녹취록을 자료로 삼아 새롭게 기술한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이 담긴 생애사 기록집이다.
5. 책 앞부분에 개관을 수록하여 구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부산 구술사 총서 1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발간사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는 부산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구술자료 수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술자료 수집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남기지 못했던 부산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채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문헌사료의 제약과 공백을 메우고 부산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술사 연구는 공식 기록물에는 빠져있는 개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역사 연구방법론입니다. 구술 채록으로 획득한 개인적 서술은 당대의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공동체 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무형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에는 부산지역의 음악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산 구술사 총서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는 6·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활동한 음악인들의 삶과 음악 활동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트롬보니스트, 디제이(DJ), 싱어송라이터, 대중음악 작곡가, 포크송 가수, 기타리스트, 소리꾼, 부산농

악, 현대음악 작곡가, 음악교육자, 팀파니스트[수록 순]로 음악의 장르도 다양하며 장르별 세부영역까지 다채롭습니다. 여기 한 권의 책에 심층 면담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부산에서 활동한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모두 담겼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부산 음악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술 채록에 응해주신 구술자분들 및 면담자분들, 구술사 총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자 선생님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유산과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목차

발간사 4

제1장

우리 곁의 순희와 영수 _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10

1. 역사 서술방식의 변화와 지역의 발견
2. 예술인 구술생애사, 기록과 기억의 숲
3. 우리 곁의 순희와 영수
4. 지역 연구의 심화와 확장,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

제2장

트롬본으로 미8군 쇼를 주름잡다 _트롬보니스트 박태식 28

1. 미8군 쇼와 한국적 팝의 탄생
2. 피란지 마산에서 트롬본을 만나다
3. 부산 하야리아 부대 시절
4. 미8군 쇼의 중심으로 향하다
5.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다

제3장

음악감상실 대타, 부산의 간판 DJ가 되기까지 _DJ 도병찬 56

1. 병찬, LP 소년과 음악감상실 청년
2. 전문 DJ의 길로
3. 문화 1번지, 부산

제4장 <왕년에>, 데뷔곡 <모정>으로 스타 탄생
_싱어송라이터·DJ 하지백 84

1. 하지백의 삶과 음악
2. 일본에서의 음악 활동
3. 귀국, 부산 정착 이후 음악 인생
4. 하지백과 곁사람들
5. 부산, 함께하는 문화풍경이 되었으면

제5장 음악의 새로운 길을 걷다-컴퓨터음악과 무대음악
_작곡가 박철홍 120

1. 썰물, 젊음으로 밀려들다
2. 전문 음악인의 길로 들어서다: 파도소리 그 이후…
3. 음악, 무대를 채우다
4. 부산 대중음악 교육자로서의 걸음

제6장 철없는 낭만 가객 _포크송 가수 최대호 156

1. 늦깎이 가객 최대호
2. 젊음의 나날, 광·창·포동과 음악다방
3. 최대호의 노래
4. 특별한 인연
5. 최대호의 My way

제7장

부산 1세대 록밴드_기타리스트 임덕규 178

1. 부산록밴드 전성기의 시작, 스트레인저 기타리스트 임덕규
2. 전국구 록밴드 스트레인저
3. 부산에서 제2의 인생
4. 다시 시작하는 록커 임덕규

제8장

판소리 불모지에서 탄생한 명창_소리꾼 김정애 198

1. 김정애의 운명, 소리
2. 두 명의 스승을 모시다
3. 소리꾼의 부산살이

제9장

3대를 잇는 부산의 전통연희, 부산농악/고분도리 걸립굿의 마지막 뜬쇠_부산농악 정우수 228

1. 피란, 또 다른 삶의 시작 – 구미에서 부산 감천으로
2. 농악 입문과 유랑걸립으로 부산에서 구룡포까지
3. 포장걸립과 농악경연대회
4. 부산풍물패 사물놀이, 두레패 사물놀이, 부산에서 서울로
5. 부산농악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다
6. 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되다
7. 당대 농악 명인들을 사사하다
8. 포장걸립세대의 마지막 뜬쇠
9. 정우수 곁의 사람들

제10장

우리 시대 음악(MiOT)_작곡가 강순희 266

1. 경남 거창에서의 어린 시절
2. 진주사범학교 시절
3. 부산사범대학 시절
4. 교사 시절
5. 미국 유학 시절
6.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다
7.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다
8. MiOT(Music in Our Time)를 결성
9. 우리시대 작곡가, 강순희

제11장

관악활동의 신념과 실천_음악교육자 배일환 302

1. 음악의 가치와 음악교육의 신념
2. 중고등학교 악대부 활동과 음악인으로의 성장
3. 부산 지역 고교 악대부의 전통과 동의공고 관악단
4. 부산 지역 관악활동의 전통과 아카데미관악단
5. 관악인의 자부심과 한국관악협회장
6. 방하착(放下着), 음악인생을 돌아보며

제12장

뱍카스클럽에서 카네기홀까지_팀파니스트 전영수 336

1. 조방 앞에서의 성장과 음악
2. 그룹사운드 결성과 나이트 진출
3. 선교단 활동과 대학 진학
4. 부산시립교향악단 입단과 전문연주자로서의 활약
5. 연주 단체의 결성과 교육활동
6. 필그림홀에 깃들어

제1장

우리 곁의 순희와 영수

— 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생활사 아카이브는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 인식이나 해석을 탈피하여
지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맥락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통합한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근현대문화사 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부산지역 생활사 연구는 부산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근대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의제다.

1 역사 서술방식의 변화와 지역의 발견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E.H.카의 질문과 답변은 일종의 정전이다. 역사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라는 불변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현재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그럴 때 한 시대의 풍경이나 아우라를 포착할 수 있으며 역사 속에 녹아있거나 미처 부상하지 못한 사건의 실체와 환하게 마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를 보편화하는 시각을 넘어 '여러 역사'와 '누군가의 역사'를 그려 나갈 수 있다.

현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과거의 기록, 즉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역사의 사실들은 역사가들이 선택한 결과다. 니체의 말처럼 역사적 사실이란 해석된 사실이 아닌가.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의 사실들을 재구성하는 것은 현재의 역사가다. 20세기 후반 들어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역사학 연구에 새로운 담론 지평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신문화사다. 신문화사는 계급만으로 인간사의 다양한 변수들을 설명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나 아날학파의 지리적 결정론에 가까운 구조주의,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이어 온 이성 중심의 합리적 사고를 강조한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신문화사는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다루지 않던 사회적 약자나 일반 민중들의 문화에 주목했다. 로버트 단턴은 인류학에서 답을 모색했다. 계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경험의 차이이며, 문화적 경험이 독특한 생활양식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E.P. 톰슨과 나탈리 데이비스 역시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계급 자체가 아니라 계급의식이기 때문에 문화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린 헌트는 소설, 그림, 포르노그라피, 멜로드라마와 같은 문화적 산물의 분석을 통해 프랑스혁명과 같은 거대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편했다. 프랑스 역사가들은 구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의식, 즉 망탈리테의 역사에서 답을 구함으로써 역사에서 문화를 복권하고자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사람들', 즉 개인의 역사를 통해 역사 전체를 조망하려는 미시사, 독일에서는 대중이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에 주목한 일상생활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늘날 역사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다. 인류학, 문학, 철학을 넘나드는가 하면 상징과 언어를 통한 섬세한 해석의 영역까지 두루 허용함으로써 역사는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표정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기존의 사회사가 지녔던 결함을 보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역사 변화를 추동했던 인간 역할을 복원함으로써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 서술의 새로운 흐름은 기존의 한국 근현대사를 성찰하고 재조명하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한국 근현대사는 식민 지배와 분단에 따른 굴절된 국민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의 과정이었다. 식민지 경험과 근대화는 서구 근대의 지배적·위압적 지식 담론을 그대로 수용·유통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은 식민지, 해방, 전쟁, 산업화라는 격랑을 거치면서 기록되지 못한 영역이 폭넓게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제껏 지역의 가치와 의미는 지배담론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으며, 특히 지역민의 언설은 공식적 기록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히 기술되지 못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지역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서울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역사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한국 근대도시 형성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식민지 근대의 통로이자 해방 후 디아스포라의 경계였으며, 한국전쟁기 피란민 생활의 중심지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처럼 부산이 한국 근대성 이해의 핵심 지역인데도, 이제껏 일반적인 지역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산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 연구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요구가 증폭되었다. 지역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 한국 근대에 대한 성찰의 기운이 확산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료(구술·문헌자료)가 체계적으로 조사·정리되지 않아 연구의 확대 재생산이 여전히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나 학계의 주도로 생활문화사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부산에서 다양한 삶의 궤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자료를 발굴하는 일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생활사 아카이브는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 인식이나 해석을 탈피하여 지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맥락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통합한 아카이브를 구

축함으로써 한국 근현대문화사 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만큼 부산지역 생활사 연구는 부산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근대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의제다.

자료 구축은 지역 연구의 기초이자 시작이다. 문헌자료든 구술자료든 지역사료는 충분히 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과 구술공동체의 점진적인 몰락으로 지역 또는 지역민의 자기 목소리를 구술이라는 형태로 재현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구술 대상의 고령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구술자료의 채록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구술채록과 문헌자료의 생산·수집을 통해 지역에 삶터를 둔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세계를 구축하는 일은 지역사 연구의 첫걸음이다.

2 예술인 구술생애사, 기록과 기억의 숲

부산시에서 진행하던 생활문화사 연구는 2022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예술사 서술의 관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기존의 국가예술사는 서울 중심의 시각에서 예술장르의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예술적 실천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철저하게 관철하였다. 증언이나 대담 기록 또한 명망 있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었다. 지역예술사를 제대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명망가나 예술권력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소외된 비주류 예술가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변두리 장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구술생애사란 한 사람이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경험과 기억을 호출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부산지역예술사, 특히 부산음악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술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에서 활동한 대중음악인(음악제작자·기획자·연주자 등)과 클래식음악인, 국악인의 삶과 음악 활동을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음악, 시대를 읽다: 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은 2022년 부산광역시가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에서 활동한 음악인(대중음악, 클래식음악, 전통음악)의 삶과 음악 활동을 구술사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부산지역 음악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음악의 역사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서울에서 활동한 음악인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부산지역 음악인의 생애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역동적인 예술사 서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부산음악사의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작업이었다.

구술 아카이브는 자신의 말을 통해 역사를 만들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과거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며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다양한 시각을 재현하거나 보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핵심은 구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었다. 역사서술의 민주화라는 구술사의 이념을 고려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부산음악의 주류에서 소외되었거나 미처 조명되지 않은 인물을 선정해야 했다. 음악사회의 변방으로 끝없이 밀리고 밀리다 잊힌 사람들, 음반유통

업자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악기 판매와 수리를 맡았던 이들, 학원 음악교육을 이끌었던 이들 또한 부산음악을 일군 사람들이 아닌가.

구술 대상자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첫째, 장르다. 크게 대중음악, 클래식음악, 국악으로 나누되, 하위장르와 활동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둘째, 연령과 활동 시기다. 구술 대상자의 층위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부산음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전쟁기 이후 활동한 이들을 골고루 섭외하고자 했다. 셋째, 지역음악사적 의미다. 부산음악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술자, 즉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친 이들을 중심에 두었다.

구술 대상자 섭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고령과 노환으로 구술채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저런 일로 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중간보고회를 기점으로 2명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6명의 구술채록을 갈무리할 수 있었다. 작곡가 박철홍, 가수 최대호, 팝칼럼니스트이자 공연기획자 강민, DJ 도병찬, 건반연주자 박재표, 트롬보니스트 박태식, 보컬 이상, 드러머 이상훈, 기타리스트 임덕규, 싱어송라이터이자 DJ 하지백, 작곡가 강순희, 관악활동가이자 교육자 배일환, 팀파니스트 전영수, 피아니스트 조현선, 소리꾼 김정애, 부산농악 정우수가 그들이다. 이제껏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 미처 기록하지 못한 누군가의 역사가 부산음악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구술채록 작업은 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의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심층면담 형식으로 조사하고, 구술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음악인 개인의 삶과 활동을 조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이들의 생애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부산사람들의 일상사를 길어 올릴 수 있었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예술인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자 했던 부산음악인의 도전과 응원을 포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과 서양음악의 정보를 교차함으로써 부산음악의 내력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구술자료를 문헌자료와 대교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으로 나아갔다.

3 우리 곁의 순희와 영수

지난해 갈무리한 부산음악인 16명 가운데 11명을 가려 뽑아 부산 구술사 총서 1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를 세상에 내놓는다. 명망이나 예술적 성취를 우선했다기보다는 부산 지역사와 음악사의 사료로서 의미 있다고 판단한 인물을 중심으로 꾸렸다. 한 차례도 조명되지 않았던 삶의 내력을 지닌 경우도 포함했다. 구술채록 내용을 사회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한 시대의 풍경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번에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구술 대상자가 몇몇 있다. 이저런 사유로 한사코 물리친 경우가 없지 않았다. 모두 부산에서 자신의 음악적 삶과 연대기를 충실하게 쌓아온 이들이다. 이 지면을 빌어 이들의 음악적 열정만큼은 소중하게 기억하고자 한다.

제2장 트롬보니스트 박태식은 명수현이 집필했다. 박태식은 마산공고 악대부에서 처음 트롬본을 잡은 이후, 미8군쇼단, 부산MBC악단, 나이트클럽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한 재즈 트롬본 연주자다. 박태식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부산 하야리아부대 악단 구성과 미군 클럽별 특성, 군악대 뮤지션들의 면모, 연예회사의 운영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MBC 전속악단의 활동과 인적 구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박태식

"무대에서 놀면서 즐기는 게 좋죠. 흑인들 많은 데 가면, 쎄맨(Say Man) 하고 내가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난 음악 해야 안 늙고, 음악 해야 오래 살고. 지금도 연습하잖아요."
– 트롬보니스트 박태식

1980년대 후반 당시 단장이던 최익봉의 제안으로 부산MBC 전속악단에 입단하여 연주와 편곡을 전담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호텔 나이트클럽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음악인으로서의 신산한 삶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각별한 성과다.

제3장 DJ 도병찬은 조성일이 담당했다. 도병찬은 1970년대 대구에서 간판급 DJ로 활동하다 1981년부터 KBS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금까지 방송과 클럽, 카페, 아카데미 등 다양한 자리에서 대중음악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군부독재의 언론 통폐합과 관련하여 자신의 한국FM방송 마지막 방송 때 'Military Madness was killing my country, Solitary Sadness comes over me…'라는 가사를 담은 <Military Madness>를 틀었는데, 이는 '조용한 저항'이었다. 또한 그가 진행한 KBS부산 1라디오의 오픈 스튜디오는 당시 대학가 통기타 동아리 '여운', '어우러기', '바다새', '높은음자리', '작품하나' 등에 생방송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뒷날 MBC대학가요제에서 숱한 수상 실적을 거두는 밑바탕이 되었다.

© 도병찬

"6·25 때도 부산이란 피란지가 있었듯이 대중문화도 부산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서울에서 한 80 있던 게 40~50으로 밀렸다가 부산에 와가지고 30에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서울 돌아가고."
– DJ 도병찬

제4장 싱어송라이터·DJ 하지백은 오광수가 서술했다. 하지백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한국 최초의 TV 오디션 프로그램(1981년 KBS 2TV <신인탄생>)에 관한 자세한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도향, 윤형주 등 박정희 정권 당시 당국의 활동 금지 조치로 발이 묶인 대중음악인들이 CM송과 영화음악 제작과 같은 음악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백은 국내 유명 대중음악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신인탄생> 당시 KBS 악단장이던 작곡가 이봉조와의 인연, 쇼 프로그램 <쇼 쇼 쇼>와 <신인탄생>을 만든 조용호 PD에 관한 이야기도 대중음악사의 주요한 국면이다. 또한 1980년대 한국과 일본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흐름, 자신의 일본 가요계 진출과 현지 공연 뒷이야기, 최근의 트로트 열풍에 관한 의견 등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음악의 백과사전'이죠.
대한민국에 나오는 곡들을 다 한 번씩은
불러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신청곡을 즉석으로 받아
노래해줄 수 있는 가수가 별로 없거든요."
– 싱어송라이터 DJ 하지백

제5장 작곡가 박철홍 집필은 정민경이 맡았다. 박철홍은 1978년 제2회 MBC대학가요제 대상작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작곡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대학에서 대중음악을 강의한 교육자 출신으로 대중음악인의 양성에 이바지했다. 1970~1980년대 부산지역에 컴퓨터음악이라는 낯설고도 새로운 장르를 선보였으며, 무용과 연극 무대음악과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작곡

자 이름이 뒤바뀐 사연, 컴퓨터음악과 무대예술의 결합, 뮤지컬 제작, 음악과 인접장르의 연계, 대중음악 교육기관 설립 등의 구술을 통해 부산 대중음악계의 지형을 소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대중음악 자체가 저급이다 클래식은
고급이다라는 인식이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절로 다 깨지더만요.
문화는 항상 섞이기 때문에 음악 하나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이 다른 장르들과
결합하면서 더 확대 발전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작곡가 박철홍

제6장 포크송 가수 최대호는 심창신이 집필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노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대호를 통해 1970년대 당시 부산의 중심이던 남포동의 클래식다방과 음악감상실 풍경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황금다방에서 배경모, 백형두, 유문규 등 당시 유명 DJ들과 교류하며 포크송을 연주했다. 특히 서울의 세시봉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음악다방 '무아'에서 DJ와 가수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한 여러 음악다방에서의 활동을 통해 1970년대 팝송과 포크송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최대호의 구술생애사는 1970년대 남포동 중심의 음악다방 풍경과 2000년 이후 포크송 가수 활동에 이르기까지 부산 대중음악계의 내면을 풍성하게 들여다보는 마중물이었다.

© 최대호

부산사람은 부산을 위한, 부산에
의한, 그러니까 For the Citizen,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이제 부산에 의한 그런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끝까지 부산을 지킬
예정입니다.
– 포크송 가수 최대호

제7장 기타리스트 임덕규 집필은 김종군이 맡았다. 임덕규는 부산 출신 록밴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 후반에 활동한 아티스트다. 헤비메탈 밴드 '스트레인저'(1989년 결성)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활동함으로써 한국 록음악의 본산지가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었다. 그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에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밴드들에게도 큰

© 임덕규

누가 하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좋았나봐 그게. 아무리 해도 지
겹지가 않고, 하루에 아무리 많은 시간도 할 수
있겠더라고. 버스든 어디든 자리에
앉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기타를 쳤다.
– 기타리스트 임덕규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임덕규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부산 록음악의 기반, 뮤지션 간 네트워크, 연주자 양성과정 전반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제8장 소리꾼 김정애는 김도희가 집필했다. 김정애는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줄곧 활동을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동초제) 이수자다. 며느리와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소리꾼 집안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소개로 우연히 판소리를 접하여 1960년부터 1972년까지 전남 순천과 거문도에서 김창옥(예명 김성옥) 선생에게 중고제 판소리를,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오정숙 선생에게 동초제 판소리를 각각 사사했다. 특히 36년간 부산국악협회를 이끌면서 여성창극 <아아! 그날의 함성>, <동초소리축제 다섯마당전>을 비롯한 많은 공연에 기획과 연출, 배우로 참여하였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2000~2012)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도 펼쳤다. 부산에서 동초제 판소리의 보급과 교육에 앞장선 김정애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한 예인의 성장 배경과 판소리 입문 과정 등을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 글을 고인의 예술적 열정과 실천에 대한 헌사로 대신한다.

© 김정애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창극을 내가 맡아가 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극의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외길밖에 몰라. 한 개밖에 모르니까. 그거 안 하고 내가 내 일로 했으면 더 그거 했을 건데.
– 소리꾼 김정애

제9장 부산농악 정우수는 김두진이 집필했다. 정우수는 네 살 되던 1953년 부친 정상렬(구미 선산 무을풍물패)을 따라 부산 아미동으로 피란오면서 부산에 뿌리를 내렸다. 1957년 부산아미농악(현 부산농악)에 입단하여 장구, 북 예능보유자를 거쳐 현재 고분도리걸립굿 상쇠 및 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들 역시 풍물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어 3대에 걸쳐 전통연희판을 지키고 있다. 구덕망깨소리, 다대후릿소리, 고분도리걸립굿의 발굴에도 참여하여 부산의 전통연희를 보존·계승하는 데 이바지했다. 함께 활동하던 김한순, 이용식, 김종기가 이미 타계하여 경상도 특유의 투박하고 씩씩하며 활기찬 가락과 몸짓을 그대로 지닌 사람은 정우수가 유일하다. 그의 구술 채록을 통해 부산농악과 고분도리걸립굿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재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연대회도 다니고, 표 파는 데 만들어 놓고
포장걸립도 해봤고 안 해 본 게 없어.
이제는 부산농악은 내밖에 없어.
내 있을 동안에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
-부산농악/고분도리걸립굿 정우수

제10장 작곡가 강순희 집필은 서정아가 맡았다. 강순희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여 년간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 시절 국내 유일의 작곡가다. 1962년 <제1회 작곡전>을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1997년 창작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곡단체 MiOT를 결성하여 해마다 국내외 현대음악 창작곡을 소개하고 있다.

부산지역 1세대 작곡가인 이상근을 이어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으며, 현대음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 강순희

미오트는 Music in Our Time이야.
우리 시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그 중심에 살고 싶어. 현대에 살면서
현대음악을 모른다고 하면 이 시대 사람일 수
없지. 특히 전문음악가들조차도
현대음악에 대해 '흥'하고 돌아설 때는
너무 안타깝지.
– 작곡가 강순희

제11장 관악활동가이자 교육자 배일환 집필은 남영희가 맡았다. 배일환은 음악과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확고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강사로 전국 마칭밴드 활동을 주도했다. 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1960~1990년대 학교 밴드 활동, 특히 교내 밴드 활동과 대외 교류 활동에 열정적이었던 밴드 담당 교사들의 활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80~1990년대 마칭밴드 활동의 전성기를 복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일본 관악 밴드의 전문성과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부산시향이 공연장으로 활용했던 장소(왕자극장, 제일극장 등)와 악기 수급 현황, 관객 등 당시 부산음악사회의 풍경은 부산시향의 역사를 밝히는 소중한 증언이다.

음악 안 했으면 경찰이나 군인
했을 거예요. 돌격 아니면 후퇴밖에 없어.
만약에 경찰 했으면 아주 강성 경찰이
됐을 거야. 원리 원칙대로만. 음악을
했으니까 역지사지도 알고 하지.
– 음악교육자 배일환

제12장 팀파니스트 전영수는 남영희가 집필했다. 전영수는 연주자와 음악단체 운영자로서 음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아티스트다. 구술생애사를 통해 군부대 출신 음악인과 비전문 음악인, 캄보밴드·나이트클럽·그룹사운드·고고클럽 음악, 악보를 보는 음악과 음반을 들으며 따는 음악 등 1970~1980년대 부산지역 밤무대 음악 풍경을 복원할 수 있었다. 그는 1986년 부산시향에 입단하여 2015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29년간 전문 연주자로 활동한 부산시향의 산증인이다. 1980~2000년대 부산시향

평생 해왔던 일을 갈 때까지
이 일로 가니까 좋더라고. 음악이라는 것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 괴롭히는 일
아니잖아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 팀파니스트 전영수

단원들의 면면, 단원 간 갈등, 연주 활동, 1980년 부산시향 파동, 오디션 제도,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의 가치, 부산시향 발전에 관한 의견 등은 부산음악사 서술을 풍부하게 하는 바탕으로 부족함이 없다. 1990~2000년대 후학 양성의 일면을 파악한 것도 구술 채록의 의미 있는 성과다.

4 지역 연구의 심화와 확장,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

미시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카를로 긴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는 16세기 이탈리아 북부 프리울리 지방 방앗간 주인 메노키오가 주인공이다. 메노키오의 이단 재판기록으로 길어올린 이야기다. 긴즈부르그는 지배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지 않았던 이 예외적 인물을 면밀히 추적하여 복합적인 사회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독창적으로 해석했다.

부산음악인에 대한 구술채록 작업은 미시사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지역에서 활동한 '평범한' 음악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복원함으로써 국가음악사 서술의 전제를 깨뜨리는 전략이자 지역음악사를 풍부하게 구성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때 부산이라는 지역사회는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였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으로부터 지역예술사의 리얼리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숱한 부산음악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곁사람들의 삶과 음악적 연대기를 길어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한계는 자명하다. 지역사든 예술사든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하나의 정전 원리나 공통 목표를 지향하지 않으며, 또한 여기에 반드시 수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발견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며, 해석의 근거나 담론 생산에서도 빈자리가 적지 않다.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도 부족하다. 미시적 접근이 전체사의 패러다임을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착하기 어려웠던 측면을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보완하겠다는 의지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작고 평범한 이야기들에서 출발하면서도 전체의 균형으로 나아가는 묵직한 발걸음이 요구된다.

부산예술인 구술생애사는 '가능성의 역사'를 시작하는 지점으로서 역사의 실마리 찾기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껏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생활사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녹취 구술자료에 의존해 왔다. 무엇보다도 문헌자료와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구술자의 생애에 대한 치밀한 접근 없이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삶의 조각들을 부분적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만큼 부산지역의 생활사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적절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부산시에서 구술사총서를 기획한 일은 참으로 뜻깊다. 부산의 평범한 음악인, 우리 곁의 숱한 순희와 영수의 생애와 활동이 소중한 까닭이다. 날이 갈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세월의 풍화는 이를 가속화한다. 기억을 기록해야 하며, 또한 기록해야 명징하게 기억하지 않겠는가.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를 마중물로 지역예술사의 전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종요로운 작업을 기대한다.

트롬보니스트 박태식 ©박태식

제2장

트롬본으로 미8군 쇼를 주름잡다

트롬보니스트 박태식

미8군 무대 출신의 트롬보니스트 박태식은
한국 대중음악이 1950~60년대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음악과 조우함으로써, 어떻게 분화하고 발전했는지를
몸소 경험한 한국 음악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마산공고 악대부를 거쳐 부산 하야리아 미군 무대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 미8군 쇼와 한국적 팝의 탄생

해방, 그리고 미국이라는 환상

손석우씨가 저와 같은 굵직한 목소리로 한국가요를 부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자신의 작곡을 부르게 했어요…전에는 8군 「쇼」에서 「째즈」를 불렀는데…우연히도 「노란 샤스」가 「히트」해서…[1)]

1961년, 한국 대중가요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해방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린 노래가 발표되었다.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며 허스키한 목소리를 뽐냈던 한명숙의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가 바로 그것이다. 역시 미8군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손석우가 곡을 쓰고 노랫말을 붙였다. 손석우는 해방 후 우리 가요사에서 한국적 팝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데,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는 그가 직접 세운 뷔너스레코드에서 취입한 음반인 <손석우 멜로듸>에 수록된 곡이었다. 이제껏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과 같이 높고 맑은 목소리와 구성진 가락에 익숙해져 있던 대중들에게, 한명숙의 굵직한 목소리와 컨트리 음악의 초기 형태라 할 경쾌한 힐빌리(Hillbilly) 리듬은 분명 새로운 감수성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1960년대 우리나라 대중들이 이러한 새로운 감수성에 빠르게 젖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45년,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왔다. 그런데 일제가 떠나간 자리엔, 영광스러운 해방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점령군이 들어섰다. 1945년 9월 8일, 미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포고문을 손에 든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이 한반도 남단의 점령을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 것이다. 해방의 감격에 휩싸였던 한국인들에게 구원자로 비쳤던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의 지속적인 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던 미국이기에, 그 경계에 자리하던 한반도 이남 지역을 수호하는 일은 필사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기를 거치는 시기까지 남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극렬한 대립이 노골적으로

가시화된 열전이 발생했다. 바로 한국전쟁이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촉발한 포화 아래 한반도 전역은 처참히 파괴되었다. 동족상잔의 비극 끝에 형성된 분단상황과 전세계적인 냉전 체제 아래에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은 미국을 유일한 절대적 가치와 질서로 숭앙하며 따랐다. 미국 역시 한국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따라야 할 유일한 전범이 자신들이라는 인식을 한국 사회에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주입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자유세계 반공전선의 맹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를 원했던 한국 정부는 '미국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2)]

주한미국공보원(USIS)에서 생산된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대중문화와 대중매체,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적' 생활 방식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 민간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문화와 문물은 선진이고 일류며 고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가속화된 미국화 현상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주거와 식생활, 여가를 비롯한 일상의 미시적 차원으로까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미군 PX를 통해 유입되는 초콜릿, 코코아, 커피, 스팸 등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전자제품,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은 전쟁으로 인한 혹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이들에게 꿈만 같았다. 더욱이 그들이 즐기는 신나는 음악과 춤, 클럽 문화,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졌던 한국인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환상처럼 다가왔다.

미8군 쇼, 한국 대중음악을 새롭게 열다

미국 대중문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깊이 파고들어,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취향이나 감수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데는 한국에 주둔했던 미8군의 영향이 크다. 특히 전국 각지에 설치된 미8군 부대 내에서 파병된 병사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유흥을 제공하기 위해 행해진 미8군 쇼는 한국 음악장의 판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기능했다. 미군 부대와 기지촌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속에 있는 꿈같은 작은 미국이었다면, 군사들을 위한 기지 내 클럽들은 현실과 유리된 환상의 별천지 그

자체였다. 그곳에서는 팝송과 재즈, 블루스, 로큰롤은 물론 스윙이나 트위스트, 차차차와 같은 신나는 리듬들이 쉼 없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 가수와 연주자들이 미8군 무대에 서서 미국인들의 음악을 익히고 연주했다.

한명숙의 흥행을 시작으로 미8군 무대를 주름잡던 가수들이 대중음악장으로 연이어 등장했다. 현미, 패티 김, 최희준, 김성옥, 김상희, 김상국, 이금희, 차도균, 위키 리, 박형준, 윤향기, 윤복희, 신중현 등의 빛나는 스타들이 한국 대중가요의 새로운 판도를 열어젖혔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가수들의 대중적 인기는 손석우를 위시해 길옥윤, 김인배, 박춘석, 이봉조같이 미8군에서 연주하며 새로운 음악적 감각을 체득한 작곡가들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은 재즈와 블루스, 로큰롤, 스탠더드 팝, 컨트리 같은 미국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대중음악과 융합시켰다. 한국적 팝의 탄생이었다. 이로써 소위 '뽕짝'이라 불리던 트로트 일변도의 대중음악계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바야흐로 1960년대는 우리 음악사에서 대중가요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로 기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8군 무대 출신의 트롬보니스트 박태식은 한국 대중음악이 1950~60년대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음악과 조우함으로써, 어떻게 분화하고 발전했는지를 몸소 경험한 한국 음악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마산공고 악대부를 거쳐 부산 하야리아 미군 무대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로 옮겨가 모던캣과 뉴스타쇼 등의 미8군 쇼단에서 한국 재즈 음악의 개척자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한 위문공연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부산으로 돌아와 부산 MBC 악단의 부단장을 역임하며 지역 음악가들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리고 피닉스호텔을 비롯한 부산의 관광호텔 클럽에서 활약하며 수없이 많은 관객을 만났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후배들을 양성하며, 지역 시민들을 위한 음악을 지속해 왔다. 생의 굽이굽이를 한국 현대사의 궤적과 같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을 이끈 것은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다. 인천에서 마산과 부산, 서울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그의 인생길에는 한국 음악사는 물론, 부산 음악사가 노정했던 길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2 피란지 마산에서 트롬본을 만나다

음악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재능

트럼보니스트 박태식은 1937년 4월 21일 태어났다. 4남 1녀 가운데 장남이었다. 그가 난 곳은 식민지시대 가장 번성한 개항도시 중 하나인 인천시의 용운동이었다. 서쪽으로 바다를 면했던 인천은 수많은 사람과 문물이 거쳐 가는 문화적 교류의 중심이었다. 더욱이 다른 개항도시에 비해 수도와 공간적으로 밀접했던 까닭에 문학과 음악, 미술을 비롯한 근대적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인천에 태를 묻었던 박태식은 어린 시절부터 근대 문화와 문물을 아주 가깝게 체감하고 익혔다.

어린시절 ©박태식

그런데 박태식의 음악적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비단 인천이란 도시의 지역적 특성만이 아니다. 그가 이른 나이에 서구 음악을 체득했던 데는 인천의 명망 있는 음악가로서 해방 이후 인천 최초의 오케스트라였던 '인천관현악단'을 창설한 아버지 박수득과 성악가였던 어머니 김정숙의 영향이 크다. 인천관현악단은 김기룡 단장과 박수득 악장의 지휘 아래 제1, 2 바이올린과 비올라, 플루트, 트럼펫, 베이스 드럼,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트롬본, 사이드 드럼 연주자 등 23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였다. 해방 이태 뒤인 1947년 12월 13일 인천공회당에서 창단 연주회를 열었으며, 이어서 인천 영화극장과 문화관, 애관극장에서 공연을 올렸다.[3)]

해방 후 클래식 음악의 가장 두드러진 약진이 나타난 지역이 인천이었으며 박수득이 그 선봉에 섰던 것이니만큼, 어린 박태식이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보였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 박수득의 음악적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그였기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큰 꿈을 품었다. 당시 그는 악보를 보는 능력도 남달리 뛰어났으며, 콩쿠르 대회에 나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키가 크니까 트롬본 불라 그래서 내가"

박태식이 마산으로 옮겨 온 때는 1950년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할머니를 따라 피란길에 오른 것이다. 14살, 서울 한성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직후였다.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 채 피란 기차에 올라 고모가 살고 있던 마산으로 향했다. 당시 고모는 마산에서 꽤 부유하게 살았기에 그를 거둘 수 있었다. 마산으로 온 이후 마산중앙중학교에 2학년으로 입학했다. 마산중앙중학교는 마산공업고등학교와 함께 무학학원이라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다. 고모부의 친구가 그곳 교장으로 있었기에 서울에서 온 조카의 입학을 부탁했던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는 마산공고에 입학했다. 전쟁과 피란살이의 혼란함 속에서 그의 학업은 남들보다 2년 가량 늦어졌다.

> 근데 인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6·25 사변 났어요. 악대부 모집 그러는 거라, 공고 가니까. 그래서 나도 손 들고 나갔는데 너무 키가 크니까 트롬본 불라 그래서

내가. (241~242)[4]

마산공고에 입학하고서 악대부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의 시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고 자란 그였다. 전란의 포화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음악에 대한 간절한 꿈을 간직해 왔다. 그렇기에 악대부 가입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평생을 함께하게 된 악기인 트롬본을 만났던 것이 바로 이때다. 그가 트롬본을 불게 되었던 이유는 순전히 남들보다 키가 컸기 때문이었다. 우연과 운명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마산공고 악대부는 부산의 해동고등학교 악대부와 함께 상당히 이름난 곳이었다. 트럼펫과 트롬본, 호른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관악기를 갖추고 있었다. 악대부 지도는 박동섭 선생이 맡았다. 그러나 당시는 전쟁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런 까닭에 악대부는 체계적인 음악 교육과정이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연주할 때 호흡은 어떻게 조절하며 주법은 어떠한지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환

마산공고 악대부 ©박태식

경이 결코 아니었다. 대중음악장에서 활동하다 들어온 선배들의 지도를 받거나, 진해에 있던 해병대 군악대로부터 행진곡을 얻고 연주법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오직, 두 귀를 열어 잘 듣고 끝없이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악대부 행사가 잦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부산 하야리아 부대 시절

선배의 손에 이끌려 하야리아 부대 전속 악단으로

인고의 노력은 기필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일까. 마산공고 악대부 시절부터 이어진 부단한 노력에 대한 보상인지, 박태식은 졸업과 함께 곧바로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1958년의 일이다.

> 박봉구 씨라는 사람이 우리를, 우리 마스터, 그땐 마스터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도 아주 부산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
> 우린 인제 고등학교 때 보고, 잘 봤나 보죠. 그래가지고 우릴 데리고 바로 졸업하고 기다렸다가 부산에 와서 하야리아 부대에서 인제 우리가 전속 악단이 됐어요. 부산에는 비치 클랍이라고 미군 크랍[클럽]이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었고 이 하야리아 부대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236)

박태식을 부산으로 이끌었던 이는 박봉구였다. 박태식보다 세 살 위였던 그는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미 부산에서 이름이 났던 박봉구의 눈에도 박태식을 비롯한 마산공고 학생들의 연주 실력은 예사롭지 않았다. 박봉구는 눈여겨보던 마산공고 악대부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밴드를 조직해서 부산의 미군 부대로 향했다. 오디션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때는 밴드의 이름도 제대로 짓지

않은 채였다.

오디션을 통과하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의 전속 악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야리아 부대 내 클럽과 함께 해변가에 위치한 미군 클럽이었던 '비치 크랍'이 주된 활동 무대였다. 당시에는 이 두 곳을 오가며 연주했다.

그가 속했던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진구 연지동 및 범전동 일대에 넓게 자리한 미군 기지였다. 인근의 지형에 비해 평탄한 지대를 이루었던 탓에 식민지시대였던 1911년부터 일제 토지 수용령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을 통해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인들을 위한 사설 경마장이 세워짐으로써 식민지배자들의 유희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조선군 사령군 제72병참 경비대가 주둔했으며 임시 군속 훈련소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이곳은 해방과 함께 1945년 9월부터 미군 선발대의 숙소로 변모했으며,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군이 되돌아오면서 다시금 미군 기지로 기능했다. 휴전 이후에도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항에 들어오는 미군의 수송 및 군수물자 보급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한반도의 전운이 점차 가시게 되자, 하야리아 부대의 규모와 역할 역시 축소되었다. 이에 2006년 8월 하야리아 부대는 폐쇄되었으며, 2010년 부산광역시에 반환되어 현재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다.[5] 이와 같이, 하야리아 부대는 식민지배와 전쟁을 경험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오롯이 상징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미군들이 대거 모여 생활하던 미군기지와 인근에 형성된 기지촌은 미국 문화와 문물이 유입되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일 수밖에 없었다. 미군 부대로부터 흘러나온 미제물품들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거래·유통되었으며,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점과 위락시설들이 생겨났다. 이는 전국 각지에 산재하던 미군 기지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부산 중심부에 자리했던 하야리아 부대에서도 역시 같은 풍경이 연출되었다.

하야리아 부대 인근의 도로변으로는 옷과 신발, 안경 등의 생활용품을 파는 난전들이 들어섰으며, 정문 건너편에는 바(Bar)가 성행했다. 상권이 가장 번성하였던 곳은 하야리아 부대의 지쓰리(G3: 제3문)로, 양복, 기념품, 공예품, 가구, 침구류, 잡화 등을 취급하는 많은 상점이 생겨나 성시를 이뤘다.[6] 본동마을을 비롯한 범전동 일대로 이어진 지쓰리(G3)는 당시 "레버러 게이트(Laborer Gate)"로 불렸는데, 미군 병사들과

기지 내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던 통로였다. 따라서 의류나 잡화, 음식점, 술집 등이 번성할 수 있었으며, 그 인근에는 한국 여성들과 동거하는 미군들이 세를 얻어 거주했다. 또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들이 들어서기도 했다.[7] 이렇듯 하야리아 부대와 그 일대는 미국으로부터 온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이 한국과, 또는 부산이라는 지역과 교차하며 형성된 혼종적 지대였다.

하야리아 부대의 클럽 문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의 팽창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유흥거리가 활발하게 대중들에게 전파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군 클럽을 통해 전파된 미국 대중음악이다. 미군 장교와 병사들은 부대 내 클럽에서 재즈와 블루스, 팝송 등을 들으며 유흥을 즐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 여기 하야리아부대도 크랍이, 오피스 크랍 장교 크랍. 엔씨오 크랍 중상사들, 고담에 이엠크랍, 서비스크랍 이렇게 있어요. 계급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장교크랍이 오피스 크랍이고. 그런데 거기, 거기 다니고. 비치크랍이라고. 그러니까 밴드가 일단 환영을 받거든요. 우리가. 받고 있는데, 서울도 쇼들도 내려오거든요. 우리 하는 거 보고 야 우리…. (245)

박봉구가 이끌던 밴드는 미군 오디션을 통과해 하야리아 부대의 전속 악단이 되었다. 말하자면 하야리아 부대의 하우스 밴드가 된 셈이다. 당시 미군 쇼에서 연주하는 밴드는 크게 '플로어 밴드'와 '하우스 밴드', '오픈 밴드'로 나뉘었다. 플로어 밴드는 특정 쇼단에 소속되어 전국 각지의 미군 부대를 순회하며 공연하던 밴드다. 하우스 밴드는 부대 내에 있는 클럽에 전속된 악단이다. 플로어 밴드와 하우스 밴드 모두 미군 오디션을 통과한 악단인 반면, 오픈 밴드는 오디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지촌 클럽 등에서 활동하던 밴드를 일컬었다.[8]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있던 탓에, 그들은 빠르게 하우스 밴드로 발탁되어 부대 내 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미군 부대 내 클럽은 계급에 따라 나뉘어 있었는데, 하야리아 부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하야리아 부대 내에는 네 개 종류의 클럽이 있었다. 장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서스 클럽(Officer's Club)', 하사관들이 출입하는 'NCO 클럽(Non Commissioned Officer's Club)', 그리고 일반 사병들이 출입하는 'EM 클럽(Enlisted Men's Club)'이 그것이다. 아울러, NCO 클럽과 EM 클럽은 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과 흑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각기 나뉘어 있었다.[9] 그리고 '서비스 클럽(Service Club)'은 문화원격에 해당하는 고급 클럽이었다. 하야리아 부대 내 NCO 클럽은 '탑 파이브 클럽'으로, EM 클럽은 '로우 퓌 클럽'으로 불렸다.[10] 하야리아 부대 내 클럽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150평 규모의 '탑 파이브 클럽' 홀에는 매일 밤 7~10시까지 300~400명의 군인이 들어찼다.[11]

박태식은 부대 내 클럽뿐만 아니라, 바닷가 인근에 자리한 비치 클럽에서도 연주했다. 무더운 여름이면 미군들은 해운대에 '비치하우스'라는 건물을 지어 휴양을 즐기곤 했다.[12] 드넓은 모래사장과 파도치는 물결을 배경 삼았던 비치 클럽 역시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휴양지의 풍광이었다.

각박한 일상과는 동떨어진 무대 위에서 박태식을 비롯한 스무 살 남짓의 젊은 음악가들은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선 무대였지만 그들의 연주는 가히 환상적이었다. 보컬도 없이 연주로만 무대를 채웠다. 그러나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미군들로부터 대단한 환영과 찬사를 받던 나날이었다. 남달랐던 그들의 명성은 삽시간에 부산을 넘어 서울로 전해졌다.

4 미8군 쇼의 중심으로 향하다

'화양' 소속의 쇼단원으로 미8군 무대에

하야리아 부대 클럽에서 활동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에서 양철이라는 인

물이 그들을 찾아왔다. 양철은 '모던캣'이라는 쇼의 단장 겸 마스터를 맡고 있었다. 부산 하야리아 부대에서 연주하던 실력파 악단에 대한 소문이 서울로까지 퍼졌던 것일까? 양철은 박태식을 비롯한 악단 멤버들에게 자신의 쇼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다. 늘 서울의 큰 무대에 대한 꿈을 키워오던 박태식이었다. 그렇기에 양철의 영입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곧바로 양철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양철이 이끌던 모던캣은 한국 최초의 연예 기획사라 할 수 있는 화양흥업(한국흥행주식회사)에 소속된 쇼단이었다. 미8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미군 클럽에서는 일명 '플로어 쇼(Floor Show)'와 '패키지 쇼(Package Show)'라고 불리는 악단과 가수, 무용수, MC, 코미디언, 마술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쇼가 성행했다. 이에 라스베이거스, 뉴요커, 뉴스타, 베니쇼를 비롯한 개별 쇼단들이 조직되어 활동했다. 그러나 미8군 쇼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그 수요 역시 확대됨에 따라, 미군 클럽으로 쇼단을 공급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탄생했다. 안찬옥(安燦玉)과 베니쇼를 이끌던 베니 김에 의해 1957년 설립된 화양흥업이 바로 그것이다. 화양의 등장 이후 화양과 쌍벽을 이루었던 유니버설을 비롯해 삼진, 공영, 대영 등의 업체가 연이어 생겨났다.[13)]

박태식이 활동했던 모던캣은 플로어 쇼를 하던 단체다. 당시 플로어 쇼는 빅쇼(Big Show)로서, 3~4명가량의 가수와 무용수, 7~8인조 악단 혹은 10인조 이상의 빅밴드 등을 포함해 14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스몰쇼(Small Show)에 해당하던 패키지 쇼의 경우 1~2명의 가수와 무용수, 그리고 작은 규모의 캄보 밴드(Cambo Band)를 포함한 8명 이하로 이루어졌다.

모던캣의 멤버로 영입되어 그가 꿈꾸던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오디션이라는 높은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8군의 오디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 심사위원으로는 미군에서 직접 파견한 대중음악 전문가와 부대 내 유능한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 스페셜에이 아니, 따블에이[AA]가 있고 에이크라스[A class]가 있고 그리고 인제, 비크라스[B class]가 있고, 씨크라스[C class]가 있고. 그래, 우리가 따블에이를 받았그덩요. (234)

연습 장면 ©박태식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쇼단의 등급은 AA, A, B, C로 매겨졌으며, 오디션을 통과하면 쇼단 단원들에게 미군 클럽 출입증과 같은 라이센스가 발급되었다. 쇼단의 출연료 역시 등급에 따라 나뉘었다. 당시 서울에는 쟁쟁한 쇼단들이 즐비했다.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가차 없이 밀려났다. 까다롭고 냉정한 심사위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들을 늘 만들어내야 했다.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승리할 방법은 오직 하나, 피나는 노력뿐이었다. 노력이라면 이미 마산공고 악대부 시절부터 이골이 났던 그였다. 쉼 없는 노력과 연습의 대가일 것이다. 그가 속했던 쇼단은 AA 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다.

뉴스타쇼 시절, 그리고 인연들

이후 박태식은 같은 화양 소속이던 뉴스타쇼로 옮겨가게 되었다. 뉴스타쇼의 마

스터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김인배였다.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소리 어딜 가시나”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남일해의 <빨간 구두 아가씨>를 필두로, 김상국의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나 성재희의 <보슬비 내리는 거리>와 같은 히트곡을 남긴 인물이다.

김인배가 이끌던 뉴스타쇼 역시 여러 명의 가수와 무용수, 빅밴드로 구성된 플로어 쇼 단체였다. 보통 단원이 17명 정도 되었으니 꽤 큰 규모였다. 당시 쇼단들이 미군 클럽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미군 트럭을 타야 했다. 서울 내에 있던 미군 부대를 갈 때나, 다른 지역의 부대를 갈 때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연예계에서 “트럭 탄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는데, 이는 곧 미8군 쇼에서 공연한다는 뜻으로 통했다.[14] 17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모두 올라타면 미군 트럭이 꽉 찼다. 쇼단 멤버들은 무더운 여름이고 추운 겨울이고 할 것 없이 미군 트럭에 올라 전국의 미군 클럽으로 향했다. 용산과 동두천, 삼각지, 의정부, 부평, 부산, 군산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던 시절이었다.

늦은 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미군 트럭은 싣고 왔던 악기를 모두 회사에 내리고, 지친 연주자들을 집집이 태워줬다. 일반적인 연주자들이 경험하기 힘든, 미8군 연주자들을 위한 극진한 대우였다. 보수도 일반 연주자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더욱이 연주를 통해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물론, 그 수익이 연주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화양이나 유니버설 같은 용역 업체가 연주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쇼 단체들과 밴드들은 업체를 상대로 데모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960년 2월 13일 『동아일보』에는 「용역불 중간서 착취-미군 상대 쇼 단체서 부정 밝혀달라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년간에 100여만 ‘딸라’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국내 20여 개 ‘쑈’ 단체와 40여 개 ‘뺀드’들은 미군부대 내의 공연에서 받는 용역불(用役弗)을 중간착취 당하고 있다고 12일 서울지검에 호소하면서 부정사실을 밝혀서 관계자들을 의법처단해 줄 것을 진정하여 왔다.

'미드 나이트 뺀드' 대표자 김상흡 씨를 필두로 20여 개 단체 대표들은 12일 상오 서울지검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들이 받는 출연료인 용역불을 '한국연예주식회사'(서울시내 태평로 2가 60)의 일원이며 화양흥업 회사 대표인 안찬옥 씨 등 연예 회사에서 중간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양·삼양·고려 등의 각 연예회사는 그 산하에 각각 몇 개씩의 '쑈' 또는 '뺀드' 단체 등을 전속시키고 미군 상대로 전국에 걸쳐서 흥행하고 있는데 월평균 8만여 불의 출연료를 바꿔주는데 있어 시중에서 1,100환 내지 1,300환 하는 용역불을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600 대 1 또는 750 대 1로 환산하여 출연료를 지불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간이득은 연예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보고 있으며 힘없는 연예인들을 착취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용역불은 미8군 및 재무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검찰수사가 주목된다.[15]

미8군에서 활동하면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박태식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미군들로부터 수많은 환호를 받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다. 특히 흑인들이 주로 드나들던 클럽 무대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빛났다. "쎄 맨(Say Man)" 하고 흥에 차 외치며 관객들과 음악으로 함께 어우러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대를 함께 꾸미던 동료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젊은 날의 감정과 기억이 선연하게 떠오른다.

당시 미8군에서 김인배의 명성도 대단했거니와, 그가 마스터로 있던 뉴스타쇼 역시 오랜 경력을 갖춘 쇼단이었다. 그렇기에 실력 있고 이름난 멤버가 많았다. 물론 큰 단체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들고 남도 많았지만, 각별하게 기억에 남는 동료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수 이금희다. 역동적인 춤 동작과 활발한 무대 매너로 '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이금희는 1957년 김광수악단에서 노래를 시작했으며, 이후 뉴스타쇼의 전속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황우루가 작사·작곡한 <키다리 미스터 김>으로 1960년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16] 이금희 외에도 1972년 대도레코드에서 <여보세요/아까시아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음반을 취입했던 가수 방은영(방은미)이 함께 활동했다. 뉴스타쇼에 소속된 무용수로는 미8군 쇼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전

해남(田海男)과 전지남(田地男)이 있었다.[17]

뉴스타쇼에서 박태식과 함께 공연한 이들 외에도, 함께 화양에 소속되어 있던 동료들이 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소속사 식구들이라 할 것이다. 유난히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까닭에 인간관계가 넓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한명숙이나 미8군을 넘어 미국 전역에 명성을 떨친 패티 김, 루이 암스트롱의 창법을 구사했던 김상국, 이정자·김천숙·김희선으로 구성되어 <울릉도 트위스트>를 히트시킨 이시스터즈가 기억에 또렷하다.

아울러, 함께 재즈 음악을 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클라리넷 연주자 김수열은 마산공고 동창생으로 악대부 활동부터 부산 하야리아 부대, 미8군 쇼까지 함께 했기에 우애가 남달랐다. 이후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해병대 군악대 출신으로 트럼펫을 연주하던 최선배 역시 친밀하게 사귄 후배다. 에이원쇼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희갑도 기억에 남는다. 김희갑은 이인표, 이인성과 함께 미8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기타리스트로서, 박건의 <그 사람은

군악대 행진 ©박태식

잊었지만>, 임희숙의 <진정 난 몰랐네>,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과 같은 히트곡을 만든 주인공이다.

이교숙에게서 재즈를 배우다

1958년부터 미8군 클럽에서 활동한 박태식은 1961년 군에 입대했다. 그가 간 곳은 논산 훈련소의 육군군악대였다. 당시 군악대장은 장장원 대위였다. 30개월에 걸친 군대 생활을 마친 박태식은 곧바로 화양으로 돌아갔다. 1964년 경이었다. 화양 소속으로 미8군 쇼 무대에 다시 섰다. 너무도 그립던 곳이었다. 다시 오른 쇼 무대였기에 그는 더욱 훌륭한 연주자로 거듭나고 싶었다. 새로운 음악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던 시절이었다. 그런 와중에, 그의 음악적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의 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함께 활동하며 가깝게 지냈던 이판근이 박태식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이판근은 마산상고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를 나왔다. 미8군 무대에서 음악을 시작한 이후, 작곡가이자 이론가로서 명성을 떨치며 한국 재즈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점한 인물이다. 미8군 시절 박태식과는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박태식에게 재즈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러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 오직 피나는 노력과 연습으로만 실력을 쌓아가던 시절이었다. 그랬기에 재즈의 이론이란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판근이 이끈 곳은 칠판만 하나 덩그러니 놓인 어느 허름한 학교 교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가 바로 이교숙이다.

이교숙은 해군군악대 출신으로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 그로부터 화성악을 비롯한 재즈의 이론들을 배웠다. 5~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교숙에게서 음악을 배우는 일은 고행이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그였기에, 수업의 많은 부분이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중도 이탈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교숙은 재즈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당시에 한국 재즈 이론의 선각자로서, 수많은 후배 음악인을 위한 스승 역할을 맡았다. 이미 숱한 무대 경험으로 뛰어난 기량을 갖춘 박태식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숙이에는 재즈를 제대로 연주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했다. 이때 이교숙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박태식에게 중요한 음악적 자산이

되었다.

베트남 파병 전사들을 위한 위문공연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국내의 미8군 쇼의 규모와 열기도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양을 비롯한 미8군 쇼 대행 업체에서는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한 위문 쇼를 기획했다. 이때 박태식 역시 화양 소속의 위문공연단으로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 1967년의 일이다.

1964년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결정된 이후 수많은 연예인과 쇼단들이 파월 장병 위문을 명분으로 베트남으로 향했다. 1968년을 기준으로 한국연예협회 산하 회원 350여 명이 동남아에서 활동했으며 그중 280여 명이 베트남에 있었다. 미8군 쇼를 관장하던 화양(한국흥행주식회사) 소속의 연예인 140여 명 역시 베트남에 있었으니, 베트남에만 420명이 넘는 한국 연예인이 머물렀던 셈이다. 더욱이 화양은 사이공과 퀴논, 다낭에 지사까지 설립하였다.[18] 이러한 인적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 한국 쇼단은 베트남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다.

박태식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다낭이다. 이곳에서도 뉴스타쇼의 멤버였던 이금희와 방은영, 전해남과 전지남 등과 함께 열띤 공연을 했다. 물론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평탄할 수만은 없었다. 그곳은 분명 총탄이 빗발치는 치열한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지금도 떠올리면 아찔한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있다. 당시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다. 기적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처럼 그가 음악을 위해 선택했던 곳에서 죽음을 마주하기도 했다. 어쩌면 박태식에게 음악이란 행복의 원천임과 동시에, 목숨을 걸 만큼 치열한 것이 아니었을까.

5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다

부산 MBC 관현악단과 최익봉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박태식은 미8군 무대와 시내의 고급 클럽들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갔다.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갖춘 그였지만 시립교향악단과 같은 직업 단체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무대에서 놀면서 즐기는 게 좋은 그였다. 무대 위를 활보하는 자유로운 재즈 연주자의 타고난 기질 탓일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던 부산으로 돌아온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를 부산으로 이끈 이는 당시 부산 MBC 관현악단 단장을 맡고 있던 최익봉이었다. 1933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난 최익봉은 경희대 음대를 나와 미8군 등에서 아코디언 연주자로 활동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부산 KBS와 부산 CBS 악단 단장을 지냈으며 1970년부터는 부산 MBC 악단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녔던 인물로, 평생 부산에 머물며 지역 음악 융성에 이바지했다. 그의 제의로 박태식은 MBC 악단의 전속 편곡자 겸 부단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후, 2003년 단장 최익봉의 사망으로 MBC 악단이 공식적으로 해산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다.

최익봉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20여 년에 걸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했다. 식구들과 함께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 낯설 법도 했다. 그러나 부산 하야리아 부대에서의 활동 경력도 있거니와 오랜 시간 음악계에서 활동했던 까닭에, 부산에 와서 만나게 된 이들도 대부분 아는 사이였다. 그렇기에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꾸려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다.

MBC 악단에 소속된 박태식은 대부분의 편곡을 도맡았다. 악단에서 연주하는 곡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마산의 다양한 밴드들은 물론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곡도 편곡을 맡았으니,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곡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곡이, 1985년 제9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높은음자리의 <바다에 누워>다. 높은음자리는 부산 동의대학교에 재학 중

이던 김장수와 임은희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이들 역시 박태식에게서 음악을 배웠다. 한때 그는 부산 MBC에서 주관하는 <영남주부가요열창>을 지도하기도 했다. 지역 음악가들에게 박태식은 든든한 버팀목이자 음악적 스승일 수밖에 없었다.

피닉스, 극동, 해운대 관광호텔 클럽에서

부산에 내려와 MBC 악단에서 활동하면서, 저녁에는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했다. 1960년대 이후 부산에서는 관광호텔 연회장이나 카바레 등을 중심으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였기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는 장소였다. 1960년대 부산의 '크라운', '반도호텔', '피닉스호텔', '극동호텔', '곤포의 집' 등이 대표적이며, '동양제일', '백화당', '아세아', '미도파', '호반', '동아'를 비롯한 50여 개의 카바레가 운영되었다. 그리

부산MBC악단 ©박태식

고 이곳으로 모인 전문음악인들은 빅밴드 등을 조직해 활동했다.[19] 이때 시작된 부산의 나이트클럽과 카바레 문화는 70~80년대를 거치며 점차 확대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일한 곳은 남포동에 있던 피닉스관광호텔이다. 이후 극동호텔을 거쳐 해운대관광호텔 나이트클럽으로 옮겨갔다. 호텔의 고정 밴드로 자리를 잡으면 몇 년씩 일했는데, 해운대관광호텔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있었다. 박태식이 활동하던 시절,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의 인기는 대단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술과 음악, 춤을 즐겼다. 보통 7시에 연주를 시작하면 12시까지 쉬지 않았다.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낮에 잠을 자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던 시절이었다. 무대에서는 주로 팝송을 연주했으나, 트로트나 일본노래까지 두루 할 수 있어야 했다. 관객들의 신청곡이 있다면 즉석에서 소화해야 했다. 그렇기에 나이트클럽에서의 연주는 다른 곳에서보다 어려웠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던 시절에는 다섯에서 여섯 명 가량으로 구성된 스몰밴드를 조직해 활동했다. 그때는 멤버들의 들어 오고 나감이 잦았다. 멤버 간 의견

부산극동호텔 앞에서 ©박태식

충돌이 생기거나,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쉽게 밴드를 떠나기도 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동료들로는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던 주창완과 홍기성, 해병군악대 출신으로 드럼을 쳤던 김화남, 대구 출신으로 피아노를 맡았던 이재열, 보컬의 이수열, 그리고 이들보다 늦게 합류했던 베이스의 이승호가 있다. 나이트클럽 무대에 섰던 이들 중에는 서울 출신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부산 출신이었으며, 고등학교 악대부나 군악대에서 음악을 익힌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산 해동고등학교 악대부 출신 연주자들이 두드러졌다. 체계적인 음악교육은 고사하고, 교본이나 악보도 구하기 어려워 녹음한 음악을 끝없이 듣고 따라서 하던 시절이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지는 않았어도, 연주 실력만큼은 모두가 수준급이었다.

데오빌로찬양단에서 황혼의 열정을 불태우다

지금껏 미8군 쇼와 여러 클럽을 거쳐 온 박태식의 음악적 생애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찾아왔다. 평생 음악을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아 왔던 그가 기독교로 귀의하게 된 것이다. 그를 교회로 이끈 이는 피닉스호텔 시절의 단골 손님이었던 강형식 목사다. 젊은 시절 조직폭력에 가담했다가 훗날 기독교를 믿고 목사가 된 인물이다. 부산대학교 근처에 데오빌로교회(현 예인교회)를 설립하고 문화운동을 통한 전도에 앞장섰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이나 사회 변두리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했던 강형식 목사는, 단박에 피닉스호텔에서 인연을 맺었던 박태식을 떠올렸다. 예전부터 형님, 동생 하던 친밀한 사이였기에 박태식을 찾아와 찬양대 활동을 제안했다.

강형식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된 박태식은 1990년대 중반, 연극을 하던 홍성모를 비롯해 젊은 시절부터 음악 활동을 이어온 이들을 모아 실버밴드인 '데오빌로 찬양단'을 결성했다. 열여섯 명 정도로 구성된 빅밴드였다. 데오빌로 찬양단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대중음악에서부터 찬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주말이면 광복동으로 나가 버스킹 공연을 했으며, 전국 각지의 교회와 행사장을 누볐다. 2015년에는 SBS 프로그램 <스타킹>(409회)에 '평균 연령 70세 노신사 밴드'

데오빌로 찬양단 광복동 거리 공연 ©박태식

데오빌로 찬양단 단원들과 함께. ©박태식

2015년 노신사밴드 SBS스타킹 출연 ©박태식

로 소개되어 출연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며 찬양단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

찬양단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음악을 지도하고 병원에서 음악치료사로도 활약했다. 부산, 경남의 의사들이 모여 만든 닥터스 밴드 역시 박태식의 지도를 받았다.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부산 엄궁동의 동인노인병원에서 몇 년간 일했다. 정신과가 함께 있는 병원으로 4~5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다. 오전에는 음악치료사로, 오후에는 찬양단으로 활동했다. 그곳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덧 20년은 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활발하게 찬양단 공연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버스킹 공연 도중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1999년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건강하게 회복하고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까지 음악을 이어오던 그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찬양단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평생 음악을 해왔던 그였기에, 트롬본을 내려놓을 순 없었다. 지금도 매주 두 차례씩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나눌락 음악 연

습실 스튜디오'에 가서 트롬본을 연주한다. 아파트에서는 시끄러워서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기에 연습실을 찾는 것이다.

10대 후반에 우연처럼 만난 악기와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은 분명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박태식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연습이다. 여전히 노력하는 그이기에 젊은 시절부터 함께 활동했던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는 "형님이 진짜 최고네요, 여든 여섯에 연습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라는 농담을 던진다. 그의 소진되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트롬본을 잘 부는 비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박태식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요. 연습 밖에."라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미8군 무대를 주름잡으며 한국 재즈와 대중음악의 기틀을 닦은 그의 발자취를 기억할 때, 너무도 심심한 답변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진실하고 우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 또한 그러하지 않을까. "나는 끝까지 불 거라."라는 그의 다짐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미주

1) 「우리도 얘기 거리가 많다오-한돌맞이 스타들 새해 플랜」, 『경향신문』, 1962.01.01, 7면.

2) 이하나, 「미국화와 욕망하는 사회」,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2016, 140~141쪽.

3) 「[금요초대석] 인천시향 50주년… 첫 상임지휘자 김중석」, 『인천일보』, 2016.02.19(검색일: 2023.6.8.).

4)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5) 차철욱, 「한국 분단사와 캠프 하야리아」, 김정하 외 여럿,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2015, 19~20쪽.

6) 류승훈, 「캠프 하야리아와 부산의 상권」,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28쪽.

7) 차윤정, 「캠프 하야리아 인근 마을과 주민」,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34~35쪽. 하야리아 부대의 출입문은 G1, G2, G3, G4 네 개였다. G1은 부대의 정문으로 부산진중학교를 향했다. G2는 체육관 앞에 자리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G4는 주로 보급품들이 들고 났던 문으로 현재 국립부산국악원을 면한 자리다.

8)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탄생과 혁명』, 을유문화사, 2022, 33쪽.

9)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탄생과 혁명』 참고.

10) 김정하, 「캠프 하야리아 밴드 마스터」, 김정하 외 여럿,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124쪽.

11) 김종욱 외 여럿,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73쪽.

12) 차철욱, 「캠프 하야리아에서 미래를 찾은 카투사」, 김정하 외 여럿,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172쪽.

13)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탄생과 혁명』, 29쪽, 장유정·서병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성안당, 2015, 192~193쪽.

14) 「트럭타고 드나든 「8군무대」-가수 최희준씨 회고 미대중문화 유입 통로」, 『동아일보』, 1993.08.19, 13면.

15) 「용역불 중간서 착취-미군 상대 쇼 단체서 부정 밝혀달라고」, 『동아일보』, 1960.02.13, 3면.

16) 박찬호, 『한국 가요사 2』, 미지북스, 2009, 398쪽.

17) 당시 미8군에서 활동하던 이름난 무용수로는 전해남과 전지남 외에도, 나복희, 옥준현, 한익평, 이인범, 조광 등이 있었다(「우리 연예계 혁식에 큰 구실하는 맘모스 연예지대 미8군 '쇼'」, 『조선일보』, 1962.10.10, 5면.).

18) 「재검토해야 할 연예인 해외 진출」, 『경향신문』, 1968.03.23, 5면.

19) 김종욱 외 여럿,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75쪽.

참고문헌

[단행본]

김영철, 『한국 가요 사회사』, 문학바탕, 2021.

김정하 외 여럿,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2015.

김종욱 외 여럿,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박찬호, 『한국 가요사 2』, 미지북스, 2009, 398쪽.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탄생과 혁명』, 을유문화사, 2022.

이영미, 「한국식 팝의 형성과 변화-스탠더드 팝과 발라드」, 김창남 엮음, 『대중음악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2.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이하나, 「미국화와 욕망하는 사회」,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2016.

장유정·서병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성안당, 2015.

[논문]

안민용, 「미8군 무대를 통한 한국 재즈 형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신문출판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정연주, 「1950년대 미8군 클럽 음악과 우리 대중가요의 서구화-문화적 혼종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광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신문 및 보고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인천일보』, 『조선일보』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LP카페 'Radio'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도병찬 ©도병찬

제3장

음악감상실 대타, 부산의 간판 DJ가 되기까지

DJ 도병찬

1981년 11월 KBS부산으로 전근 온 도병찬은 PD로 근무하게 되었다.
부산방송총국 이전 부산방송본부 시절로 당시 라디오 PD와 텔레비전 PD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 PD 업무만 보면 되었다.
도병찬을 대구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이 바로 본부의 원탑인
조창화 본부장. 일본 특파원 출신이다.

1 병찬, LP 소년과 음악감상실 청년

1949년 10월 26일(음력) 서울에서 태어난 도병찬은 이듬해 한국전쟁이 나자 큰아버지가 살던 대구로 가족 모두가 피란을 왔다. 종로초등학교, 계성중학교, 대건고등학교에 이어 영남대학교까지 대구에서 자라고 생활한 그는 서른두 살까지 계속 대구에 있었다.

팝송에 빠진 대구의 LP 소년

도병찬은 초등학교 4, 5학년쯤 바로 옆집에 사는 큰집의 사촌 형과 할아버지가 78회전 SP판을 돌리는 축음기를 듣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LP판들을 직접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초반 유행하던 캐럴이나 영화 음악을 듣게 되었다.

> 할아버지는 물론 옛날 <장타령>, 국악 이런 걸 78회전으로 들으셨고, 내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인 사촌 형은 가요나 팝을 들었는데, 78회전 가요판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문정숙의 <나는 가야지>, 최무룡의 <외나무다리>, 그 당시의 영화 주제가들. 그리고, 닐 세다카, 폴 앵카 이런 노래들을 78회전 축음기로서 그냥 듣게 되었죠.
>
>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집에 낡은 전축이 하나 생겼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 내 돈으로 처음 산 LP판이 60년, 61년, 62년 당시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2인치 LP 레코드가 나올 땝니다. 짐 리브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그런 판을 내 돈으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64년경에 클리프 리처드의 <틴에이저 스토리>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는데, 당시엔 내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였고, 영화 속 음악들이 참 좋았습니다. 제 또래 70대분들은 <더 영 원스>로 기억되는 그 <틴에이저 스토리>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62~163)[1]

우연히 맡은 음악감상실 대타 DJ, 올드팝에서부터 최신 록까지

도병찬은 고등학교 때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 등 본격적으로 팝송을 듣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엔 '시보네'라는 음악감상실을 단골처럼 자주 들락거렸다. 여느 때처럼 '시보네'를 들른 1971년도 여름방학 때, 휴가를 간 DJ를 대신해 2주간 보조 DJ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는 무료입장이라는 혜택이 너무도 크게 느껴진 나머지 기쁘게 응했다.

> 그 DJ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가끔 찾아오는 단골손님 중에서 음악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좀 만만해 보였던지, 2주만 사람이 모자라니까 보조 DJ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로서는 공짜로 음악감상실을 들어갈 수 있어서 응했는데, 결국, 이 DJ는 2주간의 휴가라기보다는 사실 스트라이크를 했었고, 6개월 동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음악감상실을 이끌던 메인 DJ인데, 6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그만두고 해서 그때부터 멘트도 배우고 음악감상실 DJ를 했었습니다. (163)

1950년대 말에서 60년쯤 생겼다는 '시보네'는 12인치도 아닌 10인치 LP나 45회전 도넛 판이 많아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의 음악들이 주를 이루는 그야말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찾는 한물간 음악감상실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 최신 팝이 흘러나오던 AFKN과는 차이가 커서, 또래 DJ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올드팝을 많이 습득하게 된 계기가 된 셈이다. 훗날 방송국에 입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어 1973년부터 도병찬은 서울의 유명한 '내쉬빌' 음악감상실에 있는 오디오와 스피커, 또 음반들을 그대로 대구에 가져온 '올림푸스' 음악감상실에서 약 1년 반 일하게 되었다. 이곳은 최신 록, 포크, 사이키 음악을 원판으로 틀어주는데, 70년대 가장 유명한 JBL스피커 중 크기가 장롱만 한 명기, '올림푸스 람사'를 메인 스피커로 사용해 감상실 이름을 올림푸스로 했다고 한다. '시보네'에서 올드팝에 대한 많은 기본 교양을 쌓았다면, '올림푸스'에서는 최신 음악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음악실은 주인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신성루'라는 유명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 출신의 아들인 '하사장'이었고, 한 명은 대구에 저하고 먼 친척뻘 되는 동신전자라는 대구의 오디오 전문가 '김정수' 씨. 두 분 다 이름 기억하네. (중략) 거기서 주로 외국인, 특히 미군들, 그 미군 장교들의 자녀들, 대구에는 아메리칸 스쿨이 있었는데, 그쪽들이 애들이 장발로 많이 오고 해서 약간 히피족에 본거지처럼 생각되는 그런 음악감상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레드제플린이니 비틀스니 레너드 코헨이니 그런 음악들이 초창기에 빽판이 아니고 원판으로 바로 듣고 해서 말하자면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감상실 하면 서울에 내쉬빌, 대구에 올림푸스 음악실, 이렇게 불렸기도 했었습니다. (164~165)

2 전문 DJ의 길로

아마추어 DJ, 음악작가로 라디오 프로 입성

'BBC FM'으로 약칭됐던 한국FM방송은 1973년도 당시 개국한 지 2년쯤 되는 라디오방송국으로 <캠퍼스 DJ>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송반 학생들이 원고를 쓰고 DJ를 맡아 진행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신인 DJ 양성을 위해 만든 코너였다. 대구에서 PD 겸 DJ로 유명한 김진규가 올림푸스에서 일하던 도병찬을 찾아 그 프로에 한 번 출연하게 되었는데, 출연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개편 이후 폐지되었다. 이어 <리듬 퍼레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요즘의 음악작가라 할 수 있는 '스크립터'로 일하게 된다.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 스타일보다 음악감상실 DJ니까 조금 DJ처럼 느껴졌는지 선곡도 좋고, 멘트는 엉망이었고, 당시로써 좀 박력은 없지만 그래도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매주 바뀌는 그 캠퍼스 DJ 프로그램을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 달에는 다른 사람이 펑크를 내거나 섭외가 안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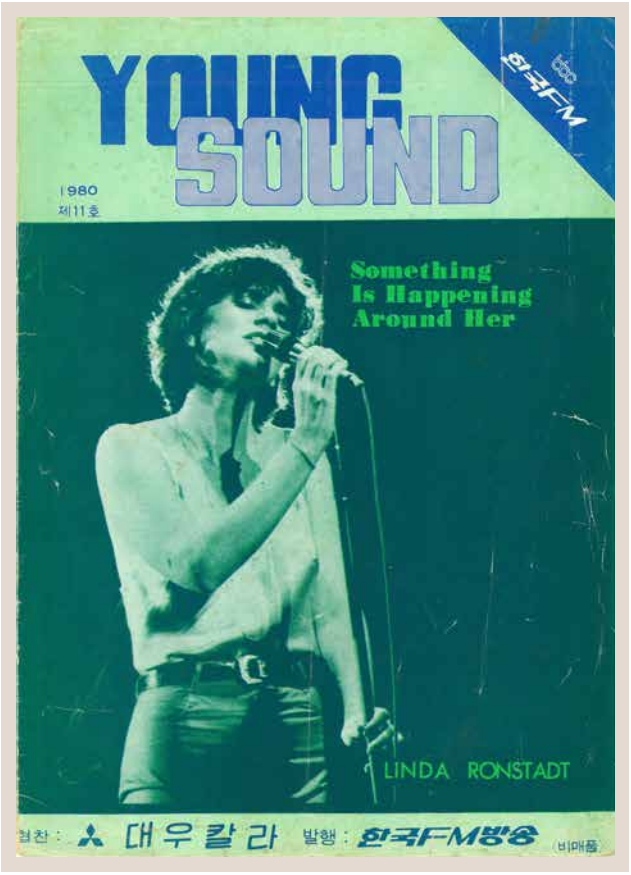
면 하게 되고 결국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중략)

73년도에 스크립터로 제가 그때 일본어는 잘 모르고 말은 못 하지만 일본 잡지나 음반에 한자와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일본 잡지와 음반, 이 한국FM방송에 있는 많은 자료들은 이광영이라는 분의 개인 소장품인데, 이 분은 대구에서 '코스모스'든가 '에코'든가 그 대구에 가장 유명한 오디오숍을 하시던 분인데, 오디오 애호가로서 PA 시스템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처음 그 세계적으로 처음 생기던 FM방송을 개인이 차린 거죠. 사실은 음악감상실에 송신기를 단 게 FM방송이거든요. 요즘처럼 방송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음악 그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그럼 DJ 두 명이 맞교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언덕 위의 집에서 방송을 하는 게 영화에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FM방송에 초기에 기본적인 형태로 하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일본 음반이 8,000장 그리고 책도 몇백 권 있고 해서, 어쨌든 <리듬 퍼레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작가를 하면서. (165~166)

<리듬 퍼레이드>는 월요일 '아르헨티나 탱고', 화요일 '콘티넨털 탱고', 수요일 '라틴', 목요일 '샹송', 금요일 '칸초네'와 같은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 음악들을 소개하였다. 도병찬이 멘트를 쓰면, 아나운서가 읽고 PD가 음반을 거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작가 일을 하면서도 '올림푸스' 음악감상실을 비롯해 다른 감상실이나 대형 음악다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방송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김진규가 본인이 진행하던 <영 사운드>라는 프로그램을 맡겼다.

라디오 DJ의 시작, 한국FM방송 <영 사운드>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던 <영 사운드>는 도병찬이 1978년까지 4, 5년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시그널 음악도 없이 바로 첫 곡이 나간다든지, 광고가 있긴 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하기 힘든 7, 8분이 넘어가는 대곡들을 거리낌 없이 틀었다.



한국FM Young Sound (1980 제11호) 표지 ©도병찬

나중에 90년대 전영혁이나 성시완 씨 프로그램의 원조쯤 되는 스타일의 프로그램이었죠. 70년대가 팝 음악에 정말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올 때잖습니까? 당시 '대구의 음악이 전국에서 가장 세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대구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AFKN 방송이 동네 일부 지역만 들렸지만, 대구는 AFKN 방송이 대구 어디에도 잘 들리고 FM방송이 한국FM도 그렇고 FM방송이 어디에서나 잘 들렸습니다. 대구 AM도 마찬가지로 라디오 방송이 참 잘 들리는 곳이 분지니까. 그래서 대구에 팝 좋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AFKN을 듣는 분위기니까. (167)

당시 『월간 팝송』이라는 음악 잡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서울 다음으로 대구였다고 한다. 인구 비례로 보면 대구가 단연 1등이었다. 잡지 안에 들어 있는 엽서를 보내면 추첨 후 상품을 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쓰면 취합해 순위를 발표하기도 했다. 항상 1위가 AFKN이고, 박원웅, 이종환, 김기덕 등이 진행하는 서울 쪽의 프로그램들이 뒤를 이었다. 서울 프로그램들이 두세 명 진행자로 표가 갈렸다면, 대구 쪽 청취자들은 단연 최신 팝 음악을 들려주는 도병찬 진행의 <영 사운드>와 그 후속 프로그램이었던 <7시의 골든 팝스> 쪽으로 몰표를 던져, AFKN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979년도쯤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두 시간짜리 심야 프로그램인 <굿나잇 리퀘스트, 밤의 음악실>도 맡았는데, 선배 DJ 김진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또 이어받은 것이다. 김진규가 도병찬에게 <영 사운드>를 물려주면서 <굿나잇 리퀘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했고, 나중에 가요 프로그램 쪽으로 떠나면서 이 심야 프로그램을 또 넘기게 된 것이다.

한국FM방송, 사장 이광영과 이무일

1979년부터 80년 5·18까지 서울의 봄, 당시 전국적으로 노동운동과 같은 소요로 전국이 얼어붙었다. 한국FM방송을 설립한 이광영 사장은 이때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FM방송이지만, 운영을 위해 사채를 끌어 쓰게 됐고, 그 결과 따로 갖고 있던 오디오 가게와 다른 사업까지 넘어갔다. 방송국마저 넘어갈 위기, 이를 막을 많은 자금을 대준 사람이 이무일이다. 그는 당시 대구에서도 큰 기업이었던 무림제지의 사장이면서 서울의 유명한 피카디리 극장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무일은 곧 한국FM방송을 인수했다.

FM방송 안에 보도국을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기자가 다니고 하려면 기자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증 없는 기자를 써.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국FM방송이다 하면서 기자라고 다니니까 언론사로 인정을 받거든.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시장이 단상 1단에 있고, 고 밑에 언론사들이…. 부산으로 치면 부산일보 기자, 부산일보 사장, 국제신문 사장, KBS, 요즘 같으면 KBS가 제일 위지. KBS, MBC 사장이 요래 쭉 있잖아. 그럼 고 같은 라인 끝에 민간 FM방송 사장이 딱 있는 거라. 그래 그 맛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편의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고 광고도 열심, 광고국 독촉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 FM방송으로서 광고가 MBC보다 많이, 그때는 AM이 돈을 벌 땐데, 이게 통폐합 돼가지고 그대로 뺏긴 거지. 뺏긴다는 게 어땠냐면 이 가치가 10억대다 그러면 한 5억 주고 요걸 또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거라.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고 5억을 5년 동안 매년 1억씩 받는 이런 식인거지. 이 사람도 드러누웠지. (176)

1975년 범어동 신사옥 준공에 이어 1977년 팔공산 TV송신소 증축 등으로 대구MBC는 1970년대 중·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도 대구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FM방송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FM이 없는 대구MBC에는 대신 TV쪽에 도병찬과 아는 선배 PD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TV에 나가는 음악을 LP로 틀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별도 작곡을 하지 않고 기존의 여러 음악을 섞어 틀기도 했는데, 그 선배 PD들이 음악을 빌리기 위해 도병찬을 자주 찾아왔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부탁을 받은 그는 한국FM방송에 있는 많은 음악 자원들을 활용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최고의 장기를 발휘하여 릴에 녹음해주었다. 그러면 그 음악들이 대구MBC의 TV와 AM에 배경음악이나 시그널음악으로 고스란히 나가는 것. 대구MBC의 PD들에게는 최고의 VIP 고객이 아닐 수 없었다. 제대로 된 음반 자료들을 갖추지 못했던 대구MBC가 한국FM방송을 인수하려는 분위기, 그리고 본인의 스카우트 얘기가 오가고 하는 것을 알아챈 도병찬은 이직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한구석에서 부풀고 있었다. 그러나 이무일 사장의 작은 욕심이 독이 되었을까? 조금 더 협상 금액을 올리는 과정에서 언론통폐합이 돼버려 모든 것이 물거품 돼버렸다.

마지막 방송, 1980년 11월 30일 밤

1980년 11월 30일 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한국FM에서의 마지막 방송이 되었다. 당시 대구MBC에 방송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선성치, 동기이자 친구인 김진우, 매일신문 기자, 영남일보 기자, 몇몇 시인 등 문화계 반골 7, 8명이 자주 어울렸는데, 도병찬의 그 마지막 방송을 이들은 선성치의 집에 모여 듣는 것이다.

'우리 듣고 있다'. 근데 그 앞에 계속 국장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라고. 울먹이면 안 된다. 방송할 때도 옆에 와서 처음엔 녹음하라는 거라. 맨날 생방하는데 녹음하는 게 엔지니어 딱 이렇게 시간도 안 맞고 이래가꼬 생방하는데. 내가 그때 좀 반골적이다 생각했다면 생방 안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방송국에 출입하는 장교가 있었어. 20대 후반, 30대 초반. 큰 방송 아닌 작은 방송이니까. 그때 검열을 받았어. 원고 모두 이런 보도 기사를 맨 마지막에는 소위 장교들 중위, 대위, 소령 요런 정도 사람들이 읽고 도장 찍어 줘야 방송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 근데 작은 방송이니 계급 낮은 사람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지만 보면 알지 팝송 이런 거, '아 내 이 노래 좋아하는데'. 내가 결재받으러 가면 지가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고. 왜냐면 지가 비슷한 또래니까, 평소에 방송 듣던 사람이라.

하여튼 생방을 했는데 내가 시를 한 수 평상시하고 똑같이 한 거라. 그냥 마지막 곡은 레드제플린의 <Babe I'm Gonna Leave You>를 한거지. 결국은 그때 한창 그 노래가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고, 즐겨 하는 게 있잖아, 그 곡에. 이제 한국FM방송이 없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같은 92.7로 광고도 없어지고. KBS FM으로 방송한다 이런 얘기, 약간 사무적으로 하고. 근데 노래 중간중간하고 엽서 사연은 있었어. 그래서 고 앞에는 깔고, 내가 <밀리터리 매드니스(Military Madness)>를 함 튼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노래 소심하게 '밀리터니 매드니스 킬링 마이 컨츄리 투 머치 새드니스 커밍 오버 미' 가사가. '밀리터니 매드니스 킬링 마이 컨츄리'. 운이 맞잖아. '투 머치 새드니스 커밍 오버 미', '군대 광기가 나라를 죽이고 너무나 많은 슬픔이 내게 덮쳐 온다' 뭐 그런 가사. 그

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상한 놈이라 그럴 건데 그 노래 틀긴 틀었지. 소심한 반항.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알아들어도 그냥 노래 가사가 그러니 하면 뭐. 노래 가사 앞부분이 그렇거든. 그다음에 경쾌하고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방송했던 기억이. (174~175)

언론통폐합, 불편과 불만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한국FM방송이 그해 12월 1일부터 KBS FM이 되면서 라디오 진행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국내 판이든 외국 판이든 새 음반이 발매되면 시내 레코드 가게에서 먼저 판을 가져오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어 최신 팝송을 재빨리 소개할 수 있었다면, KBS에서는 불가능했다. 먼저 필요한 음반 목록을 신청하고 결재라인을 통해 총무부에서 승인해준 한 곳에서만 거래하다 보니, 신청 후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하는 것이었다. 언론통폐합 되고 한 달쯤 뒤, 도병찬과 가끔 점심으로 만나던 한 신문사 문화부 기자와 또 점심을 먹으며 음반 구매와 라디오 진행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더니, 그 기자도 그들이 좋아하던 한국FM방송을 KBS에 뺏겼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걸로 도병찬은 KBS 내에서 눈 밖에 났다. 방송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바깥에 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찍힌 것이었다.

또 매일 밤 생방송을 했는데, 11시에서 1시까지. 집은 가까운 동네에 살았지만 9, 10시에, 늦어도 12시에는 출근을 해서 근무하다가 한 5시쯤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연성 있게 근무를 했는데 2층에서 국장이 내려다보면 남들 다 출근하고 아침 10시, 11시나 되어서 쓱 오는 거 같은데 5시쯤 되면 나가는 게 보이는 거라. 사실 9시나 10시 되면 다시 와서 또 밤 1시까지 생방송을 하는데, 물론 그런 걸 통폐합됐으니까 그때 한국FM방송에서 방송부장하던 사람이 근무 형태를 보고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언론통폐합 한 그해 12월 8일에 존 레논이 죽고, 12월 중순쯤 대구에 큰불이 났었어요. 그래

KBS부산 음반자료실에서 CD를 고르고 있는 도병찬 ©도병찬

서 TV, 라디오 전부 보도 파트하고 국장 위 간부들이 비상으로 방송국에 나왔는데 국장이 내가 11시 넘어 방송하고 있으니까 TV에 특보 방송하며 서울에 연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말이 "아 이 프로그램 생방이었네, 생방이면 매일 해요? 아 그럼 자넨 매일 밤에 나왔네! 그럼." 한 달쯤 방송이 다 돼가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아, 이거 정말 언론통폐합이라는 게, KBS 공영방송이라는 게, 아 나는 이거 민간 방송 체질이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169~170)

KBS 내 계급

한국FM방송뿐만 아니라 동양방송, 동아방송, 군산FM, CBS 등 전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KBS에 흡수되었다. 입사 동기만 1,000명이 넘었다. 전 직장에서 정산 후 퇴직금을 받고, 기존에 받던 월급과 군복무 가산 등을 계산해서 호봉을 책정받았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었던 한국FM방송 출신이라 KBS에서 그의 새 호봉은 초라했다.

> 서울 KBS에 본관이 있고 별관이 또 있어. 별관이 뭐냐면 동양방송 시설(이었지). 그걸 뺏기고 이병철 회장이 그 별관 앞에서 (대리석 기둥을) 쓰다듬으면서 울었다고 하잖아. 그 멋지게 지어 놓은 건물 그대로 뺏겼으니까. 그런데 그때 뭐랬냐면 그 KBS가 계급제도가 생긴 거라. 전까지는 KBS가 국영방송이었거든. 방송국이었어. 우리가 방송국, 방송국 하는 게 방송'국'. 총무국. 영업국. 이런 식. 그러니까 문화공보부 내에 문화관광… 그때는 문화공보부라. 문공부 내에 KBS 전신인 중앙방송국이 있고, 방송국 국장 밑에 과장이 있고 '방송과'… 그랬는데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보니까 똑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KBS에 있었던 사람은 그 옛날 공무원 월급 받은 거잖아. 동아방송은 그냥 동아방송 했지 '국'이 아니고. 동아방송이나 동양방송, '사'지 회사니… 민영회사. 동양방송은 민간 기업체로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그게 100이라. 동양방송이 100쯤 되면, 동아방송은 95쯤 되고, KBS는 70쯤 된다. 그러고 내가 다니던 한국FM방송은 거의 60쯤 되는 거라. 같은 경력이나 또래라도 그렇게 차이 나는 걸, 이걸 쪼금씩 메꿔주기도 했지만, 동아방송이나 동양방송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력이나 월급은 더 많으니까 일종의 특권처럼 있고. KBS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동양방송이나 동아방송도 자기들이 성골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CBS나 이런 민간 방송(에서)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린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다'. 그런 정도로 차이가 있었죠. (172~173)

TV는 동아방송, 동양방송, KBS가 있었는데, 동양방송은 기자가 적었고, 같은 신분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따오는 KBS가 보도에는 힘이 있었다. 동양방

송, 동아방송 출신들은 통폐합된 날을 뺏긴 날, 마치 국치일로 여기는 문화가 1990년대까지도 있었다. 또 매년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이 되면 KBS 보도국 내의 동양방송 출신들은 퇴근 후 저녁에 자기들끼리 하나둘 따로 모여 술 마시며 KBS를 안줏거리 삼는 자리도 많았다. 드라마는 강부자 등 배우들이 나오는 동양방송, TBC가 인기가 높았는데, 언론통폐합 통보를 받고 마지막 방송하는 날 분위기와 감정으로 울컥하거나 펑펑 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잘렸다.

부산으로 강제 동원

1년쯤 지난 1981년도에 KBS부산에서 FM이 생겼다. 서울의 동양FM, 대구의 한국FM방송, 군산FM보다 뒤에 부산MBC에서 FM이 생겼는데, 그보다 늦은 것이다. FM방송 경험이 있는 음악PD가 부산에는 없다 하여 대구에 있는 여러 FM방송 PD 중 지목된 도병찬이 투입되었다. 11월 어느 금요일에 통보받고, 월요일에 출근했으니, 본인 의사는 필요 없었다. 전두환 독재 시절이니 한밤에 비상 걸리면 다 뛰어나가듯 군부대 문화가 KBS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부산은 이전까지는 가끔 놀러 온 곳일 뿐, 일로는 처음이었다. KBS부산이 초량동 시절인데, 연산로터리 쪽에 집을 얻었다. 어차피 전세라 가까운 곳으로 얻어야 하는데 지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멀리 출퇴근했다. 당시 그는 대구에 방송국 부근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정신이 없었다.

> 한국FM방송도 했지만, 민간 방송이라 음악감상실, 음악다방에 (요즘으로 치면 약간 준스타니까, 대구에는 스타가 없으니까) 오픈하면 6개월 계약하고 얼마 받고 가서 매일 한 시간씩 하고 그런 식으로 음악다방에 메인 DJ로서 또 사람 쓰고, 또 당시 표현으로는 가께모찌[겸직]를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서 사실 수입이 좋았죠. 그래서 집도 사고 했는데, KBS로 통폐합되고 나서 방송 말고는 못하게 된. 그 아파트 전세 놓고 이쪽에서도 전세를 할려니까 결국은 멀리 가게 된 거라. 우리 집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좀 어리니까. 우리 큰애가 망미유치원에 다녔는

데… 그러고 1년은 광안리 '광천연립'이라는데 거기서 그때는 내가 애들 바다 가까운 데서 한번 살게 하고 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1년은 일곱 살 때, 요럴 때는 새카맣게 해가지고 광안리 바닷가에서 놀고 멸치 비린내 나는, 옷에 비린내 나고 그렇게 광천연립에 1년 살았죠. 바닷가에서. 그다음에 고관아파트에서, 초량 KBS하고 같은 담을 쓰는, 바로 옆에 KBS 마당이 내려다보이는. 거기에 몇 년 살다가 86, 7년? 현대아파트 처음 지었을 때, 민락동 현대아파트. 인제 남천동에 KBS 옮겨오니까 (170~171)

다시 DJ, <팝스 891>

1981년 11월 KBS부산으로 전근 온 도병찬은 PD로 근무하게 되었다. 부산방송총국 이전 부산방송본부 시절로 당시 라디오 PD와 텔레비전 PD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 PD 업무만 보면 되었다. 도병찬을 대구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이 바로 본부의 원탑인 조창화 본부장. 일본 특파원 출신이다. KBS의 사장이었던 이원홍도 70년대 도쿄에서 한국일보 일본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다른 신문사의 특파원 중 한 명이 조창화였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아주 친한 사이라 KBS로 불러 부산방송본부 본부장을 맡게 한 것. 이원홍 사장은 KBS를 일본 NHK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 현재의 KBS부산 사옥도 NHK를 설계한 사람이 똑같이 설계했다.

우리나라에 NHK의 여러 가지 방송 형태를 KBS에 옮긴 사람이 바로 이원홍 씨입니다. <전국노래자랑>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서 민간 방송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KBS가 그냥 국영방송 스타일이 아니고 민영 방송과 경쟁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조창화 씨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내가 부산에 81년 11월에 왔으니까, 82년, 83년 이 당시의 조창화 국장은 KBS에 그전에 없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양방송 출신의 왕종근 아나운서를 스타로 만들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타이틀 프로그램,

그리고 <팝스 891>에서 또 KBS1라디오에 팝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일본 스타일의 방송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TV도 뭐 <11시에 만납시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인데 그런 타이틀 또 일본 스타일의 프로그램이 참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 보고는 FM방송 말고 그때 제가 젊을 때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 해서, 라디오를 했고 (……) 제가 부산 오면서 제가 PD 겸 DJ였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PD로서 그때 DJ 프로그램에 이제 그냥 PD로서만 있었고, 또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맡아서 하다가, 했는데, 1년쯤 지나서 82년 가을 개편 쯤 됐을 때, 조창화 국장님 저를 불러서 당시에 조창화 국장하고 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야구 캐스터였던 이규영 아나운서라고 그분이 부산에 왔었다가, 그분이 대구에 있을 때도 저를 좀 아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도병찬이가 부산 가고 나서 대구에 항의 전화 많이 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 왜 그런지 모르니까, 아 대구에서 유명한 DJ였다, 심야 프로그램 DJ였고, 팬이 많은 사람인데, 부산에서는 뭐 잘하고 있냐, 이래 물으니까, 아 그 친구 DJ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이래 가지고, 불러 가지고, 당신 옛날에 유명한 대구에선 좀 유명한 DJ였다면서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라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도 모자라고 해서 직접 진행하게 된 게 몇몇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때 <팝스 891>이라는 1라디오에 2시반부터 4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나? 90분짜리 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PD를 하다가, PD하고 DJ를 썼는데 DJ가 그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방송국 그만두고 제주도로 옮겨 버렸거든. 그래서 바람에 방송 프로그램이 펑크가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진행하게 된 거죠. AM 891 kHz. (178~179)

<팝스 891>. 제법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아직은 FM보다 1라디오, AM을 많이 들을 때였다. 자동차에서도. 도병찬은 FM에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짜리 팝 프로그램과 동시에 <팝스 891>을 6개월간 3시간 반을 한 적도 있다. 2시간 녹음, 90분 생방송. 그러다 <팝스 891>은 다른 DJ들이 맡게 된다. 부산 청취자들은 알만한 한 강진, 이창환, 전종현,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도로 옮긴 박경주. 부산무아음악실과 같은

KBS부산 라디오 진행 중인 도병찬 ©도병찬

곳의 쟁쟁한 DJ들까지, 많은 이들이 KBS를 거쳐 갔다. 이길영, 김혜진…. DJ를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PD를 하고 있으면 당장 목소리가 안 나오니 청취자들은 그가 잘린 줄 알곤 했다. 사실 프로그램 뒤에서 계속 제작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개편 시즌이 되어 예산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DJ를 그때그때 구할 수 없을 때는 그가 다시 DJ로 복귀하고 또 청취자들은 그가 다른 도시에 갔다 온 것으로 알기도 했다.

> 이렇게 생각해서 엽서에다가 'DJ님, 부산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엽서를 받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 PD 겸 DJ를 하니까 프로그램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못 하고 프로그램 개편이 되면, 1라디오로 갔다가 2라디오로 갔다가 뭐 헤매기도 했고. 84년부터 또 몇 년간은 FM방송은 <4시의 뮤직박스>란 거 하고. <저녁의 멜로디>란 것도 하고 7시에. (180)

왕종근과 함께 <타워 스튜디오>

재치 있는 왕종근 아나운서가 MC를 맡고 그가 PD를 했던 <오픈 스튜디오> 또는 <타워 스튜디오>라는 타이틀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 있었다. 2시 20분부터 매일 용두산공원 팔각정에서 하는 공개방송으로 가수들이 지방 밤무대 내려오면 낮에 들러 인터뷰와 노래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부산에 나이트클럽이 많을 때라 일주일에 두세 명씩 가수들이 자주 출연했다. 왕종근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TV에서는 <퀴즈로 배웁시다>의 진행자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타워 스튜디오> 코너 중간의 퀴즈 게임에서는 젊은이들이 공개방송에 와서 2대2로 문제를 풀면 상금을 주었고, 통기타 스테이지에서는 수요일, 금요일 등 일주일에 두세 번 부산 각 대학의 통기타 동아리들이 출연했다. 1984년에서 1986년 사이 '부산 캠퍼스 뮤직 서클, BCMC'라고 불리는 이 부산지역 통기타 동아리들의 연합 서클에 당시 BCMC 회장을 하던 경성대 출신의 이경재를 통해 모두 연락을 취했다.

> 지금은 부산에 좀 잘 알려진 건축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경재 이 친구가 동의대 '모두', 경성대 '에코', '여운', 부산에 각 대학 서클에서 팀들이 와서 '어우러기', '바다새', '높은음자리', 이런 팀들이 다 KBS, 부산KBS 1라디오에 오픈 스튜디오 공개방송에서 관중들, 방청객 뭐, 2, 30명밖에 안 됐지만. 거기서 생방송으로 노래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주말에 거기서 녹음, 한 달에 한두 번씩 출연하고 이렇게 해도 녹음하던 팀들이 서울 올라가서 대학가요제에서 상 받고 내려오고. 그 팀들 이야기로는 '아 우리야 다른 팀들은 방송 경험이 별로 없고 자기들 동아리방에서만 연습만 하다 올라갔는데 우린 이 방송에 자주 출연해가지고 방송은 경험이 많아서 안 떨렸다.'고. 그래가 한때 80년대는 부산에서 계속 부산에 통기타들이 몇 년 동안 '작품하나'. 뭐 여러 팀들이 계속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81)

한병창과 함께하는 노래 교실 <싱얼롱>

이 공개방송은 팔각정에서 서면의 대형 업소인 '시티 라이프'로, 이어 '도레미문화센터'로 옮겼다. 여기서 만든 코너가 방청객들과 함께 노래하는 <싱얼롱>이다. 당시 초량동 KBS 옆에 있는 부산YMCA에서 노래 지도하던 한병창을 섭외했다.

> 한병창 과장하고, 이수진이란 여자분, 두 사람을 <싱얼롱>으로 모셔서 거기서 프린트해서 가사 갈라주고[나눠주고] 노래하고 했는데. 그 한병창 씨가 후에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되고 부산MBC에 방송 MC가 되고, 부산 내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선생님으로 자랐죠. 한병창 씨가 당시에 <싱얼롱> 할 때 항상 하던 얘기가 '아 내가 앞으로 종거이 형님처럼 좀 유명해졌으면'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왕종근 씨보다 더 유명한 부산에 명MC, 그 노래 선생이 됐죠. 병창. 독창이 아니고 병창이니까. 한병창. 80년대 부산에 그런 문화를 이끈 사람 중 하나가, 부산은 노래교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이끈 사람이 한병창 씨고, 그리고 요즘도 가끔 전화 옵니다. KBS 1라디오가 그런 면에서는 공개방송 매일 하고. 물론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했지만….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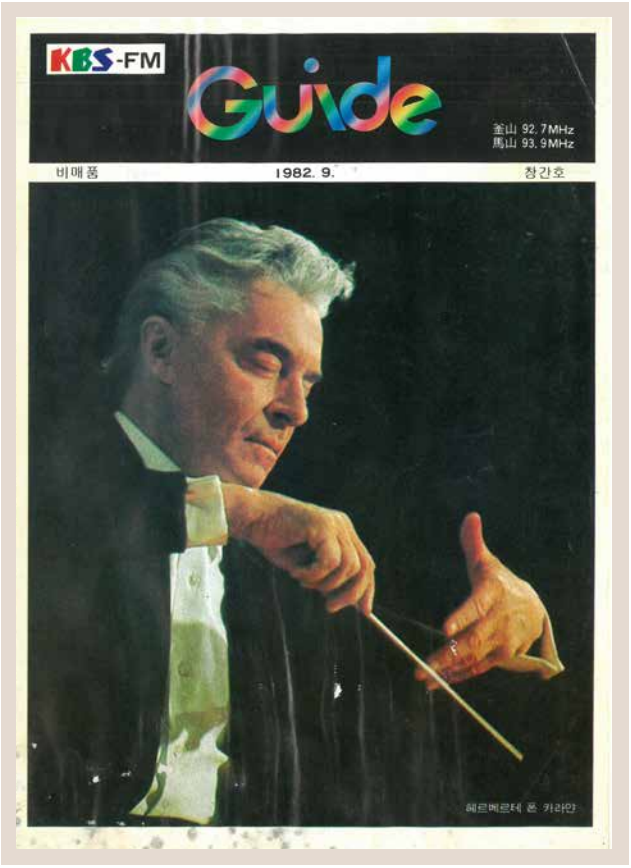
서울 TBC에서 하던 <장수만세>로 TV 쪽은 KBS가 괜찮았지만, 라디오는 초량동 공개홀의 여건이 열악해 부산가톨릭센터를 빌려 매주 공개방송을 하는 등 좋지 않았다. 반면, MBC 라디오는 '쌔미'라는 애칭으로 불린 유문규가 가장 유명한 DJ로 MBC 로컬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면서 인기가 있었고, 클래식 쪽으로는 곽근수 PD가 <목요음악감상회>라는 FM 클래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당시 MBC FM이 청취율이 가장 높았다.

PCM 도입, 전문적 음악 방송

1986년경 KBS 2라디오가 개국했다. 1라디오는 서울에서 직접 받아 방송하고 중

간중간에 로컬 방송을 했지만, FM은 서울 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서울에서 방송하면서 녹음을 해두었다. 1FM은 클래식, 이전 TBC FM이었던 2FM은 팝, 이렇게 두 FM에서 방송되는 것 중에 지방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은 릴 테이프에 녹음해서 몇 상자가 되는 일주일 치를 대구, 광주, 대전 등 갑지국으로 보내면, 그 테이프를 받아 일주일 후에 방송이 나가는 것이었다. 시차가 어긋나지 않게 편집을 하는 것이 도병찬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였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의 부산시민회관 뒤쪽에 있던 범일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KBS 차량으로 받아와 편집 후 시간에 맞춰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다 1986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인 PCM(Pulse Code Modulation, 펄스 부호 변조) 방식으로 방송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이 부산까지 바로 올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부산에서 하는 방송이 울산과 창원까지 가게 되면서 로컬 방송의 권역이 넓어지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창원과 울산의 청취자들이 엽서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오는 중앙 방송은 주로 클래식 프로그램이었고, 팝과 가요 프로그램은 로컬이 대부분이었다.

>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라든가 또는 일주일 후에 방송되는데 그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말한다거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멘트 하면 일주일 후가 되니까 새해에 그게 나가잖아. 그런 걸 다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는 게 FM PD가 할 일 중 하나였는데. (중략)
>
> 당시에 KBS FM하고 MBC FM이 (MBC FM은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클래식 하고, 나머진 전부 팝 프로그램과 가요 프로그램을 했었고) 서로 경쟁이 됐는데, MBC는 광고도 붙고 이러니까 상당히 대중적인 거, 그래 KBS는 광고 없이 또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서울 본사보다 더 좀 전문적인 방송, 긴 곡도 많이 틀고. 팝이든 가요든 좀 다른 데서 잘 안 트는 거 많이. 청취자 청취율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청취율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틀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그때 음악 좀 좋아했던 사람들은 KBS 고정시켜 듣고 그때 통해서 뭐 음악적으로 많이 알게 되고 지식도 많이 알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183~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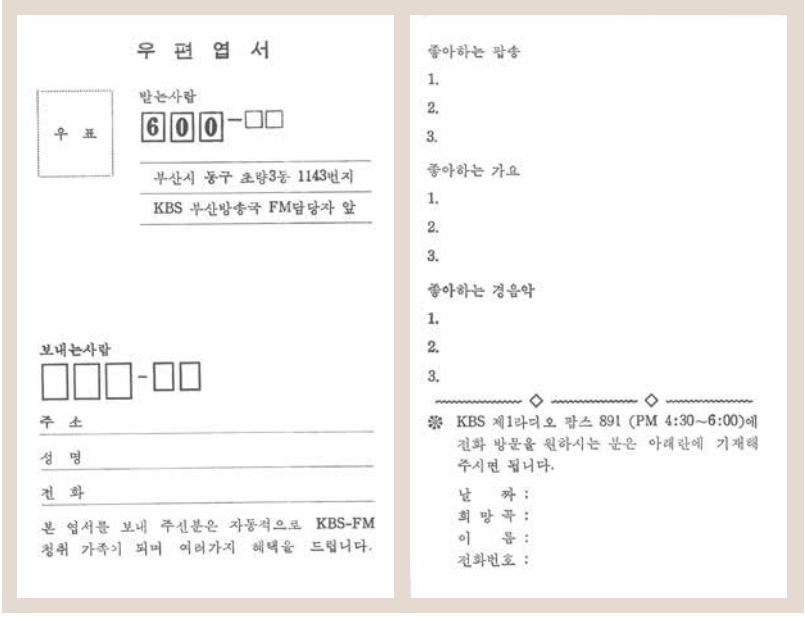
KBS-FM Guide 창간호 (1982.9) 표지 ©도병찬

부산의 음악 가이드 『FM 가이드』

당시 MBC, KBS에서 FM 강의를 하는 소책자를 만들었고 KBS 것이 반응이 좋았는데, 바로 『FM가이드』였다. 물론 『뮤직 라이프』, 『스윙 저널』 등 직접 비싸게 사온 일본 잡지들의 사진을 오려 인쇄소에서 편집하고, 최신 글을 번역하는 수준이었지만, 앨범 가이드, 팝 이야기, 클래식 이야기 등을 넣었다. 『월간 팝송』이나 『핫 뮤직』은 『FM가이드』에 실렸던 내용들이 한 달 후에나 겨우 나오기도 했다. 많을 때는 7만 부 정도. 영광도서 등 부산의 유명한 서점, 명성 레코드, 지성 레코드. 빵집 등의 광고를

신고, 광고주들한테 1,000부, 2,000부씩 배부했다. 문예도서, 영광도서에서는 1만 부씩도 요구했다. 한 번 읽고 버리지만, 무료에다 가게를 들락날락한 사람은 다 가져갈 수 있으니 하루에 1,000부씩도 나갔다. 엄청난 방송 홍보가 된 것.

CBS부산도 록, 팝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부산에 음악 듣는 사람들이. 그때는 중계소, 송신소가 영도에 있었어요. 난청 지역이 정관, 기장 이런 데 있고. 엽서를 받았고, 83년돈가 KBS에서 이산가족 방송 또 며칠 했었죠. 한 달 넘게 했을 때, 초량동 주위에 사람들 오고, 서울 TV하고 서로 연결해가 맞다 맞다 그러고 그땐 방송 안 하고 그거만 했었던 기억이 있고. 2라디오가 생겼는데, 해피FM에서 97.1MHz로 FM 채널로 서울의 옛날 동아방송이 2FM, 4시 프로그램을 정민이라는 DJ가 했었는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185)



우 편 엽 서

우 표

받는사람

600-□□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3번지

KBS 부산방송국 FM담당자 앞

보내는사람

□□□-□□

주 소

성 명

전 화

본 엽서를 보내 주신분은 자동적으로 KBS-FM 청취 가족이 되며 여러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팝송

1.

2.

3.

좋아하는 가요

1.

2.

3.

좋아하는 경음악

1.

2.

3.

※ KBS 제1라디오 팝스 891 (PM 4:30~6:00)에 전화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날 짜 :

희 망 곡 :

이 름 :

전화번호 :

FM Guide (제6호) 내지 엽서 ©도병찬

3 문화 1번지, 부산

'평화의 댐' 모금 운동 앞장선 클럽 DJ들

서면의 '스튜디오 54', '스타워즈', '부르스타' 등 80년대 중반 디스코 클럽이 유행했다. 도병찬이 PD를 맡은 오후 4시 팝 프로그램에 인기 있고 수입도 좋은 이런 유명한 클럽 DJ들을 매주 한 명씩 불러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디스코 클럽식으로 믹싱을 해서….

> 보니엠 <써니> 4분짜리 같으면 클럽 DJ가 그걸 6분짜리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부산에 유명한 디스코클럽, '다운타운'이니 '랄릭'이니 하여튼 해운대 호텔에 디스코클럽 DJ들하고 친해 많이. 동생들이 돼가지고. 걔들을 모아가지고 '평화의 댐'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잖아. 그때 그 DJ들이 자기들 팬들 오게 한때 표 팔아가지고 토요일 낮에 클럽을 빌려갖고. 모금 운동하면서 600만 원인가 엄청 많이 벌었어. 걔들이 굉장히 티켓 마케팅을 잘하는 거라. 왜냐면 자기 팬들이 당시에 뭐 2, 3만 원씩 받았는데 10장, 20장씩 팔고. 부산에 디스코 DJ들이 그냥 날라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기야. 걔들 중에서 그런 걸 할 때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물론 뭐 당시로써는 전 국민이 다 그래 할 때지만. '평화의 댐' 모금 행사 연말에 '사랑의 열매' 이런 거 할 때, 디스코 DJ들하고도 나하고 참 많이 어울리고 했었고. (185~186)

KBS 악단과 부산에서 활동한 사람들

1980년대 KBS에서는 라디오 개국 몇 주년 기념, 여름 특집 등과 같은 공개방송을 자주 했는데, 주로 했던 프로그램이 노래자랑이었다. 노래하기 좋아하는 부산 사람의 특징을 살려 초대 가수 몇 명이 출연하고 아마추어들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몇 차례씩 했다. KBS 악단을 만들어 반주를 맡겼다. KBS 악단이라 해봐야 지휘자, 편

곡자, 리듬 파트 등 기본적인 몇 명만 본인들이 단원이라는 인식을 하는 정도였다.

20인조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또 오는, 밤무대에서는 기타 치지만. 사실 옛날에는 트롬본 했던 사람, 군악대. 그런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20인조 만들어갖고 공개방송할 때, 똑같은 옷 딱 입히갖고 연주하고 그렇게 했던. KBS홀 생기면서 그런 공연을 많이 했죠. 그 멤버들이 또 MBC 악단 하면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사위원도 광안리나 해운대 바닷가 이런 데 노래자랑 같은 거 하고. 80년대 초반 부산 연고인 사람은 우선 정풍송 씨가 제일 유명했거든. 정풍송 선생은 밀양 사람인데, 부산은 워낙 자주 오시고 서울에서도 부산 예선 모이라 하면 정풍송 씨를 심사위원으로 보내고. 그러고 부산에서 <하숙생>으로 유명한 김호길 선생, 김호길 쌤이 또 부산에 계셨고. 김종유 선생. 서울분인데 부산에 내려와 있는 분이 많았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다음에 김상국 선생. 이런 분들을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온 분들은 서울에서 사업 실패하고 부산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영화배우는 김추련 씨. 김추련이라고 <겨울여자>에 나오고 한, 돌아가셨지만. 영화배우, 가수 또 이런 분들, 작곡가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부산에 와계셨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수소문해가 알아가지고 그분들 완전 방송을 잊고 살았는데 방송하고, 심사위원도 시키고. (186~187)

대중문화의 중심, 부산으로

대구에서 온 도병찬도 굴러온 돌이었듯이 방송계와 연예인의 경우에도 부산 출신 중심으로 돌아갔다. 부산은 60년대부터 KBS 전속 가수 남상규, 은방울 자매가 있었고, 부산MBC도 전속 가수 출신이 많았다. 가수와 전속 악단이 대부분의 행사를 차지하는 등 60년대, 70년대에는 각 지역의 연예 활동이 지방 방송국, KBS 중심으로 나름의 지역 문화권이 있었다.

그러다가 TV 시대가 되니까 서울에서 TV로 전국에 보내기도 하고. 모든 게 전

국화되니까 가수들이 쪼끔 잘하면 다 서울 가버리고. 지방 대중문화가 침체됐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일본은 좀 크니까 도쿄 문화, 오사카 문화가 확연히 다르거든. 다르고 같은 대중가요라도 오사카 출신, 도쿄 출신은 노래가 다른 거라. 관동지방, 관서지방 그런 게 있었는데. 부산은 서울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다가 80년대 되면서 다시 또 부산의 라디오 방송들이 KBS고 MBC고 이쪽에서 가요나 팝 이런 방송이 좀 인기를, 자기 색깔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부산의 나이트클럽에 오는 사람들이 귀가 더 높아져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산 나이트클럽에 일하고. 가요도 부산에서 나이트클럽 출연하는 실력 있는 가수들이 서울로 진출하고, 서울 가수들이 부산 내려오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가요가 부산에서 히트를 해야지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서울에서 히트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가요 매니저들이 새 판이 나오면, 일단 부산을 먼저 들러가지고. 물론 부산MBC야, 그 유명한 김양화 부장이란 가요 PD가 있었어. 이분이 작사가로서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거. 부산에서 서울에서도 노래 히트하려면 일단 부산 김양화 부장 찾아가야 된다 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187~188)

부산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부산 가요, 특히 트로트와 록이다. 록 밴드가 부산에 많았던 것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키보이스', '히식스', '신중현과 엽전들' 등 서울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밴드들이 대마초 사건 후에 몰락하고 서울은 록 밴드 중심이 아닌 극장식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악단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80년대가 되어서 서울에 있던 많은 대중음악 자원의 맥이 끊기지 않고 부산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6·25 때도 부산이란 피란지가 있었듯이 대중문화도 부산에서 많이 명맥 유지하고. 다시 죽지 않고 에너지가 제로 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서울에서 한 80 있던 게 한 40, 50으로 밀렸다가 부산에 와가지고 30에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서울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부산에서도 만난 사람들이 옛날에 유명했던 '바보스', '히식스' 멤버였다 또는 '키보(이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밴드 멤버였던 사람들이 부산의 룸살롱에서 기타 반주해주고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밴드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없을 때 서울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부산에서는 룸살롱에서 1시간 연주해주고 팁을 10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밴드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했다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부산에 광복동에 '문기서점' 하고 '동서문고'? 일본 책 취급하는 서점 두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일본 음악 잡지 내가 이래 사다가 보면 도저히 악보. 아까 그 악보가 누구야 '건스앤로지스'. 그런 악보는 모르겠다. 타브 악보 식으로 밑에 간단한 노래 해설 있고 악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드럼, 색소폰 머 이렇게 코드, 음 악보 따로 있는 거. 그런 책들이 있는 걸, 노래 몇 곡을 그려서. 그 책이 굉장히 비싼데. 이런 책은 누가 사갑니까? 나는 그 밑에 그 곡에 대한 해설 같은 그건 내 멘트에 도움이 되니까, DJ. 그래 그거 숙 읽어보고. 그러면서 나는 『뮤직 라이프』니 『애드립』이니 이런 음악 잡지를 사는데. '이런 책은, 악보집은 누가 삽니까?', '아, 이거 사는 사람들이 부산에 막 10명은 된다.'는 거라. 그중에 누구는 옛날에 어느 한 팀으로 말하면 낮, 밤에 트로트 노래 반주해주고 낮에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음악 좋아하니까. 그걸로 조지 벤슨이나 그걸로 하고. (유명한 팀에) 있었던 사람이 조지 듀크를 그 악보 보고 낮에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느낀 게 아 이 사람들이 지금은 살기 위해서 노래 반주해주고 해도, 음악적인 새로운 음악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면 바로 '사랑과 평화' 그런 식의 연주할 수 있는 거라. (188~189)

밤에는 노래 반주하는 사람을 만나지만, 낮에는 자기 음악 하는 사람끼리 어울렸다. 광복동 미화당 백화점 2층, 낮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유람선'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입구가 극장식 무대였다. 춤추는 곳이 아니라, 생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또 그 옆에 도병찬이 용두산공원 공개방송할 때 자주 들렀던 '티파니에서 커피를'에서 자주 보던 사람들이 '검은 나비' 멤버이거나 키보드, 기타를 치는 연주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무대에 1시간씩 올라가면 모두 최신곡들을 연주했다. 서울의 집에 갔다 오면서 4시간 내내 테이프 하나만 앞뒤로 돌려 '크루세이더스'만 듣고 왔다면서 그 연주 중 '조 카커'가 보컬을 한 곡을 부르기도 했다.

자택에서 음반을 보고 있는 도병찬 (2022.12) © 조성일

부산이 밑에 깔려 있는 음악적인 정서가 있고, 일본에서 그런 판들이 많이 넘어오고. 70년대 초반이나 중반쯤에는 조용필이 부산에 자기 팀을 데리고 공연한 적이 있거든. 공연이 아니고 클럽에서 연주한 적이 있다고. 뒤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건 조금 기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멤버들한테 들었는데. 그때도 조용필이 참 훌륭한 가수라는 게, 부산에 완월동이란 데 있잖아. 일본인들이 많이 왔거든. 거기에 옛날에 현지처라고 있는 사람들 더러 있었거든. 일본에서 올 때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일본 판을 가지고 오고 또 오디오도 좋은 거 딱 갖다 놓고. 그 판을 가져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조용필 팬이 돼갖고, 낮에 서면에서 연주하면 찾아오고 이랬는데. 판 같은 거 가져와 들려주고 그걸 듣고 찾아가갖고 거기서 듣고 그러면서 음악 공부를 해갖고. 신이치인가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중국 비슷한 스타일.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걸로 해가 <창밖의 여자> 같은 분위기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부산이 가요 1번지라고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일본 방송도 많이 들리고, TV도 보이고, 부산에 뮤지션들이 그런 걸 영향을 받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들을 수 없는 방송도 듣고 보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약간 왜색조의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표절

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중문화 발전을 좀 간거지. 패션도 약간 부산에서 앞서 가는 데가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부산에 요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부산의 유명한 누구 누구 이러면서 최복호 하여튼 몇 명의 디자이너들이 있었거든. 그럼 서울서도 알아주고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누구 디자이너 이런 거 없잖아. 다 서울로 올라가고. 어쨌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자체의 대중문화가 있었는데 90년대 접어들면서는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애. 너무 전국화되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새마을 타면 6시간 아 4시간이고, 그래도 가깝다고 그랬는데, 일일생활권. 지금 생각이 80년대 KBS에 관련된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사람들 다 잊어버릴 그런 80년대, 90년대 부산의 이제 어떤 문화 같은 게 있거든. 노래방도 최초로 생긴 얘기. 크라운 호텔에 8트랙이라고 있어요. 딱 밀면 나오는 거. 그걸로 한 100곡 정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붓글씨로 쓴 가사 있는 거. 크라운 호텔 이렇게 두는 바에서 일정. 그다음에 코인 노래방, 전자오락실 그리고 80년대 빽판 문화. 요런 게 부산이 특별했던 데고. 일본 TV 이야기…. (190~192)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참고문헌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2019년 7월 열린
부산예술제 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는
하지백. ©하지백

제4장

<왕년에>, 데뷔곡 <모정>으로 스타 탄생

싱어송라이터·DJ 하지백

TV 출연을 고사했던 하지백은 운명처럼 오디션이라는,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프로그램에 뛰어든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 쓴잔을 들어야 했던 그는 마침내
5주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백은 TV 프로그램 <신인 탄생>을 통하여 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덕분에 데뷔 앨범을 내고 당시 유명 치약 브랜드의
제1대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까지 했다.

1 하지백의 삶과 음악

하지백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가족을 따라 서울로 갔다. 그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백은 서울에서 고교를 마칠 때까지 고학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고교를 자주 옮겨다녔다. 하지백은 이처럼 어렵던 시절을 음악으로 버텨내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는 1982년 데뷔 때부터 2010년까지 '전영진'이란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다. '하지백'으로 개명한 것은 2010년 이후다. 여기서 '2010년'은 자신이 작사하고 이호준이 곡을 쓴 <아파도>를 발표하던 무렵이다.

단소의 명인 전용선과 배우 전옥…예인(藝人)의 피

하지백의 집안에는 예인(藝人)의 피가 흐른다. 그의 친할아버지는 단소의 명인 추산(秋山) 전용선(全用先, 1887~1964)이다. 그의 큰고모는 연극·영화배우 전옥(全玉, 1911~1969)이다.

> 어려서, 저희 집안이 음악 가족입니다. 올라가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추산 전용선 씨라고요. 단소의 명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1호십니다. 그분이 제 친할아버지시고. 전옥 씨, <눈물의 여왕> 연극 하셨던, 저의 큰고모. 이렇게 윗대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유전자적 요인이 있지 않나. (중략)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초등학교를 거의 마칠 즈음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략)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는 관계로. 사실 진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거의 고학을 하다시피 해서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이쪽 저쪽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만.
>
>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 외로움을 음악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저도 모르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바로 기타를 들고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시작이 된 음악입니다. (372~373)[1]

하지백이 태어난 예향(禮鄕) 진주의 분위기 역시 그가 음악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의 할아버지 전용선은 전북 정읍 고부 출신으로, 30세 전후할 무렵 단소는 물론 피리와 대금, 가야금, 해금, 대금 등에서도 명인으로 통하였다. 예인을 광대로 천시하던 시절, 음악에 몰두한 결과이다. 전용선은 50세 무렵 자신에게 수업을 받고자 한 항일 우국지사들에 국악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 하지백의 고모 전옥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본명이 전덕례(全德禮)이다. 영화 데뷔 작품은 이필우 감독의 <낙원을 찾는 무리들>(1927)이다. 전옥은 나운규 프로덕션의 전속 배우가 된 뒤 첫 작품인 <잘 있거라>(1927)에서 주연을 처음 맡았다. 토월회(土月會) 재발족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29년 <아리랑 고개> 출연을 비롯하여 연극배우로도 활동했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는 악극단에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지백을 옥죈 가난의 굴레는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고교를 마치자마자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음악 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백은 나이트클럽에서 그룹사운드 활동을 하던 무렵 TV 출연 제안을 받는다. 1981년이었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처에 따라 동양방송(TBC)이 KBS에 흡수돼 KBS 2TV로 바뀌었던 시절이다. KBS 2TV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데, 그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최초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신인 탄생>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찾은 방송사 관계자들에 TV 출연을 고사했던 하지백은 운명처럼 오디션이라는,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프로그램에 뛰어든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 쓴잔을 들어야 했던 그는 마침내 5주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백은 TV 프로그램 <신인 탄생>을 통하여 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덕분에 데뷔 앨범을 내고 당시 유명 치약 브랜드의 제1대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까지 했다.

1981년, 운명 같은 TV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

하지백이 일약 스타가 된 것은 TV 방송의 힘이었다. TV는 1970년대 중반 이후

200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른바 가요를 '정의'하고 '직조'하는 주체는 TV였다.[2] 당시 KBS와 MBC의 연말 특집 가요 프로그램이던 <KBS 가요대상>과 <10대 가수 가요제>는 온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들였다. 시청자들의 시선은 온통 그해의 '가수왕'에 쏠렸다. 또 신인가수상 수상은 향후 흥행가도를 예약하는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TV 출연은 가수들에게 엄청난 기회였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이는 음반기획사도 마찬가지였다. 1980~90년대 음반기획사 대부분은 TV 방송국과 가까운 서울과 경기도에 자리 잡았다. 방송국에서 부르면 곧장 달려갈 수 있어야 했다. 소속 가수들이 '뜨려면' 방송 출연이 필수요건 중 하나였다. 하지백은 KBS 2TV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신인 탄생>에 출연하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나이트클럽에서 우리가 그룹을 하고 있을 땐데. 방송국 관계자들이 오셔서 제 노래를 듣고, 연주를 듣고, 저 친구 (방송에서)[3] 노래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룹 활동을 하고 있지? 라고 저에게 얘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때 당시에 KBS와 TBC가 통합되는, 정치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TBC에 계시던 분들이 KBS로 흡수되면서, 81년도….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KBS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81년도 가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출연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TV 출연을 하기 싫습니다. 뭐, 그거 하면, 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 좋은 노래를 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해봄직이 어떤가, 해서, 했는데. 그럼 프로그램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예기하시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걸 했는데. 조건은, 부상이 뭐냐 하면 상패도 없지만, 부상은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한 주를 쉽니다. 한 주를 쉬고 제가 쇼를 합니다. 혼자서. 그 시간대에. 동 시간대를, 한 주를 쉬고, 오디션을 쉬고, 제게 단독 콘서트를. 줍니다. 그 48분 동안을, 제가 혼자서. (중략) 제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TV 콘서트를. 스페셜 코너를. (373~375)

당시 TV 프로그램 <신인 탄생>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출연 가수 다섯 명이 경연을 하면 이 중 한 명이 그 주의 우승자가 된다. 첫째 주 우승자는 둘째 주 우승자와 다시 맞붙는데, 물론 둘째 주 우승자 역시 다섯 명의 경연자 가운데 뽑힌 가수다. 이 과정을 다섯 차례 거쳐 최종 우승자가 되면 그 다음 주 <신인 탄생> 프로그램 때에는 단독 콘서트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것이 우승 트로피나 상금을 대신하여 5주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이었다. <신인 탄생>이란 TV 프로그램을 통해 무명 가수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려면 총 24명을 잇달아 꺾어야 하는 셈인데, '스타'가 되려면 이를 능히 극복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 까닭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하지백은 "일주일에 (몸무게가) 4kg이나 빠지는 강행군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4]고 회고하였다.

(<신인 탄생>의 스페셜 콘서트 때 불렀던 노래는?) 스탠더드 음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패티김 씨 노래, 서유석 씨 노래, <그림자>라든가. 동아방송에 라디오 연습곡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런 노래. 그다음에, 제가 대회에 있는 만큼 민요도 부르고, 각기 다른 장르를 다 소화해야 됩니다. <새타령>도 불렀고.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된 게 아닐까. (375~376)

하지백은 당시 <신인 탄생> 5주 우승의 부상으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 주로 '스탠더드 음악'을 불렀다. 현재까지 그의 노래 대부분은 '스탠더드 음악'이다. 우리나라의 스탠더드 음악은 흔히 '스탠더드 팝'으로 불린다. 이런 류의 대중가요는 1960년대에 주도적인 양식이었다. 이는 1940~1950년대 영미권 대중음악 가운데 스탠더드 팝으로 불리는 계통을 이어받은 노래다. 1960년대 중반 이봉조, 길옥윤과 같은 작곡가들의 등장으로 스탠더드 팝 계열의 노래는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장된다. 당시 스탠더드 팝 계열의 노래로는 최희준의 <아빠의 청춘>, 한명숙의 <노란 샤쓰의 사나이>, 패티 김의 <초우> 등이 꼽힌다. 이들 노래는 새미 트로트로 분류되지만, 트로트와는 분명 다르다.

한국의 스탠더드 팝은 1970년대에는 포크, 록 등의 장르에도 녹아들었다. 1980년

대를 지배하였던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백 역시 스탠더드 계열의 음악을 하였다. 그러나 스탠더드 음악은 대중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장르다. 하지백은 이런 음악이 대중성 측면에서는 약하다고 자평한다.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가수의 처지에서 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지백은 스탠더드 음악을 묵묵히 이어갔다.

'CM송 대가' 김도향, 하지백의 데뷔 앨범 참여

TV 프로그램 <신인 탄생>으로 스타덤에 오른 하지백.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코미디언 출신 음반 제작자 장고웅에게 잠깐 발탁된다. 그러다가 데뷔 앨범의 작업에 'CM(Commercial Music)송의 대가'로 불리던 김도향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하지백은 장고웅에게 지금도 "빚을 졌다."[5]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김도향의 실력이 대단하였다는 방증이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한음반의 제작자이던 장고웅은 하지백이 <신인 탄생>에 출연하던 무렵 스카우트한다. 그런데 장고웅보다는 김도향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진행한 일로 하지백은 여태 장고웅에 빚이 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였다. 장고웅은 훗날 음반제작자로 성공하였다.

제작자 장고웅의 '대타'이던 김도향은 1973년 '줄줄이 사탕'으로 CM송에 '데뷔'하였는데, '투 코리언즈'로 활동하던 무렵의 김도향에게 CM송은 부업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5년 12월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한 '대마초 사건'은 일대 전환점이 된다. 그해 12월 14일 검찰의 수사 발표에 의하면 이장희, 윤형주, 이종용 등 포크 계열 가수와 신중현, 박광수, 김추자, 권용남 등 소울·사이키 계열의 가수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들 가수의 음반이나 방송 활동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까지 막았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결국, 1970년대 포크송 전성시대도 '강제로' 막을 내렸다.[6] 김도향 역시 가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쉬고 있던' 김도향은 부업이던 CM송을 주업으로 바꾼다.[7] 그가 손을 댄 것마다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기억하는 '스크류바: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알사탕: 알알이 해태 알사탕', '뽀삐: 우리집 강아지 뽀삐, 우리집 화장지 뽀삐', '아카시아껌: 아름

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맛동산: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LG그룹 광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등이 그의 작품이다.

> 가수의 첫발을 들였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가요계가, DJ 생활한다는, 문화적인 대한민국에서, 문화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피와 땀으로도 안 되는, 그 뭔가의 결정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 (데뷔 앨범 제작 때 참여했던 이들 면면은?) 김도향 씨가. 그 당시에 CM송의 우리나라 대부였습니다. 거의 뭐, 윤형주 씨와 같이 '새우깡'부터. 그 당시에 한창 많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TV를 보시고. 저를 제작자로서 노래 제작을 하고 싶다. '투 코리언즈' 노래도 하셨죠.
>
>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작곡가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 주셔서. 녹음을 다 끝내놓고. 참,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376~377)

1982년 하지백의 데뷔 앨범 타이틀 곡은 <모정>이다. 이경미·이현섭 부부가 작사·작곡하여 그에게 주었다. 이에 앞서 이경미·이현섭 부부는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1977)도 함께 만들었다. 데뷔 앨범에 주가가 한창 높았던 작사·작곡가가 참여하고, 음반 제작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김도향이 제작자로 나선 것만으로도 당시 하지백의 가요계 입지를 짐작할 수 있다.

1982년 하지백(당시 전영진)의 데뷔 앨범 표지
©하지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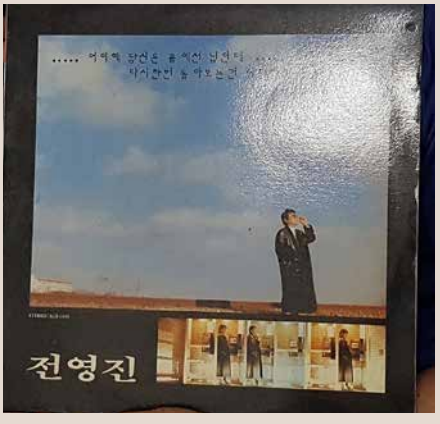
하지백 "데뷔곡 <모정>은 영원한 나의 대표 노래"

하지백의 데뷔곡 <모정>의 장르는 세미트로트이다. '세미'가 붙긴 하지만, 트로트와는 다르다. 경쾌한 리듬의 <모정>의 곡은 한번 들으면 따라 부를 정도이다. 노랫말은 연인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을 담았다. 다음은 <모정>의 노랫말.

<모정> (이경미 작사, 이현섭 작곡)

달빛은 두 어깨를 가깝게 해도
가슴이 너무 뛰어 말도 못하고.
그 행복이 두려워서 차라리 눈을 감던
기억이 꿈만 같아라
아, 그대 없는 강가를 홀로 걷는 긴 그림자
아,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네
가슴이 아리도록 젖는 그리움
달빛에 아롱진 추억

하지백(전영진)의 3집 앨범《바람꽃》표지
©하지백



하지백(전영진)의 앨범《어이해 당신은》표지
©하지백

하지백은 자신의 노래 가운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는[8] 이현섭 곡의 <모정>(1982)을 대표곡 1순위로 꼽았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오랜 기간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가기 마련인 모양이다. 그 다음 대표곡으로는 김정택 작곡의 <고독한 남자>(1986)를 택하였다. SBS 악단장 출신인 김정택은 현숙의 <정말로>(1980), <포장마차>(1982),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1983), 전영록의 <불티>(1984),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1984) 등 숱한 곡을 지었다. 그가 1980년대 우리나라 가요계를 대표하던 '히트 제조기'로 불린 배경이다.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 무엇이었는지?) <모정>이라는 곡입니다. <모정>. 그 노래가 또 뭐냐 하면, 이현섭 씨라고. 전영 씨.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작곡가이십니다. 그분의 와이프가 이경미라는 작사가였어요. 그분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현섭·이경미. 저의 <모정>이라는 곡도 이현섭·이경미. 이렇게 두 분이 저에게 주신 곡이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수백 곡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발췌를 해서. 김도향 씨가. 뽑아서 그 노래를 취입을 하지 않았나. (<모정>의 장르는?) 그것도 세미트로트. 그러니까, 그전에 트로트에 익숙해진 그런 반주와 멜로디보다는, 조금 달라진 포크송하고도 가미가 돼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독한 음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장르가 됐죠. (당시 세미트로트가 대세였는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대중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포크송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고. 얼핏 들으면, 포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트로트 같기도 한데. 애매모호한. 그런 장르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379~380)

(자신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데뷔곡입니다. <모정>. 그 곡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고요. 그 노래하고 김정택 씨가 저에게 준 <고독한 남자>라는 곡. SBS 악단장이었던 그분이. 히트곡이, 전영록 씨 곡이 많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뭐, 또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 현숙 씨의 <포장마차>. 그런 작곡을 했었죠. 원래 피아노 주자면서 트럼펫 잘 불고. SBS 악단장을 꽤 오래 했었죠. 그분하고 같이 작업한 게, <고독한 남자>. (중략)

(대중에 많이 알려진 <아파도> 아닌가?) 예. <아파도>. <왕년에>, <꽃이 된 여자>. 제작연대가. 지금, 10년 좀 넘었죠. 2000년대. <아파도>가 2010년. <왕년에>는 2006년도. (397~398)

하지백은 다른 가수들의 작품 제작에 힘을 보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노래가 정수라의 <환희>(1988)이다. 박건호가 가사를 쓴 이 곡의 작곡자는 김명곤이다. 그룹 '사랑과 평화'의 가수 겸 키보디스트이던 김명곤은 작사와 작곡은 물론 편곡가이자 음반 프로듀서로도 이름을 날렸다. 하지백은 김명곤에 대해 "우리나라 노래 거의 80%는 편곡을 하였다."[9]고 전했다. 김명곤이 곡을 쓴 히트작은 정수라의 <환희> 외에 나미의 <빙글빙글>(1984), 혜은이의 <파란나라>(1985), 그룹 '소방차'의 데뷔곡 <그녀에게 전해주오>(1987), 김승진의 <유리창에 그린 안녕>(1989),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1995) 등이다.

2000년대 초반 부산에 정착한 하지백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던 중간간이 곡을 발표하였다. 2001년 보사노바 리듬의 곡인 <꽃이 된 여자>(송태호 작·편곡)를, 2006년에는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왕년에>를, 그리고 2010년 본인이 가사를 쓰고 이호준이 곡을 지은 <아파도>를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백이 데뷔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1980년대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서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준 시기이다. 영미권의 팝송을 선호한 젊은 층은 국내 대중가요를 상대적으로 덜 찾는 시기였지만, 다음 시기인 1990년대로 향하여 일정한 '공간'을 계속 점유해나가고 있었다.

80년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미자 씨는 조금 하향세에 있던 무렵이고. 그때 조용필, 대단했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트로트 계열인지?) 아. 그건, 사실은 세미트로트라는, 세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가깝죠. 트로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트로트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정통 트로트가 아닌, 현대적인 음악이 가미된 그런 게 세미트로트라고 할 수 있죠. (377~378)

(1980년대에 젊은 층은 팝송을 더 선호하였는데) 그때 당시 팝송이 대세였었

죠. 포크송도 이제 뒤로 가고. 아, 그러니까 좀 정체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연코 조용필 씨, 나훈아 씨 이런 분들이 가장 뚜렷하게 밀고 나갔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양수경 변진섭. 음악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발라드화 되면서, 음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음악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380)

1980년대 우리 대중가요계는 조용필로 대변된다. 조용필의 음악은 팝 계열과 국악 요소까지 다양하게 갖추었다. 조용필 음악의 주요 소비층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10대 소녀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1980년대 대중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발라드였다. 발라드는 1980년대 후반 상당한 위세를 떨치게 된다. 1980년대 KBS, MBC TV의 연말 가요제에 등장한 곡들을 살펴보면 팝(32.1%)과 트로트(22%)의 강세 속에 발라드(15.4%)와 댄스(8.4%)라는 새로운 장르가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장르이던 포크(7.7%)와 록(11.9%) 역시 여전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대중가요의 장르가 다양화된 것이다.[10]

유명 치약 브랜드의 제1대 CF 모델 되다

KBS 2TV <신인 탄생> 프로그램 출연으로 일약 스타 반열에 오른 하지백은 1982년 태평양화학의 투명 치약 '클로즈업'의 제1대 광고(CF) 모델이 되었다. 데뷔 앨범을 내기 직전이던 신인가수가 CF 모델이 되었다는 점은 당시 하지백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태평양화학에서 투명 치약이 처음 나왔었는데. '클로즈업'이라는 치약이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처음으로 선전(CF 광고)을 했습니다. TV CF를 제가 했어요. 제 파트너가 유명한 최명길. 탤런트 최명길 씨가 제 파트너로. 데뷔 후 작품이. 최명길 씨 데뷔 작품이, 저하고 같이 '클로즈업'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석우

씨가. 제가 6개월 하고. 6개월 있다가 강석우 씨가 제 걸 그대로 받아서. 강석우 씨, CF 첫 데뷔 작품이죠. (중략)

(CF 출연 이후 공연 활동은?) 공연을 정말 닥치는 대로,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TV 라디오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지 않았나. 정말 바쁘게 밥 먹을 새 없이 정말 뛰어다니지 않았나.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다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378~379)

하지백(당시 이름은 전영진)이 1982년 태평양화학의 클로즈업 광고를 촬영했을 때 파트너로 함께 나온 이가 탤런트 최명길이다. 하지백은 해당 CF 모델로 6개월 정도 활동하였다. 해당 브랜드의 제2대 남자 CF 모델은 미남 탤런트 강석우가 맡았다. 현재 해당 광고 영상의 하지백[전영진]-최명길 편보다는 강석우-최명길 편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중가수가 스타 반열에 오르면 이곳저곳에서 많이 부르기 마련이다. 하지백은 숱한 방송 출연에 응하였는데, 이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것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런 과정에서 선후배 가수들과의 교류 역시 많았다. 하지백은 가수 선배이자 인기 정상에 있던 전영록과 가깝게 지내면서 음악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되돌아봤다. 또 그는 당시 많은 인기를 누리던 남궁옥분과도 친분이 두터웠다.[11]

2 일본에서의 음악 활동

킹레코드사 전속계약, 일본 무대로

하지백은 1988년 일본 킹레코드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콘서트와 디너쇼 출연 등 일본에서 공연 활동을 이어갔다. 엔카 <아메노 오사카>를 이때 발표하였다. 가수 활동에 슬럼프를 겪을 무렵 일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고, 본인 역시 일본 음악을

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작용하였다. 그래서 하지백은 활동 무대를 일본으로 옮긴다.[12]

(김연자 씨도 일본 활동을 했는데) 아, 김연자 씨는 제가 나오면서. 김연자 씨가 제 콘서트에 왔더라고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공연장에 와서. 김연자 씨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중략) 그때가 1989년도 후반이지 않았나? 그때쯤 자기가 노래를 하겠다고. 그때 나훈아 씨도 일본에서 레코드를 내고, 이제 포기하고 들어오셨었고. 조용필 씨만은, 그때도, 그 당시 최고였죠. 계은숙 씨하고. 계은숙 씨도 바빠서 서로 보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 계은숙 씨는 제가 <신인 탄생> 됐을 때 당시만 해도 같은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공연 활동 무대는?- 인용자) 일본 열도를 다 돌아다녔어요. 삿포로, 오사카, 고베, 교토. 그 큰 도시들은, 다. 일본에는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가수가 직접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쇼핑몰에 가서 노래도 하고, 방송국에 가서

하지백(전영진)이 1988년 초 일본 킹레코드사와 전속계약하면서 발매한 앨범 ≪아메노 오사카≫ 표지. ©하지백

출연도 하고. 다 합니다. 유선방송에서. 유선방송국에서 신청곡을 주면 그게 인기 척도가 됐어요. (381~382)

1980년대 한국 대중가수의 일본 공연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용필이다. 조용필은 1982년 <미워 미워 미워;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일본어 음반을 발표하며 일본 무대로 처음 진출하였다. 조용필은 일본 데뷔 앨범과 1986년 일본에서 발표한 <추억의 미아 1>으로 골든디스크상을 받았다. 앨범이 100만 장 넘게 팔렸다. 조용필은 또 1987년 일본 대중음악계의 최대 행사이던 NHK 가요홍백전에 외국인 가수로선 처음 출연하면서 총 4년 간(1987~1990년) 해당 무대에 섰다.[13] 하지백이 일본으로 무대를 옮긴 것도 이러한 조용필의 일본 내 명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가수 계은숙도 일본에서 공연 활동 중이었고 하지백이 국내로 되돌아올 무렵이던 1989년 후반 가수 김연자가 일본 무대의 바통을 이었다. 물론 하지백은 조용필처럼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방식으로 공연 활동을 하였다.

한국보다 앞선 공연·제작 시스템 경험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대중음악계는 음반 제작이나 공연 무대 시스템, 전반적인 환경과 분위기 등이 한국과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었다. 하지백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당시 일본의 녹음 시스템이었다. 노래를 녹음할 때 한국에서는 가수와 악단이 투 트랙으로 녹음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디지털 다채널 편집 방식으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다음은 이에 관한 구술 내용이다.

음악도 그렇고. 사실 제가 여기서 녹음을 그렇게 숱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녹음 시스템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시설이 잘돼 있고. 기계가 이렇게 좋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투트랙으로, 악단하고 같이 녹음할 시대인데. 거기는 쫙 들어간 디지털로. 채널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면 채널 편집을 자동으로, 컴퓨터로 자동으로 쫙, 일률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고. 이게 선진국인가? 모든 것이 다. 선진국화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383)

하지백은 당시 일본의 제작 시설은 물론 대중가수를 대하는 자세 역시 한국과 확연하게 달랐다고 전하였다. 대중가수가 존중받는 문화를 보면서 부러웠다고 되돌아보았다. 그는 또 공연장에서 출연 가수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의식도 좀 틀렸습니다. 아티스트라고 하면, 과정을 만들어주는 과정은. 대단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연장에 가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룸이 있어서. 앞에 가수가 노래를 하면 FD가 와서 마이크를, 인터컴을 쓰고, 마이크를 들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TV 모니터가 다 있고, 음향이 있어서. 가수는 앉아서 분장을 다 하고. 일본 친구들이 와서 다 분장을 해주고 옷까지 입혀줍니다. 양말까지 챙겨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딱 되면, 스탠바이 해서 1분 전입니다. 여기까지 걸어 나가시는데, 1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정중하게 무대 위에서, 서로 무대에서. 가수들하고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끼고 아티스트들을 추앙하는 걸 보면서. 아, 참 대단한 나라구나. (중략)

일본에 지금도 엔카 가수로 유명한 기타지마 사부로 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한국의 도모다치. 신진 가수라고 해서 제가 추천이 돼서, 그분이 공연하는 데서, 콘서트 하는 데마다 제가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가 88년도, 89년도?.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아, 대단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영웅이 되지 않나. 수제자가 100명이 넘는데. 늘 항상 같이 수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시는 신곡이 나오면, 본인은 취입을 해놓고 나면, 그 제자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배우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383~384)

1980년대는 카세트 테이프의 전성기였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음악시장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는 바로 1981년 개국한 미국의 MTV다. 24시간 음악 관련 전문 방송 채널이다. 이를 통하여 음악은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바뀐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뮤직 비디오였고, 그 기술적 기반은 디지털 음향·영상 장비였다. 당시 일본은 디지털 기술에서도 한국보다 한발 앞서 나갔으니, 하지백이 현지에서 이를 직접 보고 놀라워한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1980년대 공연 문화나 대중문화에 관한 인식 역시 하지백에게는 부러움 그 자체였다. 지금과 달리 당시 일본은 문화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선진국이었다. 하지백은 거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제식 가요계 문화에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사카부(大阪府)지사 감사장의 '힘'

하지백은 일본에서 음악 공연을 할 무렵 공연 때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당시로서도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는 일본 활동 당시 받은 감사장을 여럿 지니고 있다. 1989년 4월 23일 자로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을 당시 하지백이 전달한 기부금 액수는 5만 엔이었다. 이런 감사장이 훗날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오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던 시절이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비자 발급 과정이 까다로웠다. 일본 현지 공연을 코앞에 두고도 비자를 제 때에 못 받아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중 감사장을 일본 영사에 보여주고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그때 당시에 사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데,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15일짜리 비자를 줬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심사가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암울했던 시절에. 돈을 벌러 많이들 일본에 가셨

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고 주저앉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셔서. 일본에서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왜 이렇게 일본에 자주 왔다갔다 하느냐는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영사관에서. 그래서. 어, 이거, 뭐 대사님께서도 다 인정해주고 계신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요즘에 좀 지침이, 자기 정부 지침이,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공연이, 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날 출국하지 않으면 공연이 펑크 날 정도였었는데. 마침 또 대사관에 가니까 대사가 안 계셨어요. 영사관 분만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을 위해서 노래를 하러….

그래서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패를 받은. 불우이웃돕기 하고. 노래를 하면서 감사패를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아주. 영사한테 내밀고,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스케줄을 망치고. 비자를 안 주면 일본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나

感謝状

全永珍殿

あなたは福祉基金のため多額の
金員を寄附し府民福祉の増進に
寄与されましたので深く感謝の
意を表します

平成元年7月25日

大阪府知事 岸 昌

하지백(전영진)이 1989년 7월 25일 일본 공연 이후 낸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받은 오사카부(大阪府)지사의 감사장. ©하지백

더니 죄송하다고. 그런 뒤 공항에 간 기억이 제일 생생한 게. (중략) 감사패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그 감사패 하나면 큰 중죄를 저질러도 한 번은 면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감사패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번 해주신 걸 제가 들었어요. (388~390)

하지백은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되돌아오기 전 MBC TV의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이던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토토즐) 출연진이 참여한 가운데 재일교포 위문공연을 성사한 바 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MBC 프로그램에 <토토즐>이라고 해서. 이덕화 씨가 MC 보고. 나, 그때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TV에 출연을 하고, 다시 또 열흘 정도 있다가 일본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중략)

또 그때 당시 90년도인가요? 89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교포 위문공연을 제가 추진을 해서 MBC <토토즐> 팀들이 다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공연을 한 번 와서. (중략) 그때 당시에 조용남, 조용필, 최성수, 최진희, 정수라…. 대한민국 인기 가수들은 다 오지 않았나. 그래서 교포 위문공연 했는데. 그때 당시 MC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변웅전 씨였습니다. (385~386)

<토토즐>은 쇼와 음악이 어우러진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자 이덕화의 '부탁해요~'가 인기 유행어가 되면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1985년 11월 9일부터 1997년 3월 1일까지 방영되었다. 1980년대는 방송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이어서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 때마다 제작진이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 와서 일본 민방 쇼 프로그램을 보고 구성과 세트까지 통째로 베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 방송 프로그램도 베꼈다. 그래도 <토토즐>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연출과 프로그램 형식 파괴에 나섰는가 하면 카메라 동선을 짤 때도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변신을 꾀하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3 귀국, 부산 정착 이후 음악 인생

한국 대중가요는 1990년대로 넘어서면 혁명적인 탈바꿈을 한다. 이전에 음악성이나 예술성 측면에서 영미권과 유럽의 팝음악에 밀려 있던 한국 대중가요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팝음악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주목할 장르는 댄스곡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완선, 소방차, 박남정, 도시아이들, 이상은, 김흥국 등이 댄스곡 장르에 등장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 발라드 계열이던 민해경, 양수경 등도 댄스곡을 시도했고, 마침내 현진영에 이어 '서태지와 아이들', 이현우 등이 등장하면서 댄스곡은 1990년대를 휘어잡는 장르가 되었다.[14]

1990년대 초반 귀국… 한국 대중가요계는 '혁명기'

1980년대 대중가요에서 조용필이 독보적인 존재였다면, 1990년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독무대였다. 혁명의 지도자는 따로 있었다. 현진영이 정상을 차지하기 전인 1992년 여름 <난 알아요>, 가을에는 <환상 속의 그대> 원투펀치로 이미 두 개의 골든컵을 거머쥔 3인조 댄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서태지·이주노·양현석)이다. 1993년 여름의 <하여가>는 국악을 섞어서 그랬는지 새로운 정치권력의 서슬 퍼런 개혁 드라이브와도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들렸다.[15] 1980년대의 아이돌 가수 전영록, 변진섭과 김민우를 스타덤에 올린 작곡가 하광훈, 조용필과 오래 작업해 온 작사가 양인자는 모두 1980년대라는 '구시대' 사람들, 혹은 '구세대'라는 딱지가 붙었다. 구세대는 이해 못하는 새로운 음악의 출현이었고, 서태지는 유일무이한 혁명가였다. 양준일도, 이현우도, 현진영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떨어진 다음 혁명가는 오직 하나뿐인 그대, 서태지였다.[16]

'서태지와 아이들'에 열광한 것은 당시 학교에 다니던 10대였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주요 음반 고객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들어 오빠부대와 팬클럽을 결성하여 팬덤 현상을 이끌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또 이와 맞물려 1990년대 이

후 한국의 대중음악계는 음반, 방송매체, 매니지먼트 등 연관 산업으로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다. 음반기획사들은 음악 관련 사업과 함께 종합 엔터테인먼트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대중가요 생산의 핵심으로 떠오른 음악연출가인 프로듀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1990년대부터다.[17] 이와 함께 1990년대는 TV 방송국이 대중음악계를 쥐락펴락하였던 마지막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절에 하지백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진행한 공연 활동을 접고 1990년대 초 귀국한다. 대중음악계의 혁명기와 마주한 것이다.

>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좀 많이 지쳤습니다. (조)용필 형도 똑같은 얘기고. 저와 같이 술자리 하면서, 이건 정말 힘든 길이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계은숙 씨도. 그렇게 되면 너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조언도, 참. 조용필 선배께서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가 보다.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는 노래 장르가, 음악 장르가 완전 뒤바뀐…. 댄스곡 시대고. 아이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 판도가 바뀐 시대에서. 거기서 제가 조금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오지 않았나. (중략)
>
> (일본 생활을 접고 귀국한 시기?) 92년도, 93년? 90년대 초, 한 몇 년도쯤. 일본 생활 접고. 92년도에는 거의 그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 가장 힘든 시대에 들어와서 고군분투한…. (386~38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지백의 음악은 스탠더드 음악 계열의 세미트로트다. 댄스곡이 범람하는 시대를 맞아 그는 일본에서 귀국했다. 더욱이 1990년대는 지금의 케이팝(K-pop) 전성기를 여는 전조였다. FM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영미권 팝송은 한국 대중가요에 밀려났다. 영미권 팝송만 밀려난 것이 아니었다. 성인가요 장르인 트로트와 세미트로트 계열의 음악도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다. 이들은 다시 중년 세대의 전유물처럼 되었다. 해당 가수의 처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 무언가 방도를 찾아야 하였다.

2000년대 초 부산 정착…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과 출연

하지백은 2000년대 초 부산에 정착한다. 부산에 온 뒤 초반 몇 년간은 '그냥 쉬었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활동 보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방송 활동을 하게 된다. TBN 교통방송(부산 및 울산), KBS와 MBC 라디오는 자신이 만든 코너에 고정 출연하는 식이었다. 2013년부터 부산MBC 라디오 <오후만세>(오후 3시5분~4시)는 10년째 격주 수요일 '사연과 신청곡-퀵서비스 멜로디' 코너에 아내 유리곤과 함께 출연하였다. 울산교통방송 <차차차>에서는 고정 코너를 맡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다.

부산에 와서 몇 년간은 음반 생활을 좀 못 하고. 그 전에 이제 좀. 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저와 부산에 내려와서. (중략) 문화예술에 대한 걸 좀 넓히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안은 여기 방송…. 시작을 하게 됐죠. 교통방송이랑 KBS와. 진행도 하고. 출연도 하고. 저희 코너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출연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 프로그램에 강민(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DJ)씨도 게스트로 같이한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백과 함께>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중략)

울산교통방송에서는 제일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를 했고. 부산교통방송과 KBS, MBC는 제가 코너를 만들어서. 그 코너에 같이 출연하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부산MBC에서. (387~388)

부산에 와서. 방송을 쭉 하면서. 사실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무슨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로 만들어서 교류를 활발히 하려고 좀 만들어 봤는데. 그게 제 혼자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방송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종교방송인 원음방송이 오히려 거기에 기여를 더 하지 않았나. (중략) 원불교의 원음방송은 서부경남 방송이지만, 각종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산사음악회라든가. 각종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한 곳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 위문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들여서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대단하

하지백이 부산KBS FM라디오의 <즐거운 저녁길>을 진행하는 모습. ©하지백

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방송을, 제가 한 8, 9년 동안을 제 프로그램을, 한 시간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MC를 보면서. 아침, 제목이 <아침의 향기>. 11시, 10시부터 12시까지. 나중에 한 시간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선상음악회로 이래가지고…. 터미널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페리호를 타고. 오사카도 가고요. 부관페리죠. 부관페리를 타고 갔다가 시모노세키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중략)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2000년대. (390~391)

하지백은 원음방송에서도 <아침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는 원음방송 측이 자체 비용을 들여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찾아 위문공연을 펼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산사음악회는 물론 3개월 단위로 선상음악회도 열었다. 부산에서 부관페리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지를 오가며 많은 가수와 공연 활동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트로트의 열풍… 하지백 "기대 반 걱정 반"

2020년은 '트로트의 해'로 기록될 듯하다. 단순한 인기나 '트로트의 부활' 그 이상이었다.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에 휩싸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 진원지는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란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트로트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50대 외에도 2030세대까지 트로트 열풍의 주축으로 가세하였다. 2020년 진행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에서는 콘서트 입장권 전체 예매자 가운데 20대가 43.3%, 30대가 36.5%를 각각 차지하였다. TV조선은 지상파 TV도 아닌 종합편성채널임에도 <미스터트롯> 방영 당시 무려 30%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였다.[18]

트로트가 5060세대의 '그때 그 시절'의 노래 장르라는 인식을 탈피해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모두의' 문화로 거듭나게 된 데에는 방송사의 막대한 투자와 치밀한 기획, 주도면밀한 이미지 연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TV조선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에서 반복적이면서도 매회 다른 무대연출, 패션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타깃 시청자층인 5060세대를 고려하여 큼직하고 위트 넘치는 자막을 넣는 한편 스포츠 의상, 히어로 망토, 태권도, 폴댄스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미하였다. TV조선은 실시간 국민투표와 현장 인기투표를 통하여 시청자와 방송국 간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며 참여 의식을 이끌어냈다. 스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 출연자의 헤어디자인, 분장, 공연 의상, 말 한마디에도 '스타 시스템'의 정교한 계산이 스며들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플랫폼과 결합함으로써 주 시청자인 2030세대를 트로트의 세계로 빨아들였다.[19]

하지만 이러한 트로트 광풍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동안 외면받았던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젊은 층이 유입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트로트 위주의 방송 편성,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의 피로감이 쌓이는 불만도 나온다. 공영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온통 트로트로 '도배'하는 식의 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와 트로트 장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근 트로트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긍정 반, 부정 반입니다. 침체돼 있던 가요계를, 아이돌 위주의 그런 장르를 계속. 전 국민이 보고 같이 환호하고 막 그랬는데. 중년들만큼은 소외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어렵죠. 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중략)

그러다가 TV조선이라는 매체나 각종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에 대한 오디션을 하길래. 저는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오디션으로 시작을 했던 가수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사실 조금은 그 전보다는 부족한 점도 많았고. 자질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가창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위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백한 그런 가수들이 아닌, 좀 만들어지고 길들여진 그런 음악들로. 이렇게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중년들의 탈출구가 생겼다고 할까요? 희로애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탈출구의 트로트를, 신세계적인 트로트를 해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중년들의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반대로 보면, 저희 음악인으로서 보면,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짧은 시간에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식이. 이 가수들 아니면 다른 가수들은, 가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중략)

(최근 JTBC의 <싱어게인>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배려와 같은 것- 인용자) 저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콘셉트는 진정한, 진정한 음악인으로서, 탈락에 관계 없이 모두 다 음악 하는, 노래하는 친구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예우를 해주지 않았나. (오디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그 방향을, 제가 보면서. 아, 이런 건 굉장히 신선하고. 사실 예전에 그 방송국 PD의 쇼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닌, 신시대의 현실에 맞게 좀 젊은 친구들의 아이템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92~394)

하지백 역시 최근의 트로트 열풍을 반기면서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백은 TV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출연 가수의 가창력보다는 연출과 편집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치우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들이 경쟁한 결과 승패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탈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JTBC의 <싱어게인> 프로그램 방식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이긴 자만이 모든 걸 가지는 방식을 지양했던 까닭이다.

4 하지백과 곁사람들

작곡가 박춘석의 이름에는 늘 '사단'이란 표현이 붙었다. 이미자와 패티 김, 남진과 나훈아, 문주란, 정훈희 등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들은 모두 '박춘석 사단'으로 분류된다. 패티 김은 1962년 박춘석의 곡, <초우>로 가요계에 데뷔하였다. 그의

대표곡 <못잊어>(1978),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1983), <가시나무새>(1987) 역시 박춘석의 작품이다. 이미자는 자신의 3대 히트곡으로 백영호 작곡의 <동백아가씨>(1964)와 함께 <섬마을 선생님>(1966), <기러기아빠>(1969)를 꼽았는데, 모두 박춘석의 곡이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1969)의 곡을 쓴 이도 박춘석이다.[20]

'박춘석 사단'과 함께한 시절

하지백은 데뷔곡 <모정>을 발표하던 무렵 '박춘석 사단'에 참여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작곡을 익혔다고 한다. 하지백은 패티 김의 <가을에 남기고 간 사랑>을 박춘석이 다듬을 때 함께했다고 전하였다. 하지백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처음 들었을 때 "소름 끼치도록 노래가 너무 좋았다."[21]고 되돌아봤다. 그 현장은 주로 장충레코딩스튜디오였다. 이곳에서 남진의 <빈잔>(1982), 김지애의 <물레야>(1983), 이문세의 <파랑새>(1984)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 고(故) 박춘석 선생님. 작곡가. 그분을 만난 계기가. 제가 작곡을 배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에 만든 노래들이 제가 같이 박춘석 씨의 프로덕션에 다시 옮겨가서 했던 곡들이 패티김 씨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은 저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기도 하고요. 김지애 씨가 불렀던 <물레야>라는 곡이 있고요. 그 곡은 제가 원래 가사를 초이스해서 박춘석 씨하고 같이 만들어서. 제가 먼저 불러서. 일본으로 가면서 김지애 씨에게, 제가 레슨을 해서. 김지애 씨에게 녹음을 시켜준 곡이기도 합니다.
>
>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은 제가 이제, 박춘석 씨 댁에서 거의 일상을 같이 한 시절이었습니다. 오청수라는 가수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패티 김, 이미자, 남진, 나훈아. 그래서 남진 형님도 거의 뭐, 매일 저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했고요.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당시에 이제 만든 곡들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 일주일 동안 저보고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 노래 어떠냐? 좀 와서 들어볼래? 제가 최초로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피아노를 치시는데. 중간 부분이 조금 옥

1983년 하지백(전영진)의 2집 앨범 《내마음 물망초》 표지. 타이틀곡 <내마음 물망초>는 박춘석이 작사·작곡하고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백

타브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따 따라따라다 따라다 따라 따다다다 땅. 하시는데, 좀 연주하시기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고치신 것도 있고. 일주일 동안 방에 악보를 쭉 펴놓고 나서. 니가 집어서 어떤 게 좀 안 좋을 건지, 좀 검토를, 좀 해달라고, 이런 말씀도 하셔서.

결국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은. 장충동에. 장충녹음실이라는 큰 녹음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었고요. 가수들이 거기서 노래를 녹음을 안 하면 스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문세가 거기서 <파랑새>로 녹음을 했으니까요. (중략)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거기서 했는데. 이건 분명히 소름 끼치도록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히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물레야>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남진 씨의 <빈잔>. (394~395)

하지백이 이른바 '박춘석 사단'에 참여한 것은 그에게 음악 인생의 '자양분'이 된 것 같다. 그는 '박춘석 사단'에서 지금도 유명한 여러 곡의 제작 과정에 함께하면서 작곡과 편곡의 기본기를 다졌던 것으로 보인다. 패티 김의 <가을로 남기고 간 사랑>과

김지애의 <물레야> 등에 얽힌 뒷이야기 역시 흥미롭다.

'친구' 설운도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신인 탄생> 출신

하지백과 설운도는 1958년생으로 나이가 같다. 서로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은 1982년 국내 최초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BS의 <신인 탄생>에 잇달아 출연한 인연이 있다. 그해 2월 하지백이 <신인 탄생>에서 먼저 5주 우승을 차지하였고, 6개월 뒤 설운도가 5주 우승자로 등극하였다. <신인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요계에 데뷔한 점 역시 하지백과 설운도의 공통점이다. 두 사람 모두 가수이자 작곡가, 즉 싱어송라이터라는 사실도 비슷하다. 설운도는 1983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불러 큰 성공을 거두며 대중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22)]

> 작업을 하면서도 늘 생각이, 좀 새로운 걸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설운도를 또 같이, 또 음악을 하게 됐어요. 설운도가. 저는 (1982년) 2월달에 <신인 탄생> 프로그램이 됐었는데. 설운도는 6개월 있다 <신인 탄생>에 우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설운도가 우승이 되고 나서 <쌈바의 여인>이라는 곡을 같이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악보는 그려져 있는데.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설운도가 가로채서 했어요. 이게 참, 비하인드 스토리.
>
> (중략) 그다음에 <사랑의 트위스트>도 제가 같이.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서 같이 작업한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가수로 나서 있고. 저도 서른 두 곡을 주고. 태진아 선배에게도 제가 곡을 주고. 지금 눈에 다 들어 있고 하고 있지만. 아직 한 시대의 음악을, 지금까지도 쭉 이어나가는 버팀목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396)

하지백과 설운도는 노래 두 곡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바로 <쌈바의 여인>(1995)

하지백(전영진)이 1984년에 낸 앨범 표지. ©하지백

과 <사랑의 트위스트>(1997)이다. 하지백의 주장에 의하면 <쌈바의 여인>은 애초 두 사람이 같이하려고 했던 곡이다. <사랑의 트위스트>는 하지백과 설운도가 함께 작업하였다.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와의 인연

가수 조항조는 여전히 중년 팬에 인기가 많다. 조항조는 1976년 언더그라운드 밴드에서 록 음악을 하며 음악 인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그룹사운드 '서기 1999년'의 리드보컬로 참여하여 <나 정말 그대를>(1978), <포구>(1981) 등을 불렀다.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조항조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1997년. <남자라는 이유로>(김순곤 작사, 임종수 작곡)를 통해서였다. <남자라는 이유로>는 원래 가수 박우철이 리메이크해 불렀던 것인데, 지금은 조항조의 '데뷔곡'처럼 각인되어 있다. <남자라는 이유로>가 타이틀곡으로 수록된 조항조의 4집 앨범에는 <꽃이 된 여자>도 포함되었는

데, 이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한창 라디오·TV 방송할 때는 <꽃이 된 여자>라는 노래를 조항조 씨하고 같이 불렀어요. 근데, 조항조 씨는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 이 에피소드는 까먹었네요. <남자라는 이유로>를 제가, 사실 86년도에 처음 불렀어요. 86년도에. (중략) 그 노래는 제목이 <제3자>라는. 조운파 씨 가사로. 그 노래 작곡가 선생님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작곡을 해서 저한테 준 곡이었었는데. <제3자>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 가 있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그 작곡가 분을 KBS홀에서 만났는데. 오, 너, 일본에서 노래한다메? 너, 인기 좋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야, 너 <남자라는 이유로> 하는 노래 아니? 그래서. 아예, 일본에서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노래가 좋던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이고 야, 니가 부른 노래야.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를 제가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반에 넣는데. 매니저가 아세아 레코드사에서 녹음을 해서 음반에 넣는데. 너무 슬프다고. 매니저가 슬프다고, 타이틀곡을 안 하고, B면 타이틀로. 그때 당시 LP였으니까. 사장(死藏- 인용자)이 됐는데. 그 LP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중략)

<제3자>라는. 김순곤이라는,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 가사를 쓴. <흔적>이라든가.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친군데. 그 친구가 가사를 쓴 <남자라는 이유로>를 가지고 히트를 했을 때, <꽃이 된 여자>라는 것을 같이. 음반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매니저가 그 <남자라는 이유로>를. 박우철 씨 매니저도 하고, 조항조 씨 매니저를 했어요. 근데 박우철 씨가 두 번째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남자라는 이유로> 불렀는데. (중략) 박우철 씨가 활동을 못 할 상황이 돼서. 조항조 씨가 부르게 돼서. 이 매니저가 조항조 씨를 데뷔를 시킨 곡이죠. <남자라는 이유로>를. (중략)

당시 장고웅 씨가 음반회사를 설립해서 조항조 씨를 전속으로 묶었었죠. 그래가지고 발매된 곡이 <남자라는 이유로>, <꽃이 된 여자>였었는데. 그 전 매니저가 저를 보고 <꽃이 된 여자>라는 곡이 있다. 보사노바 곡인데, 혁신적인 곡인

데. 니가 한 번 들어보고 노래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봤는데, 곡이 너무 저하고 잘 어울리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장에 제가 취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 매니저가, 그쪽에서 그 곡을 쓰지 않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다 지불이 된 상태인데. 이분이 저한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고웅 씨가 고소를 한다 이랬는데. 어느 행사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데, 장고웅 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진아 여기 와봐. 예,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너, 부른 노래 <꽃이 된 여자>. 원래 누구 건지 알아? 그래서, 알아요., 저. 항조 형이 불렀더라고요. 너, 아니었으면, 원래, 그 곡이 타이틀곡이었다. <남자라는 이유로> 안 부르고 <꽃이 된 여자>를 부르려고 했던 건데, 니가 부르는 바람에 <남자라는 이유로>를 타이틀로 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걸로 가수가 시작이 됐고. 저는 <꽃이 된 여자>를 막,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고소했다, 뺏었다. 다음 곡으로 조항조를 쓸려고. 근데 네가 하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음반 하나를. 니가 그냥 만들어줘. 니가 노래를 불러. 그 대가로 이 노래 불러. 그래서 <꽃이 된 여자>라는 노래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39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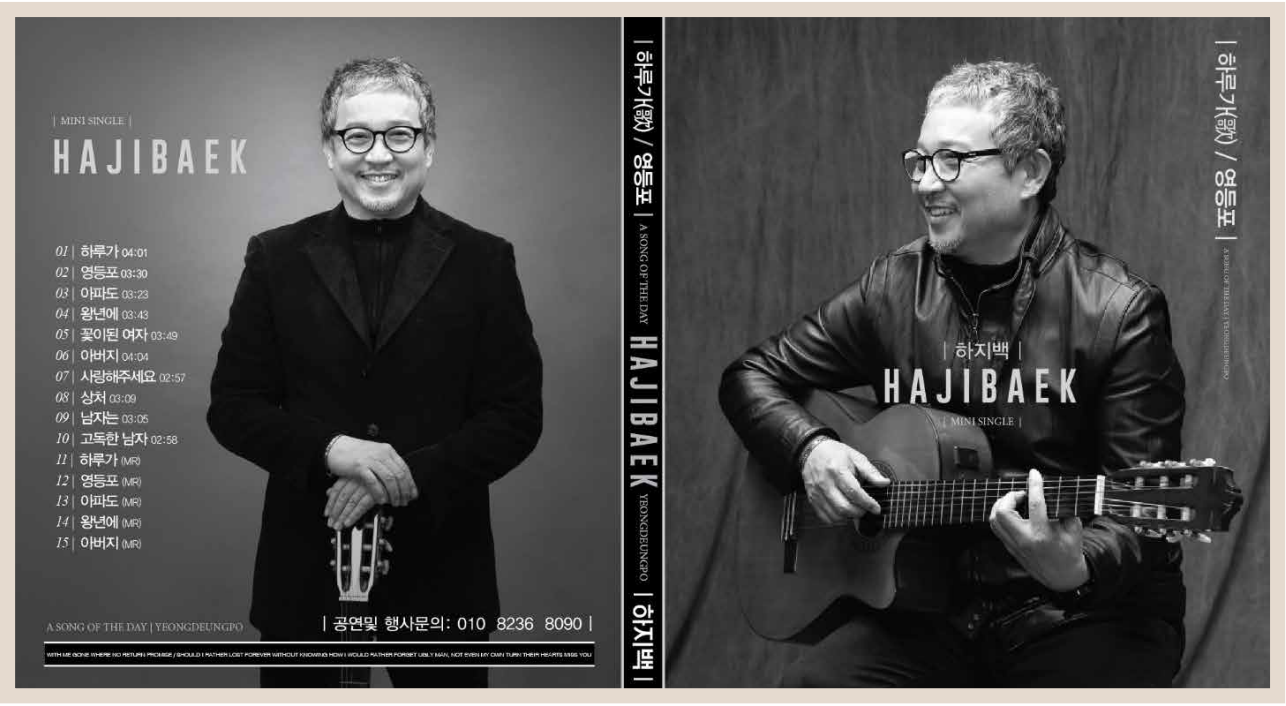
이처럼 <남자라는 이유로>, <꽃이 된 여자> 두 곡 모두 하지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일반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백은 <남자라는 이유로>의 원곡이 1986년 자신이 처음 부른 조운파 작사의 <제3자>였다고 주장한다. <제3자>는 앨범에 넣은 것이었지만, 노래가 너무 슬프다며 매니저가 LP판 B면 타이틀곡으로 돌리는 바람에 결국, 사장(死藏)되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백 본인 역시 이 노래를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가 크게 인기를 얻은 무렵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원곡'인 <제3자>의 작곡자로부터 두 노래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하지백은 또 2001년 매니저의 권유로 보사노바 리듬의 <꽃이 된 여자>(백부선 작사, 송태호 작곡)를 발표하였다고 말했는데, 이 노래의 원래 '주인'이 조항조였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음원 저작권의 개념이 지금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기 이전의 가요계 풍경이다. 조항조를 인기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남자라는 이유로> 역시 박우철의 '원곡'처럼 알려진 것과 비슷한 이치다.

5 부산, 함께하는 문화풍경이 되었으면

하지백은 부산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다. 가요계는 '인기'로 먹고 사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인기 가수'가 아니면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하지백 자신의 노래 제목 <왕년에>(2006)처럼 젊은 시절 화려한 무대 생활은 한 그는 부산의 문화 풍경, 대중가요계와 관련하여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기 가수 쏠림 현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인기 가수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가수, 대중가요계에 첫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가수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며 격려하는 문화가 아쉽다고 하였다. 하지백은 이런 분위기가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에서 더욱 성숙하기를 바랐다.

특이한 부산 문화가 있습니다. 인기 가수에 몰입을 한다는 거죠.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금 인기가, 덜 되더라도 실력 있는 가수들을 조금 많이 배려해주고, 박수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내면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공연장을 가도, 제가 DJ를 하면서, 많은 공연장에 가서 MC를 보면서 느낀 결과가 인기 가수에 너무 치중을 하고. 조금, 거의 소외될 정도의 그런 가수들에게 대해서 좀. 배려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 음악은 다 똑같거든요. (중략)

생활고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에서 카페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또 집사람이 노래를 해요. 유리곤 씨하고 같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부산의 한 해변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부산 정착하고 거의,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서. 각종 방송 활동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와서 노래도 해주시고, 공연도 해보고. 최백호 씨, 남궁옥분 씨.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들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400~402)



하지백이 2020년 내놓은 CD의 표지. 자신의 앨범 타이틀곡 중 선곡해 수록하였다. ©하지백

하지백은 2002년부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가수인 아내 유리곤과 함께 '하지백 라이브카페'를 운영해왔다. 이 카페는 정확하게 20년 만인 2022년 12월 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의 '20년 역사'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카페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분이 있는 많은 가수와 교류하였다. 최백호, 남궁옥분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이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한 노래도 여럿 내놓았다. <왕년에>(2006), <아파도>(2010) 등이 그것이다. 아내의 앨범에 들어간 곡도 직접 만들었다. 이처럼 하지백의 카페는 지친 이들의 쉼터이자 말동무 공간이었고, 노래 창작의 산실이었다.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2) 강명구 외 여럿, 「소리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419~423쪽.

3) 이후에 등장하는 괄호 안 내용은 모두 면담책임자의 말이다.

4)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74쪽.

5)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77쪽.

6)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절정과 분화』, 을유문화사, 2022, 169~171쪽.

7) 1980년대 초 포크 계열의 가수들이 해금되면서 무대로 돌아왔지만, 이들이 설 무대는 좁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가로 변신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CM송과 같은 광고음악 업계였다. 1992년 설립된 한국광고음악협회(KCMC)의 회원 명부에 보이는 광고 음악 회사 대표의 태반은 김도향, 윤형주, 이영재, 이경석(세모와 네모) 등 포크 계열 음악인이었다(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80: 욕망의 장소』, 을유문화사, 2022, 251쪽).

8)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97쪽.

9)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97쪽.

10) 염대형,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 다양화와 싱어송라이터 확대에 관한 연구: MBC, KBS의 연말 가요제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22, 85~86쪽.

11) 하지백의 구술에 의하면 남궁옥분은 훗날 하지백이 부산에 정착한 뒤 광안리에 라이브카페를 차리자 우정 출연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79쪽).

12)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81쪽.

13) 서정민, 「"용필이 오빠~"… 15년 만에 일본이 들썩」, 『한겨레신문』, 2013.11.08(검색일: 2023.03.08.).

14) 염대형,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 다양화와 싱어송라이터 확대에 관한 연구: MBC, KBS의 연말 가요제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22, 90~91쪽.

15) 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90: 상상과 우상』, 을유문화사, 2022, 184쪽.

16) 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90: 상상과 우상』, 211쪽.

17) 김영아,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2, 2008, 159~163쪽.

18) 박관악·양원모·이준영, 「대중의 트로트 장르와 트로트 경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연구」, 『대중음악』 29, 2022, 86~87쪽.

19) 금창태, 「<미스터트롯>은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나-스타시스템과 미디어 전략을 중심으로」, 『관

훈저널』 157, 2020, 181~183쪽.

20) 이대현, 「[지평선] 박춘석 사단」, 『한국일보』, 2010. 03.15, 38면.

2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95쪽.

22) 「설운도, 데뷔 30주년 기념 첫 단독 콘서트」, 『연합뉴스』, (검색일: 2023.03.28.)

참고문헌

[단행본]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절정과 분화』, 을유문화사, 2022.

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80: 욕망의 장소』, 을유문화사, 2022.

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90: 상상과 우상』, 을유문화사, 2022.

강명구 외 여럿,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논문]

금창태, 「<미스터트롯>은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나- 스타시스템과 미디어 전략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157, 2020, 181~191쪽.

김영아,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2, 2008, 159~175쪽.

김현철, 「배우 전옥(全玉) 연구」, 『한국연극학』 13, 1999, 135~168쪽.

박관익·양원모·이준영, 「대중의 트로트 장르와 트로트 경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연구」, 『대중음악』 29, 2022, 79~121쪽.

박영배, 「추산 전용선 단소산조의 선율연구」, 『한국전통음악학』 5, 2004, 159~198쪽.

염대형,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 다양화와 싱어송라이터 확대에 관한 연구: MBC, KBS의 연말 가요제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22, 2018, 69~130쪽.

정지영, 「한국 대중음악에 나타난 작곡적 경향의 분류를 위한 이론적 구조분석 연구- 1980~9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선율과 화성을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2(2), 2013, 211~221쪽.

[보고서]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작곡가 박철홍 ©박철홍

제5장

음악의 새로운 길을 걷다
-컴퓨터음악과 무대음악

작곡가 **박철홍**

박철홍은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에 터를 잡고 활동한
컴퓨터음악 작곡가이자 무대음악 작곡가다.
"음악적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나의 작업이 그저 순수했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986.1.31.)
그는 '클래식음악은 고급, 대중음악은 저급'과 같이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격을 구분하는 시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썰물, 젊음으로 밀려들다

기타를 만나다

박철홍은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에 터를 잡고 활동한 컴퓨터음악 작곡가이자 무대음악 작곡가다. 친구들과 기타 치는 것이 마냥 즐거워 멋진 가발 하나 얹어쓰고 노래를 뽐내던 푸른 청춘은 어느덧 부산 음악계에 몸담은 지 5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박철홍은 1952년 9월 27일(음)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부친 박제용, 모친 손양선의 4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한국전쟁기 민둥산 위에 아버지가 지었던 판잣집에서 귀향, 철민, 철홍, 혜정, 철우, 철호 6남매가 모두 세상에 났다. 부친은 배를 탔는데, 배 위 선반에 두었던 칼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어 그 길로 배에서 내렸다. 형이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이고 배를 탔지만 머나먼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린시절 바다의 풍랑은 가혹했다.

그는 태어난 지 몇 날 되지 않아 뇌막염으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다. 어릴 때는 혼자 걷는 것이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했다. 세 다리로 동네를 나서면 애들은 그 뒤에 붙어 "절룩발이~ 절룩발이~",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다. 친구들과의 놀이도 쉽지 않았다. 걸음이 서투니 금세 술래에게 잡혔고 그와 한편이 되는 것은 곧 지는 편이 되는 것이었다.

경남고등학교 시절 배운 기타는 그를 음악으로 이끌었다. 기타를 한 달 배운 후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니 칭찬이 이어졌다. 기타는 친구들보다 걸음이 느렸던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악기였다. 그때부터 학교 뒤에서 친구와 합주를 하곤 했다. 어릴 적 앓았던 소아마비는 평생의 삶에 큰 흔적으로 남았지만 되려 그런 생채기는 음악으로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좀 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저 사람들을 리드할 만한 게 뭔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기타를 내가 딱 한 달을 배웠어. 한 달을 배우면서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 연주를 했드만은 그건 다 못해. 어? 제법 하네? 날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이 붙은 거야. 재미가 붙고. (29)[1]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철홍은 1972년 부산대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원래 나이대로라면 71학번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다리가 아파 한 해 쉰 후 72학번이 되었다. 대학을 입학하고 그의 음악 활동은 꽤 청년스러워졌다.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가히 젊음과 자유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박철홍은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팀 이름을 만들어 부산의 어느 술집에서 공연하고 또 다른 친구와 새롭게 결합하곤 했다. 트윈 트레이스, 서드파티. 음악 공연을 하며 그가 내걸었던 그룹 이름들이다. 공연하는 날에만 짧게 쓰였던 이름이라 기억 너머로 옅어졌지만 청년 음악의 풋풋함이 묻어있다.

부산대학교 음악동아리 썰물의 창립

부산예술사에서 1970-1980년대 대학 동아리의 역할은 적지 않다. 특히 부산 내 전문 교육기관이 없었던 분야는 더 그러하다. 가령 연극의 경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작비와 무대 등 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다소 서툴더라도 대학생만의 신선한 예술적 시각도 매력적으로 다가선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동아리의 특성 또한 예술의 다양성을 담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훗날 대학극 출신의 인물들이 전문 연극인으로 성장하여 지역 연극계를 이끈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도 대학 동아리의 역할은 상당했다. 1980년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 중 부산 출신은 여럿이었다. 부산 대학생들이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에 입상해 가요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었다. 1985년 동의대 출신 김장수와 임은희가 팀을 이룬 높은음자리가 <저 바다에 누워>(작사·작곡 김장수)로 대상을, 1986년에는 동의대 김명호, 동아대 이용찬, 부산산업대(현 경성대) 김혜정으로 구성된 바다새가 <바다새>(작사·작곡 김명호)로 동상을 수상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같은

해 금상을 받은 도시의 그림자 <이 어둠의 이 슬픔>의 작곡과 작사를 맡은 김영수는 부산 동의대 동아리 무드(MOOD) 출신이다. 대학 동아리는 부산 출신 대중음악인들의 활약을 이끌어내는 토양이기도 했다.

釜山출신들 歌謠界정상 잇따라 노크
「높은음자리」「어우러기」「도시그림자」 등

부산출신 가수들의 가요계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산 출신 가수들은 가요계의 주요 등용문인 MBC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를 통해 대거 진출, 가요계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근년의 경우를 보면 84년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차지한 「무드」 85년대학가요제대상 「높은 음자리」 85년 강변가요제 「어우러기」 86년 강변가요제 금상 「도시그림자」와 동상 「바다새」 85년 신인가요제 대상 이향림 등.

이들 중 높은 음자리가 이미 인기대열에 올라선 데 이어 올해 들어 어우러기, 도시의 그림자, 바다새. 이향림 등이 잇따라 새 음반을 내고 가요계에 정식 도전했다.

또 다운타운가에서 활약하다 중앙으로 진출한 경우로는 <삐삐를 아시나요>의 박은희, <노래하는 이도령>의 이명도, <강화도령 노래하느 김도령>의 김한식, <사랑의 기도>의 최선 등이 모두 부산출신의 신인군들인데 미스 부산 출신의 이향림과 모델 출신의 최선은 미모까지 과시하고 있다.

기성가수들로는 나훈아를 비롯, 최백호, 김수희, 문주란, 유만종, 현철, 문성재, 숙자매 등이 부산출신이다.

부산출신가수들의 활발한 가요계 진출은 다른 곳에 비해 부산 각 대학에서는 음악서클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한다.

부산대학의 대표적인 음악서클은 부산대의 「썰물」, 산업대의 「소릿결」, 동의대의 「무드」 등이며 그 중 부산대의 「우든 키드」, 「블루 헤븐」, 「메디컬Ⅳ」, 동아대의 「허니 문」, 수산대의「모비딕스」가 대표적인 그룹.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6·25 이후 60년대 이전에는 서울피난민을 중심으로 가

요가 형성됐고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서울지향적인 활동에 주력하다 80년대 이후부터는 부산지역 내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일보』, 1987년 8월 3일, 12면.

박철홍은 부산대 음악동아리 '썰물'의 창립멤버다. 노래를 좋아하는 71학번과 72학번 몇몇이 주도하여 썰물을 창립했다. 1기 박광희, 김성근, 장경숙, 2기에 박철홍, 설광룡으로 시작했다. 학번에 맞추어 1, 2기로 기수를 구분했지만 이들이 함께 창립한 것이기에 결국 한 기수인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철홍은 72학번이었지만 71학번과 나이가 같았으니 그가 교량 역할을 했다. 여기에 동아대 작곡과 유영철, 체육대학 백영호를 2기로 영입했다. 구성원들의 역량도 빼어난 편이었다. 박광희와 김성근은 무아음악실[2] 노래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박철홍은 이미 학교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사회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대학동아리 활동은 박철홍의 음악 삶에 큰 토대가 되었다. 외국곡을 편곡해 매년 동아리 공연을 열었고, 종종 오른 무대에서 뭇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도 얻었다. 음

<썰물 40주년 발표회> 팸플릿 ©박철홍

악과 젊음은 아름답고 찬란하다.

> 쫙 씻고 닦고 양복 탁 입고 가발 간단한 거 하나 탁 얹히고. 이래 가가지고 두 시간 동안 그 여자 학생들을 얼반 오줌을 찔끔찔끔 싸도록 재밌게 해줬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니까 아? 저거 참 보기보다는 다르네. 뚝배기보다 장맛이네, 이리 된 거야. (중략) 진짜 부산대학 그 당시에 여학생들을 깜빡 죽일 정도로 내가 호세 펠리시아노 노래를 굉장히 잘했거든. 고음대로 올라가가지고, 소리 내면은 전부 다 그냥 아~ 하고 까무라치는 정도야. 거기다가 라틴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굉장히 잘했고. 공연 마치고 나오면은 (중략) 꼭 뒤에 꽃 몇 송이 들고 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학생이 있었다. (41~42)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앞날을 정해야 했다. 취업률이 높다 하는 공과대학 출신이었지만 그는 이미 음악으로 많이 저물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많지 않았고, 작곡으로 생계를 건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음악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어쩌면 어우렁더우렁 함께 음악을 꾸려왔던 그 시절 동료들과의 끈끈한 인연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시린 취업난에 캠퍼스 낭만은 어느덧 옛말처럼 다가오지만 썰물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2년에는 <썰물 40주년 발표회>가 있었는데, 무수한 선배가 제 역할을 맡았고 박철홍은 총연출에 이름을 올렸다. 그해 썰물은 40여 년 전 그의 젊음이 다시 밀려드는 곳이었다.[3)]

제2회 MBC대학가요제 출품작 작곡과 대상 수상

1978년은 박철홍의 20대 음악 인생에 주요한 해다. 자신이 쓴 곡이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해이기 때문이다.

1978년 어느 날, 후배 조의환[4)]이 찾아와 MBC대학가요제 출품곡 작곡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건넨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로 부산대 썰물은 본선에 올랐다. "부산대 표팀, 그룹사운드 썰물. 마치 밀물이 나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이수만의 너스레로 무대에 등장했다. 썰물은 참가번호 19번, 부산대 공대 김성근(보컬), 전종배(기타), 조의환(기타), 물리대 윤병진(보컬), 사범대 문성주(기타)와 장동인(보컬), 상대 성영호(바이올린) 7명이다. 보컬, 기타에 바이올린이라는 조합은 꽤 신선했고 곡과 멤버들의 실력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 바이올린 연주를 맡았던 성영호는 부산대 실내악단 효원의 단장을 맡고 있던 실력파였다.[5] 제2회 MBC대학가요제에 출전자들의 라인업을 보면 쟁쟁한 실력자들도 눈에 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로는 심수봉(심민경), 임백천, 배철수(활주로), 노사연 등이 있다. 이들을 제치고 썰물은 그해 대상을 수상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지나간 자욱 위에 또 다시 밀려오며 가녀린 숨결로서 목놓아 울부짖는
내 작은 소망처럼 머리를 헤쳐풀고 포말로 부서지며 자꾸만 밀려오나
자꾸만 밀려가는 그 물결은(썰물) 썰물 동여메는 가슴 속을 풀어
뒹굴며 노래해 뒹굴며 노래해 부딪혀 노래해 부딪혀 노래해
가슴 속으로 밀려와 비었던 가슴 속을 채우려 하네 채우려 하네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려 다시 올 파도와 같이 될꺼나

박철홍에게 큰 음악적 가능성을 던져준 이 곡에는 옛사랑의 기억이 얽혀있다.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라면서도 속속들이 꺼낸다.

만약에 어느 다방에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은 나는 다른 행사한다고 늦어져가지고 심지어는 10시간을 오바를 하고 그러면 뒤에 한참 생각이 나는 거라. 전화를 해 보면 앉아 있는 거라. (중략) 사랑 속에는 신뢰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잘 돼 나갈 텐데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지금쯤은 떠나야 될 것 같다. (중략) 내가 그 집 앞에 3일이 있었다이가. 그 오뎅 장사한테 오뎅 국물 얻어먹으면서. 근데 3일 있으니까 그래도 불쌍하

니까 나왔더라고. 이거라도 좀 받아줘라. 이거 받아줄 테니까 자기는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다 잃고 난 뒤에 아 정말 마음이 멀으면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때 쓴 곡이 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야. (42~43)

한동안 이 곡의 작곡가는 박철홍이 아닌 김성근으로 알려졌다. 가요제 참가자들의 자작곡은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작곡가란에 보컬을 맡았던 김성근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학생의 치기 어린 열망이었다. 약 10년 후 박철홍과 김성근은 저작권협회에 가 작곡가 명을 해 이를 바로잡았다. 김성근은 1980년 솔로 데뷔곡집 <밍카>(지구레코드)를 발매하는데 이 앨범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와 함께 박철홍이 외국 민요를 번안한 <밍카>가 수록됐다.[6] 둘은 오늘날까지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제2회 MBC대학가요제 대상 수상 후 한 영화감독이 영화음악 작곡을 요청하는 등 이러저러한 계기는 있었지만 박철홍과는 연이 잘 닿지 않았다.[7] 레코드사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때 만났던 음반 프로모터들이 '도둑놈'과 '사기꾼' 같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음반 프로모터는 가수를 선정하고 음반을 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힘은 일방적이거나 거친 경우가 다반사였던 탓이다. 작곡가명이 뒤바뀐 사연도 있었지만, 비굴해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곳에서 작곡가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할 생각을 하니 슬펐다. 그가 원하던 음악길이 아니라 생각해 다시 부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전국 곳곳 난다 긴다 하는 팀들이 모인 경쟁의 장에서 부산 팀이 1등을 했다는 소식에 부산은 떠들썩했다. "당시 음악은 서울 중심이었는데 부산이 휩쓸면서 난리가 났었다"[8]는 썰물 7기의 인터뷰는 당시의 열기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가까운 주변 사람들만 박철홍의 곡임을 알았을 뿐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부산에, 학교에 머물렀고 종종 방송국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다. 아쉬움이 왜 없었겠냐마는 묵묵히 견뎌내는 것 또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가요제의 문을 두드리며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다.

〈파도소리 그 이후…〉 공연 사진 (〈파도소리 그 이후… II〉 팸플릿, 11-12쪽) ©박철홍

2 전문 음악인의 길로 들어서다: 파도소리 그 이후…

스테이크와 컴퓨터음악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 대중음악의 주요한 소비공간 중 하나였다. 부대 내에는 미군들을 위한 클럽들이 마련되어 있어 악단과 쇼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계급별 클럽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클럽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달랐다. 음악 공연은 상당히 환영받았고 부대 전속 악단도 있었다. 전속 악단은 정기적인 오디션을 통해 급수가 정해지고 AA, A, B, C 등 등급에 따라 출연료도 차등 책정됐다. 악단 구성도 다양했다. 빅밴드로, 하우스밴드로,[9] 때로는 소규모로 구성된 캄보밴드[10]로 편성하여 다양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몄다.[11] 하야리아 부대는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하야리아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시대의 부침 그 중심에 있었지만[12] 음악으로 굴곡의 시대를 위로받을 수 있었던 곳이었다.

박철홍이 컴퓨터음악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이 하야리아 부대에서였다. 1976년 무렵 대학을 졸업하는 즈음이다. 하야리아 부대 내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날, 배고픈 그를 설레게 한 것은 노래 후 얻어먹을 수 있었던 스테이크였다.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에 미제 스테이크를 '썽글 수' 있다는 것은 큰 횡재다.[13] 두둑히 먹고 나오는 길에 테이블 위 놓여진 잡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컴퓨터 그림과 함께 '당신도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도 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음악과 관련한 것이라 생각하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미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잡지에서 봤던 프로그램을 구했다. 하지만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있어서 될 건 아니었다. 컴퓨터와 악기 간의 신호를 통역해주는 역할의 미디인터페이스(MIDI Interpace)를 구해야 했다.

> 할라니까 어떻게 해야 소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악기 사러 일본 갔다 그랬제. 또 물어 물어서 미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더라. (59)

당시 부산에서 미디인터페이스를 구하기는 힘들었고 그나마 서울 악기상가에서 판매하고 있었지만 몇백만 원을 호가할 만큼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일본에 직접 가 구하는 것이 더 저렴했다. 1989년에야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었으니 일본을 다녀오는 것 또한 가벼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것 아니고는 딱히 묘수가 없었을 터다. 이렇게 보따리장수를 하던 형을 따라나섰고, 일본에서 구해온 미디인터페이스는 컴퓨터음악 작곡 활동의 첫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컴퓨터음악은 획기적이었다. 전통적 악기들은 연주자에 따라, 날씨와 습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컴퓨터음악의 소리와 박자는 언제나 일정했고 딱 맞아떨어졌다. 클래식 악기 연주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어려움도 거뜬히 해결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기타로 음악에 접어들었고 여러 악기를 스스로 독학했지만, 그의 곡을 풍성하고 유려하게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음악과 신디사이저는 그의 어려움을 충분히 소화했다. 투박하게나마 음률을 입력하면 연주 걱정 없이 음도 자유자재로 증축할 수 있었고 그 음색과 소리도 신비로웠으니 거리낄 것이 없

었다. 이뿐만 아니다. 작곡, 연주, 녹음까지 모두 혼자서 가능해 곡을 연주하기까지의 절차와 수고로움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많은 연주자를 규합하고 그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일을 더는 동시에 연습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장소, 비용도 없애주었다. 컴퓨터음악은 음악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을 넘어 그의 능력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야말로 0과 1, 이 두 숫자가 엮어내는 음악은 무궁무진했다.

> 내가 피아노 전공을 했다, 바이올린 전공을 했다, 성악 전공을 했다 라고 했을 것 같으면은 컴퓨터음악을 안 했을는지는 몰라. 근데 나는 내 바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머리 안에 어떤 음이 흘러가고 어떤 음이 거기 증축을 하고 어떤 놈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가 연주를 잘 해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컴퓨터라는 놈을 보니까 아 이게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악기는 내 악기다. (35)

> 항상 혈혈단신, 혼자서 나는. 여기 컴퓨터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행운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들을 항상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규합을 했었어야 했을 텐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 마음이. (중략) 내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참, 컴퓨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 (83)

컴퓨터음악은 컴퓨터로부터 음 소재를 얻거나, 작곡과 편곡, 연주, 녹음, 음향합성, 사운드 디자인과 같은 음악의 창작 과정에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음악이다. 오늘날에 들어서야 컴퓨터음악은 보편화되었지만 1970-80년대 부산 내에서 컴퓨터음악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산 문화예술사에서도 주변부에 존재하는 장르로 그간 다루어진 바가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철홍은 부산지역 컴퓨터음악 영역의 초기 주자다. 음악적으로 그가 부족했던 점을 상쇄할 수 있는 동시에 선행자로서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것은 그의 음악 삶에 결정적인 기회였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컴퓨터음악에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전에 내가 전력질주하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바로 이거다. (35)

메뉴 안에 들어가 보면 퀀타이저(quantiz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게 정량화 뭐 이런 말인데, 이 기능을 몰랐을 때는 혼자서 4년을 고민을 했어. 이 단어 하나를 해독을 못 해가지고. 알고 나니까 남한테 설명해 주는 건 3초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만에 박자를 맞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틀리게 연주를 해도 이 퀀타이저를 딱 적용시키면은 몇 분의 몇 박자로 맞차라[맞춰라] 하면 쫙 맞차주는데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그냥 몸이 고생하는 거야. (59~60)

하지만 부산에서는 스승이나 길라잡이를 찾을 수 없었으니 그 길도 쉽지 않았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컴퓨터음악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었고,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해 하나의 기능을 깨닫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 노력과 시간은 곱절로 들었지만 천천히 하나하나씩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음악 비전공자로 악기를 다루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것은 음악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이 되었지만, 되려 컴퓨터음악에서만큼 공대 출신이라는 이력은 기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었다. 삶이라는 큰 강 속에서 물길은 서로 만나기 마련인가보다.

이후 1980년도에 배우자 윤수진과 결혼한다. 황혼을 맞은 지금에야 살뜰한 세월을 같이 보내온 아내에게 고마움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정성스레 모은 곗돈으로 컴퓨터음악 장비를 사러 다녔던 야속한 남편이었다.

돈이 없었으니까 장비 사고. 처음 장비 사러 갈 때도 야, 마누라 곗돈 모아논 거 꼬아가지고 빼들어가지고 조그마한 49건반짜리 미디, 신디사이저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마누리 찔찔 울어샀코. (38)

첫 작곡발표회 <파도소리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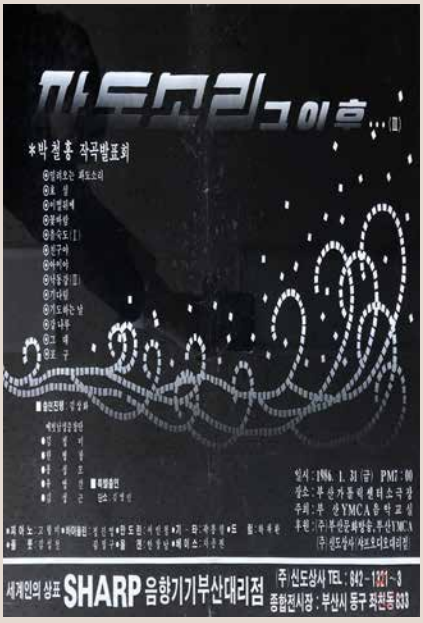
1984년 1월 27일 오후 7시, 부산가톨릭센터. 박철홍의 첫 작곡발표회가 열렸다. 이때 무대에 올렸던 곡은 14곡이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작사·작곡 박철홍)를 비롯해 <호심>(작사·작곡 박철홍), <유월 하루>(작사·작곡 박철홍), <NOEL MY LOVE>(작사·작곡 박철홍), <그 길>(작사·작곡 박철홍), <그리움>(작사·작곡 박철홍), <별에게>(작사 박미리, 작곡 박철홍), <바람을 따라 생각나는 친구>(작사 호민아, 작곡 박철홍), <기다림>(작사 김현돈, 작곡 박철홍) 들들이다.

노래는 유영건, 장지은[14], 김정미, 바이올린은 이경미, 김영옥, 하정희, 피아노에 장정숙, 올겐 안창남, 기타 김종관, 베이스 곽봉렬, 드럼은 손명준이 연주했다. 진행은 YMCA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강열우[15]가 맡았다.

두 번째 작곡발표회 <파도소리 그 이후… Ⅱ>는 2년 뒤인 1986년에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별 뒤에>(작사·작곡 박철홍), 친구야(작사·작곡 박철홍), <아이야>(작사·작곡 박철홍), <낙동강 Ⅱ>(작사·작곡 박철홍), <꽃바람>(작사 허남건, 작

〈파도소리 그 이후…〉 공연 사진 (〈파도소리 그 이후… Ⅱ〉 팸플릿, 11-12쪽) ©박철홍

박철홍 작곡발표회 〈파도소리 그 이후…〉 프로그램 표지와 초대권
©박철홍



〈파도소리 그 이후…II〉포스터 ©박철홍

곡 박철홍), <기도하는 날>(작사 김현돈, 작곡 박철홍) 등 총 13곡을 선보였다. 전체 곡 중 4곡은 첫 번째 작곡발표회에서 연주되었던 곡이고, 자신의 고향 부산의 바다와 강을 노래하는 곡들을 발표했다.[16] 기타 곽봉열, 베이스 지종원, 드럼 하재환, 오르겐 안창남, 바이올린 김정구, 정진영, 피아노 고향미, 플루트 김성철, 만돌린에 서인철이 연주했고, 예벗중창단, 김정미, 한병창, 홍성모, 유영건, 김성근이 노래했다. 이 때는 김상화가 진행했다.

대중음악과 순수음악 사이

1970년대 부산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했던 가수 중 대중에게 익숙한 이들로는 최백호, 현철, 박은옥 등이 있다. 최백호는 화가를 꿈꾸던 미술학도였다. 하지만 20살 되

던 해, 큰 버팀목이었던 모친이 별세한 후 의병제대를 했고 그 후 친구의 매형이 운영하는 부산 서면 통기타 라이브 클럽 '틴클럽'에서 노래했던 것이 가수 생활의 시작이었다.[17] 훗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의 노래 <영일만 친구>의 주인공 홍수진도 부산의 인기 DJ였다.[18] 현철은 부산에서 그룹 '현철과 벌떼들'을 결성하여 리드보컬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에는 팝송으로 주로 불렀고 트로트로 전향한 것은 그 이후다. 치열한 시대 정신을 노래하는 정태춘의 동반자 박은옥은 마산여고를 졸업한 이후 부산 음악다방에서 DJ로 활동하다 최백호의 권유로 서울에 상경한 인물이다. 그녀 또한 음악 생활의 큰 발판은 부산이었다.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부산 곳곳에 있었다. 광복동 무아음악실, 남포동 별들의 고향, 서면의 상레모가 그러하다. 이곳에서 음악을 즐기는 이들도 많았다.

대중음악은 특별한 음악 이론이나 사전 지식 없이도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이 지니고 있는 대중적 성격이 예술성, 진정성과 대치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역사를 지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지역 음악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철홍은 '클래식음악은 고급, 대중음악은 저급'과 같이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격을 구분하는 시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작곡발표회 프로그램에서도 대중음악의 부상,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부드러운 접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대중음악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한 생각은 초기부터 뚜렷했다. 그가 꾸준하게 대중문화와 순수음악 간의 가치를 수직적으로 구분 짓는 것에 반대해왔던 이유는 아마 대중음악의 스타일이나 가치를 경시하던 음악계의 차가운 시선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 음악적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나의 작업이 그저 순수했다는 것 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중략) 대중과 괴리된 차원 높은 음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높고 깊은 순수음악으로 무한정 좇아가는 발버둥을 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결코 천박하지만 않다면 족한 그러면서도 궁극의 목표로 한 순수음악과 POP과의 부드러운 접목을 위해 힘이 닿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19]

내가 어떤 경험이 하나 있느냐 하면 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라고 하는 곡을 지금부터 한참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중략) 경성대 합창단을 보고 이 곡을 합창으로 좀 해가지고 불러주세요 해서 내가 이제 합창으로 편곡한 곡을 전해줬어. 그런데 가보니까 노래를, 내가 원하는 식의 노래가 아니라 밀려오는 그 파도~ [성악 스타일의 중저음] 이러고 있는 거라. 각 파트가. 그게 아니고요, 목에 힘을 다 빼고요 그냥 그냥 읊조리듯이 밀려오는 그 파~ [포크송 스타일의 발성] 이렇게 해도 이 합창단 전체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주는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나올 수 있다니까, 그 지휘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노래 못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대중가요라도 노래는 성악적인 발성으로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69~70)

3 음악, 무대를 채우다

방송음악 작곡의 시작

박철홍은 주로 방송음악과 무대음악 분야에서의 활동이 돋보였던 작곡가다. 그의 음악이 빛을 발했던 장르도 방송계와 공연계였다. 그 길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대상 이후 1980년대에는 여러 차례 대학가요제와 창작가요제에 참여했다. 어떤 때는 상을 받기도, 또 어떤 때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활동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우연찮게 부산MBC <오륙도의 합창> 프로그램의 바람잡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다. <오륙도의 합창>은 코미디언 고영수의 사회로 학생들이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의 담당 PD였던 오재면 PD는 그의 활동을 눈여겨보았고 박철홍에게 다큐멘터리 삽입곡 작곡을 제안했다.

그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대상 받고 난 이후에, 대상 받았을 때도 학교에 찾아왔을 때 내가 학교에 있고 하니까 우연하게 마주쳐서 곡이 내 곡이라는 걸 그 형님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중략) 그 양반이 "야 우리 요번에 다큐멘터리 한 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할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인제 이 배경 음악을 전부 다 외국 시디 음반이나 이런 음악들이 인자 따와서 쓰고, 저작권료 주고 그랬겠지. 그랬었는데, "작곡을 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니가 작곡 한번 해볼래?" 이러길래 나한텐 좋지 영광이지. (56)

작곡가로서의 삶에 또 다른 기회였다. 그가 자리잡고 있던 YMCA의 지하 보일러실은 좋은 작업공간이 되어주었다. 작업방식은 일명 핑퐁 녹음(pingpong recording)이었다. A 레코더에서 파트 1을 녹음하고, B 레코더로 파트 1 녹음소리와 파트 2 연주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음이 두 대의 레코더를 탁구공처럼 오가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핑퐁녹음은 잡음이나 음질 저하의 우려는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다중녹음을 할 수 있었다. 방송 내용의 주제는 갈대였는데, 갈대의 여운을 남길 악기로는 팬플룻을 선택했다. 팬플룻은 그가 YMCA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악기였기에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내가 직접 팬프룻을 들고 내가 직접 불었어. 부부~ 부부~ [팬플룻 부는 모션] 해가지고, 직접 불은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갈대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들어 있는데, 아 이게 전체 나머지도 히트를 쳤어. (56)

그가 참여했던 부산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갈대>는 1989년에 방영되었고 그 해 '89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다. 훌륭한 연출에 더불어그의 음악이 좋은 시너지가 되었을 것이다. 삽입곡들도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박철홍은 방송 삽입곡이 주목받았던 이유로 신디사이저 사운드의 생소함을 꼽는다. 박철홍의 음악은 당시 대중에게는 새로움과 낯섦의 장르였다.

연극음악 작곡가로서의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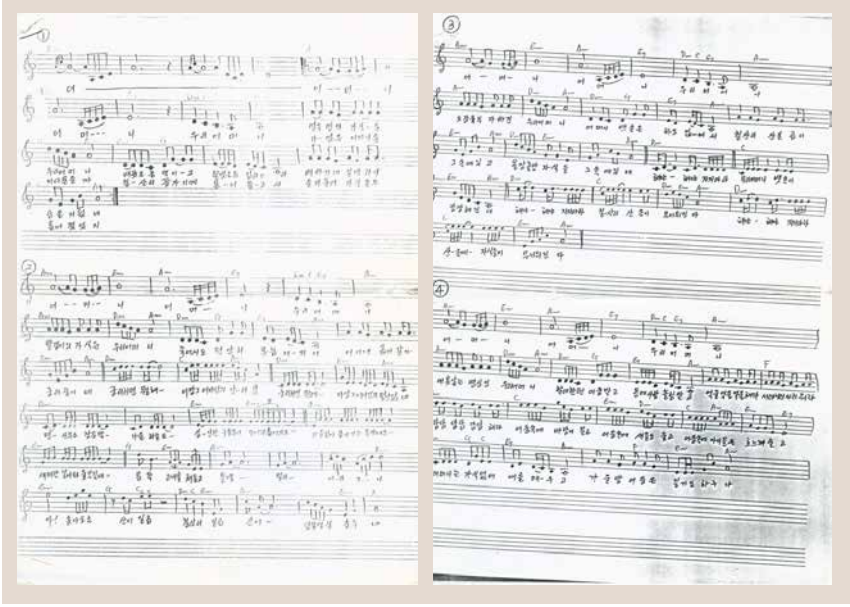
그즈음 연극연출가 허영길이 연극에 넣을 곡을 의뢰해왔다. 허영길은 1963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한 연극연출가다. 극단 전위무대를 시작으로 소극장69,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극단 Say와 극단 사계를 거치며 직업으로서의 연극인,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연극을 실현하기 위해 힘쓴 인물이다. 당시 허영길은 1990년 제8회 부산연극제 참가작 <칠산리(七山里)>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뛰어넘어야 했던 문제가 있었다. <칠산리>는 지난 1989년 서울연극제에서 한 차례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라는 것이다. 서울 극단의 작품을 모방한다는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 그만의 연출기법을 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20] 이때 가장 돋보였던 것이 무대 장치나 무대 전환 기법이었다. "무대 장치를 활용한 무대 장면 전환의 기법이 아주 뛰어났"다는 평은 이를 뒷받침한다.[21] 음악에도 기존의 연극음악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박철홍에게 맡기기로 했다. 박철홍은 컴퓨터음악으로 곡을 만들었다.

> 하루는 돌아가신 허영길 선생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이제 어떻게 알고서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음악을 좀 새롭게 해서 넣고 싶다. (55)

<칠산리>는 제8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상, 연출상, 여자연기상, 미술상을, 전국연극제에서는 우수상, 연출상,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허영길의 연출력과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박철홍의 컴퓨터음악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이전에도 그는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의 <불타는 서낭당>(1986, 연출 이기원), 극단 부두극장의 <달라진 저승>(1988, 연출 이성규) 등 몇 작품에 참여한 바 있었다고 말한다. <달라진 저승>의 경우 1988년 제6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는데, "연기와 무용 음악이 앙상블을 이루었다."[22]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연극음악에 대한 경험은 있었지만 컴퓨터음악을 연극무대에 올린 것은 1990년 <칠산리>가 처음이었다. 무대음악으로서의 컴퓨터음악 데뷔전을 치른 셈이다.

1990년 제8회 전국연극제 참가작-극단『부산』레퍼토리시스템 <칠산리>(연출 허영길, 작곡 박철홍) ©심창신



연극 <칠산리> 삽입곡 악보 사본(허영길 소장본) ©정민경

연극 <칠산리> 공연 장면 ©정민경

박철홍이 컴퓨터음악으로 부산연극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극작품만을 위한 창작곡은 그리 흔치 않았다. 주로 기존에 있는 곡을 선곡, 편집해 쓰는 방법을 활용하거나[23] 인맥을 통해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공연한 작품 대본을 받으며 음악 자료도 함께 받아 사용했다. 어떤 때는 대학교 음악동아리 학생들에게 음악을 의뢰했고 기타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간단히 녹음해 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연극이 종합예술이라고는 하지만 대형공연이 아니고서야 지역에서 창작곡을 만들어 극을 제작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을, 그것도 컴팩트한 방식으로 작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많은 부산연극인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작곡과 연주가 가능한 그의 음악이 연극계의 처지에도 적잖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부산연극계에서의 작곡 활동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박철홍이 작곡을 맡았던 연극 작품들이다.

1990년대: <칠산리>(극단『부산』레퍼토리시스템, 1990), <해마>(극단 무대예술 맥, 1990), 뮤지컬 <원효대사>(극단 하늘개인날, 1991),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극단 Say, 1992), 송영창 모노드라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오뚜기>(극단 전원, 1993), <바보각시>(연희단거리패, 1993), <물이여! 불이여! 바람이여!>(극단 고마, 1994), <돼지와 오토바이>(극단『부산』레퍼토리시스템, 1994), <의원님 그리고 도둑놈>(극단 고마, 1994), <무엇이 될고하니>(극단 처용극장, 1995),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극단 Say, 1995),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극단 처용극장, 1996),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극단 하늘개인날, 1997), <돌아서서 떠나라>(극단 하늘개인날, 1998), <견습아이들>(극연구집단 시나위, 1999), <느낌, 극락같은>(극단 하늘개인날, 1999) 외 다수

2000년대: <난난>(극단 고마, 2000), <적과의 이중주>(극단 아센, 2000), <아! 1950년>(부산 남구·남구문화예술회연극회, 2000), <아비>(극단 하늘개인날, 2001), 뮤지컬 <자갈치>(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2002), 뮤지컬 <들풀>(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회, 2002), <오해>(극단 에파타, 2003), <효: 어무이 어무이요>(극단 맥, 2003), <태자 햄릿>(부산시립극단, 2004), <셰익스피어의 연인들>(장고개 연극작업실, 2005), <불씨>(천주교부산교구설정50주년기념사업위원회·부산가톨릭연극인회, 2007) 외 다수

2010년대: <방외지사 이옥>(극단 하늘개인날, 2010), <그 분이 오신다>(극단 하늘개인날, 2012), <서푼짜리 오페라>(부산예술대학교 연극과, 2013), <갈매기>(극단 자유바다, 2015), <이[爾]>(부산시립극단, 2018) 외 다수

그와 작업을 함께 한 연출가들은 극단 고마의 김승일, 부두극단의 이성규, 극단 처용극장의 이동재, 극단『부산』레퍼토리시스템의 이기원,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바문사)의 홍성모 등이 있다. 허영길과의 인연은 이후로도 지속됐다. 특히 허영길은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연출가였는데 <칠산리> 이후에도 연극연출가 허영길의 작품에는 박철홍이 작곡한 곡이 많다. 오랜 기간 세월을 나누다보니 부산 연극인들과의 인연이 깊다. 그에게 연극계 곁사람들을 물으니 누구 하나 이름을 빠뜨리면 서운해할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읊는 데도 살뜰하다. 인연만큼 깊은 애정이 배어있는 모습이다.

연극인 후배들에게 그는 무대음악의 대부로 통한다. 박철홍의 컴퓨터음악은 부산연극계의 질적 성장에 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음악은 극의 전개에 큰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 박철홍은 그러한 음악을 알맞게 창작하여 극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렇게 연극계는 그의 주 분야가 되고, 어느덧 마음이 깃드는 곳이 되었다. 박철홍이 퇴임한 후 발길을 돌린 곳도 연극계다. 그간 부산연극계의 지형도 바뀌었을테지만 그와 함께 작업을 했던 이들은 여전히 그 곳에서 무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았던 곳에서 다시금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

무용음악 작곡 활동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무대와의 인연도 두텁다. 다큐멘터리 <갈대>가 전파를 탄 이후, 어느 날 한 전화를 받게 된다. 무용가 김미숙이다.[24]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다큐멘터리 <갈대>의 삽입곡이 뇌리에 박혀 박철홍에게 음악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 그게 뭐냐니까, 무용을 하는 양반인데 자기 그 무용 공연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연하게 이 <갈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다, 그런데 참 그 소리들이 색다르고 자기가 자기 춤의 배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공연에 음악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가 그 음악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막 퍼지지. (57)

무용계에서도 그는 인기 있는 작곡가였다. 김미숙을 시작으로 무용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 많은 무용인이 그를 찾았다. 연극계보다 무용계는 조금 넉넉했는지 무용음악 작곡비는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아내의 곗돈을 빼앗아 사들였던 음악기기들이 10년 만에 제 몫을 톡톡히 해낸 셈이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그가 음악을 맡았던 무용공연도 여럿이다.

1990년대: <부산현대무용단: 김현옥의 춤>(부산현대무용단, 1990), <춤패 두름 창단공연>(춤패 두름,

1992), <부산시립무용단 제29회 정기공연: 名人>(부산시립무용단, 1993), <가마골소극장 개관 7주년기념 제2회 가마골 춤판>(가마골소극장, 1993), <제12회 창원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땅이여! 창원땅이여!>(창원시립무용단, 1994), <'제14회 부산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발표회 舞' 중 '살아있는 모습 그 황혼에'>(권녹화, 1995), <제5회 전국무용제 참가작 '두견새는 살그내에 우는가?'>(강화자무용단, 1996), <김미숙의 춤>(김미숙, 1997), <다섯번째 변지연 춤>(변지연, 1998), <99 이귀선의 춤>(이귀선, 1999) 등

2000년대: <김옥련의 이천년 재민는 발레이야기…>(김옥련발레단, 2000), <제3회 염창홍 현대무용>(염창홍, 2000>, <2001 양학련 창작춤 공연: 청년세월 황진이 회상-어져 내일이여>(양학련, 2001), <2001년 정진욱의 창작춤: 빙어>(정진욱, 2001), <이현미 창작춤 공연: 그것은 바람부는 날의 무심공이었습니다>(이현미, 2002), <'내일을 여는 춤' 중 '푸른 뱀'>(김미숙, 2003),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30주년 제50회 정기공연: 벽공>(부산시립무용단, 2003), <김옥련 발레: 소울메이트>(김옥련발레단, 2004), <2006 장정윤 순수현대무용창작공연>(장정윤, 2006), <2008 김미숙의 창작춤: 야광귀의 꿈>(김미숙무용단, 2008) 등

2010년대: <이상 문학사상: 날개>(김옥련발레단, 2010), <2011 정진욱의 전통춤: 한국의 춤과 소리>(정진욱무용단, 2011), <'제9회 부산국제무용제' 중 '공존'>(장정윤무용단, 2013), <'제16회 부산무용제' 중 '우주나무'>(장정윤순수현대무용단, 2017) 등

그는 무대음악을 작곡할 때 연출자와의 논의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자리에서 음악은 이들의 연기를 그리고 몸짓을 더욱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철홍의 무대음악은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뒷패를 자처했지만 그 자체로 무대의 밀도를 더없이 높였다.

>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대중이 선호할 수 있는 저 감정적 이입만 되면은 재료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무대는 그것이 연극이든 무용이든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본에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무대 작업으로 와서는 내가 절대로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똑같은 작품을 해도 연출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느낌을 내가 최대한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요. (62)

1988년 부산에서는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공연이 막을 올렸다. 이 뮤지컬의 제작자는 부산 연극인 홍성모였다.[25] 홍성모는 미술 전공이었지만 1977년 제1회 MBC대학가요제에 <제비>라는 곡으로 본선에 진출했을 정도로 음악에 뜻이 깊었던 연극연출가다. 박철홍은 홍성모가 서울 극단 현대극장에 '무대뽀'로 가 단돈 50만 원에 작품을 받아왔다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이렇게 무대에 오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부산 연극인이 제작에 나선 최초의 뮤지컬로 회자되는데, 이때 박철홍이 음악감독을 맡게 되었다. 종종 서울 뮤지컬 공연이 부산에서 공연되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부산에서 제작을 한다니 그에게는 귀한 경험이었다.

연출은 한국의 굵직한 문화행사들을 진행하며 대형극 경험이 풍부했던 유경환

1988년 록 오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팸플릿(음악감독 박철홍) ©박철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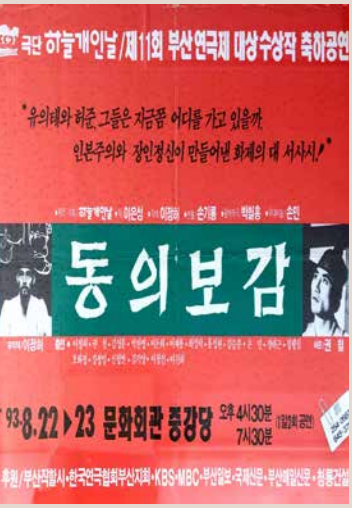
1991년 극단 하늘개인날 뮤지컬 <원효대사> (연출 이기원, 작곡 박철홍) ©박철홍

이 맡았다.[26] 예수 역에는 연극인 이재용,[27] 황종덕, 막달라 마리아 역에는 가수 윤복희와 배성신이 더블캐스팅되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극단 현대극장에 2,000만 원이 넘는 흑자를 안겨주었던 작품이었다.[28] 윤복희는 극단 현대극장에서 이 작품으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오른 바 있어 안정적인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가수로서의 대중성도 확보하고 있어 흥행을 기대해 볼 만했다.[29] 무엇보다 부산에서 제작한 뮤지컬이 부산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었다. 많은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생소한 장르였던 탓일까, 아쉽게도 결과는 참패였다.

3년 뒤인 1991년, 다시 뮤지컬의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도 우리의 정서를 담은 뮤지컬을 제작해보자는 극단 하늘개인날 정허 스님의 제안으로 뮤지컬 <원효대사> 음악을 맡게 된 것이다. 작품도 이렇게 절묘할 수 없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기독교 기반의 내용이었다면, <원효대사>는 불교였다. 박철홍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의 세례명은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렇게 예술은 종교를 넘나든다.

> 왜 뮤지컬을 하려면 서양 작품을 가져와서 이래 빼겨가지고 우리가 서양식으로 이래 흉내만 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하늘개인날에 이정허 스님[30]이 그래도 발 벗고 나서가지고 우리 것을 해봅시다. 근데 그 양반은 불교잖아. 나는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다라>, <원효대사>, 또 또 뭐 하여튼 몇 개의 뮤지컬을 그래도 무대 하나 올렸나? 그때 그래도 <만다라>가 성공을 했나 이래가 돈 좀 벌었어. (64~65)

1991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무대에 오른 <원효대사>는 6,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을 거뒀다. 인기에 힘입어 이듬해 1월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재공연하기도 한다.[31] 부산 극단인 하늘개인날의 정기공연으로 이정허 작, 이기원 연출, 박철홍 작곡, 부산 배우들과 부산시립무용단이 출연하였으니 그야말로 부산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부산 연극인이 라이센스 공연을 제작한 것이었다면, <원효대사>는 극작부터 기획, 작곡, 공연까지 모두 부산 연극인들이 만든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두 공연을 부산 뮤지컬에 깃발



박철홍이 참여한 공연 포스터 ©박철홍

을 꽂았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박철홍의 손길이 닿았다. 극작가 김문홍은 "뮤지컬 <원효대사>를 기점으로 부산 연극계에서도 뮤지컬 제작과 공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32]

이후에도 <오메가 햄릿>(극단 고마, 1993), <서푼짜리 오페라>(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1993), <자갈치>(극단 현장, 1993), <철부지들>(1993), <만다라>(극단 하늘개인날, 1994), <들풀>(부산광역시, 2002), <백산 안희제>(아지무스오페라단, 2011), <철마장군을 불러라>(극단 자유바다, 2019) 등 뮤지컬과 오페라 작곡 활동을 했다. 박철홍의 악보 파일에서 <왕돌이와 장화신은 고양이>(1990),[33] <헨젤과 그레텔>(1990),[34] <요술할멈과 신데렐라>(1991)[35] 등 어린이 뮤지컬 작곡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당시 절친한 사이였던 홍성모와의 기획으로 어린이 뮤지컬 곡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의 음악은 부산의 무대를 누비며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4 부산 대중음악 교육자로서의 걸음

싱얼롱 Y와 부산YMCA음악교실

박철홍은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부산YMCA에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또 '싱얼롱 Y', 건전 노래 부르기 운동과 맞닿는다. 건전 노래 부르기 운동은 "건전한 가창으로써 사회를 순화하고 정서운동"을 펼친다는 기치 아래 추진된 운동이다. 이때 전석환이 주도적인 역할을 펼쳤는데, 그가 주로 추진했던 '새노래운동중앙협의회'는 '대중문화의 건전화를 노래로써 이룩해 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YMCA-대학 캠퍼스를 통해서 건전가요를 보급했다.[36]

싱얼롱 Y는 1965년 서울 중앙YMCA에서 시작된 노래 프로그램이다. 진행자의 리드 아래 노래를 배우는 형식이었는데, 찬송가를 비롯해 한국민요, 팝송, 가곡, 동요, 가

요 등 분야도 다양했다. 초청공연단이 기타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의 인기를 누렸고 그 열기에 힘입어 이후 전국 YMCA에 싱얼롱 Y 프로그램이 보급되었다.[37] 박철홍은 대학교 1학년 시기부터 YMCA와 YWCA에 드나들었는데 건전 노래 부르기 운동과 함께 부산YMCA의 싱얼롱 Y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악기를 가르치게 된다.[38]

내가 옛날에 고등학생들 노래 부르는 모임에, 앞에서 끌고 가는 그걸 많이 했어. (중략) 옛날에 건전 노래 부르기라고 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많이 벌어진 적이 있어. 그때 이 전석환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한국에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부산 같으면 김정모라는 사람하고, 또 박우성, 또 내 박철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전 노래 부르기를 보급을 했는데. (중략) 어. 그래서 인자 그런 활동들을 쭉 하다가 YMCA에서 YWCA도 마찬가지고요. 싱어롱을 하면서 악기를 가르치게 된 거야. 처음에는 이제 기타 하나를 가르쳤지. 그라다가 그 수업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학기로 확대되고 하면서 인제 뭐, 기타, 만도린, 크로마하프, 우쿠렐레, 하모니카, 리코더 하여튼 일반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빼놔 놓고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악기들은 거기서 다 가르치는 학원을 오래 하기로, 한 30년 이상 했어. (77~78)

이렇게 부산YMCA음악교실에서 악기들을 가르쳤던 것이 그의 음악교육 활동의 초기 모습이다. 처음에는 YMCA가 전체를 주도하고 박철홍은 시간강사로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운영수익이 들쭉날쭉하게 되면서 박철홍이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나섰다. 처음에는 기타로 시작한 것이, 만돌린, 크로마 하프, 우쿨렐레, 하모니카, 리코더 등 가르치는 악기들도 늘었다. 대중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 위주였고 혼자 독학하여 가르쳤다.

엄청 많은 악기를. 그때는 하여튼 손만 대면 다 연주가 됐어. 그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79~80)

하지만 YMCA에서 음악교실을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이 시원치 않아 고관 주변에서 '토마스 기타교실'을 개설한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나름 짭짤한 수입이 있었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그가 부산YMCA음악교실을 운영한 것이 30여 년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세월이다.

후루꾸, 교수가 되다

박철홍은 부산대 공대를 졸업했다. 독학으로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음악활동을 이어갔지만 음악 교육에 대한 갈증은 깊었다. 대학교를 갓 졸업했던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박철홍의 친구였던 박우성은 소년의 집 중학교[39]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서울로 가게 되면서 음악선생 자리를 박철홍에게 물려줬다. 박철홍은 그간 음악활동을 하며 직접 체득했던 것,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 1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니와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 경험치가 부족했으니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 박우성이란 친구가 소년의 집 중학교, 송도 가면 있는, 거기에 음악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서울을 갈 일이 있었어. 서울을 가면서 나를 거기다가 소개를 해준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음악선생을 좀 했는데. 내가 그 합창을 가르친 아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은 합창이 마 잡창이 돼뿟어. 그래가지고 그 원장 수녀님한테 요까지만 하이소 하고 내가 쫓겨나온 경험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음악 공부를 독학을 하게 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지. (80)

오늘날 부산 대중음악 정규 교육기관은 동아대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부산예술대 실용음악학부, 동의대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과 뉴미디어작곡전공, 고신대 음악과 K콘텐츠전공 등으로, 부산 대중음악계의 산실로 역할하고 있다. 더 좋은 소리, 더 좋은 몸짓을 내기 위한 수련은 오랜 기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예술계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부산 대중음악 교육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에 들어서다. 동아대학교 음악학부와 부산예술학교가 초기에 형성된 기관으로, 박철홍은 이 두 학교와 인연이 있다.

부산예술학교(현 부산예술대)의 1994년 설립을 앞두고다. 박철홍은 대중음악 전공 개설 과정에 힘을 보탰다. 혼자 공부해왔던 그에게 교육기관의 창설은 반가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건물이 들어서기도 전 맨 흙바닥이었을 때부터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하며 실용음악 교육에 대한 미래를 그렸다. 그렇게 학교가 개교되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유력한 교수 임용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학교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 음악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약점이었다. 부산에서의 대중음악 작곡 활동으로 실전 경력을 두둑하게 쌓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음악 비전공자로서의 한계와 장벽이 컸다. 그에게 후루꾸[40]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순 나 혼자 독학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내보고 후루꾸라고 이야기하데. 후루꾸든지 말든지 소리는 내면 되는 거지. 진짜 악기는 그래. 후루꾸고 뭐고 없어요, 탁 소리만, 정확한 소리 나야 될 데를 소리나면 돼. (34)

그러던 중 1995년 45살이 되던 해에 동아대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40대로 접어들고 무대음악 작곡 활동이 늘어나면서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던 때였다. 전공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던 찰나였기에 공부도 신났단다. 이때 만난 음악스승이 조선우 교수다. 조선우는 박철홍이 대중음악과 컴퓨터음악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었던 좋은 스승이었다.

>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네가 하고 있는 음악이 앞으로 더 필요한 음악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아대학에서 이걸 한번 꽃피워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진짜 그 선생님은 나한테 약속을 지켰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82)

졸업 후 곧장 그는 수업을 맡았다. 부산예술학교에 이어 다시 제도권 교육기관의 강단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 그간 대중음악은 음악계 안에서 변두리 음악이거나

소위 '딴따라' 음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컸기에 교육 제도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였지만, 점차 예술의 대중화 바람과 함께 실용음악 교육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41] 이러한 흐름과 함께 1999년 동아대 음악학과 내 컴퓨터음악 전공이 개설되었다. 조선우의 돋보이는 안목이다.

이후 박철홍은 동아대 음악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후루꾸 딴따라 생활이 그를 교수로 만들어 준 셈이다.

지금, 부산의 대중음악

박철홍에게 부산 대중음악의 현재를 물었다. 그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대중음악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한다. 미래 세대에 투자한 것이 곧 부산 대중음악사회의 물길을 바꾼 것이다.

매년 푸른 음악 청춘들이 부산예술계로 진입한다. 박철홍은 음악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많은 학생을 둥지 밖으로 보냈다. 갓난 음악인들이 날개짓을 펼 때까지 모든 가르침이 가볍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음악교육에 큰 갈증을 느껴보았던 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부산에 터를 잡고 음악활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팍팍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젊은 음악인들은 멈추지 않는다. 꿋꿋이 사랑을, 사람을, 세상을 노래하는 음악을 만든다. 박철홍은 부산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에서 부산 대중음악의 위상이 비롯된다는 이야기로 그들을 응원한다.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음악에 신념을 가지라는, 거칠지만 질박하고 큰 응원이다.

>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전부 서울 사람만 서울서 다 활동하는가? 또 그렇지는 않더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의 대중음악계를 발전시킨다, 진단을 해보니 현재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출신의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부산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73~74)

박철홍은 2018년 정년퇴직으로 교수 생활을 마쳤다. 퇴직 후 그는 악기들을 후배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있다고 했다. 비움은 곧 채움이지 않던가. 요즘 그는 유튜브 채널 '박철홍의 뮤직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음악으로 그린 세계지도' 시리즈를 꾸준히 올리며 음악살이를 채우고 있다. 이 속에서는 그는 탐험가다.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찾아 멕시코, 알제리,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등 지구를 골골샅샅 누빈다. 이 여정은 그의 음악 활동과도 닮았다. 음악, 연극, 무용, 방송,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부산 문화예술지도 곳곳에 그의 발자취가 발견되는 까닭이다. 이것이 부산 서대신동 산중턱 판잣집에서 태어나 컴퓨터음악 작곡가이자 무대음악 작곡가이고 대중음악 교육자를 지낸 박철홍의 음악 삶이다.

이즈음에도 그는 음악감독으로, 음악 강의자로 분주한 때를 보낸다. 간간이 부산 연극인들과의 자리도 잊지 않는다. 어느새 머리에 새하얀 눈이 소복이 앉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출렁이고 있다. 수평선 저 너머로부터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2) 1970-1990년대 부산 광복동 소재의 대중음악감상실.

3) 『경향신문』, 1978.07.27, 1면.

4) 훗날 김해중앙교회 목사로 사역한 후 퇴직했다.

5) 「『이룰 수 없는 꿈』이 현실로…: 대학가요제 영광의 대상받은 부산대 중창단」, 『경향신문』, 1978.09.11, 7면.

6) 앨범 수록곡은 <밍카>, <편지>,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찔레꽃 찻집>, <풋고추>, <높은 탑>, <잃어버린 사랑>, <행복한 하루>, <들꽃소녀 이야기>, <어찌할까나>, <속삭임>, <너와 나(군가)> 총 12곡이다.

7)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중략)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내가 이래이래 해서 영화의 영화음악을 좀 맡아주겠나 하니까, (중략) 빠꾸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그 뒤에도."(「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9~40쪽).

8)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40년 세월을 싣고」, 『부산일보』, 2012.05.03, 34면.

9) 쇼는 포함하지 않고 밴드만 무대에 올라연주하는 형태다.

10) 가수 포함 5~7명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 밴드를 일컫는다.

1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245~247쪽 「트롬보니스트 박태식」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12) 하야리아는 인디언말로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뜻이다.

13) '썽글다'는 고기 따위를 '썰다'의 부산 사투리다.

14) 소리바다 멤버. 소리바다는 MBC주부가요열창 입상자들이 모여 1992년 창단한 그룹이다(soribada.or.kr 검색일: 2023.05.17.).

15) 부산예술대 실용음악학부 대우교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집행위원장.

16) "내 고장과 연관지어진 바다와 낙동강 노래를 몇 곡 첨가했습니다." 〈파도소리 그 이후…II〉프로그램, 1986.01.31, 1쪽.

17) 「'낭만가객' 최백호에게 대중가요의 길을 묻다」, 『다이내믹부산』 1619, 부산광역시, 2014(검색일: 2023.05.17.).

18) "부산지역의 인기 DJ였던 홍수진이란 친구와, 소설가인 그의 친구 한 사람, 나, 이렇게 셋이서 포항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든 노래다. 뒤에, 작사는 그 소설가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젊었던 시절엔 둥둥거리는 반주가 맘에 안 들어 좋아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며 이 노래가 나의 삶에 큰 힘을 주었음을 깨닫고 열심히 부르고 다닌다. 그 홍수진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마다 그 모습이 떠오른다." 홍수진,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 대목 '영~일만 친구야'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다."(「'낭만가객' 최백호에게 대중가요의 길을 묻다」, 『다이내믹부산』 1619, 부산광역시, 2014.).

19) 〈파도소리 그 이후…II〉 프로그램, 1986.01.31, 1쪽.

20) 지역인문콘텐츠연구소, 「부산예술인 아카이빙: 연극연출가 허영길」, 부산문화재단, 2020, 100쪽.

21) 정민경, 민병욱과의 대면 인터뷰, 2020.12.18. 부산대 제2사범관 민병욱교수 연구실.

22) 「최우수상에 「달라진 저승」 부두극장」, 『부산일보』, 1988.04.11, 9면.

23) 이때는 선곡을 위해 음악평론가, DJ 출신과 같이 음악을 잘 아는 이에게 추천을 받기도 했다.

24) 현 경상국립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25) 연극연출가 홍성모(1954~2008). 한국연극협회 부산직할시지부 13대 회장을 지냈다.

26) 국내 공연예술계의 제1세대 무대감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71년 제7대 박정희대통령 취임 경축예술제 무대감독, 제10회 아시안게임 개·폐회식과 문화축전,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및 문화축전 등 대형 행사의 연출과 감독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04년 별세했다(「문화가 사람들 ② 공연예술 「20년 외길인생, "막 뒤의 주역" 무대감독…」」, 『조선일보』, 1985.01.25, 7면.).

27) 前 부산시립극단 단원. 영화 <친구>(2001), 드라마 <피아노>(2001), <주몽>(2006) 등에 출연한 바 있다.

28) 「신 엘리트론 (80) 무대예술의 주도그룹 [5]」, 『경향신문』, 1983.06.03, 3면.

29) 합창 무용단을 포함한 200여 명의 출연자가 13인조 악단의 생음악에 맞춰 23곡의 음악을 노래하고 12개의 안무장면을 연출한다. 출연진은 이종용, 윤복희, 김도향, 추송웅, 곽규석, 유인촌, 김종구, 최주봉 등(「지저스 크라이스트」, 『동아일보』, 1980.02.22, 5면).

30) 승려이자 극단 하늘개인날 단원이었다. 2022년 10월 입적했다.

31) 「무대소식」, 『부산일보』, 1992.01.06, 15면.

32)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연극사: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도서출판 해성, 2008, 184쪽.

33) 「[문화단신] 왕돌이와 장화…」, 『부산일보』, 1990.05.02, 9면.

34) 「[문화단신] <헨젤과 그레텔>」, 『부산일보』, 1990.10.22, 11면.

35) 「[문화광장] 극단 현장 어린이 뮤지컬 <요술할멈과 신데렐라>」, 『부산일보』, 1991.05.09, 10면.

36) 「건전한 노래부르기」, 『조선일보』, 1979.03.09, 3면.

37) 「[김형찬의 통기타 음악창고] (19) YMCA의 '싱얼롱 Y' 통기타음악을 들여오다」. 『부산일보』, 2011.07.21, 34면.

38) "거기 방청객들과 함께 노래하는 <싱얼롱>. <싱얼롱>을 지도할라고 어 그 당시에 부산 YMCA, 초량동 KBS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노래 지도하던, 그 서울에는 인제 전석환이라는 분이 유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싱얼롱> 그 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있었는데, 고기 지도하던 선생이 인제 한병창, 그 YMCA 내에서 과장, 한병창 과장하고, 이수진이란 여자분, 그 한병창 씨 하고 이수진, 두 사람을 이제 <싱얼롱>으로 모셔서 거기서 이제 프린트해서 가사 갈라주고[나눠주고] 노래하고 했는데…."(「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182쪽의 「DJ 도병찬」의 인터뷰 내용 참고).

39) 부산 서구 소재. 1999년 알로이시오중학교로 개명하였고, 2016년 폐교하였다.

40) 요행을 뜻하는 플루크(fluke)의 일본식 발음인 후롯쿠(フロック)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말로는 어중치기다.

41) 「쓰임새 무궁무진 부산에 '실용음악' 바람」, 『부산일보』, 1999.11.03, 13면.

참고문헌

[단행본]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연극사: 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 도서출판 해성, 2008.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창비, 2012.

지역인문콘텐츠연구소, 『연극연출가 허영길』, 부산문화재단, 2020.

[논문]

부산음악평론가클럽, 「부산음악평론가클럽 초청토론회: 컴퓨터음악중심지 부산은 가능한가?」, 『음악과 비평』 1(4), 2002, 11~17쪽.

[신문기사 및 보고서]

「[김형찬의 통기타 음악창고] (19) YMCA의 '싱얼롱 Y' 통기타음악을 들여오다」, 『부산일보』, 2011.07.21, 34면.

「[문화광장] 극단 현장 어린이 뮤지컬 <요술할멈과 신데렐라>」, 『부산일보』, 1991.05.09, 10면.

「[문화단신] <헨젤과 그레텔>」, 『부산일보』, 1990.10.22, 11면.

「[문화단신] 왕돌이와 장화…」, 『부산일보』, 1990.05.02, 9면.

「'낭만가객' 최백호에게 대중가요의 길을 묻다」, 『다이내믹부산』 1619, 부산광역시, 2014.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40년 세월을 싣고」, 『부산일보』, 2012.05.03, 34면.

「「대학 가요제」 9월 개최」, 『동아일보』, 1978.07.18, 8면.

「7080 시대에 살았던 이는 모두 격변기에 살았다」, 『오마이뉴스』, 2009.04.22.

「가요 화제」, 『부산일보』, 1984.01.26, 12면.

「건전가요 육성-보급」, 『조선일보』, 1972.02.03, 5면.

「건전한 노래부르기」, 『조선일보』, 1979.03.09, 3면.

「무대소식」, 『부산일보』, 1992.01.06, 15면.

「무대에 뮤지컬 붐」, 『동아일보』, 1983.12.05, 6면.

「부산출신들 가요계정상 잇따라 노크」, 『부산일보』, 1987.08.03, 12면.

「신 엘리트론 (80) 무대예술의 주도그룹 [5]」, 『경향신문』, 1983.06.03, 3면.

「쓰임새 무궁무진 부산에 '실용음악' 바람」, 『부산일보』, 1999.11.03, 13면.

「제2회 MBC 대학가요제」, 『경향신문』, 1978.07.27, 1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동아일보』, 1980.02.22, 5면.

「최우수상에 「달라진 저승」 부두극장」, 『부산일보』, 1988.04.11, 9면.

「『이룰 수 없는 꿈』이 현실로…: 대학가요제 영광의 대상받은 부산대 중창단」, 『경향신문』, 1978.09.11, 7면.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최대호 11번째 콘서트: 낙동강 이바구> 공연 중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 2022.10.10.)
©박정훈

제6장

철없는 낭만 가객

포크송 가수 **최대호**

멋을 풍기는 딴따라의 삶을 꿈꿨지만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집안의 반대로 음악계를 떠나야 했던 세월이 십여 년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며 불혹을 넘기고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수로 데뷔한 것이다.
그런 그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무대에 오른다.

1 늦깎이 가객 최대호

늦깎이 가수의 길을 가다

2002년은 포크송 가수 최대호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된 해다.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앨범이 발표되었고,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열었다. 연극배우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그의 나이 마흔아홉이었다. 모자 옆으로 보이는 희끗한 머리가 그간의 세월을 말한다. 피 끓는 청춘시절에는 음악다방 DJ로, 노래하는 가수로 활동했다.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 그렇게 멋을 풍기는 딴따라의 삶을 꿈꿨지만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집안의 반대로 음악계를 떠나야 했던 세월이 십여 년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며 불혹을 넘기고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수로 데뷔한 것이다. 그런 그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무대에 오른다.

≪인 마이 메모리(In My Memory)≫. 최대호의 1집 앨범명이다. 대표곡의 이름도 앨범명과 같다. 막역한 친구였던 시인 정계화가 그에게 헌시를 했고, 노랫말에 김인효[1]가 곡을 붙였다. 평소 그의 노래를 아까워하던 친구 김성만이 기획을 맡았다. 각별한 인연들과 만든 음악이 그의 첫 번째 곡이 되었고 본격적인 음악활동의 시작이었다. 가객 최대호는 노래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1번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콘서트는 그의 생일인 11월 6일에 열어 의미가 깊다.

음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청춘

최대호는 1954년 11월 6일 부산에서 3대 독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학창시절 기억 곳곳에도 음악이 있다. 중학교[2] 때 소풍이나 야외활동을 가면 때로는 <쾌지나 칭칭나네>로 흥을 돋웠고, 루이 암스트롱 흉내를 내며 그루브를 선보였다. 또 어떤 때는 반별 대항 장기자랑 대회에 대표로 반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으니 친구들과

<최대호 네 번째 음악정거장: 노래꾼 최대호 베누스토와의 만남>
(경성대 콘서트홀, 2008) ©최대호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으로 접어든다. 그는 경남고등학교[3]로 진학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으로 이사가 잦았다. 이곳 친구들과 정을 붙이려고 하면 서울로 떠나야 했고, 서울에 적응할 때즈음 되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택했다. 학교에 가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자유시간은 자연스럽게 음악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즈음 그가 드나들기 시작했던 곳이 부산 신창동에 있는 황금다방이었다. 그 곳에서 노래를 하며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학시절 신입생

환영회나 축제의 자리에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장발을 휘날리며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으니 여고생이나 여대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집에서는 그의 음악활동을 반대했다. 딴따라는 안된다는 게 그 시절 단골 이유다. 그 까닭에 기타도 여럿 부숴졌단다. 그래도 슬그머니 집을 나선 이후의 그는 가발 쓰고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오르는 영락없는 음악인이었다.

2 젊음의 나날, 광·창·포동과 음악다방

황금다방의 기억

최근 최대호는 1970-1985년 당시의 광복동, 창선동, 남포동의 문화계 뒷골목 이야기를 엮은 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표현으로 광·창·포동이다. 그 시절 중구 인근은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던 공간이었고, 그의 젊음이 한껏 녹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음악다방을 드나들기 시작했던 곳도 신창동 황금다방이다. 당시 황금다방은 윤시내의 <열애>를 작사한 배경모[4], 1970년대 초 부산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를 맡았던 백형두[5], 유문규[6]와 같이 당시 부산 음악계를 주름잡던 이들이 집결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들 사이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일이었다.

최대호는 황금다방에서 DJ와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그의 음악친구는 연극연출가 홍성모였다. 홍성모는 배정고등학교 그룹사운드의 리드 보컬을 맡고 있었다. 둘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포크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했고 DJ를 맡으며 그렇게 음악을 꿈꿨다.

그곳에서 최대호와 홍성모는 서울 진출을 제안받기도 했다. "느그 앞으로, 서울로 소개를 시켜줄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던 하수영은 황금다방의 단골손님이었는데, 그들을 예사롭지 않게 본 모양이다. 가수 하수영 소개라면 당시 서울 활동

의 보증수표와도 같았고, 최백호가 서울로 진출하는 데 하수영의 역할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바도 있었다. "느그 정도면 서울 가면 뭐 되겠다."라며 황금다방의 여사장도 서울 진출을 권했었다. 그녀는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다. 최대호는 그녀가 아주 오래 전 미8군의 재즈싱어였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들은 부산에 남길 자처했다. 홍성모의 뜻이 강했다. 부산문화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 근데 이제 저 양반이 서울을 가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조건으로 저하고 홍성모 감독을. 서울서 이자 그때 최백호 씨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가 이제 너 이제 서울로 와라 이러는데 그 홍성모가 일축을 해버리더라. 미쳤나. 그래서 뭐 안 가고. 또 누군가는 또 부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116)[7]

무아음악실에 얽힌 추억

광복동에 자리잡고 있었던 무아음악실은 서울의 세시봉 같은 의미의 공간이다. 110평 규모의 무아음악실에 들어서면 한 쪽 면에 DJ가 선곡작업을 하는 DJ부스가 있었다. 부스 내부는 LP판으로 빼곡하다.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운영되었는데, DJ는 자신의 음악적 센스를 가미한 선곡과 함께 해설을 곁들이거나 신청곡을 틀어주었다. 의자도 극장식으로 배치되어 음악을 즐기기에 좋았다. 음악 듣는 장치가 보편화 되지 않은 시절이라 음악 애호가들의 성지와 같은 공간이었으며, 때로는 무아에서만 들을 수 있는 희귀음반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무아음악실의 DJ가 된다는 것은 부산의 메인급 DJ 실력이라고 인정받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최대호도 있었다. DJ로, 또 가수로 그곳에 섰다.

> 거의 무아 음악실도 배경모 선생이나 쌔미(유문규-인용자). 다 그분들도 무아, 처음에 다 무아에 있다가. 이제 황금다방이라는 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거기가 거의 부산의 세시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음악을 듣고. 그때 신청곡을 이렇게 이제

해서 넣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곡을 틀어주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102)

서울에 세시봉이 있었다면, 부산에는 무아가 있었다. 무아음악실에 대한 추억은 오늘날까지도 향수가 깊다.

우리 그때 한 번 무아 음악실 옛날 팀들이 한번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략) 이제 모여서 옛날 무아 음악제를 한번 하자 이런데. 그게 또 뭐 유야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략) 근데 이제 정말 무아는 아마 재조명을 한 번 해야 될 게 아니냐. 정말 그 세시봉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 세시봉이 있다면 부산에는 무아가 있었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115~116)

에덴공원의 강변 밀크숍

에덴공원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다. 해방 이후 부산중앙교회 장로 백준호가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동산의 이름을 빌렸다. 그곳에도 음악 공간이 있었다. 강변 밀크숍이다. 강변 밀크숍에는 클래식 칼럼니스트인 곽근수[8],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즐겨 찾았던 곳이다. 최대호는 강변 밀크숍을 부산 클래식의 원조로 기억했는데, 그가 재수하던 20살 시절에 이곳에서는 클래식 DJ를 지냈다. 사실 강변 밀크숍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곳이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클라식에 입문을 했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새벽에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눈을 뜨면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다가 따라가자. 이래서 이제 아버지 따라 간 곳이 중학교 때에 강변이었습니다. 강변이 있어가지고 그때 클라식을 입문을 했죠. 그때 차이콥스키 비창 심포니 6번, 비창을 그 야외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듣고. (98)

그는 중학교 시절, 학교 수학 교사를 통해 아버지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했었다고 했다. 진영 갈등에 의해 신문사에 불이 나기로 했단다. 그 이후 아버지는 정치에 입문했다. 부산진 을구에 출마하기도 한 이력도 있다. 그런 까닭에 어린 시절, 그의 집에 정치인 예춘호[9]가 놀러와 모친이 담은 막걸리를 즐겼던 기억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여야 간 거친 충돌에 결국 정치를 접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최대호가 고등학생인 무렵이었다. 그의 부친은 클래식음악을 즐겼다. 그때만 해도 흔치 않았던 전축이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클래식 LP를 함께 듣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간 곳이 강변 밀크숍이었던 것이다.

건준. 여운형 씨하고 같이 좀. 조금 사상이 그때는 조금 좌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가니까, 우리 학교 수학선생님이 아버지 신문사에 기자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도 하시고. 또 좀 좌측으로 계셔가지고. 그 또 우익 단체에서 또 불도 지르고. 이래가 신문사에 불도 나고 하여튼. 뭐 어릴 때 그 아버지는 들은 이야긴데. 그래했고 뒤에는 정치를 하셨죠. 예 공화당 쪽에 이제 해서 정치를 하셔가지고. 어 부산진 을구에서 출마도 하셨습니다. 연설도 하고. 그래서 그때 또 우리 모친은 또 야당이었고, 아버지는 여당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여야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그 아버지가 결국 정치를 접고 이제 사업을 하셨죠. (중략)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예춘호 씨, 영도에 국회의원 하셨던 예춘호 씨가 저희 집에 늘 와서 모친이 담은 막걸리를 자시고 간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98~99)

강변 밀크숍 주변의 난향이라는 하드록 카페에서도 DJ를 했었다. 강변에서는 클래식을, 난향에서는 재즈와 하드락을.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많은 음악을 듣고 배웠다.

강변에서 이제 에덴공원에서 조금 나오다 보면, 그 조그만한, 좀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거기를 지나면 연못 위에. 그 난향이라는, 거기 뒤에 이름이

하늘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거기는 또. 부산 하드락,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락하고, 재즈 거의 본산이라고 보다시피. (중략) 저는 또 거기 가서 락이나 재즈DJ도 보고… (97)

부산과 그의 인생 황금기를 기록하다

최대호가 엮는 광·창·포동 책에는 그의 젊은 나날을 보냈던 음악다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개인 삶의 기록이기도 하거니와 부산문화의 기록이기도 하겠다. 그가 몸담았던 황금다방을 비롯해 무아음악실, 백조다방, 오아시스, 홍실다방 그 외에도 여럿이다. 그만큼 부산의 음악다방은 많은 청춘들로부터 인기있었던 문화예술 공간이었다. 광창포동에 머물렀던 인물들의 발자취도 담는다. 판화가 주정이[10], 작사가 김양화, 문화예술인들의 후원을 자처했던 박기찬[11] 이다.

그는 부산에서 노래가 히트해야 인기가수가 되는 때였다며 그때를 회상한다.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은 곡을 만들었던 대중음악계 인사들이 부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가수들을 캐스팅했고, 부산 음악다방 DJ들의 선곡 빈도가 그 노래의 인기와 가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였다는 것이다.

MBC 김양화 국장님이라고. 그분이 조용필 씨도 키웠고. 그러니까 조용필씨가 결혼할 때 청첩장 1호입니다. 그러고 현철 씨, 그 스타로 만들고. 그 당시는 분위기가 부산에 방송을 타고. 부산에서 노래가 히트를 해야. 인기 가수가 되는. (중략) 그때는 DJ의 어떤 그런 거. 판이 나오면 이제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DJ들이 그걸 많이 틀어주고 이렇게 해야 그 노래가 히트를 치는 거. 그래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것도 부산에서 히트 쳐가지고 서울로 간 겁니다. 다음에 그분(작사가 김양화-글쓴이)이 <낙엽은 지는데>, 조영남 씨가 부르는 그 노래 작사도 하셨고. 또 현철 씨가 부른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다음 이미자씨의 <눈물이 진주라면> 이런 것도 다 작사하신 분이고. 거의 MBC그랜드쇼라는, 부산MBC그랜드쇼를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연예계의 대부 역할을 했죠. (104~105)

"광복동의 추억은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아 있죠." 그가 처음 연주를 시작했던 다방, 음악인들과 활보하던 여느 거리, 금요일 트위스트 파티장에서 표를 받았던 회국수 할매집 주변 골목, 70-80년대 중구 곳곳에 그의 낭만이 녹아있다. 이것이 그가 부산에서 살아가고, 부산을 좋아하고, 부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유다.

> 부산만큼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까, 물가 싸고 인심 좋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예술 쪽으로도 그때 옛날에 내가 그 이삼십 대 이럴 때는 낭만이 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갈수록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돈이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판들이 소설 연극 그림 이 판들이 자꾸 그런 낭만들이 없어지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옛날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16)

3 최대호의 노래

크로스오버 가수 최대호

최대호의 음악 장르는 포크, 팝이다.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가 젊음의 상징이었던 1970년대에 노래 활동을 시작했으니, 그가 살아온 시대와 닮은 장르라 할 수 있다. 크리스 크리스토퍼슨(Kris Kritofferson)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자니 호튼(Johnny Horton)의 <All For The Love of a Girl>, 클리프 리차드(Cliff Richard)의 <The Young Once>,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김민기, 송창식, 조영남 등의 노래가 그의 레퍼토리곡이었다.

> 주로 레파토리가 이제 포크, 재즈, 팝송, 뭐 거의 그런 쪽이었고 또 엔카도 한 번씩 부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주로 팝 쪽을 많이 했죠. (100~101)

우리는 청년문화 그런 어떤 통기타와 청바지 이런 어떤 생맥주 이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꼭 포크송을 해야 되겠다, 팝송이나 재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조금 뭐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107~108)

하지만 지금의 최대호 공연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크, 재즈, 팝, 국악, 트로트까지 그 범위도 폭넓다. 무대를 다양하게 꾸며 관객들이 신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젊은 시절 다양한 음악경험 덕분이다. 그 당시 음악다방들은 제각각 다른 장르와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대호는 강변 밀크숍에서 클래식을, 난향에서 하드록과 재즈를, 황금다방과 무아음악실에서는 포크와 팝 DJ를 맡았으니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었다. 최대호의 장르를 묻는다면, 그를 특정 장르의 가수로 일컫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가수로 일컫는 것이 되려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아닐까.

낙동강에 젖어 내 고향 부산을 노래하다

최대호의 부산사랑은 남다르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유의 경상도 말씨에서, 거친 듯한 행동에서, 따스함을 감추고 있는 부산사람의 모습이 엿보인다. 먹고 살기 위해 부산을 떠나 산 적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부산은 여전히 그의 삶을 감싸는 고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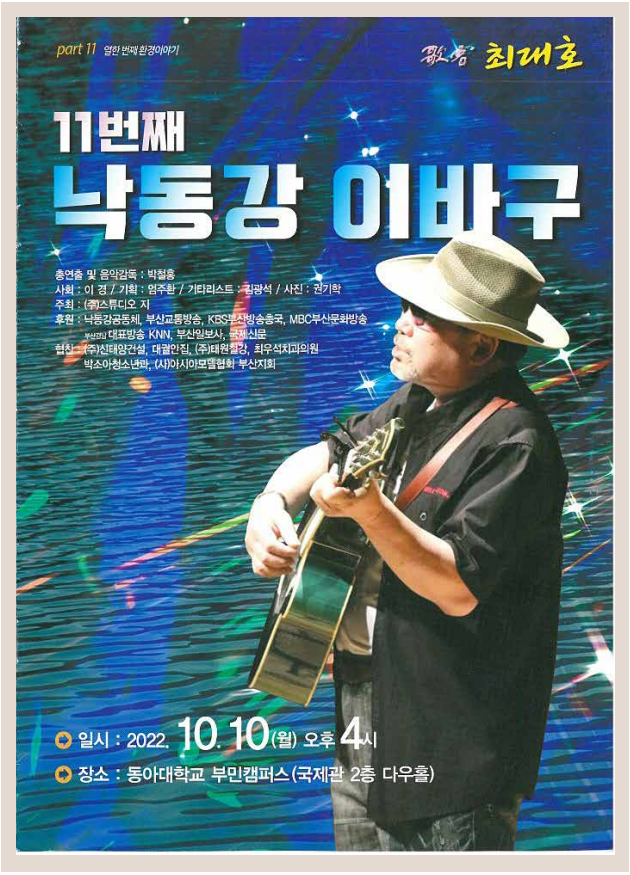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그의 콘서트와 노래에는 부산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낙동강과의 인연은 깊다. 부산은 사포지향(四抱之鄕)의 도시다. 낙동강은 사포 중 하나로 부산의 특성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최대호는 부산의 젖줄인 칠백리 낙동강을 화두로 삼았다. 첫 번째 곡 <인 마이 메모리(In My Memory)>에 이어 두 번째 앨범의 곡은 낙동강을 노래한 <낙동강 Ⅱ>였다.

제가 환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낙동강은 또 이 우리 민족의 대동맥이죠. (중략) 탐사도 그 김상화[12] 낙동강 지킴이를 따라 많이 다녔고. 또 제가 큐어타임이라는 주간신문사를 근무를 할 때 낙동강 자매라는 기사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중략) 우리 신문에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어서 낙동강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109~110)

<낙동강 Ⅱ>
아 내 겨레여 눈을 떠라 하늘 저 높이 철새처럼 훨훨 날면서 크게 눈떠라
을숙도가 울고 있고 일웅도가 울고 있고 놀던 고기도 갈 곳을 몰라
삼각섬 갈대도 돌아눕고 강태공 마저 잠들면 붉던 하늘 마져 슬퍼

최대호는 콘서트에서도 낙동강을 노래했다. 그의 콘서트 부제에도 '낙동강을 품다'(2013), '낙동강, 9월의 노래'(2015)처럼 낙동강이 종종 오른다. 2022년 가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개최한 그의 11번째 콘서트 부제 역시 '낙동강 이바구'였다. 이바구는 이야기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다. 부산의 정체성을 담지하는 낙동강 그리고 자연이 점점 훼손되어가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바구하자는 그의 뜻을 담은 것이다. 최근 그가 다시 살뜰히 챙기는 곡은 <포구>다. 그의 3번째 앨범에 실려 있었지만 묻혀있던 곡이다. 최대호의 음악에는 부산에 대한 애정이 넘실거린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또 부산이 적어도 부산이 가지는 상징성은 정말 대단하죠. 또 낙동강, 그 육이오 때부터 어떤 낙동강 전선이 하나의 핵심이었고. (중략) 특히 이 산과 바다가 어울리는 도시는 아마 부산이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중략) 부산 사람은 이제 부산을 위한, 부산에 의한, 어떤 부산은 그러니까 포 더 시티전[시티즌, citizen], 오브 더 시티전, 바이 더 시티전. 부산에 의한 이제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얼마나 더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를 부산에서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끝까지 부산을 지킬 예정입니다. (119~120)



<최대호 11번째 낙동강 이바구>(동아대 다우홀, 2022) ©최대호

4 특별한 인연

최대호가 부산에서 음악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이들도 여럿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인연 몇몇을 담는다.

가수 최백호

최백호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곡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때의 일이다. 최대호가 최백호로 이름 중간 글자만 바꾸어 데뷔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 때문에 최대호의 집에 전화가 엄청 많이 오기도 했다. 실제로 최대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편으론 최백호의 느낌이 나는 듯하며 다른 한편으론 조영남이 부르고 있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최백호, 조영남과 엇비슷하다. 실제로 그들과 친분도 깊다.

그때 최백호 선생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곡을 가지고 히트가 아주 히트가 될 때. 내가 이름을 최대호에서 최백호로 바꿔가지고 가수로 그 노래로 데뷔를 했다, 이런 소문이 전부 나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엄청 왔어요. 아 저 최대호가 이름을 최백호로 바까가지고. 예명을 쓰니까 원래 가수들이.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이거 완전히 라디오로 나오고 그때 한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노래가 한참 히트를 친… (113)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막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카페 이런데,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노래를 부르면 전부 다른 방에서 '최백호가 왔다' 이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백호 형하고도 친하고. (113)

가수 조영남

가수 조영남과도 독특한 인연이 있다. 서로 외모도 비슷하거니와 노랫소리의 특정 음에서는 거의 닮은 소리가 나온다. 조영남과 최대호는 미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고, 즉석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그와의 오랜 추억을 상기해 본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하와이에 들렸습니다.

그때 하와이에 우리 모친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이 사셔서 구경도 할 겸 해서 들렀다가 왔는데. 그날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와이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이 궁전 나이트클럽이라고 한국분이 하는 사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조영남 씨를 만난 거죠. 오! 내가 막 어떻게 왔어 하고. 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뭐 그 주인이 한국에서 오고, 조영남 씨도 오고 이러니까. 무대에서 노래 한 곡 해달라, 개런티 없이 해달라 하니까, 조영남 씨도 그날 조금 기분도 좋고.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저하고 <내 고향 충청도>하고 <딜라일라> 부르고… (중략) 나이트클럽에서 거의 예정에 없던 즉석 공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가면 저도 조영남 씨 청담동에 그 집에도 가고. 또 자기도 내려오면 만나고 이러는데. (113~114)

가수 김태곤

최대호는 <망부석>, <송학사>로 인기를 얻었던 가수 김태곤과 깊은 음악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함께 유럽 최대의 음악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에 나갈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김태곤은 숲힐링생태문화협회 홍보대사로, 지난 2014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다. 최대호는 낙동강을 주요 음악 주제로 삼고 있으니 음악적 삶의 면면과 함께 자연에 대한 마음까지도 교차점이 엿보인다.

지금 음악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가지는 사람은 저 김태곤 씨입니다. 예 김태곤 씨가 50년생이죠. 예 저보다 네 살 많고. 저하고 아주 지금. 전화를 한 번 잡으면 뭐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송학사> 그 김태곤 씨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앞 곡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어도>라는 곡을 만들고 있다고. 이제 그 저하고 이제. 그 앞으로 뭐 어 유로비젼콘테스트 한번 나가자 할 정도로 음악적인 공감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그 김태곤 가수, 김태곤이 형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야 참 저런 거 저런 나이에도 아직도 저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 대단하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

다. (114~115)

작곡가 박철홍과의 오랜 인연

작곡가 박철홍은 최대호와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다. 1980년대 박철홍이 부산 YMCA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였다. 박철홍이 동아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는 최대호 콘서트의 연출을 맡기도 하였다. 반대로 박철홍이 작곡 발표회를 열 때는 최대호를 초청해 노래 한 꼭지를 맡겼다. 둘은 오래된 작업의 동지이자 든든한 정신적 후원 관계다.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나는 박철홍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분이 YMCA에서 기타를 가르칠 때부터 그때는 우리가 아주 이제 정말 춥고 배고플 때. 그분이 이제 그 YMCA에서 그 기타 교실을 할 때 우리가 가서 많이 괴롭혔죠. 밥도 사달라 하고. 뭐 술도 사달라 하고. (중략) 홍성모 씨하고 많이 참 박철홍 교수를 괴롭혔죠. (115)

2집은 거의 박철홍 교수하고의 작업이었고. 이제 박철홍 교수님의 그 곡을 받았고. (중략) 박철홍 교수가 작곡 발표할 때도 대중 가수는 제가 유일하게 갔습니다. 가서 노래 한 잔을 마시고 이런 부제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낙동강 Ⅱ> 하고 <아이야>라는 곡도 부르고 했고. 지금 3집은 이제 그 <포구>라는 곡이 그때 묻혀 있었습니다. (중략) 비트도 있고 곡도 아주 좋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포구>를 좀. (중략) 그걸(<포구> 악보-글쓴이) 찾았다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3집의 타이틀로 만들 생각입니다. (117~118)

연극연출가 홍성모, 부산연극계와의 인연

최대호의 콘서트 연출은 막역한 친구이자 연극연출가인 홍성모가 주로 맡았다. 을숙도 야외를 비롯하여 문화회관, 시민회관, 연극 소극장 등의 장소에서 때로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하였고, 콘서트의 흥을 복돋아 주기 위해 유명 가수도 초청하였다.

> 이제 우리 홍 감독이, 홍성모씨가 네 번째 콘서트 소위 오케스트라하고. 네 번째 콘서트를 경성대 콘서트홀에서 했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비석을 한 100석을, 앞에 예비 의자를 깔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죠. 그때 초대 게스트로는 <바람 바람 바람>을 부른 김범룡씨, 박진광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클라식 기타하는 서승완씨 하고 같이 또 클라식기타 하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날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번째까지 이제 홍성모 감독이. (108)

그는 홍성모와의 인연으로 연극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홍성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함께 해 온 노래 동료로 낭만을 함께 나눈 특별한 친구이다. 친구의 연극 활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최대호도 연극계에 발을 들였다. 배우로 오른 적도 있지만 주로 제작 역할을 맡았다. 그의 연극 데뷔무대는 홍성모가 연출을 맡았던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그 외에도 2003년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의 연극 <늘근 도둑이야기>(연출 홍성모), 2008년 뮤지컬 <의원놈과 도둑님>(연출 김승일) 등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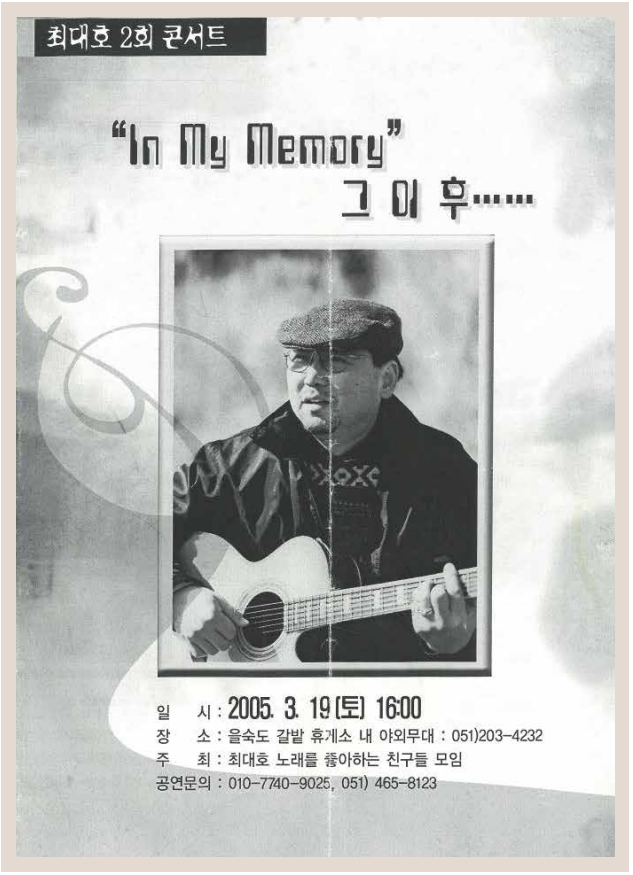
> 2002년도 그래서 이제.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하고 홍성모 감독이 연출한 그 샤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에 제가 제작과 출연을 했죠. (107)

그러던 중 2008년 홍성모가 먼 길을 떠났다. 황금다방 포크 스테이지에서 함께 노래했던 때, 부산을 지키자며 서울진출을 마다했던 때, 예술을 논하며 밤을 지새우던 일,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왔던 기억과 세월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이후 그의 콘

뮤지컬 <의원놈 도둑님> 제작 (용천지랄소극장, 2008) ©최대호

서트는 연극연출가 김경화, 정경환 그리고 무대음악 작곡가 박철홍 등 연극계 인물들이 연출을 이어 맡았다. 극단 열린무대 연출을 지냈던 필자 역시 그의 두 번째 콘서트인 을숙도 공연 때 홍성모의 요청으로 뒷패로 이바지한 적이 있다. 친구가 이어주고 간 인연이 그의 음악활동에 새로운 힘이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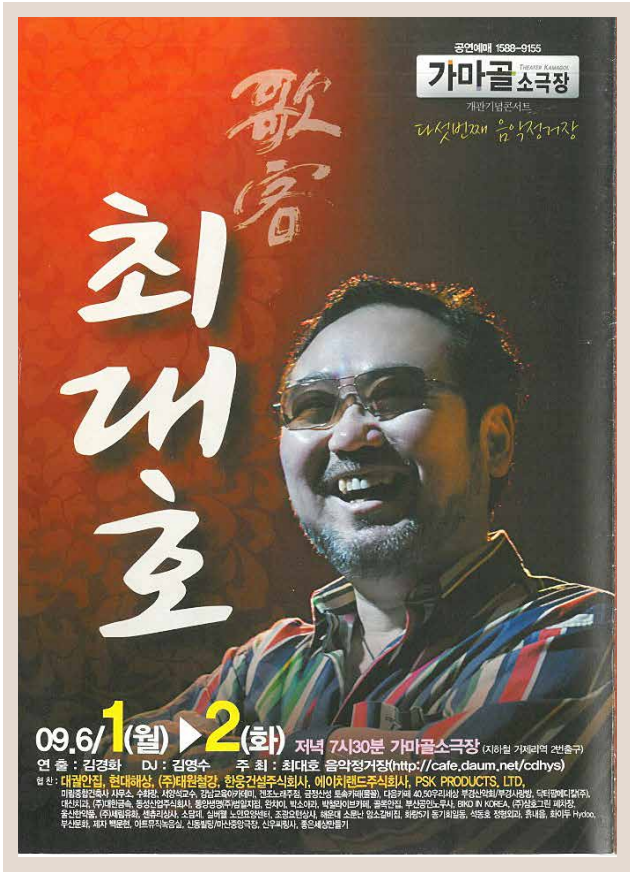
그는 연극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던 것을 독특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연극 기획자 김성배가 운영한 가마골소극장[13] 개관 기념 공연으로 콘서트를 개최했던



최대호 2회 콘서트 <In My Memory 그 이후…>(을숙도 갈밭 휴게소, 2005)
©최대호

것이다.

거제동 가마골소극장 개관 기념 공연으로 손숙의 연극 <어머니>와 함께 최대호의 음악 콘서트가 열린 적도 있었다. 연극 소극장을 개관하는데 음악콘서트를 한 것은 처음일 거라며 이를 독특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더구나 그때 공연은 성황을 이루었으니 특별하게 기억할 만했다.



가마골소극장 개관기념공연 <최대호 다섯 번째 음악정거장>
(가마골소극장, 2009) ©최대호

5 최대호의 마이 웨이(My way)

'Yes, It was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My way>는 최대호의 애창곡이다. 곡이 주는 감동도 크지만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공연에서 느꼈던 울림도 컸다. 이 곡은 클로드 프랑수아(Claude François)가 발표한 <Comme d'habitude>에 폴 앵카(Paul Anka)가 가사를 다시 붙인 곡으로, 한 남자가 인생의 마

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소회하는 내용이다. 시나트라가 이 곡을 발표했던 때는 이혼, 사업 실패, 아버지의 죽음 등으로 삶의 고비를 맞던 시기였다. 연예계 은퇴를 고민하던 때에 폴 앵카의 도움으로 이 노래를 발표했고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얻었다. 1995년 시나트라는 마지막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나이에도 그의 노래가 주는 감동은 여전했다.

>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공연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크 시나트라. (중략) 이제 은퇴 공연을 할 때 <My Way>를 다 보는데 아 멋지더라고요. 정말 그 프랑크 시나트라 그 <My way>가 정말 노장은 아직 살아있다. (119)

부산의 음악다방을 누비며 노래했지만 미군부대, 선박회사, 신발사업을 하며 음악을 멈추었던 공백이 십여 년이었다. 다시 음악의 길로 들어선 최대호에게 여든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더 깊이 다가왔을 것이다. '노장은 살아있다.' 어쩌면 그에게 보내는 응원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즈음 그는 몽골의 전통연희 소리인 흐미(khuumii)를 익히는 데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흐미는 한 명의 가창자가 동시에 두세 개의 목소리를 내는 창법이다. 한 번에 여러 목소리를 내야 할뿐더러 저음, 중음, 고음을 넘나들어야 하기에 어려운 창법으로 꼽힌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흐미 학교도 진작에 알아봐두었다. 그의 계획에서 광·창·포동 책 발간, 그리고 다음 앨범 준비도 빼놓지 않는다.

> 그 넓은, 징기스칸이 넓은 초원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거기서 하는데 (중략) 흐미의 테스트를 위해서 목소리를 보냈더니 일단 목소리는 패쓰가 됐습니다. (111~112)

그의 이름은 큰 대, 하늘 호라고 했다. 큰 하늘이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크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였다. 부산의 흙내음 위에서 그의 이름대로 큰 하늘을 닮은 음악으로 삶을 노래하길 기대한다. 그것이 그의 나의 길(마이 웨이, My way)가 되기를.

미주

1) 작곡가. 조항조의 <가지 마>, 남진의 <겁이 나>, 최진희의 <와인>, 임주리의 <후회 없는 사랑>, 진해성의 <내 사랑 받아줘>와 <사랑의 영도다리> 등을 작곡했다.

2) 부산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서중학교를 졸업했다.

3) 부산 서구 소재.

4) 부산MBC 라디오 PD. 심야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DJ. 가수 윤시내의 노래 <열애> 작사.

5) 1970년대 초 부산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 1980년대 MBC라디오 <아침의 행진> DJ.

6) 부산MBC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 DJ명 '새미'.

7)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8) 음악평론가. 부산MBC 라디오 PD.

9) 전 국회의원.

10) 판화가.

11) 기업인, 문화 후원자.

12) 환경운동가. 낙동강공동체 대표. 2022년 12월 19일 별세.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참고문헌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임덕규 1집 발매뮤직비디오 제작현장에서 2019.06.30
©임덕규

제7장

부산 1세대 록밴드

기타리스트 임덕규

'한국 록(Rock)의 중흥을 알리는 선구자적 밴드 : 스트레인저'
라는 평론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음반제작 및 프로모션을 담당했던 서라벌레코드의 홍현표 사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1990년 음반을 발매한지 석 달 만인
12월 23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
<ROCK N' KOREA 1990>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하기도 했다.

1 부산록밴드 전성기의 시작, 스트레인저 기타리스트 임덕규

임덕규는 1966년 경남 김해 대동면 수안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의 권유로 독창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면서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형이 서울에 위치한 학교로 진학하면서 남기고 간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피아노 선생님을 하던 누나가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도망치다시피 배우질 않았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면서 이 당시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 내가 초등학교 때, 사실 기타를 처음 잡아봤는데, 우리 형이 기타를 조금 배웠던 거야. 그리고 이 형이 집에서 이렇게 기타를 좀 치다가 두고 간 거야. (중략) 그래서 그거를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쳐봤어. 우리 형이 코드를 잡아주고 내보고 이렇게 쳐보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걸 곧잘 했는데 우리 누나보고도 똑같은 걸 시키니까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주 좀 뭐랄까, 어떤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중략)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곧잘 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배울 곳은 없어서. 어디 내가 학원이라도 가보려고 좀 물어도 보고 알아도 보고 했는데, 그런 곳이 잘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 보고 너네는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그냥 옆집 형한테 배웠다. 그러고. 그래서 뭐 배우기가 힘들더라고.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도 보고 했는데 아무튼 참 힘들었다. 배우기가 힘들었다 하는 기억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 딱 가서, 그때도 역시 학원은… 학원에 다니기는 힘들었고. 이제 제법 기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더 이제 내가 도움을 받고. 곡을 악보를 보고 하거나. 그때까지도 나는 곡을 채보하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주로 듣던 음악도, 그때까지 나는 주로 송골매, 윤수일 뭐, 주로 우리나라 음악들이 있잖아? (324~325)[1]

임덕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에 기타교습소나 선생님이 없어서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독학하면서 익혔다.

록밴드 뮤지션의 보고(宝庫) 대학 그룹사운드

임덕규는 동아대학교 체대에 진학하였는데, 오리엔테이션 축하공연에서 그룹사운드의 공연을 본 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당시 동아대학교 그룹사운드 동아리 에이스, 허니문, 옥타브 등은 국내에서 인정받는 걸출한 뮤지션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도 유명한데, 드러머 박철우[2], 기타리스트 김대승, 김정태 등이 있다. 에이스 출신인 박철우는 김정태와 함께 밴드 아마겟돈을 시작으로 미스테리, WAVE로 밴드 활동을 이어갔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드럼메이커인 TAMA 엔도저와 『박철우 드럼마스터 시리즈』 교재를 총 4권 출판하였다. 현재는 세션 연주자 겸 교육자로 활동 중이다. 임덕규의 동아리 선배인 김대승은 옥타브를 거쳐 평균율, 봄여름가을겨울 등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였고, 버클리음악대학(Berklee Colleage of Music), 보스턴콘서바토리(The Boston Conservatory) 유학 이후 현재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대학교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에도 그룹사운드 동아리가 많았는데 주로 학교 강당에서 발표회를 할 때 교류가 많았다고 한다. 이때 자연스럽게 부산대학교 그룹사운드 동아리 미케닉스 출신인 이승철(후에 이시영으로 개명하게 된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먹통레코드에서 만나 스트레인저의 전신인 락귀(록귀)를 결성하기로 한다. 그 외 스트레인저 1집 《SAILING OUT》(1990)부터 활동한 건반주자인 김동규도 대학 그룹사운드 오딧세이 출신이다.

1987년 경 기타리스트 임덕규를 중심으로, 보컬 이승철, 베이스기타 박인호, 기타 김범환, 드럼 박오식으로 이루어진 밴드 락귀가 결성되었다. 당시 음반, 악기, 악보 등을 판매하는 뮤즈(Muse)의 사장인 김헌진이 부산대학교 효원회관에서 기획한 록밴드 네 팀의 옴니버스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데뷔하게 되었고, 이후 두세 번의 대학축제 등의 초청 공연을 한 뒤 멤버의 탈퇴로 짧은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동아대, 부산대 각 대학에서, 그때 부산대하고 우리하고 주로 밴드가 많았어요. 주로, 막 그렇게 할 땐데. 이제 내가 부산대 쪽에도 좀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발표회를 딱 하는데 부산대 애들이 막 왔더라고. 그때 왔던 애 중에

동아대학교 그룹사운드 옥타브 정기 발표회 1988.05.07 ©임덕규

하나가 시영(이시영)[3]이라, 지금의 시영이. 그때 승철이었지. (336~337)

이후 멤버인 김범환은 부산대학교 앞 라이브클럽 썸씽 포 낫씽(Something for nothing)을 운영하였고, 동명 밴드 기타리스트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드러머였던 박오식은 락귀 활동 이후 보컬 이시영과 함께 디오니서스(Dionysus)의 1집 《Legend of darkness》(1989)과 2집 《Excalibur》(1990) 음반에 참여하였고, 이후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부산예술대학교, 대구 성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제자와 함께 재즈기타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록 뮤지션의 정보교류와 만남의 광장 '뮤즈' '먹통레코드'

1980년대에는 국내외 록음악 음반이나 악보, 악기나 앰프, 이펙터 등의 정보를

락귀의 부산대학교 효원회관 공연(1988년 봄) 왼쪽부터 김범환 박인호 임덕규 ©임덕규

알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당시 록키드들은 광복동 입구 일본서적골목[4], 보수동 책방골목 등의 중고서점에서 필요한 악보나 LP, 그리고 『영기타(Young Guitar)』『기타매거진(Guitar magazine)』 같은 잡지를 구해서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던 이 잡지들에는 라디오나 LP에서 듣던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 등의 연주방법이나 앰프와 이펙터의 사용법, 일본과 미국의 밴드와 연주자들의 인터뷰, 연습법 등도 자세하게 연재되었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이 시기에 부산과 인천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던 LP와 음악잡지, 수입악보 등을 통해 서울보다 한발 빠르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록음악씬을 이끌던 대표적인 밴드가 부산, 인천 출신이었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복동 입구. 지금 롯데 있는 쪽. 그쪽에 붙어 있거든. 이 형이 거기에 [영도다리 앞에] 그렇지, 거기에 매일 가면서 필요한 악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아저씨한

테 주문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해주는 거지. (333)

1987년 스트레인저의 전신인 락귀를 결성했을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뮤즈(Muse)[5]는 LP, 테이프, 비디오와 악보, 잡지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아지트이자 만남의 광장의 역할도 했다. 뮤즈의 사장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헌진은 공연기획도 한 번씩 했다고 한다. 남포동에 위치한 먹통레코드도 이러한 뮤지션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아지트였는데, 김병덕[6] 사장은 경성대학교 작곡과를 중퇴하고, 1983년 부산 최초의 재즈클럽인 '멜팅 팟'을 만든 주인공장본인이자 1992년 대도레코드를 통해 음반을 발매한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이다.

이곳에서 부산대학교 그룹사운드 보컬 이시영과 동아대학교 그룹사운드 기타리스트 임덕규가 만나 밴드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락귀를 거쳐 스트레인저가 탄생하게 되었다.

'메탈라이브 사단'

1990년대 부산의 다수의 록음반에서 메탈라이브의 대표인 Cho bass 또는 조국일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된다. 메탈라이브는 밴드합주실, 악기교습소, 개인연습실일뿐만 아니라 부산의 실력 있는 록뮤지션들과 록키드(Rock kid)의 만남의 장이자 후에 기획사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소속 밴드의 멤버들이 강습을 하거나 연습을 하면서 운영을 했고, 수시로 모여서 잼(jam)[7]이나 작은 공연도 열고, 풍차들, H2O의 기타리스트인 차정렬 같은 뮤지션들의 워크숍도 진행하기도 했다.

양정의 한 지하연습실에서 밴드 합주실 겸 학생들의 악기교습소로 시작하면서 문을 연 메탈라이브는 이후 부산진역 근처에 자리를 잡고 디오니소스, 스트레인져, 아마겟돈 같은 앞서 소개한 밴드들을 배출하게 된다. 아마겟돈 1집 표지에 '부산 메탈라이브 1기 출신의 아마겟돈'이라는 문구를 넣을 만큼 메탈라이브의

메탈라이브 연습실이자 공연장
(1989년 겨울) 시나위 4집 발매 쇼케이스 공연 (왼쪽부터 신대철, ?, 우동(메탈라이브고문), 서태지, 이영주, 조베이스, 임덕규, 김종서, (고)오경환, 강도일, 성동헌) ©임덕규

메탈라이브 내 스트레인져 전용 연습실 ©임덕규

영향력은 컸다. 이후 메탈라이브는 부산대학교 앞으로 옮겼다가 이내 서면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때가 1993년이었는데 미스터리, C.O.B, 와일드 로즈 같은 밴드가 메탈라이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된다.[8]

메탈라이브는 록밴드들의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등을 자처하는 기획사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1기는 프라즈마, 디오니소스, 스트레인저, 아마겟돈, 2기는 미스테리, 와일드로즈로 보면 된다. 프라즈마는 스트레인저의 보컬이기도 한 이승철과 넥스트, 노바소닉의 드러머로 잘 알려진 이수용, 넥스트의 기타리스트이자 국내의 음향장비 및 선구적인 미디, 레코딩 장비 제조회사인 이고시스템의 대표이기도 한 임창수 등의 멤버로 1987년 결성되었다. 대도레코드에서 발매된 옴니버스 음반《Friday Afternoon II》(1989)에 참여하면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서울에 진출한 록밴드로 알려져 있다. 이후 디오니소스, 스트레인저, 아마겟돈 등 차례로 알려지면서 부산이 '메탈의 성지'[9]라 불리게 되었다.

1980~1990년대 록뮤지션과 미8군 무대와의 거리감

19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활동을 넓혀왔던 미8군 뮤지션과 1980년 중후반 부산의 록뮤지션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미8군 무대에서 인정받았던 뮤지션들은 3개월에서 1년 계약을 통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활동하였고, 후에 방송국, 음반사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에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1980~199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이외에는 녹음실이나 기획사 등의 활동기반이 거의 없었던 부산에서는 많지 않던 선배들의 전언과 경험담 이외에는 음악활동을 통해 후배들과의 접점이 많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었다. 먹통레코드, 부전악기상가, 뮤즈 같은 뮤지션 선후배들이 만날 수 있는 아지트가 없었다면 서로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지 않았을까.

이쪽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야리아 부대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 그때. (중략) 이 형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옛날 그런 미8군 얘기도 해주고,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사람, 최이철 이런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 이전에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옛날에 히식스 뭐 이런 얘기는…. 또 김희연 씨 드럼, 또 배수현. 김희연. 아무튼 그 넓은 세대들. 그보다 더 선배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을 했다 하더라고. 나이트클럽에서 (김)병덕이 형이. 그때 벌써, 그 음악도 그냥 앞서가는 음악. 아, 그 밴드가 무슨 윈트… 아무튼 쇼킹한…. 그때 이미, 그때는 나이트클럽에서 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디스코 하고 있는데, 이 형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었대. 그래서 그때 또 자기들은, 이 형 얘기인데, 자기는 굉장히 쇼킹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받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이건 너무너무 멋진 이런 생활이었다(라고)…. (344)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남포동에서 LP음반가게인 먹통레코드를 운영 중인 김병덕은 1980년대 나이트클럽에서 밴드음악을 시작했는데 미8군 출신의 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고,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전달하는 정도에서 명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영향인지 김병덕은 1990년대 초반 아트록과 실험음악, 뉴에이지음악의 선두주자로 평론가들과 매니아들에게 호평과 지지를 받은 활동을 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대도레코드와 시완레코드를 통해 발매된 음반 중에서 8곡을 추려 2018년 베스트 형식의 음반 《엑스페리먼트 넘버 X(Experiment No. X)》가 프랑스와 미국에서 발매된 바 있다. 음반유통은 미국의 라이트인애틱사에서 맡았는데 2011년 신중현의 음반 발매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였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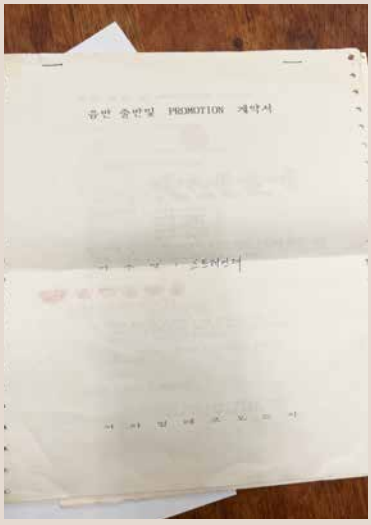
2 전국구 록밴드 스트레인저

짧은 시간의 락귀 활동을 접은 임덕규는 멤버였던 박인호와 함께 개인프로젝트의 데모음반을 준비하고 있었고, 후에 컴퓨터로 데모작업이 가능한 건반주자인 김동규가 합류하면서 그 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락귀에서 호흡을 맞춘 이시영이 디오니소스를 나와서 합류하게 되면서 데모음반을 완성하게 되었고, 서라벌레코드와 음반계약을 하게 된다. 이 데모음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신대철의 소개로 당시 DJ이자 평론가로 유명했던 성시완의 시완레코드와 계약을 추진하게 되면서 서라벌레코드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시완레코드의 변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서라벌레코드 측에서 다시 받아주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이때 스트레인저(Stranger)라는 이름을 공식화 하게 된다.

당시 일본의 라우드니스(Loudness)가 발표한 음반인 《THUNDER IN THE EAST》(1985), 《LIGHTNING STRIKES》(1986)가 차례로 빌보드 200에서 74위, 64위까지 오르면서 아시아 최초로 록 밴드의 음반이 빌보드 200에서 100위 안에 들게 되면서 아시아계 록 밴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국내에서도 미국 진출을 목적으로 김도균과 임재범을 중심으로 결성한 슈퍼밴드인 아시아나가 등장하는 등 국내에서 록 밴드 붐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음반은 임덕규의 개인음반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하나둘씩 모여든 멤버들의 참여와 그리고 서라벌레코드의 권유로 스트레인저라는 밴드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성공적인 데뷔, 서라벌레코드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밴드의 위기, 그리고 멤버 간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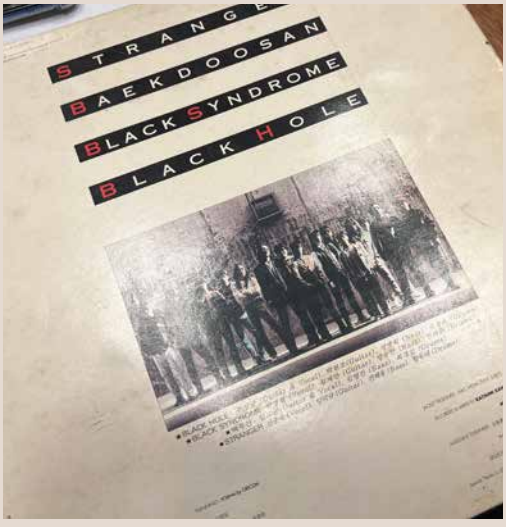
'한국 Rock의 중흥을 알리는 선구자적 밴드 스트레인저'라는 평론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음반제작 및 프로모션을 담당했던 서라벌레코드의 홍현표 사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1990년 음반을 발매한지 석 달 만인 12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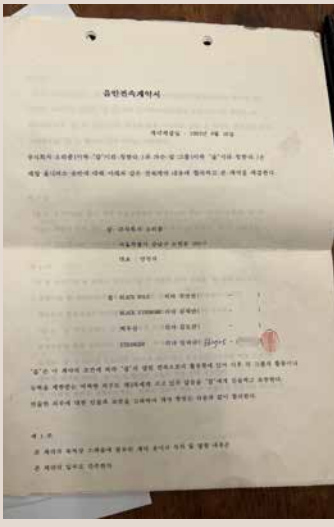


스트레인저 1집 음반 출판 및 프로모션 계약서 ©임덕규
스트레인저 1집 <Sailing out> 발매일은 1990년 9월 15일이다.

녹음실에서 스트레인저 멤버(왼쪽부터 박인호, 엄창헌, 임덕규, 이승철, 김동규 ©임덕규

1991.2.10. 부산적십자회관 스트레인저 단독공연 (왼쪽부터 이시영, 임덕규) ©임덕규





1993년 두산 오리콤에서 제작한 옴니버스 음반 및 계약서 ©임덕규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 <ROCK N' ROLL KOREA 1990>[11]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하기도 했다. 국내 첫 로큰롤콘서트라고 소개된 이 공연은 지금은 폐간된 월간 『핫뮤직』에서 창간행사와 더불어 주최하고 서라벌레코드가 후원하였고, 크라티아, 더 클럽, 제로-G, 블랙신드롬 같은 당시 국내 최고의 록밴드와 부산 출신인 아마겟돈도 출연했다. 이듬해 메탈라이브의 조베이스가 매니저로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콘서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부산적십자회관 공연을 비롯해서 지방순회 공연이 계속 성공하면서 전국적으로 스트레인저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국내 록밴드로서는 상당히 기록적인 음반 판매고도 올리게 되었다. 이때 서라벌레코드에서는 후속음반 제작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활동의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서라벌레코드 는 1992년 2월 17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뉴키즈온더블럭을 초청해서 내한공연을 진행했다. 당시 가용 관람객보다 3,000명 넘은 1만 5,000명을 입장시키면서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여 홍현표 사장은 구속되었고, 서라벌레코드도 그해 9월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12]

이 사건으로 스트레인저의 이후 모든 계획은 보류가 되었는데 이에 보컬인 이승철과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더해져서 임덕규는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멤버를 재정비하였다. 1992년 임덕규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교체되어 2기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초 일본 밴드인 'STIL ALIVE'와의 한일 합작 콘서트가 이태원에 위치한 비바아트홀, 부산 KBS홀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언론과 『뮤직랜드』, 『핫뮤직』 같은 음악잡지의 주목도 받게 되어 서울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도 열릴 정도였다. 이후 일본 콘서트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멤버가 교체되었고, 이후 백두산, 블랙홀, 블랙신드롬과 함께 《파워투게더》(1993)라는 옴니버스 음반에 참여하게 되면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멤버들의 생활고 문제와 잇단 탈퇴로 인해 또다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삼성 계열의 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던 가수 임재범과 함께 1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재규어(JAGUAR)를 결성하였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

국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다. 임재범과는 이후에도 개인적인 친분을 이어오게 된다.

3 부산에서 제2의 인생

1990년 중반 실용음악학원의 등장

1995년 서면에 위치한 랩소디의 설리진 사장의 소개로 당시 초등학생 기타 신동으로 유명했던 노민혁의 아버지에게서 음악학원 개원을 제의받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거절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남천동에 '부산실용음악학원'을 직접 개원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부산에서 밴드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동래에 위치한 드래곤볼, 양정에 제이투(J2), 서면에 메탈라이브가 있었는데, 부산실용음악학원은 입시학원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적인 학원으로 만들기 위해 '실용음악학원' 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1987년 개설된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와 1994년 개설된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가 생기게 되면서 밴드로 대학교를 가기 원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던 시기였고, 서울에서 생활할 때 눈여겨봤던 서울실용음악학원, 신사동 실용음악아카데미 등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임덕규는 1996년부터 10여 년간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강의를 했고, 졸업생 중 학원의 강사로 기용하기도 하는 등 부산의 초창기 실용음악계의 초석을 쌓는 데 기여하였다.

> 실용음악학원이 서울실용음악학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신사동에 실용음악아카데미 요렇게 거기도 몇 군데 없었어요. 서울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제 막 생겨나서 본격적인 입시학원 체제로 운영이 되던 이 시점인데 부산에는 아직 입시학원이 아니었고, (중략) 소수 음악학원이 운영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운영했던 부산실용음악학원은 입시학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거지) 그래서 실용음악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지. 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뒤

에 드래곤볼도 드래곤볼 실용음악학원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바꿨고, 그리고 제이투도 양정에 있었는데 김정태 원장이 (김)종대랑 같이 하다가 정태가 이제 대연동으로 이사 와서는 제이투 실용음악학원 막 하고 이렇게 또 타이틀을 점점 이제 실용음악학원으로 다 바꾸는 이런 상황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부산에도 부산 예술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입시학원이 그때서부터 좀 운영이 거의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357~358)

1995년 개원한 부산실용음악학원이 소위 대박이 나서 2003년에는 해운대에 2호점까지 개원했는데, 2004년 1호점은 건물주와의 문제로 접게 되었고, 2호점은 2010년까지 운영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실용음악학원에 밀려 고전하게 되었으며,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 완전히 문을 닫게 된다.

이 당시 부산의 음악학원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기타나 드럼을 가르치는 성격도 있었지만, 메탈라이브 같이 뮤지션들이 강사로 일하거나 합주실을 사용하는 등 밴드 활동의 근거지 역할도 하였다. 새롭게 밴드를 만들거나 멤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간단한 데모음반 작업이나 공연과 콘서트를 주최하거나 소개해주기도 했다. 1980~1990년대 언더그라운드 록밴드에서 활동하던 선배들이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음악학원이 1990년대 후반 인디밴드의 탄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음악학원(양정), 드래곤볼실용음악학원(동래), 부산실용음악학원(남천동) 등도 비슷한 기능을 했고, 1990년대 후반 피아(PIA), 앤(ANN), 에브리싱글데이, 레이니썬 등 부산 출신의 인디밴드가 '갈매기공화국'이라는 연합형태로 활동을 이어갔고, 이후 홍대를 통해 서울로 진출하여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 중 에브리싱글데이는 부산실용음악학원을 운영중이었던 당시 임덕규가 직접 제안하여 만들어진 밴드인데 1997년 <MBC 전국 록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부산인디밴드의 1세대 맏형으로 베이스 주자이자 보컬인 문성남은 2010년 드라마 <파스타>(2010)를 시작으로 <마이프린세스>(2011) <골든타임>(2012) <너의목소리가들려>(2013) 등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밴드활동과 유명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밴드 피아는

1999년<MBC 전국 록 페스티벌>[13]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서울행을 택했고, 서태지 컴퍼니의 록 음악 레이블인 '괴수인디진'에 소속되면서, 밴드 넬(NELL)과 함께 국내 록음악씬의 대표적인 밴드로 명성을 떨쳤다.

4 다시 시작하는 록커 임덕규

1995년 부산으로 내려온 뒤 다시 스트레인저의 활동을 준비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밴드 활동은 하지 못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에도 실용음악과에서 원하는 재즈와 블루스 등 본인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음악스타일을 연구하느라 시간적, 심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15년간 운영하던 실용음악학원을 정리하고 2년 뒤인 2012년 9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악기 제작에 몰두해 보고자 기타수리와 판매를 하는 기타숍을 고향인 김해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무렵인 2016년 당시 국내의 방송 및 음반 세션 등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타미킴, 제이크장, 노경환이 참여한 <Guitar Trio 'JTA'>이라는 음반 발매 부산 쇼케이스에 게스트로 출연 제의를 받게 된다. 서울 쇼케이스의 게스트는 신대철이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고, 2017년 8월에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는 보컬 이시영과 함께 스트레인저로 25년 만에 출연하기도 했다.[14] 그리고 그는 2019년 7월 솔로 1집《Home sweet home》을 발매하면서 음악활동을 재개하였다.

스트레인저's Guitar Shop, 인터뷰 당시 내부. 2022.7.8. ©임덕규

2017.8.12.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스트레인저' 레전스 스테이지 ©임덕규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2) 박철우는 동의대학교 출신이지만 그룹사운드 활동은 동아대학교 에이스에서 활동했다, 박철수(에이스), 강수호(허니문) 등 이 당시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그룹사운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 본명 이승철로 후에 이시영으로 개명하게 된다. 1993년 밴드 미스터리(MYSTERY) 활동부터 공식적으로 이시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밴드 모비딕의 활동과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4) 인터뷰에서 '동서서적'이라고 했던 곳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동서도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복로 일본서적골목은 현재 '동서도서'만 영업 중이다.

5) 후에 김명곤 사장이 인수하여 '지캣(G-cat)'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타, 앰프, 이펙터 등의 악기도 판매하였다.

6) 홍석민, 「김병덕 인터뷰」, 『VISLA 매거진』, 2018.08.10(검색일 : 2023.05.10.).

7) Jam session : [재즈]즉흥연주의 줄인 말

8) 김종군, [김종군이 본 부산밴드 어제와 오늘] 2. 부산록밴드의 시작, 대학밴드, 『부산일보』, 2012.01.12(검색일 : 2023.05.08.).

9) 메탈 혹은 헤비메탈(Heavy metal)은 록음악의 한 장르로 1986년 3월 발매된 시나위 1집이 국내 최초의 헤비메탈 음반이라고 불린다.

10) 김효정, 「잊힌 뮤지션 김병덕, 세계가 다시 알아봤다」, 『부산일보』, 2018.03.21(검색일 : 2023.04.07.).

11) 「[공연] 국내 첫 '로큰롤 콘서트'」, 『부산일보』, 1990.11.23(검색일 : 2023.04.10.).

12) 「'뉴키드' 초청 후유증 서라벌레코드 부도」, 『매일경제』, 1992.9.25(검색일 : 2023.05.10.).

13) 정확한 명칭은 부산 MBC에서 1997년부터 개최한 <전국 록 페스티벌>이다.

14) 최민정, 「부산 전설의 록밴드, 25년 만에 다시 뭉친다」, 『국제신문』, 2017.07.18(검색일:2023.05.10.).

참고문헌

[신문기사 및 보고서]

「'뉴키드' 초청 후유증 서라벌레코드 부도」, 『매일경제』, 1992.09.25.

「[공연] 국내 첫 '로큰롤 콘서트'」, 『부산일보』, 1990.11.23.

김종군, [김종군이 본 부산밴드 어제와 오늘] 2. 부산록밴드의 시작, 대학밴드, 『부산일보』, 2012.01.12.

김효정, 「잊힌 뮤지션 김병덕, 세계가 다시 알아봤다」, 『부산일보』, 2018.03.21.

홍석민, 「김병덕 인터뷰」, 『VISLA 매거진』, 2018.08.10.

최민정, 「부산 전설의 록밴드, 25년 만에 다시 뭉친다」, 『국제신문』, 2017.07.18.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공연하고 있는 김정애 ©김정애

제8장

판소리 불모지에서 탄생한 명창

소리꾼 김정애

동초 김연수의 1대 제자가 오정숙이고,
오정숙에게 소리를 전수한 마지막 제자가 바로 김정애이다.
동초제 판소리를 창시한 김연수의 예술정신과 혼, 동초제 판소리의 전승과
보급을 위한 오정숙의 노력을 이어받아
김정애는 동초제 판소리의 대중화와 전승, 발전에 일평생을 헌신하였다.

1 김정애의 운명, 소리

녹록하지 않은 어린 시절

김정애는 부산의 섬 영도에서 태어났다. 김정애는 예명(藝名)이고, 본명은 '김전이'이다. 김정애는 자신이 주민등록상으로는 1947년생이지만 실제로는 1942년 영도 남항동에서 태어났다고 밝힌다.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했는데, 김정애 아버지의 고향이 남해라서 출생신고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한다.

> 지금 호적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고향을 우리가 부산에서 태어나도 부산이라고 안 하잖아요. 부산이라 안 하고 아버지 고향을, 아버지 고향 쪽을 고향에 그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출생신고도 하고 그래 이쪽에서 못 했잖아요. 그랑께 이제 좀 세월을 여기서 많이 보냈어. 배 타고 남해거든 우리 아버지 고향이.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많이 몇 년 늦었어요. (중략) 주민등록상으로는 47년인데 본인은 42년입니다. (598)[1]

남해가 고향인 아버지 '김윤수'는 원양어선을 타고 외국을 자주 오갔다. 그러다 병고로 몸이 안 좋아졌고 일찍 작고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 '이금순' 홀로 김정애와 오빠를 키우셨다. 김정애의 동생도 있었으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회상한다. 김정애의 오빠 역시 50세가 되지 못하고 이르게 작별을 했는데, 김정애는 가족들이 전부 수(壽)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스스로 개척한 소리꾼의 운명

김정애는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과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급생들 사이에서 치

이며 지내야 했던 고생살이로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한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중 김정애는 운명처럼 한 친구를 만난다. 김정애와 마찬가지로 또래 친구들보다 학교에 늦게 입학한 비슷한 나이대의 전라도에서 온 친구였다. 우연히 알게 된 그 친구가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친구의 소리가 너무 좋아서 김정애는 귀동냥으로 소리를 익혀 혼자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다. 그것을 들은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김정애를 데려갔다. 어린 김정애의 소리를 들은 친구 어머니는 다듬어지지 않은 재능을 칭찬하며 판소리를 할 것을 권하였다.

> 아, 선생님이, 막 네 목소리가 괜찮은데. 소리 판소리 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강 그 아 자기 딸 사정이나, 내 사정이나 비슷해 놓은 게. 나이가 그 아도 학교를 늦게 들어가갖고 나하고 같은, 그렇게 되고 또랜데,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좀 안 됐게 봤어. 그 선생이 그렇게 해놓고 학교 더 가려 해도 가정 형편도 안 되지만, 가만히 혼자 어린아이로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공부는 한다 해도 어린 동생들하고 겨뤄가면서 하기는 안 되겠고, 고마 이 길로 가면 어떻겠노 싶었는 거라. 그 길이 어떻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대강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걸 잘하면 명창도 되고 이제 아주 좋은 말만 해줬죠. (601)

소리는 기생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할 시기라 가족들은 펄쩍 뛰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김정애는 판소리가 자신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친구가 전라도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도 그 길을 따라서 연고 하나 없던 전라도로 향하였다. 훗날 판소리 불모지 부산에서 거목이 된 김정애의 소리꾼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덧붙이자면 부산 영도는 영도 출신이 외지로 나가면 삼신할매바위의 저주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영도 주민들은 영도를 쉽사리 떠나지 못한다. 또는 삼신할매에게 화를 입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구전 미신을 믿고 따른다.[2] 이런 전설이 있는 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10대 소녀 김정애가 소리를 배우기 위해 홀로 전라도로 떠났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김정애의 소리를 향한 열정과 강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2 두 명의 스승을 모시다

첫 번째 스승 김창옥을 만나다

1960년 전라도 순천으로 떠난 김정애는 친구 어머니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순천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 그곳에서 김창옥(예명 김성옥) 선생을 만나게 된다. 김창옥에게 소리를 인정받은 김정애는 선생의 고향 거문도로 옮겨가 중고제 판소리를 사사(師事)하게 된다.

> 그러고 그 선생님한테는, 그 선생님은 너는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그냥 학자금 생각하지 말고, 즉 말하자면 회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너라. 그리하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가 또 깊은 이야기도 하고, 형편이 지금 부모들이 밀어줄 형편이 못 되고 그렇다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602)

> 밑에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섯 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이제 이생강, 이생강 선생님 동생이 성진이가 같이 갔어요. 그때 저거 아버지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형님 동생을 하니까. (중략) 그러니까 사물을, 야가 거기서 그 선생님한테서 다 익혔어. 성진이가. (중략)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서, 나도 내 가정 가지고, 아기들 놓고, 그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는, 조금 그거 하는데, 선생님이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갖고. 조그만. 또 그것도 학원 비슷하게 채려갖고, 제자들 따라서 그래 와가지고, 그래하는데. 그래가 바탕, 다섯 바탕을 다 떼었어요. 그 선생님한테서 다 떼었는데.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머… (603)

거문도 수학(修學)의 길에는 다섯 명의 제자가 따라갔다. 제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오늘날 대금의 아버지라 불리는 죽향(竹鄕) 이생강(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의 동생 농현 이성진이었다. 이성진은 김창옥에게서 꽹과리를 비롯

한 사물을 익혔다고 한다.

> 이성진 선생은 1946년 일본 도쿄 아사쿠사에서 출생했다. 네 살 때부터 부친 이수덕 선생에게서 장고와 피리를 사사했다. 그의 형은 오늘날 대금의 아버지인 이생강 선생이다. 그는 그 후 김창옥 선생에게서 꽹과리를 사사하고, 김재옥 선생으로부터 설장고를, 김철옥 선생으로부터 소리와 현악기를 각각 배운다.[3]

김정애는 거문도에서 김창옥에게 5년 정도 가르침을 받고 부산 영도로 돌아온다. 돌아온 이후에도 김창옥이 직접 부산으로 찾아와 중고제 판소리를 전수하였다. 그렇게 배움을 계속한 결과, 중고제 판소리 다섯 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 모두를 떼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가 1972년이었다.

동초제 판소리에 반하다

거문도에서의 삶을 뒤로 한 채 부산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김정애는 김창옥으로부터 중고제 판소리를 사사(師事)하였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약 10년 동안 중고제로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전수(傳受)하였다. 중고제 판소리를 가르쳐 준 스승 김창옥이 작고(作故)하자 김정애는 소리 공부를 멈추었다. 김정애는 한 명의 스승만을 섬겨야 하는 외골수 같은 성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한다.

> 그 선생님한테서 다 떼었는데.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머… 다음 이어갈 그게 안 되고. 선생님을 다시 옮기기는, 우리는 다른 선생 옮긴다는 걸 생각을 못 해. 왜, 외길밖에 몰라. 한 개밖에 모르니까. (603)

소리 공부를 멈춘 김정애는 부산에서 지내며 부산국악협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부산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비롯하여 경연대회, 무료 강습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일반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협회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고 책임을 져야 하는 직책을 장기간 수행하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학원과 국악협회 운영에 최선이었던 1980년대 초반, 동초(東超) 김연수의 제자 오정숙의 소리를 듣고 소리꾼 김정애의 마음은 다시 한번 넘실거린다.[4] 소리를 공부하기 위해 친구 어머니를 따라 혼자 전라도로 향한 어렸던 김정애처럼 불혹(不惑)을 넘긴 김정애는 동초제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오정숙을 새로운 스승으로 모신다. 김정애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실로 대단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오정숙은 동초제 판소리를 창시한 동초(東超) 김연수의 제자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이다. 김창옥에게 가르침을 받은 중고제에 이어 오정숙으로부터 동초제를 배우게 되었다.

김정애는 익산, 전주, 금산 등을 오가며 동초제를 전수(傳受)하였다. 산골에서 지내고 계시던 선생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에는 타고 가던 차량이 크게 돌아 대형 사고가 날뻔하기도 하였다. 험난한 길을 꿋꿋이 찾아가던 김정애에게 오정숙은 날이 좋아지면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남겼다. 그때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세 마당을 떼었을 때였다. 아쉽지만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세 마당을 끝으로 오정숙의 가르침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2008년 오정숙이 작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정애는 오정숙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중고제 판소리로는 다섯 마당을 모두 배웠는데, 동초제 판소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 그런데 수궁가 적벽가가 남았는데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걸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이 짤막짤막한 그것만 몇 개씩 떼 갖고 공부했지. 쫙 못 따랐는 거라. 그래서 그게 항상 아쉬운데, 다른 선생님 만나갖고. 그다음 걸 수궁가 적벽가 할 끼라는 생각은 접어버렸고. (중략) 내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선생님하고 북채 마지막을 뗐거든요, 흥보가를. 끝을, 마지막을 냈어. 그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7월달에 돌아가셨어. (605~606)

오정숙 선생께 동초제 판소리를 배우는 모습 ©김정애

2007년 故 김연수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김정애

3 소리꾼의 부산살이

다시 돌아온 고향 부산

거문도에서 김창옥에게 중고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즈음 김정애는 부산으로 돌아왔다. 부산에 있던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25살의 김정애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보면 자못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다. 결혼과 함께 아기를 가졌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였던 이를 며느리로 맞이하였다. 자신의 밑에서 판소리를 공부한 며느리에 이어 손자들 가운데 손녀 두 명도 국악을 전공하였다.[5] 소리꾼의 피가 이어져 세대를 아우르는 예인(藝人)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2009년 첫째 손녀와 함께 공연하는 김정애 ©김정애

인연으로 맺어진 부산국악협회 사람들

영도에서 남편과 가정을 꾸려 생활하면서도 김정애는 국악과의 연을 놓지 않았다. 국악협회 영도지부라는 이름의 학원을 운영하며 경제활동과 예술활동을 병행하였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산국악협회[6]에 찬조하며 협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는 부산국악협회 초대 회장이었던 김동민과의 과거 만남 덕분이었다.

판소리에서 손발을 이용하여 소리나 이야기의 내용을 표현하는 몸짓을 발림이라고 한다. 김정애가 발림을 익히기 위해 무용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무용 스승이 김동민이었다. 그래서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었던 김동민을 통해 부산국악협회에 일찍부터 가입했다고 한다.

> 내가 국악협회에다 찬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맥은 내 달고 있어요. 김동민 선생님. 김온경 선생 아버지. 이분이 우리 국악협회 초대 회장이시거든. 그때 옛날에. 우리 국악협회 육십몇 년도 활동할 때. 이분이 하실 때, 그럴 때 내가 소리하면서. 소리에서 발림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김동민 선생한테 무용을 좀 배웠어요. 발림을 하려니까, 이 춤 매무새가 있어야 되겠더라. (중략)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국악협회 들랑말랑하시고 하면서. 그래갖고 내가 일찍이 국악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죠. (609)

일반회원으로 시작한 부산국악협회 활동은 1978년 처음으로 부지회장을 맡게 되면서 보다 활발해졌다. 김정애의 구술 채록에 따르면 1978년부터 1999년까지 부지회장을,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부산국악협회 회장직을 수행한 이가 바로 김정애이다. 김정애는 자신이 오랜 기간 회장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협회의 운영난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 왜냐하면 내가 맡았을 때가 진짜 돈도 한 푼도 없고 아무것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판센데[시절인데]. 내는 학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책상 하나를 학원 옆방에다가 이래 놔 놓고… (중략) 학원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내

가 책상 하나 사가지고 놓고. 국악협회가 이제 이래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그거 하나 붙이고 이래가지고. 국악협회 사무실도 써야 되고, 내가 한테서. 그라고 아무 돈이 없으니까 식구들을 한 번씩 모아갖고 회의를 좀 하려 해도, 밥 한 그릇 해도, 내가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때는 그냥 무상으로 내가 돈을 쓰면서 그냥 그 단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선뜻 이래 내가 회장할게,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609~610)

김정애가 회장을 맡았을 당시의 협회는 사무실 공간, 운영자금 등 협회 운영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던 영도 학원에 책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협회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회의를 비롯하여 협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비로 해결하며 협회를 유지하였다. 김정애가 사무실을 옮기면 협회도 옮겨갔다. 심지어 시민회관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공간이 부족하여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매우 척박한 상황이었기에 누군가가 쉽사리 회장 자리에 나설 수가 없었다. 중간에 회장직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었으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회장 대행직을 더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김정애는 오랜 기간 부산국악협회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송순섭 선생과의 인연, 그리고 창극

과거 부산은 전국의 떠돌이 예술가들이 흘러와 모여 지내는 도시였다. 그중에서도 국악 예술인에게 많이 베풀기로 유명했던 김동민을 중심으로 많은 이가 모였다. 김정애는 김동민의 토성동 자택이 늘 국악인들로 들끓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부산이 제일 예술가들이 떠돌이들이 많이 와가 있었어요. 그 김동민 선생님 밑에 와가지고. 참 밥도 많이 얻어 자시고. 김동민 선생님 좀 쓰는 양반이거든. 그렇게 막 가난, 빈곤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선생님 밑에 온갖 소리꾼이라는 소리꾼, 악사들 막 온갖 이름 있는 문장원 선생 전부 다 거기 다 안 거쳐 간 분이 없

어. 부산분들. 그때는 막 돌아댕기다가, 어제 좀 그거 하면, 한 달에 또 있다가 또 가르칠 사람 며칠 묶어주나 놓으면 그 역할을, 김동민 선생님이 많이 했어. (중략) 거기 하고 김동민 선생님, 대신동 이래 가는데. 지금 현재 부산대학, 대학병원 고 짝 어디메가 김동민 선생님 집이었어요. 토성동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 국악인들이 다 들끓었죠. (613)

김동민은 1940년대부터 토성동 자택에서 부산 최초의 무용학원인 민속무용연구소를 운영하였다. 그것을 기반으로 재능있는 무용가들뿐만 아니라 가야금 산조, 대금 산조, 판소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악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후원하였다. 그들 중 한 명이 강백천(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이다. 그리고 강백천의 딸과 결혼한 이가 송순섭(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인데, 김정애는 강백천의 딸을 통해 송순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애가 송순섭에게 창극을 배우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특히, 1971년 김정애가 주인공 유관순 역을 맡았던 창극 <아아! 그날의 함성>을 송순섭에게 배웠다.

<아아! 그날의 함성>은 부산 남포동의 왕자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창극이다. 3·1절 기념으로 부산 국악인 150여 명이 참여하여 공연을 올렸다. 이 창극 공연은 당시 부산 국악계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부산 국악공연이 역사상 처음으로 성황을 이룬 것이었다.[7] 더 나아가 국악공연이 가진 무대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8]

부산국악협회는 1971년 창극 <아아! 그날의 함성>의 흥행에 힘입어 1972년에도 왕자극장에서 3·1절 기념 단독 창극 공연을 선보인다. <아아! 그날의 함성>과 동일하게 유관순을 소재로 한 창극 <이 목숨 조국위해>가 그 주인공이다. <이 목숨 조국위해>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공연을 당시 동양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송출하였는데, 방송을 통해 공연을 접한 울산 천도극장으로부터 초청받아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부산국악협회에서는 1972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악예술무료강습회를 개최하였고 호평을 받았다.[9] 그리고 이후로도 국악예술무료강습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산국악협회의 주요 사업 중

1971년 <아아! 그날의 함성> 공연 사진 ⓒ김정애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아! 그날의 함성>을 시작으로 김정애는 송순섭과 함께 창극 공연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정애의 말에 따르면, 당시의 부산국악협회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창극이 아닌 남녀 혼성의 창극을 제작하고 공연하며 제자들을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후 송순섭이 떠난 뒤로는 김정애가 부산 창극을 도맡다시피 하였다. 창극 공연에 함께 참여하였던 조정례, 신수방 등은 여전히 부산에서 창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애는 제1회 부산예술제전 창극 <흑의장군>(1978), 제2회 부산무대예술제 3·1절 60주년 기념 창극 <유관순>(1979), 제4회 부산무대예술제 창극 <동래부사 송상현>(1981), 제5회 부산무대예술제 창극 <가야금의 유래>(1982) 등에 출연하고, 제6회 부산무대예술제 창극 <순교자 이차돈>(1983)을 진행, 여성창극 <사도세자의 비가>(2009)를 기획하는 등 창극 공연에 헌신하였다. 여성 창극의 맥을 잇고 있는 서울의 한 단체가 부산지회를 맡아주기를 권유하였으나 건강 상태를 비롯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김정애는 밝혔다. 이외에도 2002 아시안게임 문화축전 춤

창극 공연 중인 김정애 ©김정애

과 소리의 총체무극 <가야 허황후>(2002)에 출연하고, 여성창무극 동초소리제 <대춘향전>(2004)을 기획하며 부산 국악공연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10]

> 지금 창극 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정례, 신수방 좀 그거한 사람들. (중략) 아니 그 국악으로 돼 있어, 아직 부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악협회, 지금 창극의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중략) 맥을 잇겠다는 그거에서 서울 가면 여성 창극이라고 지금 맥을 잇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수시로 나한테 그걸, 부산에 또 이걸 하나, 부산지회를 가지고 가갖고 좀 맡아서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략) 이름을 자기들이 줘놨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것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 지금 몸도 안 좋았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상태라. (614)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국악협회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올릴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부산국악협회의 고초를 알게 된 유명 작가들이 협회를 돕고자 그림을 주었고 그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소식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부산지역의 유지였던 김지태는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덧붙여 최종적으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국악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최석원 시장의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11] 아래의 인용문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송순섭의 매체 인터뷰 내용이다.

> 송 명창은 24년을 부산에서 국악발전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공연비용 마련을 위해 1977년 부산에서 대대적인 서화전시를 개최해 당시 지역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대가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서화 250여 점을 전시했고 당시 부산시장, 부산지방법원장 등 부산의 큰손들은 모두 참석해 그의 전시에 후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예총에서 연극협회, 무용협회 지원금이 3백만 원 정도일 때, 그는 온전히 전시를 통한 그림 값으로만 3천만 원을 만들어냈으니 엄청난 수확이었다. 특히 故김지태 삼화그룹 회장(전 부일장학회장)은 전시 기획과 의도에 큰 감동을 받고 당시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선뜻 내주기도 했다. 젊은 국악인이 우리 국악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대견하게 여겼다는 것.
>
> "당시 남농 선생님께 작품 한 점 얻어가려고 식사대접이라도 할라치면, 선생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오히려 날 배불리 먹여주곤 하셨다. 훗날 선생님께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대형작품을 보내주시기도 했다. 지금 부산국악회관 로비 중앙에 걸려있는 작품이다"[12]

기부금과 전시회 수익으로 재정을 확보한 부산국악협회는 1978년에 국악회관(범일동 중앙시장 앞 서울신탁은행 4층) 문을 열게 된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국악을 알리

기 위하여 시조, 무용, 경기민요, 판소리 등 각 분야의 공간을 마련해두고 무료로 강습하기도 하였다.[13]

그런데 너무 큰 규모의 사무실을 빌려 운영한 것이 화근이 되었을까? 협회는 또다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사무실의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다 결국에는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협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한국무용가 이매방이 선뜻 무용실을 빌려주었다. 김정애의 구술에 따르면 구두(口頭)로 무용실을 아예 협회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14] 사무실 문제가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무용실에서 협회를 운영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화재로 사무실을 잃은 협회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김정애의 영도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협회는 계속 적자 상태였고 김정애가 자신의 사비로 메꾸어가면서 협회를 운영하였다. 김정애의 노력 덕택에 협회는 외부 예산을 조금씩 받아오게 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는다.

학생 교육에 이바지하다

김정애는 2000년부터 부산국악협회 회장을 맡기 시작한다. 회장이 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국악강사풀제였다. 국악강사풀제 이전의 한아름교육(국악강사풀제 운영 초·중·고 국악시범교육) 시기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가 김정애였다. 청소년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을 가능케 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 국악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국악강사풀제 운영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15]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 소리꾼으로서의 책임감도 내보였다. 열띤 노력 끝에 김정애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쯤에는 학교현장에 110여 명의 국악 강사가 배치되는 성과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 학생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김명창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장직을 맡은 2000년부터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해 현재 110여명의 국악강사가 학교현

장에 배치돼 있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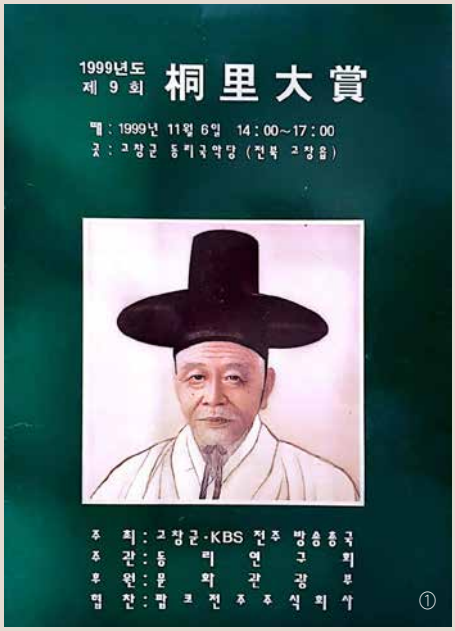
2000년, 국가에서 '한아름 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생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듣다보면 귀가 뚫리고 관객이 되기에 어릴 때부터 국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국악과를 나오고도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안타까웠다. 10명으로 시작한 학교 국악강사 배치가 작년에는 120명 정도로 늘었다. 대학에서 국악을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면 끝인 줄 아냐? 는 쓴소리도 해가며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려 애쓴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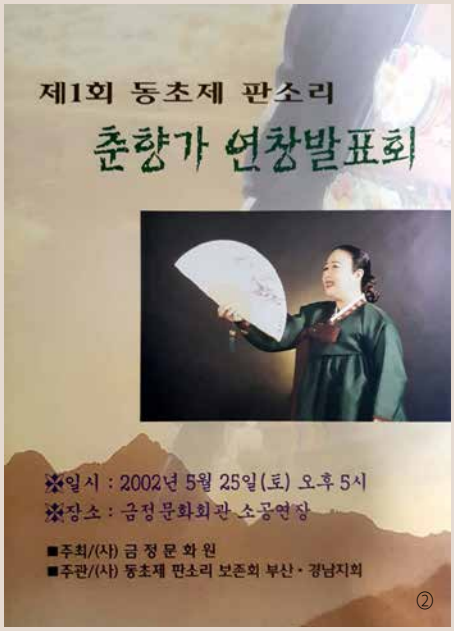
동초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다

동초제는 김연수가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 가운데 장점들만 모아서 만든 소리로, 창시자인 동초 김연수의 호를 따서 만들어졌다. 동초제는 장단이 빠르며 발림이 적은 경상도 동편제의 우람함과 장단이 느리며 발림이 많은 전라도 서편제의 아련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18] 그리고 가사와 문학성을 중시하여 사설이 정확하고 동작이 정교하며 장단이 다양하다. 가사 전달이 확실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는 점 또한 동초제의 특징이다. 동초 김연수의 1대 제자가 오정숙이고, 오정숙에게 소리를 전수한 마지막 제자가 바로 김정애이다. 동초제 판소리를 창시한 김연수의 예술정신과 혼, 동초제 판소리의 전승과 보급을 위한 오정숙의 노력을 이어받아 김정애는 동초제 판소리의 대중화와 전승, 발전에 일평생을 헌신하였다.

김정애는 2000년부터 동초제판소리보존회 부산·경남지회를 맡아서 운영하며 동초제 판소리 전승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판소리가 성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인 부산에서 동초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 공력(功力)을 김정애 생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판소리계에서 권위 있는 상 중의 하나로 <동리대상>이 있다. 판소리 사설을 교정하고 윤색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다듬은 동리(桐里) 신재효를 기리며, 판소리 진흥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제9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오정숙이





①1999년 제9회 동리대상 팸플릿 표지
②제1회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연창발표회 팸플릿 표지
③2002년 <동초제와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 팸플릿 표지
ⓒ김정애

선정되었다. 동초소리를 전승하고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정애는 오정숙의 제자이자 부산국악협회 회장 자격으로 1999년 <동리대상> 축하 공연에 참여하여 동초제 판소리를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애는 부산에 동초제 판소리를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공연을 대거 기획하였다. 그 공연 중 하나로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연창발표회>가 2002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공연이 그 여느 소리제에 비해 뛰어난 예술성과 음악성 그리고 탁월한 소리기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를 부산 및 경남의

판소리 애호가 및 시민 여러분들게 동초제 판소리만의 독특한 여흥과 깊은 인상을 체험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선사하여 드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번 제1회 동초제 연창발표회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어지는 만큼 고 동초 김연수 선생님의 예술정신이 승화된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의 보급 및 대중화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19]

같은 해 8월에는 <동초제와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개최되었다. 오정숙과 김정애 그리고 문하생들을 중심으로 꾸며진 이 공연은 문화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동초제 판소리의 정취를 한껏 선사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정애는 제자의 입장으로 김연수와 오정숙의 동초제를 계승한 것에 이어서 자신 역시 스승이 되어 동초제 판소리를 전수하였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출강을 다녔던 김정애는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과 사제의 연을 맺고, 학생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사제지간이 된 인연 중 한 명이 부산에서 최초로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전편(前篇)을 완창하였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전편(前篇)이 완창된다.

정다운(21·부산대 국악과 3년)씨가 그 주인공으로 정씨는 오는 4월 3일 오후 6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사)동초제판소리보존회 부산·경남지회 주최로 동초제 춘향가 전편 발표회를 갖는다.

정씨가 소리할 작품은 동초제 판소리의 창시자인 동초 김연수(1907~1974) 선생이 정리한 동초제 춘향가 전체 중 전반부에 해당하며 공연시간은 3시간30분 정도.

정씨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김정애(62) 동초제판소리보존회 부산·경남지회장에게서 판소리를 전수하고 있다.[20]

김정애는 판소리의 입지가 좁은 부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보기 드문 부산 태생의 명창이다. 오랜 시간 고된 수련 과정을 거쳐 배운 판소리를 부산에 전파하여 대

중화하고, 부산의 예인들을 양성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었다. 부산에 어렵게 발을 디딘 동초제 판소리가 계속 전승되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데에는 김정애의 무수한 공로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애류(流)'에 대한 아쉬움

중고제를 노래하였던 소리꾼이 새로이 동초제를 하려고 하자 꽤나 어려움이 따랐다고 김정애는 말한다. 동초제로 소리를 시작하여 노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고제 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 난 지금 동초제 소리하러 올라갔는데 내가 분명히, 소리를 이제 배우는 거 그거 연습 막 해가 올라갔는데.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중고제로 가고 있어요. 같은 가사에서. 이제 나만 아는 거라, 그거를. 아차, 하고 정신 딱 차렸죠. (중략) 그때 익혀놓은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대로 남아가 있고. 그 대신에 그 가사들이 중고제에서 익어가 있는 게 더러 있으니까. 고거하고 이쪽하고 소리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갖고 좀 고통 많이 받았어요, 바꿔 놓는데… 지금도 중고제하고 우리 동초제하고 하면, 중고제에도 좋은 곡이 굉장히 많아요. 소리가 똑같은 소리인데, 딱 비교해갖고.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다 보니까. 해보면은 이거는 여기가, 이게 더 좋은데, 하는 게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 바꿨으니까 그래 이 길로 그냥 이제 가고 있고. (623)

동초제와 중고제의 좋은 대목들을 섞어 부르는 김정애를 본 사람들은 문화재 지정을 권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박대성류(流) 아쟁산조'와 같은 길을 제시한 것이다. '박대성류(流) 아쟁산조'라는 새로운 아쟁산조를 창시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박대성처럼 '김정애류(流)'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과 팍팍한 심사 과정, 심리적 부담감 등을 이유로 '김

정애류(流)'의 탄생은 무산되었다. 김정애는 문화재 도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박대성 류(流)도 했잖아요?. 지 류(流)로. 그래 하니까 소리도, 그래해도 됩니다. 몇이가. 그래 하게 되면 김정애 내 류(流)로. (중략) 아… 그 안에 또 심사. 그거 하는 스물 몇 명이더라… 그 원래 하는 사람이 있고. 우와… 대단하데. 내가 그 심사를 들어가 봤는데. 내가 이런 데서 그걸 한번 저 입살에 한 마디씩 다 찍어가 할끼고. 질려버려서 안 해버렸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그게 여운이 좀 남아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이마이나 묵었고. (624)

부산 판소리 부흥을 기대하며

김정애는 1985년부터 오정숙에게 동초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스승을 부산 공연에 출연시키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판소리 불모지로 여겨졌던 부산에서는 공연을 펼쳐도 객석에서 관객들의 호응이나 추임새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공연에 올라가는 이들도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 가볍고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산 판소리를 변화시키고자 김정애는 최선을 다하였다. 무형문화재 오정숙을 공연에 자주 초대하여 도막극, 창극 등 다양한 소리 공연을 선보였다. 소리에 대한 김정애의 열성 덕분인지 부산의 판소리도 차츰 관객들의 '얼씨구' 추임새가 들리는 공연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85년부터 했어요. 그래갖고 공연만 있으면은, 공연 따면은 거기에 우리 선생님 갖다 세우고 막 이래갖고. 저 동초제를 그래도 부산에 참 소리 불모지고 얼씨구 하나 안 나오는데. (중략) 그전에는 니 노래해라. 아들 데리다가, 학교 아들 데리다가 공연을 하면은, 전부 저거 뒤에 놀아보고 장난치고 앉았고. 진짜 그런 시대에 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판소리는 더더욱이 더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서 차츰차츰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 도막극을, 그때 창극을 쭉 이어가는 것도 했지만 내가 도막극을 많이 했거든. (620~621)

전문 소리꾼으로서 소리를 배우는 김정애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미로 소리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김정애를 비롯한 전문 소리꾼들은 취미 수준으로 1~2년 정도 소리를 배운 사람들이 학원을 차리고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술의 질이 떨어질까 근심하고 염려했다. 그래서 수준 미달자를 분류하고 제외하자는 말도 나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애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객층이 점차 두터워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반색하게 되었다. 특히, 가수 김세레나[21]를 꼽으며 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칭찬한다.

그래 차츰차츰 부산에 예술 하는 그 질을 떨구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묶어버리고, 그러고 밑에 저런 이제 막 배운 사람들이 막. 부산이, 제일 활기치고 학원이라고 채려 놓은 게 많은 데가 부산입니다. 한 1년 2년 만 배우고 나면 학원하고. (중략) 그래갖고 해놔놓고 하고 막. 이게 너무 크게 그때 서울에서 그런 너무 많이 기술이 맞지 않는 자기 어느 한도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학원은 없애자 이런 말도 나왔더랬거든. 그런데 나는 가만 보니까 그런 걸 해놔놓으니 니나노 이것도 늘더라니까요. 그런 게 많은 식구가 늘잖아, 관객이. 그래 아… 그것도 괜찮겠네. 저 김세레나가 새타령하고 쑥대머리하고 완전 그거 시켜갖고 했잖아요. 그래 할 때 막 처음에는 국악계에서 가만 안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소리를, 귀한 소리를 그런데 하나 했는데, 그게 더 퍼트려 놨어. 그게 쑥대머리하고. 맞잖아요? 김세레나가 큰일을 했다니까. (621~622)

김 지회장은 "소리를 너무 멀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것(얼)을 지키기 위해 취미로라도 가깝게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2]

김정애는 부산의 판소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후학 양성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다. 2002년~2009년에는 부

2002년 제2회 한일친선문화교류의 밤 팸플릿 표지 ©김정애

2003년 제2회 전국광역시·제주 국악교류 대축제 팸플릿 표지 ©김정애

산대학교에서, 2003년~2005년, 2013년~2015년에는 부산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정애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스승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 판소리의 부흥을 꿈꾸며 지역 간 문화교류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02년 제1회 6개광역시 국악한마당, 2002년 제2회 한일친선문화교류의 밤, 2003년 제2회 전국광역시·제주 국악교류 대축제 등 다양한 문화공연에 참여하였다.

이후 2008년에 개최된 제7회 6개 광역시 및 제주특별시 국악교류대축제에서는 부산타령을 공연하였고, 2009년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전통음악교류 공연에서는 남도민요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2010년 부산·상해 전통음악교류 공연에는 민요 지도자로서 참석하였다.[23] 부산 안에서만 국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국악을 특히, 부산의 국악을 전파하기 위해 고투(苦鬪)하였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부산 국악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늘 화두에 올라 있다. 문화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화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지방 분권을 역설(力說)하지만 문화 정책의 수혜를 보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도권 지역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인사(人士)들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수도권 쏠림현상, 지방 소외현상이라는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산은 문화 불모지 특히 그중에서도 국악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부산 국악의 척박함은 근래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부산 국악계는 비옥한 환경을 가지지 못하였다. 옛날부터 부산은 행정 중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급문화와 상류계층의 음악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토속적인 놀이와 민요, 농요, 어로요 등의 민속무악을 중심으로 국악이 전해 내려왔다. 그나마 조선시대 동래감영(監營)을 중심으로 풍류악, 교방악무(敎坊樂舞)가 발달한 것이 특색있다고 할 만한 정도이다.[24]

부산 국악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기는 광복 이후의 시점이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부산의 민속음악은 거의 단절되어 권번(券番)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었다. 권번에서 판소리, 시조, 무용 등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부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당시의 전국적인 추세였다. 부산 권번에서는 동래 출신의 박난정을 비롯한 최계량, 정옥순이 부산 국악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전남 무안 출신인 강태홍이 가야금과 무용으로 명성을 얻으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25]

강태홍은 김동민의 토성동 자택에 마련된 민속무용연구소에서 사범으로 지내며 무용, 가야금, 창 등을 지도하였다. 민속무용연구소는 부산 최초의 국악 및 무용학원으로서 당시 부산 국악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김동민은 부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겠다는 다짐 아래 자택을 학원으로 제공하였고, 국악인들을 후원하며 부산 국악 발전의 큰 기틀을 닦았다. 광복 이후 시기에 부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예인으로는 김연수, 김강남월, 김애정, 신숙일, 양추월, 박성옥, 윤경봉, 김옥희, 박송강, 조계선 등이 있다.[26]

부산 국악계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피란수도가 되면서 문화·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부산 국악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은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구왕궁 아악부가 부산 용두산공원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부산에서도 아악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왕궁 아악부는 1951년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였던 동안 국립국악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 많은 예인이 부산으로 오면서 그들의 기예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뛰어난 예인이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부산 국악계는 1960년대부터 더욱 조직화한 움직임을 보인다. 1961년 경남예술인 총연합회 국악분과 위원회가 결성된 것이 그 시작이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강태홍, 박생강 등의 국악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경남예술인 총연합회 국악분과 위원회는 1962년 한국예술인총연합회와 한국국악협회가 창립되자 그해 1월 16일 한국국악협회 경남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국악인 조직 기구로 격상하였다. 그리고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부로 다시 한 번 개칭하였고, 김동민이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부산 국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976년 부산국악관현악단이 출범하였다. 부산국악관현악단은 최초로 창단된 순수국악활동단체로 부산 국악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부산국악관현악단은 이후 창단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모태가 되었다. 1978년에는 부산국악협회 주관으로 부산국악회관이 개관하였다. 부산국악회관이 부산 국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것을 알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국악에 대한 관심도도 더불어 높아졌다.[27] 1982년 출범된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는 당시 부산·경남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등국악교육기관으로서 국악교육의 산실(産室) 역할을 하였다. 2년 뒤 1984년에는 부산 국악인들의 숙원이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계기로 부산 내의 국악공연이 활기를 띠었다. 이에 따라 민간 국악단체의 활동도 왕성해졌다. YMCA, YWCA, 가톨릭센터, 극단 자갈치 등에서 전통문화 강습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였고, 강습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써클 활동도 시작되었다.[28]

국악 불모지라는 오명 아래에서 부산 국악계는 부산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권번을 중심으로 맥을 이어오던 부산 국악을 민간 국악학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육하였고, 혼란스럽던 한국전쟁 시기에도 국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이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던 부산 국악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부산국악회관, 고등국악교육기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의 출범은 부산 국악의 활기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부산 시민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현재 부산 국악계를 융성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지금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부산 국악인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제55회 부산시문화상 전통예술부문 수상기념공연 동초제판소리 영산 김정애 흥보가 완창발표회 팸플릿 표지 ⓒ김정애

명창 김정애는 부산의 섬 영도에서 태어났다. 영도에서 운명처럼 만난 친구를 따라 필연처럼 판소리를 시작하였다. 소리꾼으로 살고 싶어서 향한 전라도에서 스승 김창옥을 만나 중고제 판소리를 사사(師事)하였다. 스승 김창옥이 세상을 떠난 이후 소리 공부를 그만두었지만, 오정숙의 동초제 소리에 반해 다시금 소리 공부를 결심하였다. 천생 소리꾼다운 모습이다.

부산과 전라도를 오가며 고된 배움의 시간을 보낸 김정애가 평생을 헌신한 곳은 고향이자 판소리 불모지인 부산이었다. 수뇌부로서 부산국악협회를 36년간 이끌면서 수많은 공연 특히, 부산 창극 공연의 부흥을 이끌었고, 학생 교육을 피력하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29]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국가 간 문화교류 사업에도 힘을 실었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 등에 여러 차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며 부산 국악계의 신예(新銳)를 발굴하는 작업에도 열의를 보였다.

> 가만히 혼자 어린아이로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공부는 한다 해도 어린 동생들하고 겨뤄가면서 하기는 안 되겠고, 고마 이 길로 가면 어떻겠노 싶었는 거라. 그 길이 어떻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대강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걸 잘하면 명창도 되고 이제 아주 좋은 말만 해줬죠. (601)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김정애는 소리가 자신의 길이자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생각지 않게 파도처럼 밀려와 김정애를 흠뻑 적신 운명과도 같은 소리. 김정애의 소리 인생사를 살펴보면 한 인간의 굴곡진 삶에 부산 국악사가 깊숙이 녹아들어 있다. 소리꾼으로서 김정애의 헌신이 부산 국악의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김정애의 노고가 부산 국악사와 함께 할 것이다. 척박한 부산 판소리계를 위해 일생을 바친 부산 국악인 김정애의 노고를 기억하며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겠다.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2) 차상은, 「'낮에 이사 가면 사업 망한다'…영도 삼신할매 전설 아세요」, 『중앙일보』, 2015.03.27(검색일: 2023.06.09.).

3) 곽본성, 「장고의 거장을 만나다… (故)이성진 선생, 추모 음악회」, 『헤럴드경제』, 2015.10.27(검색일: 2023.06.09.).

4) 고영란, 「'예인탐방' 국악인 김정애 선생—국악이 내 인생이다」, 『예술부산』 2011년 1-2월호,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41~43쪽(검색일: 2023.06.09.).

5) 김정애의 손녀 나영주, 나하은 자매는 엠넷(Mnet)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7>(2020)에 '3대 음악가 집안'으로 출연하였다. 이후 나영주는 2022년 '에루화(EruhWa)'라는 예명으로 국악 크로스오버 아이돌로 데뷔하였다.

6) 부산국악협회의 시작은 1961년 조직된 경남예술인 총연합회 국악분과 위원회이다. 그러나 경남예술인 총연합회 국악분과 위원회는 조직적인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1963년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부가 독립 발족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부산국악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세종출판사, 2012, 393~394쪽).

7) 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400쪽.

8) 고영란, 「'예인탐방' 국악인 김정애 선생—국악이 내 인생이다」, 41~43쪽.

9) 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401쪽.

10) 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408~461쪽.

11) 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405쪽.

12) 이은영, 「[인터뷰-운산 송순섭 명창]"판소리, 이대로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가"」, 『서울문화투데이』, 2012.08.03(검색일: 2023.06.09.).

13) 「부산(釜山)에 국악회관(國樂會館)」, 『부산일보』, 1978.03.20, 5면.

14)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616~617쪽.

15) 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442~445쪽.

16) 김옥빈, 「부산국악원,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김정애의 一路一音"」, 『국제뉴스』, 2016.09.01(검색일: 2023.06.09.).

17) 고영란, 「'예인탐방' 국악인 김정애 선생—국악이 내 인생이다」, 41~43쪽.

18) 「'동초제' 대가들 부산서 판소리 향연」, 『국제신문』, 2002.08.23, 18면.

19) 제1회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 연창발표회 팸플릿에 실린 김정애의 축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20) 「동초제 춘향가 전편 부산서 첫 발표회」, 『부산일보』, 2004.03.30, 30면.

21) 1965년에 민요 앨범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에 민요 붐을 일으켰다. 김세레나는 "제가 가요도 하고 국악도 해서 가요와 국악의 접목 지점인 민요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람이 일어 민요 가수가 됐지요"하고 회고한다. 신대남, 「[그때 그 사람] 한국 컨트리 송과 김세레나」, 『매일경제』, 2022.12.23(검색일: 2023.06.09.).

22) 『부산일보』, 2004.03.30, 30면.

23) 부산예총, 『부산예총50년사』, 474~483쪽.

24)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4, 1991, 253쪽.

25)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4, 260~261쪽.

2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4, 262~264쪽.

27) 국립부산국악원, 『근현대 부산국악사 2—1948~1971년 부산일보·국제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국립부산국악원, 2016, 17쪽.

28) 국립부산국악원, 『근현대 부산국악사 1—1972~1989년 부산일보·국제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국립부산국악원, 2014, 22쪽.

29) 앞서 서술했던 국악강사풀제가 2006년부터 해당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영란, 「'예인탐방' 국안인 김정애 선생—국악이 내 인생이다」, 『예술부산』 2011년 1-2월호,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11.

국립부산국악원, 『근현대 부산국악사 1—1972~1989년 부산일보·국제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국립부산국악원, 2014.

국립부산국악원, 『근현대 부산국악사 2—1948~1971년 부산일보·국제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국립부산국악원, 2016.

부산예총(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예총50년사』, 세종출판사, 201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4, 1991.

최동현, 『동초 김연수의 생애와 판소리』, 신아출판사, 2013.

[논문]

김석배, 「김연수 명창의 생애와 예술 활동」, 『판소리학회지』 40, 2015, 5~38쪽.

이경엽, 「판소리 명창 김연수론」, 『판소리학회지』 17, 2004, 209~237쪽.

전지영, 「판소리 중고제의 제설(諸說)과 정의에 관한 재검토」, 『이화음악논집』 10(2), 2006, 199~216쪽.

최동현, 「김연수의 판소리 학습과 활동에 관하여」, 『구비문학연구』 37, 2013, 333~372쪽.

[신문기사 및 보고서]

「'동초제' 대가들 부산서 판소리 향연」, 『국제신문』, 2002.08.23, 18면.

「동초제 춘향가 전편 부산서 첫 발표회」, 『부산일보』, 2004.03.30, 30면.

「부산(釜山)에 국악회관(國樂會館)」, 『부산일보』, 1978.03.20, 5면.

곽본성, 「장고의 거장을 만나다… (故)이성진 선생, 추모 음악회」, 『헤럴드경제』, 2015.10.27.

김옥빈, 「부산국악원,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김정애의 一路一音"」, 『국제뉴스』, 2016.09.01.

신대남, 「[그때 그 사람] 한국 컨트리 송과 김세레나」, 『매일경제』, 2022.12.23.

이은영, 「[인터뷰-운산 송순섭 명창]"판소리, 이대로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가"」, 『서울문화투데이』, 2012.08.03.

차상은, 「'낮에 이사 가면 사업 망한다'…영도 삼신할매 전설 아세요」, 『중앙일보』, 2015.03.27.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정우수의 공연모습 2007 ©정정회

제9장

3대를 잇는 부산의 전통연희, 부산농악/ 고분도리 걸립굿의 마지막 뜬쇠

부산농악 정우수

부산농악이 한국전쟁기 피란민들과 지역민들과의 결합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산농악의 판굿에는 전국 농악의 명인들의 기량이 녹아 있으며 이것의 전승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의 한 가운데 정우수는 당대의 농악명인들에게서 그 기량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1 피란, 또 다른 삶의 시작 – 구미에서 부산 감천으로

농악은 민중의 음악이자 놀이이며 의례(儀禮)이고 삶 그 자체이다. 즉 우리 몸속에 녹여져 있는 것으로 누구나에게 열려있어 악기의 수가 많을수록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며 남녀노소 누구나 농악판에 끼어들 수 있다. 여기에 나름 멋을 부린 한량춤, 살풀이춤도 좋고 보릿대춤이면 더 좋다. 이런 각자의 허튼춤이 더해지면 신명은 절정에 이르고, 구성진 소리 한 자락을 얹으면 농악이라는 신명의 굿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부산의 정신과 정체성에도 맞닿아 있다. 부산(釜山)은 그 이름답게 멜팅 포트(melting pot)로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열정의 도시이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혼란의 시기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도 힘들었지만 그들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이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환대의 도시가 바로 부산인 것이다.

정우수의 부산농악과의 인연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산농악은 1952년[1] 부산 서구를 본거지로 활동하고 있던 유삼룡(柳三龍)과 한국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란 내려온 이명철, 정상열, 최상택, 조성현 등이 합세하여 서구 아미동에서 아미농악단을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2] 정우수는 1948년 3월 3일(호적에는 1950년 4월 17일로 되어있다) 경상북도 선산군 무을면 백자리(현재는 선산군 무을면이 구미시로 통합)에서 정상열의 7남 1녀 중 4남으로 출생하여 네 살 때 부산 감천으로 왔다. 부친인 정상열은 최상택과 함께 당시 선산의 물골농악대[3]에서 활동했다.

> 호적에는 50년생 되어 있고. 원칙은 48년생이거든. 48년생 쥐띠라. 6·25 사변 때 피란 나와가지고 내가 죽다 살아났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출생신고를 못했단 말이지. 피란 나오고 하니 그래 놓으니까. 그때 이제 1950년생.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는 그때 48년생 그렇게 돼 있어…. 호적에는 50년 돼 있지. 50년 4월 17일(음력)
>
> (중략) 그렇지 무을농악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친도 말하자면 무을농악에 그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에 걸려있는 역대 단원들 사진. 왼쪽부터 최상택, 정상열, 김차술. ©김두진

때 좀 했잖아. 지금 이분(최상택)하고 여기 복판에 계시는 우리 부친이거든. (630)[4]

(그럼 최상택하고 부친하고 같이 무을에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인용자)

어. 그렇지 살고 계시다가. 그래 내려왔거든. 나는 그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 내가 얼쭈 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지 어디 아나 모르지.

나 그때 쪼맨해서 왔어. 피란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 올 때 네 살 땐가 하여튼 그래 왔어 부산에. (631)

정우수의 부친 정상열이 감천으로 오게 된 계기는 당시 태극도를 믿는 큰형(정우수의 백부)의 권유로 감천으로 오게 된다. 태극도는 1948년 본부를 부산시 보수동으로 옮기고 태극도라는 명칭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하고 1955년 3,000세대 1만여 명의 신도를 감천으로 집단 이주시켜 도인촌을 건설하였다.[5]

어, 그때도 우리 부친이 하도 오락질을 잘해사서. 부산에 오면 안 할까 싶어갖고. 그래 어머니도 가자 해가지고. 그래 부산에 왔어. 큰아버지가 여기 계셨거든. 큰아버지가 내려와라 동생…. 또 부산에 오면 이제 그거 할 테니까 내려와라. 그

래가 이제 그 소리 듣고 어머니가 부산에 갑시다, 그래가 부산에 왔거든.

감천에, 태극도. 이제 그거 믿으로, 그래 왔거든. 어, 믿었지. 그래놓으니까. 부산 오니까, 그때 아버지도 태극도 믿어라카고. 어머이도 가고 한데, 형님들도 가라카고. 나는 안 갔지. 그때는 어리니까. 그라다 보니까 태극도 조금 끝나고, 뭐 사람도 옛날처럼 안 믿고. 또 시부지하게[흐지부지]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안 믿었지. 지금도 있잖아, 태극도. 있긴 있는데 나는 안 믿어. 그 바람에 경북 사람들이 많아. 저 병삼이 부친도 이제 그 바람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태극도에 경북 사람들이 많았네요?

경북, 충청도 사람들이 많지. 경북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 (631~632)

2 농악 입문과 유랑걸립으로 부산에서 구룡포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향을 떠난 피란민들의 생활은 곤궁했다. 정우수의 부친은 감천에서 자갈치까지 지게 품팔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으며, 농악을 치는 것이 타고난 개인의 소질이거나 피란살이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다.

그가 여덟 살 되는 해에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활동하던 부산농악에 입단했다. 농악대를 따라 몇 달씩 집을 나가 있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나 어려서부터 했어. 여덟 살 때부터 했어. 내 이거 바람에 학교도 못 댕겼잖아. 댕기다가 저 퇴학 맞았잖아. 그때 저 감천초등학교. 그거 댕기다가 못 갔거든 이 풍물 따라 댕긴다고 맨날. 음력으로 하면 2월달 아닌가배? 참, 정월달이잖아, 이월달이. 그러면 3월, 4월 하면 이제 5월 이래 되면 이제 학교까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또 갔다 오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학교도 가기 싫어요. 그래가 내가 공부를

1957년 부평동 시장 밀가루 골목 ©정우수
앞줄 왼쪽부터, 조귀봉(소고), 최상택(꽹과리), 이명철(꽹과리), 정우수(검은색 옷) 중간 이명철 뒤 고깔, 김차술
뒷줄 왼쪽부터, 미꾸라지(징), 김한순(소고), 천해수(소고), ○○○(양반), ○○○(장구), 정상열(북,상모), 최상택 동생(소고)

못 했잖아. 3학년까지 당겼는데 3학년까지 댕기다가 퇴학 맞았거든…. (633~634)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어쩌면 학교 다니는 것이 사치였을지도 모르겠다. 한 집안에 서너 명이 농악을 치러 나가면, 나머지 남아있는 식구들은 그만큼 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농악을 쳐서 돈과 먹을 거리를 들고 오기 때문에 생계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풍물 이거 치면 서이[세 명]는 나가면은, 입은 산다, 이 말이거든. 입은 살고 집에 있는 사람은 둘이나 서이 있거든, 동생하고 어무이 하고 있으면 그분은 이제 뭐랄까. 우리가 벌어 가지고 주고, 먹고 살으라고 주고. 그러면 그래 댕기면은 우리는 입을 서이는 던다 아이가. 그러면 풍물 치고, 고사 지내고 이러면 쌀 나오고, 보리쌀 나오고, 돈 1,000원, 한 2,000원, 3,000원 이래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 모아가지고. 그러고 또, 참 보리쌀 같은 거를 이래 모으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촌장에 가서 파는 거야. 쌀도 마찬가지로 팔고. 그래서 돈을 만드는 거야. 그 무거운 거 들고 댕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쌀을 파는 거야. 팔고 그 돈을 뭉치 가지고 이제…. (634~635)

당시만 해도 아미농악에는 아버지와 그의 자식들까지 서너 명씩은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많았다. - 이명철과 이용식, 정상렬과 정우수, 정우복, 최상택과 그 동생과 아들, 김동순과 김종삼, 김종대 등 - 이는 농악단을 꾸릴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부산농악 할 때 전부 다 한 집안에 서이[셋이], 너이[넷이]는 다 됐어. 한 세 집만 되면 9명 아닌가베. 회원이 9명이고. 그러면 가외로 붙이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이래 하면, 이제 열 한두 명이 요래 해가지고. 댕기면서 그래했다고.

내 동생 또복이라고. 그놈하고, 내하고, 이제 부친하고 그리 서이[셋이] 했지. 우리 집안에서는 그 당시에 서이 하고. 종대 집에, 그 부친(김동순), 종삼이, 종대 세 명.

(중략) 이분 중에 병삼이 부친부터도, 그 동생분도 했거든. 그러고 나서 최병삼이 또 형님이있어 있는데,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분하고 그래 서이[셋이]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최병삼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미농악하고 했지. (632~633)

3 포장걸립과 농악경연대회

이렇듯 4~5가족이 부자지간에 같이 농악단에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 몇 명이 더해지면 15~16명의 농악대가 꾸려졌던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생계형 전문걸립패들이 우후죽순 결성되어 7개에 이른다고 한다(범냇골, 범일동, 영도, 대신동, 동래, 수정). 이들 걸립패를 '고깔패', '걸립패'라고 지칭하는 속어도 등장했다.[6] 아미농악의 주요 활동 또한 정초에 시작하는 걸립이었다. 아미농악의 걸립은 마을의

서쪽에 있는 시약산 당산에 가서 당산제를 지내고 길굿을 치며 내려와 동네 가운데에 있는 우물에 모여 우물제를 지낸다. 그리고 가가호호를 돌며 지신밟기를 해주고 곡식과 돈을 받았으며, 술과 음식도 얻어먹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바닷가로 나가거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용왕제를 지낸다. 이 놀이가 끝나면 대동놀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판 춤판을 벌이고 나서 개인 놀이로 들벅구 놀이, 북놀이, 장구놀이를 벌인다. 마지막 춤판에는 관중들도 합류하여 신명을 돋울 수 있다.

정월 한 달은 자갈치시장, 영도시장, 서면시장, 하여튼 부산진시장. 또 시장이라 카는 데는 안 당긴 데가 없어 우리가. 정월달에, 그러니까 정월달에 시장통 안에 들어가서 풍물을 치면 시장 상인들이 좋아를 하잖아. 그래 거기서 성주풀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또 보살들이 보고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해 갖고 집까지 또 갔다온다. 한참 걸어간다 가가 치고오고 그랬다고.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내에 하루에 보통 가면은 열두 집, 열석 집, 바쁠 때는 스무 집까지 치는 거거든. 그러니 성주풀이하시는 분은 목이 아프지. (636~637)

아미농악은 정월 아미동에서 출발하여 경북 포항의 구룡포까지 다니곤 했다. 정우수의 고분도리걸립 소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시 아미농악의 소리꾼 유삼룡에게 배울 수 있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부산에서 끝나면 2월은 말하자면 동해안으로 가거든. 2월은 그런 식으로 동해안으로 송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차도 안 타. 걸어서 가는 거야. 오늘은 이 동네, 호수가 한 50호나 100호 되는 동네 들어가면 거기서 이장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래 이래 해서 이래 가다가 저물어서 이래하는데 여기서 하룻밤 놀다 가면 안 되겠냐? 이러면 옛날에는 구장이잖아. 요즘은 반장이지만. 구장한테 그리하면, 구장이 그래 하이소. 놀다 가이소. 그래서 놀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 분이[김차술] 할마씨들[할머니들] 잡고 늘어지내. 고사를 지내는데 한번 잘 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

래가 바닷가이니 한 집 붙으면 연속으로 여러집 되거든. 그러면 뱃고사도 그때 뱃고사도 지내고 그래. 동해안은 배 많잖아. 전부 다 해변가니까. 뱃고사도 지내고 집에도 지내고, 전부 다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며 지냈지. (637)

일제시기에는 집회허가를 받아야 농악공연도 할 수 있었다. 만주사변이 난 이후 치안유지법의 무단집회에 걸려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간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다. 정월 초 설날을 계기로 걸립하는 농악패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 지극히 싫어하는 구정을 계기한 농악대는 시내 일부동에서 상금도 그칠 줄 모르고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다. 경찰에서 엄금한다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약무인격으로 날뛰고 있는 이들 농악대들은 변두리 아닌 시내 완월동을 비롯하여 현재 보이는 것 만해도 몇 개소가 가정방문 농악을 치고 있는데 이를 금지 못하는 당국측 처사에 일반인은 의아해하고 있다."[7] 이런 문제들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공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다 경북, 저리는 올라가면 우리 영남 지방이 아니잖아. 경북에는 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경찰서 가잖아. 경북 경찰서에 간다 말이야. 가가지고 노트가 있어 이만한 거. 경찰서에 가가지고 사인 받고 도장 찍고, 그래한 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동네 왔으니까, 이 갈래 왔으니까, 우리가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고 놀아야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풍물을 못 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왔는데 어떡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차저차 우리가 이래서 부산에서 이래 놀다 보니까 경북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돼 가지고 놀다보니…. 그때만 해도 뭐 어디 크게 그거 있나. 그러니까 여기 서장님 사인 한 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인 해 가지고 경찰서장 도장 찍고 가지고 나오거든. 그거 가지고 갈래에 가면 그것만 보여주면 통과라. 무사통과라. 동네 가서 구장한테도 이래서 말이지 경찰서에서 이래 했는데 이래 하면 어떻냐 이카면, 네 좋습니다, 놀고 가이소. 그래서 동네에서 또 놀고 넘어가는 거라 그래가 저 가다 보면 구룡포까지 간다.

(중략) 잘 방이 없잖아. 사람이 한 열대여섯 명 되고, 한 집에서 다 못 자잖아. 그러면 요즘 말로하면 민박. 민박 같이. 그러면 구장이 다 알잖아. 어느 집에 방 있고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누구 오라 해라, 어느 집에 누구 오라 해라, 오라 해가지고, 이래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 오늘 저녁에 몇 명 데리고 가서 저녁에 재우시고 그 다음에 밥도 해드리고 해라, 그래 가지고 갈라 붙여주는 거야. 몇 명석 이래. 그래가 자고 댕기고 그랬다고. (637~638)

화주는 걸립을 위해 먼저 경찰서와 면 소재지에서 집회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그들 사이의 은어로 '뻔치기'라 한다. 정월 초 부산에서 시작해서 구룡포까지 갔다오면 5월달이 훌쩍 지나있었다. 그렇게 추석까지 부산에서 지내고 남해안으로 걸립을 나서 거제도를 거쳐 하동까지 돌고 오면 동짓달을 되어야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미농악의 걸립은 추석을 기점으로 정월부터는 동해안쪽 추석 이후로는 남해안 쪽을 돌면서 농악경연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8)]

우리가 맨 처음에 갈 때 우리가 60년도부터 댕겼거든. 댕기면서 그래 하다가 60년도에 하면서 한 2년 그래 당겼다. 댕기다가 한 3년째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경주에서 신라문화제를 하는데 농악경연대회를 붙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김에 농악경연대회나 참여해보자 해서 대회에 출전했다.

(중략)그때 맨날 저녁에 판굿치제 뭐 하니께 뭐든 연습은 많이 돼가 있다 아이가. 대구 비산동 비산농악하고 우리하고, 경주 어디 농악하고, 또 어디 농악 하나하고, 네 팀이 왔는거야. 그래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래가 대구 사람하고 우리하고 동점이 돼 버리고 심사를 어떻게 봤는지… 동점이 돼갖고 연장전으로 10분을 더했어 그래서. 1점 차이로 이겼어. 그것도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1점 딱 이기는 거야 우리가. 아미농악이 그래 가 우승기 받고… 62년도 그래가 우승기를 받고 그래하고 내려왔거든. 그러면서 풍물도 치고. 우리 안 해 본 거 없다. (639~640)

포장, 포장걸립도 해봤다고. 포장 치면 옛날에는 전주대 있잖아. 스기 나무 있

제1회 신라문화제(1962. 4. 19.) 아미농악 경연사진 및 우승기. ©정우수(왼쪽), 김한순(오른쪽)

잖아. 가는 거 요만한 거 있거던. 그거 긴 거 그걸 파 가지고, 촌에 가면 논바닥 빌려 가지고, 그거 구덩이 파가지고 심어가지고, 그래가 포장을 광목을 이쑤는 거야. 광목 폭이 요만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 통이나 쓴다고. 세 통이 있으면 빽 돌리친다고 돌리치가 표 파는데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흥행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근데 지금 말하자면 서커스단 맨치로 그래가지고 돈 받고 공연을 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 안 해 본 게 없어.

(중략) 포장? 포장은 그 놔낳다가 할 때 되면 가서 싣고 가지. 가지고 댕길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래가 포장 가져가다가 어디 가서 우리가 그걸 깔고 잤나 하면은. 한 번 포장을 깔고 우리가 잤는 거야. 광목 그거 뜨시더라. 자니까 바람도 안 들고 참 뜨시더라.

(중략)그러니까 우리가 17살인가 15살까지 댕겼다. 70년대까지는 안 되고 한

68년… 67년쯤. 그렇게 당기다가 모두 직장이 모두 잡히고 뭐 이래 하니까 또 일하러 가고, 정월달에 풍물 치자 이러면 정월달에만 모이는 거지. 그래가 정월달에 벌어가지고 이래 놔아놨다. 그래 가지고 부산 시내 농악경연대회 붙인다 이래 하면, 경연대회 한 번 하자. 그래가 요… 공설운동장에 경연대회 또 한 번 했거든. 몇 번 했다. 그래 갖고 그거 쌀 모아놓은 거 그거 갖고 연습하고 그거 쌀로 가지고 밥해 먹고 그래 했단 말이야. 농악경연대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그거 가지고 밥 해 먹고 반찬 사 먹고 그래. (640~641)

당시 부산공설운동장(구덕운동장)에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부산아미농악은 1967년 10월 5일 열린 부산 항구제(港口祭) 농악경연대회에서 서구농악팀으로 1등을 차지했다.[9] 이후 정우수는 1969년 전국민속농악경연대회 개인상(장구), 1977년 제3회 전주대사습 농악경연대회 장원, 1978년 대구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인상(상쇠)등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수상 실적으로 1978년 박정희,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취임 경축공연에도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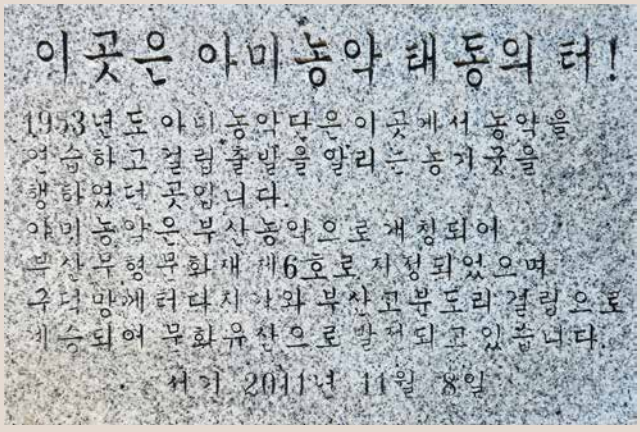
울산공업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 우승기념사진. ©김두진

연습? 이명철 선생님 그 집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 하지 저녁으로.

낮에는 일하니까, 전부 다 저녁으로 거기서 연습을 하고. 농악경연대회 간다 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연습할 때도 있고.(중략) 우리는 그때만 해도 소고 쳤지. 동해안으로 갈 때 우리도 소고 치지. 그때는 뭐 깽과리, 장구 이런 거는 못 쳤다고. 그건 못 친다. 그러니까 맨날 접하니까 귀동냥은 많이 하잖아. 귀동냥하고 개인놀이, 솔로[solo]하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뭐 장고소리가 어떻다 하고 그런 걸로 배웠다니까.

상모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그 당시에 상모 치는 거 보고 배운 거지. 나이 많은 사람들 치는 거 그래 보고. 그때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구, 지금 저 물골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많거든. (641~642)

무을골! 선산! 고향! 거기에서 많이 데리고 오시고 그랬거든. 농악경연대회 간다고 하면 소고 치는 사람들 몇 명 모시고 오고. 장고 치는 사람은 한 두어 명 모시고 오고. 이래 가지고 농악을 만들어가 치고 그랬다고. 정월달에 성주풀이하고 이러면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몇 명을 모시고 와 가지고 걸어댕기고. 그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산 물골 농악 물이 조금 많이 들었지. (642)



당시 연습장소였던 아미동 놀이터, '아미농악 태동의 터'라는 표석이 새겨져있다. ©김두진

농악경연대회는 일제시기 간헐적으로 열리기는 했으나 전국 단위로 열린 것은 1946년이 처음이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제1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중앙신문과 국악원이[10] 공동주최하고 미군정청이 후원하여 1946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창경원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이미 전국에서는 도별로 예선을 실시하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팀이 출전하였다.[11] 이 대회를 계기로 영남예술제(개천예술제) 등 전국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농악경연대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4 부산풍물패 사물놀이, 두레패 사물놀이, 부산에서 서울로

1978년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에 의해서 '사물놀이'가 처음으로 창단되어 왕성한 무대활동을 하는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다양한 사물놀이패가 만들어지게 된다. 1985년 사물놀이패 '뜬쇠'(전수덕, 김충신, 강대승, 박덕근, 정철기, 김복만, 권칠성), '두레패' 등이 만들어지고 부산에서도 1985년 12월 9일 '두렁쇠'(꽹과리-이홍, 장고-손기룡, 북-최진일, 징-이찬혁)가 시민회관에서 창단공연을 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1984년 11월 4일 정우수는 '부산풍물패 사물놀이'를 이용식, 김종대 등과 함께 결성한다.

내하고, 종기하고, 그 용식이하고, 또 누구야 저… 강정수 씨.그분은 와가 하면 다른 거 할 건 없고, 징만 치고. 그라고 또 권명기라고 있잖아. 상모 돌리고. 그래 한 네 다섯 명이 그때 그래 모이가 있거든. 아 재현이도 참 있었구나. 재현이하고 저 지금 국립국악원에 가가 있는 이름 머고… 북치는 애… 그 이름 머고….

어… 그때 같이 있었는데. 이름이 뱅뱅 도는데 잘 안나온다. 아, 그래, 백진석이. 백진석이 하고 그래 했거든. 그때 만들 때 이사를 다 만들었다고, 이사가 전부 다 종대, 내, 용식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이사가 5명이 되가 있어. 지금도 몰라 부산시에 등록이 그래 되가 있을 게야. 아직까지 부산풍물패 이름이 있으니까.

등록이 그래 되가 있을 게야.

나는 그때만 해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장구도 못 치고, 소고도 못 치고, 그래 내가 깽과리만 쳤거든. 자네 알다시피. 내가 장구, 소고 내가 쳤나, 안 쳤잖아. 그때 허리가 아파서 내가 안 했거든. 허리가 안 아팠으면 소고하고 장구하고 내가 다 해줬을낀데. 그때 그래 가지고, 내가 소고도 저 허리 때문에 못 하다가. 그래서 아시안게임 할 때 그때 손세란 그때 할 때다. 학원 남포동에. 손세란 선생님 학원 할 때. 그때 그분이 장소를 빌려줘 가지고. 그래서 그 5층인가 그 위에 가서 저녁에 이제 가서 두드리고 연습하고 그랬거든. (643~644)

이렇게 부산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전문연희자들과 꾸려진 사물놀이패가 결성이 되고, 1986년 5월 23~24일 첫 공연이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12] 이들은 아미농악에서 연희되던 성주풀이와 북놀음, 판굿등을 무대에 맞추어 구성하여 아미농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민속연구자인 박진주(朴辰株)는 "다양하게 벌일 연희에 기대가 크다. 이들의 연희는 결코 관중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2~3대에 걸쳐 농악판에서 성장한 이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부산풍물패 사물놀이'의 활동에도 당시에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 하다가 이제 86아시안게임 한다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부산이가 나를 불러 올렸다니까. 두레패. 그래 부산이가 형님 이래 이래 하는데 부산 있는 것보다 서울 올라와가 좀 사물놀이 한 번 해보는 게 어떻는교? 한번 올라 오이소, 이라더라고. 내 할 줄도 모는데[모르는데] 올라가면 머하노? 내가 그래가지고, 형님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막 설설 하면 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꼬였다아이가. 그래가지고 부산이(이부산) 때메 꼬여가지고 올라갔다 아이가. 올라 가가지고 86아시안게임 거기서 치르고 두레패 하면서 일본 선전하려고 많이 당겼잖아. 그 88올림픽….

그도 거기도 보면 충신씨가 단장이고 김충신이, 또 이름이…. 꽹과리 치는… 강대승 씨. 박덕근, 오영근 뭐 이래. 그런 애들은 같이 했잖아. (중략)

자기들 창단하면서 그랬거든. 그래 부산이가(이부산) 서울 먼저 갔으니까. 부산이가 두레패 한다고 그래 했잖아. 그때 꽹과리가 누가 있었나 없었나? 깽과리가 없어서 그때 날보고 깽과리 치라고 올라오라해서. 그래 가지고 한 3년 있다가. 88올림픽 끝나고, 86아시안게임하고 87하고, 88올림픽 끝나고 내가 내려왔거든. (644~645)

두레패사물놀이는 김충신을 단장, 이부산이 부단장으로 1985년 창단되었다. 정우수는 1987년 김충신, 이부산, 강대승, 오영근, 김문홍과 함께《두레패 사물놀이》레코드 음반을 취입하였는데 음반의 기획자인 유철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두레패사물놀이는 평소 4명의 잽이로 구성하여 연주하던데서 꽹과리, 장고를 2인조로 한 6명의 잽이의 독특한 편성으로, 잊혀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이 땅에 되살리는 충격적인 연주를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두레패의 6명 잽이들은 2대 3대에 걸친 예인집안의 후손들로서 사물 외에 피리, 호적, 가야금, 철금,아쟁 등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물놀이 레코드를 취입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음악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읍니다."

이 음반은 웃다리농악, 운우풍뢰(사물놀이), 영남농악, 대북과 사물놀이, 호남 우도농악 1·2·3, 비나리, 설장고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13]

킹레코드사에서 1987년 발매한 두레패 사물놀이 LP음반. 대북 왼쪽에 기대어서 있는 정우수. ©김두진

이 밖에 두레패는 86아시안게임 전야제·개폐회식·선수촌 공연, 1987년 두레패사물놀이 제1회 정기발표회, 독립기념관 개관 특별공연, 일본 10개 도시 순회공연, 1988년 서울올림픽 공연, 서울장애인올림픽 공연, 영국 BBS사물놀이 재즈 협연공연 등 국내외 다양한 공연활동을 했다.

5 부산농악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다

부산농악은 지금부터 40여년 전에 유삼룡(柳三龍)이 부산 대신동에서 '곱은돌이 농악단'을 창단하여 여러 농악인들을 키웠고 그 농악인들에 의하여 농악 기예의 발달을 보게되었다. 이를 토대로 1952년 유삼룡에 의하여 '아미(峨嵋)농악단'이 창단되었다.[14]

"그 즈음 시내 서대신동에 살던 유삼룡이라는 분과 열 너덧 사람이 모여 걸립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유삼룡 씨는 부산 사람으로 농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예가 우수한데 꽹과리를 잘 쳤으며, 특히 성주풀이를 잘했다고 한다. 이들 일단(一團)은 어디까지나 걸립놀이꾼이었으므로 단장을 화주(化主)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속되지 못하고 다음 해부터는 흩어지고 개인적으로 몇 명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6.25 사변의 혼란기를 당하여 와해되고 말았다. 그 다음 1953년 정초에 아미농악단(峨嵋農樂團)이란 명칭으로 재편성하여 시내 아미동에서 발족하였다. 이때 단장은 이명철(1973 사망), 부단장 최상택(1970 사망), 총무 김차술(1975 사망), 재무 유소영(1967 사망), 감사 정상열(1978 사망), 단원 김한순, 정윤화, 김수배, 정만섭, 임봉규, 엄용술, 김갑실, 엄정섭(이상 현재까지 단원임), 신영달, 박명철, 김소수, 천해수, 조기봉 등 여러분이었다. 1971년부터 1979년 초까지는 단장으로 김한순씨가 맡아 있었다. 전 단장 이명철 씨는 충북 영동(永同) 사람으로 함경도 어디에서 살다가 6.25 사변 때 시내 아미동에 피난와서 정착하였다는데, 특히 꽹과리를 잘 쳤다고 한다."[15]

이후 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다 1979년 11월 4일 사단법인 부산농

악보존협회가 발족되고 1980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았다. 이때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사람은 "김한순(44, 상쇠, 서구 아미동 2가 233), 엄정섭(65, 징수, 동구 범6동 1497), 조성현(74, 수장고, 동래구 동상동 12의29), 정윤화(58, 대북, 서구 아미동 산19)"이다.[16] 그 명칭도 '아미농악단', '부산아미농악단'으로 불려졌으나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로 '부산농악'으로 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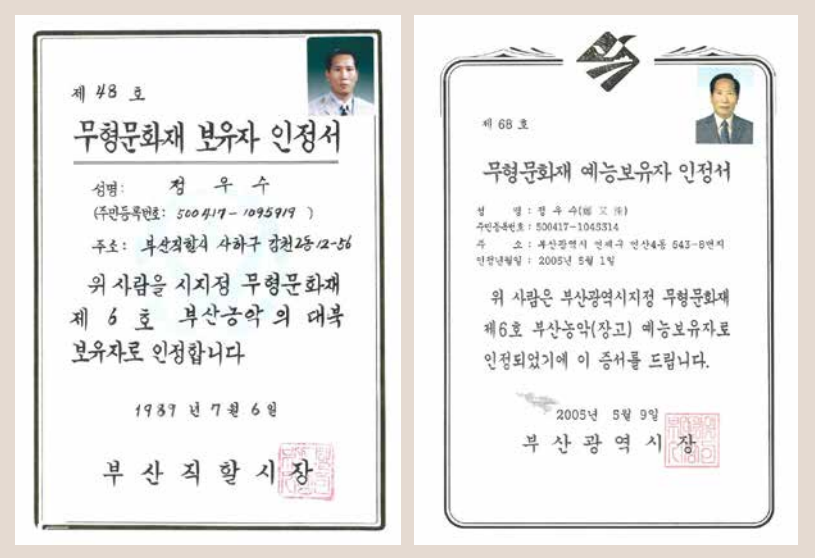
정우수는 당시 대북 예능 보유자인 정윤화(1922~1986)가 사망하고 무형문화재를 지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3년 정도의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다.

한 3년 됐지. 그래 가지고 그때 무형문화재 지정한다고. 정윤화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북을 형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 이제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뭐 형님 내려오세요.

부산에 가면 머할끼고? 문디 같은 그거 받아 놓으면 술도 못 먹고 욕지기도 못하고 말이지. 이래하는데 그건 재미없어가 안 할란다. 그래 한참 내가 한 한 달 정도 막 애들이 연락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다고. 내려 오라고 형님 와야 된다고. 형님 부산에 와가 있어야 되지, 부산에 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 그때만 해도 보유자 돈이 30만 원인가 그랬다고.

30만 원 그거 받아 가지고 어디 팔리 댕기지도 못하고. 머 하지도 못하고 돈 30만 원 그거 받고 내가 살겄나? 그 무형문화재라고 이름이 있다 하면. 저 단체 가서 내가 팔려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돈이 되고 묵고 사는데. 이 놈에 이름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하고 나는 입장이 더 곤란하잖아. 묵고 사는 데 별 형편이 없잖아.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고… 지금 현재는 젊었지만, 나중에 늙었을 때 노후 대책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내려온 거야.

(89년도 내려 내려와가지고 받고, 89년도 6월 7월 며칠 날에?- 인용자) 6월 며칠 날 받았을끼야. 7월 6일인가 그때 받았다. 지정을. 무형문화재 지정을 그래 받고. 그래가 솔직한 말로 어디 가서 말이지 술도 마음대로 먹고 어… 하지도 못하고 욕도…. (646)


제 48 호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성명: 정 우 수

(주민등록번호: 500417-1095919)

주소: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2동 12-56

위 사람을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6 호 부산농악 의 대북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1987 년 7 월 6 일

부 산 직 할 시 장

제 68 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서

성 명 : 정 우 수(鄭 又 洙)

주민등록번호 : 500417-1043314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43-8번지

인정년월일 : 2005년 5월 1일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장고)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5년 5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증서(대북),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증서(장고). ©정우수

정우수는 1989년 7월 6일 부산농악의 대북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장구 보유자로 지정되었던 이용식(1948~2002)이 사망하자 2005년 5월 9일 장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고분도리걸립굿이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11년 3월 26일까지 부산농악의 장구 예능보유자로 활동하였다.

6 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되다

부산 서구의 <고분도리걸립>은 부산의 최남단에 존재하는 지신밟기 놀이다. 놀이로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정초에 지신밟기 걸립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걸립놀이이다. 이 놀이는 '고분도리'란 고래의 지명에서부터 출발하여 역사성과 전통성이 뚜렷한 놀이로 전승되어 왔다. 그 이유로 지금도 남아 있는 시약산 당산

이 1860년에 건립되어 '고분도리걸립' 때 행하던 당산제의 대상물로 존재하며, 예로부터 이 놀이에 참여했던 유삼룡, 이명철, 정윤화 등의 농악의 명인들이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17]

'고분도리'란 대신동의 옛 지명으로 그 명칭을 따서 이 지역의 지신밟기를 '고분도리걸립'이라 명명했다. 부산농악과 함께 '물편'으로 걸립 다닐 때 연행되어 졌으며 현재까지도 정월달이면 가정집과 시장등을 돌면서 행해지고 있다. 정우수는 유삼룡, 이명철에게 성주풀이-부산농악에서는 고분도리걸립의 고사소리를 성주풀이라 부른다-를 배웠다.

우리가 동해안으로 올라가고 부산 일원에 성주풀이 한다 하면 그게 이기거든 고분도리걸립이라고 말이야. 그때부터 고분도리걸립은 되가 있는 거고 이름은 아니지만은 성주풀이를 하는 거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농악 하고 성주풀이하고 따로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농악하고 성주풀이하고 같이하는 거지.

(중략) 사사로 이래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건 없고. 그냥 우리가 그때 같이 댕기면 중얼거리고 같이 곡을 따라서 하고 뒤에서 이래 했지. 그래 배웠지. 뭐 책을 줘가지고 뭐 보고 뭐 이런 건 없었다니까.

앞소리 한 지는 70년대. 그때 70년대. 하여튼 내 군에 갔다오고 나서부터 내가 했지.유삼룡, 이명철 선생 돌아가시고 스님(김한순)이 하시다가 내가 또 하고 그랬다. 스님(김한순)이 할 때 뒤에서 우리가 받침을 해주고 막 이랬거든.

(중략) 이분도 법사라 법사. 옛날 말하면 무당법사 있잖아. 내가 가만 생각하니 그런 거야. 무당판에 내가 한번 당겨보고 하니, 우리 성주풀이하는 선생님들이 법사쯤 됐겠구나(싶어).(650~652)

유삼룡은 승려(대처승)출신으로 성주풀이에 능했다. 유삼룡으로부터 비롯된 아미농악단의 성주풀이는 여타 풍물굿에서 구송되는 성주풀이와 사뭇 다르다. 유삼룡이 구송한 성주풀이 사설은 대서사시로 성주의 탄생과 귀향 그 고난의 역경과 더불어

집짓기를 마치고 가택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서사구조로 다름 아닌 '경문총람'에 수록된 '불설명당성주경'에서 기원한 것이다. 유삼룡이 여기에 능했다는 것은 그가 대처승으로 안택굿에 능했던 이었음을 암시한다.[18]

고분도리걸립은 부산농악이 무형문화재 지정(1980년) 이후 '구덕망깨터다지기'가 2001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을 받고, 약 30년이 지난 2011년 3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이 되었다.

(부산농악과 고분도리걸립이)뿌리는 같지. 우리가(고분도리걸립) 지정을 늦게 받았다 하는 것 뿐이지. 그때 왜 이거를 우리가 부산성주풀이를 올리자 이랬을 때, 동래 민속에서 지신밟기 있었잖아. 그래서 부산에는 지신밟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또 차일피일 하고, 그러면 농악을 하자 그래서 농악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6호로 올린거지. 농악하고 나서 이걸 지정을 받을려고.

(중략) 농악을 지정받고 나서 한 몇 년 있으면서 우리 그러면 성주풀이를 지정을 올립시다. 이리하니 또 안되고, 망깨터다지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뒤에 하면 또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주풀이 이거는 차일피일 한 거지. 망깨터다지기부터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이래서 이 망깨터다지기 이것도 11호로 우리가 또 지정이 됐잖아 또 받았다. 그러고 나서 고분도리도 이거 한번 올려보자. 되든 안 되든 시작해보자. 그래 가지고 고분도리 이걸 시작했거든. 고분도리걸립이 아니고 부산성주풀이 이래 됐으면 했는데, 성주풀이는 안 되고 고분도리걸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전문위원들이 이래서. 그래서 고분도리(로 하게되었다)

(중략)고분도리는 부산 서대신동 경찰서 있잖아 그 뒤에가 고분돌이라. 동네 이름이 고분도리다. 거기 가 저 선생님(유삼룡)이 살고 계셨다 이말이야. 서대신동 경찰서 뒤에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토백이니까. 그래서 그 고분도리로 이름을 나는 거야. 그걸 이거를 안 붙이고 그냥 고분돌이 지신밟기 이랬으면 될 낀데 지신밟기는 있으니까.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분도리걸립을 붙인

거지. (653~654)

이로써 사단법인 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내에 부산농악, 망깨터다지기, 고분도리걸립의 세 가지 종목의 민속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고분도리걸립의 무형문화재지정 당시 정우수는 부산농악의 장고 예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고분도리걸립의 고사소리는 유삼룡-이명철-김한순-정우수로 이어져 오고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를 고분도리걸립으로 옮겨 상쇠 및 고사풀이 보유자로 활동하고있다.

내가 그때 저거를 가지고 지정을, 성주풀이 그걸 가지고 지정을 받았잖아. 받을 당시에 내가 그랬거든. 전문위원들 계실 때, 나는 이거 고분도리는 가기 싫습니다. 내가 현재까지 선생님이 알다시피 내가 부산농악에 지금 현재를 뿌리를 내랐는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면 나는 뭐가 되겠느냐. 나는 부산농악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산농악에 남아 있으면 이 고분도리 발굴이 안 됩니다. 정우수 씨가 안 가면 이거는 발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고분돌이 없는 걸로 하자. 그리하더라고. 말을 딱 잘라뿌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시작해놓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가지도 벌어져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정이 되면 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또 먹고 살도록 다 되겠는데. 그래서 고분돌이 이걸 또 시작 한 거거든. 그래 또 못 한다는 소리는…. 그럼 알겠습니다. 내 고분돌이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고분도리가 지정이 된거야.

(옛날 성주풀이 하던 사람은 이제) 없어, 나도 이거 발굴하면서 옛날에 하던 거 그거를 말이야, 성주풀이 정월달에도 막 대충대충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찾아보자 싶어서. 찾고 하면서 옛날 거 찾고 하는 대로 제대로 찾고 찾고 이래서. 아직까지 찾아도 못 들어가는 게 있어. 옛날 선생님 하던 옛날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한 번 어떨 때, 막 대사할 때도 말이지. 대사할 때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 지금은 지정이

부산농악60주년 기념사업, 고분도리걸립 공연모습 ©김두진

됐으니 대사 바꿔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대사는 못 바꾸는 거지. (653~655)

고분도리걸립은 공연양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실제 생활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민속연희의 전승체계 특성상 긴 고사소리가 전승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유삼룡의 소리가 오롯이 다 전승되고 있지 못하는 점은 아쉬울 수 있으나 정우수에 의해서 그 소리의 대부분이 전해져 오고 있다.

지금 후보들 있잖아요. 의철이하고, 한동이 하고, 이주헌이 하고, 성낙길 씨 하고 전부 다. 그 바람에 전부 다 조교 되고, 후보 되고, 예능보유자 되고 다 됐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또 농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이 고분도리로 넘어왔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또 농악에 사람을 채우고, 또 고분도리는 고분도리 데로 채우고, 그래서 가지가 벌어진 거잖아. 나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야. 내 욕심만 채리는 것 같으면 내 안 했지.(653)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부산농악과 고분도리걸립의 확장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7 당대 농악 명인들을 사사하다

근대 이후,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이 도시농악이다. 도시농악은 전문 농악치배들로 결성된 경우도 있고, 여러 마을농악의 우수한 치배들이 모여 결성한 경우도 있고, 전문치배와 마을치배들이 모여서 성립된 경우도 있다. 결성의 계기는 생계를 위한 것도 있고, 축제 같은 도시의 행사일 수도 있고,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혹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경우도 있다.[19] 부산농악은 위에서 말한 도시농

악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농악의 형태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성·변화·발전하였다. 즉 대신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걸립과 농악놀이가 전국의 농악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연희형태로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태생적 특성들로 인해 부산농악은 부산의 향토성이 미약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심의에서 부결되곤 하였다.[20]

반면 부산농악이 한국전쟁기 피란민들과 지역민들과의 결합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산농악의 판굿에는 전국 농악의 명인들의 기량이 녹아져 있으며 이것의 전승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의 한가운데 정우수는 당대의 농악명인들에게서 그 기량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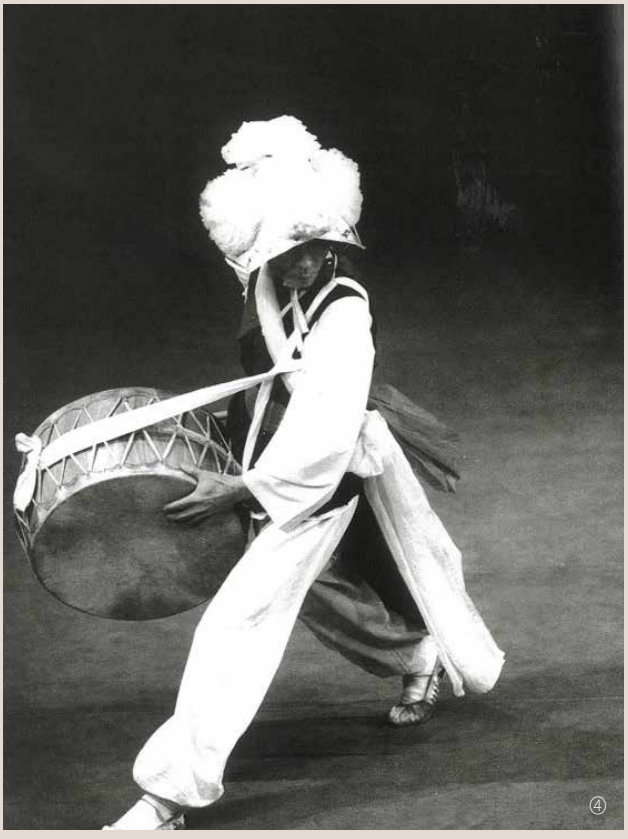
> 나는 소고를 많이했지. 그래도 뭐 소고는 대한민국에 댕기면서 다. 우리 저기 장구 치는 조판조 선생님.(에게 소고를 배웠다.) 우리 판굿 치면 1인 3역을 한다고. 저 선생님이(조판조-조성현) 소고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한단 말이야. 조판조 씨라고도 하고, 조성현 씨라고도 하고. 그래하거든.
>
> 내가 소고도 저 선생님한테 배웠어. 장구도 그렇고. 소고도 잘 친다. 저 선생님이. 에쁘게 치신다. 두루거리도 참하게 하시거든. 어디에서 노시다가 오시는 것도 모르겠고. 나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진주 어디에 옛날 솟대패 어쩌고…. 요즘 말이 또 그래 나오대. 솟대패도 계시고 그랬다고. 진짜 진주에서….
>
> (중략)부산에 살았잖아. 부산에서 사니까 부산농악했지. 영주터널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영주동, 영주동 할아버지, 영주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뭐 하셨냐 하면 구두 나가시야. 구두 짓는 사람, 고치고 옛날에 그거 하셨다고. (655~656)

조성현(조판조)은 초대 부산농악 장고 예능보유자로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동네에 들어온 풍물패를 따라다니다가 평생 농악판에서 채상소고와 채상장구를 두드리며 살았다. 거창의 서상팔에게 장고를 배웠으며 진주의 솟대쟁이패와 진주삼천포농악에서 소고잽이로도 활동했었다. 사당패의 풍물 우두머리인 상쇠 송순갑과는 선후배 사이이며, 남사당 남운용과는 형체처럼 친하게 지냈다. 그는 풍물패 장구잽이로 상모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②③
채상장구 조성현(조판조). ©정범태

④⑤⑥⑦
정윤화 북춤. ©정범태

돌리지 못하면 말뚝장구잽이라 놀리며 채상장구의 화려함을 자주 내세웠다.[21] 부산에서는 대신동에 살았으며 소고를 잘하여 곱은돌이 농악의 상법고를 쳤으며 유삼룡을 도와 제자를 길렀다 한다.[22] 정우수는 그가 영주동에 살았다고 구술하고 있는데 아마 대신동과 영주동을 두 군데 다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우수의 북춤은 부산농악의 초대 북 예능보유자인 정윤화에게 배웠다. 경주가 고향인 정윤화는 증조 할아버지때부터 북을 쳤으며 어린시절 경주의 농악판을 따라 다니며 장난삼아 북가락을 두드렸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것은 해방기 이후였고 스승은 아버지 정용운이다.[23] 서른두 살까지 경주 황성전문농악단에서 농악단장을 지냈으며 그 후에는 대구에서 살면서 경상북도의 여러 농악단에서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이사하여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24]

> 경주 안압지 동네 이름을 잊어뿟다. 그 형님들 사는 동네 이름을 잊어뿟다. 거기도 4대북이거든, 정윤화 선생이 치는 그런 북을 치는 게 4대북이라, 4명이 친다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래 친다 이말이야. 그 정윤화 선생 이름이 그래 나가는 거야. 4대북, 경주 4대북. 나도 거기에서 다 배웠어. 북은 정윤화 선생님. 하도 개인놀이 하니까. 뒤에서 자꾸 우리가 보고 치고 이래서 우리가 북가락을 받았고. 다 하는 거지. (643)

> (중략) 그렇지. 그거는 전부 다 정윤화 선생님 판제지. 조금 많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내가 북춤하는 거는, 지금 그 뭐야 지금 북춤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정윤화 선생님꺼 북 많이 들어있고. (659)

그리고 꽹과리와 성주풀이는 유삼룡과 이명철에게서 물편으로 걸립 다닐 때 어깨 너머로 배웠다. 부산에서 구룡포까지 정월달부터 5~6월까지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졌으리라 생각된다.

> 없지, 사사로 이래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건 없고. 그냥 우리가 그때 같이 댕기

면 중얼거리고 같이 곡을 따라서 하고 뒤에서 이래 했지. 그래 배웠지. 뭐 책을 줘 가지고 뭐 보고 뭐 이런 건 없었다니까. (650)

그렇지, 깽과리는 이명철 선생이 치놓은 거.(보고 배웠지). 뒤따라 가면서 우리가 소고 들고 치고. 깽과리는 못 치고, 소고 들고 치고 따라가는 거야. 이 선생님은 지금 우리 맞춤굿 하잖아. 맞춤굿. 그거 이 선생이 치고. 엎어빼기 하고.(이런 거 보고 배웠지) (657)

유삼룡은 곱은돌이농악단을 창단하여 이명철, 조성현에게 농악을 가르쳤고 그들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농악의 기예를 지도하게 하였다 한다. 부산상쇠에게 농악을 배워 당리동 상쇠를 하다가 아미동에 살며 대신동에 곱은돌이농악단을 만들었다 한다. 이명철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충청북도 영동에 살다가 한국전쟁때 부산에 피란 와서 아미동에 살며 유삼룡에게 농악을 배웠고 유삼룡 상쇠가 작고한 뒤에는 아미농악 상쇠를 했다.[25]

이명철 선생님이 뭐냐 하면 아미동 대학병원, 지금 후문 있잖아. 대학병원,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그 위에 옛날에는 하꾸방[판잣집] 쫙 있었다고. 하꾸방이 보면 칼국수 팔고, 우동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쫙 있었다고. 그러면 뭐 했냐 하면 그 때는 쌔통, 그거 고쳤어... 열쇠. 그걸 고치고 어디에 고쳐주라 하면 가서 고쳐주고, 그걸 못도 팔고, 이제 거기다 철물을, 철물상회 했는거야. 그래 하면서 못 사러오는 사람, 뭐 사러오는 사람, 앉아가 얘기하다 보니까 농악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한 명씩 모이고 두명씩 모이고, 그래서 아미농악이 이루어진 거예요. (636)

이명철은 쇠통쟁이집, 열쇠집을 하면서 아미농악의 상쇠 겸 단장 역할을 했다. 농악의 연습은 이명철의 집(아미동 산19번지) 옆 공터였다. 이곳은 모임장소이기도 했다. 그 연유로 아미농악의 지신밟기는 언제나 산 18번지의 놀이터에서 농기굿을 시작으로 굿판을 열게 되었다. 이명철이 결성한 풍물패는 초기에는 이름이 없었고 이명철의 집을 근거지로 활동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아미농악단이라 불렸고 그들이 치는 풍물도 아미농악이라 칭하게 되었다.[26]

8 포장걸립세대의 마지막 뜬쇠

부산농악은 한국전쟁시기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농악의 명인들이 자신의 몸속에 내재된 힘과 흥겨움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은 물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신명의 놀이이자 의례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부산의 아미동은 물론 저 멀리 구룡포로, 하동으로 유랑걸립을 다니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다. 단원들의 기량이 뛰어나 전국의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농악단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월을 겪어내면서 부산농악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유삼룡, 이명철, 조성현, 정윤화, 엄정섭, 최상택, 정상열, 김차술, 김동순, 김병기, 김한순 등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2세대인 정우수와 강정수만 생존해 있고 이용식, 이성근, 김종기, 김종대도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 부산농악은 내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뭔지도 몰라. (658)
> 이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노. 같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움을 하더라도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에 걸려있는 역대 단원들사진. 왼쪽부터 유삼룡, 이명철. ©김두진

있으면 참 좋을 낀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한다. 아이고 빌어먹을 놈들 지랄한다고 일찍 죽고는. 내하고 같이 안 가고. 그러다 솔직한 말로 내가 빨리 죽을 줄 알았어.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팠고, 이 속도 많이 아팠고, 그랬거든. (664)

역사를 남겨 놓을 게 없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하니까 옳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장구 그렇지, 북 그렇지, 또 들벅구 춤추는 거 그렇지, 소고 치는 것도 그렇지, 제대로 하는게 없다. 깽과리치도 상쇠 놀음 한 번 할 줄 아나. 그것도 안 해봤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 (662)

지금 내가 해 보니까. 이 나이에 비해서도 저 선생님들은 그래도 오래 하시니까 한가락씩 다 하셨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한가락 하는 게, 남한테 한 가락 보여주는 게 머가 있노? 제대로 치고 이거를 놀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연습을 안 하고 너무 안 하니까 모든 게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야. 머리 속에는 다 있는데, 한 번씩 어떨 때가 발을 한번 뛰보고 해 보면 발이 말을 안 듣는 이 말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참 내 장구 함 칠께, 이 소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런 걸로 마감을 짓는구나 싶어. (662)

그렇다. 이제는 아버지 삼촌들 뒤 따라 다니며 소고 칠 수도 없고, 포장걸립을 다닐 수도, 농악경연대회에 나갈 수도, 친구들끼리 싸울 일도 더더욱 없어졌다. 그 시절을 오롯이 기억하는 사람은 정우수 말고는 몇 명이 없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는 아직도 힘찬 북소리의 울림처럼 뜨거운 뜬쇠의 피가 흐르고 있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힌 부산농악의 북춤을 제대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볼려고 아버지의 고향 무을에도 갔다왔다.

지금 그 뭐야 지금 북춤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정윤화 선생님꺼 북 많이 들어있고. 우리 부친 옛날에 치던 거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거 좀 넣고. 그러면 아마 한 20분짜리 만들어 놨거든.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무형문화재 만들라 하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니깐 힘들어. 내 몇 번 한번 해봐서 터뜨렸다. 우리 저기 고분도리 회원들 전부 여자, 남자 한 40명으로 해가지고, 한 번 공연 하고 이래 했거든. 했는데도 그것도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래가 그걸 지정을 하려고 하면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뭐 사람도 못 모이지 이러니까. 지금 차일피일 하는 거지. 올 초창기에도 코로나 조금 이제 없어진다 싶어서 올해부터 한 번 해볼까? 이래가 있는데 또 그것이 코레나 발족이 돼가지고 또 못하고….

내 있을 동안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말 안 들어. 내가 그거 해가지고 무슨 큰 이득 볼 기라고 하겠나 싶으고 그래. (659~660)

정윤화의 북춤을 기본으로 정상열의 북춤과 정우수의 북춤을 섞고, 그의 고향인 경상북도 무을농악의 북춤을 참고로 하여 북춤을 만들어 공연도 한번 했었다고 한다. 마지막 숙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연산동에 살면서 전수관으로 나와서 후배들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들인 정성엽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농악을 이어받아 부산농악의 전수자로 활동하면서 진도국립국악원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정우수의 농악과 성주풀이는 그의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울려퍼질 것이며, 늘 우리 곁에 신명의 울림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9 정우수 곁의 사람들

정우수는 유삼룡의 성주풀이, 이명철의 꽹과리 가락과 상쇠놀음을, 조판조에게는 상모놀이와 장구를 배웠으며, 정윤화와 아버지인 정상열로부터 북춤을, 최상택으로부터도 꽹과리가락과 상모놀음을 배우고 익혔다. 그리고 이들 스승들과 김한순, 이용식, 김종기, 김종대 등과 함께 농악경연대회는 물론 부산에서 포항에 이르는 걸립, 국내외

1967년 3월 18일, 아미1동 동사 낙성식 기념촬영 ©정우수
앞줄 왼쪽부터, 김차술, 김한조(기수, 김차술 뒤), 이성구(호적), 유삼룡(고깔,쇠), 이명철(쇠), 정상열(징), 정윤화(북), 조판조(장구), 이용식(장구)
뒷줄왼쪽, ○○○(고깔,호적), 김한순(소고), ○○○(소고), 정우복(소고),정우수(소고)

크고 작은 공연활동 등으로 부산농악과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전승하고 있다. 그의 농악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면면은 이러하다.

먼저 유삼룡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상쇠에게 농악을 배워 당리동 상쇠를 하다가 아미동에 살며 대신동에 곱은돌이농악단을 만들었으며 1952년에 곱은돌이농악단을 토대로 하여 아미농악단을 만들었다 한다.[27] 대처승으로 유창한 목소리로 성주풀이를 잘 불렀다 한다.

이명철은 황해도 벽성군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시기 부산 아미동으로 피란 와서 당시 대학병원 옆에서 철물, 열쇠 등을 파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유삼룡 등과 조우하여 아미농악단을 조직하고 유삼룡에 이어 상쇠로서 활동하였다. 그의 아들인 이용환(현 부산농악 징 예능보유자), 이용식(전 부산농악 장구 예능보유자)과 함께 활동하며 1967년, 부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개인상(도지사상) 수상,

1968년 대전에서 열린 제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개인상(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1970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조성현(조판조)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거창 출신인 서상팔에게서 장고와 상모놀음을 배웠으며 이우문의 솟대쟁이패에서 송순갑과 함께 황해도 원산으로 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솟대쟁이패가 해산되고 전국을 유랑하며 '동동구르무' 같은 약을 팔면서 자기 예능을 보여주고 생활을 꾸려나갔으며 부산에서도 김한순, 정윤화 등과 함께 나일론 양말 등을 팔러다니는 선전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진주농악12차회(1962)의 창립회원이었으며 1965년 진주삼천포농악 무형문화재 조사 당시 수벅구로 공연했다. 부산에서는 대신동에 살면서 유삼룡, 이명철 등과 함께 아미농악단을 조직하고 제자를 길렀으며 74세가 되는 1980년에 부산농악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면서 부산농악 초대 장구 예능보유자(1980~1986)로 활동했다.

정윤화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4대에 걸쳐 북을 쳐온, 이름하여 내림북 집안이다. 어린시절부터 경주에서 아버지 정용운을 따라 농악판에서 북을 치기 시작하여 경주황성농악단에서 입단하여 활동하다가 대구를 거쳐 부산아미농악에 입단하게 된다. 북춤에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무로서 1984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명무전에도 출연하였다. 현재 정우수와 김종기를 거쳐 부산농악에서 연희되는 북춤은 그의 북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상택은 경북 구미 물골 무을농악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 감천동으로 이주하게 되어 이명철 등과 함께 부산농악 창단에 참여하였으며(당시 부단장) 꽹과리와 상모놀이를 잘했다. 정상열은 정우수의 부친으로 최상택과 함께 무을농악 출신으로 부산 감천으로 이주하여 부산농악 창단에 참여하여 징과 북을 쳤다.

김한순은 강원도 양양군 출신으로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 농악단에서 그의 형제(김한성, 김한인)들과 함께 소고잽이로 농악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시기 최상택을 우연히 만나 김천빗내농악에서 잠시 활동하다 최상택과 간장 장수를 하며 전국을 유랑하기도 했다. 1955년 전남 남원 실상사의 박포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고 진주삼천포농악, 통영과 마산의 오광대를 경험하다 부산에서 강원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던 신왕리농악단의 단원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고물상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당시 아미농악단을 이끌던 유삼룡과 이명철을 만나 아미농악단에 입단하게 된다. 이후 1963년 부

산 아미동에서 대성사를 창건하고 주지가 된다. 부산농악(1980) 이외에도 다대포후리소리(1987), 구덕망깨소리(2001), 고분도리걸립(2011)을 발굴하여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이용식은 이명철의 셋째 아들로 1959년 11세의 나이로 아미농악단에 정식으로 입단했으며 1984년 정우수, 김종대 등과 '부산풍물패사물놀이'를 창단하여 부산농악뿐만 아니라 사물놀이 활동을 하여 1994년 조성현에 이어 부산농악의 장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김종기는 서부 경남의 상쇠쟁이 김용수의 아들로 부산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으로 피란 와서 아미농악 단원들과 약장수로 떠돌기도 했다. 김종기는 열살 때 범일동 농악대에서 농악을 처음 시작하며 엄용수에게 경상도 북놀음과 가락을 배웠고, 4년 뒤 아미농악단으로 입단하여 정윤화에게 북춤을 배웠으며 거제도로 절걸립을 다니기도 했다. 이후 2006년 정윤화, 정우수에 이어 부산농악 북 예능보유자가 되었으며 2012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미주

1) (사)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bgdms/60173543913(검색일: 2023.04.13.)

2) 유삼룡(1898~1970) : "당시 아미동, 토성동 등지에는… 농악의 기능이 우수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즈음 시내 서대신동에 살던 유삼룡이라는 분과 열 너덧 사람이 모여 걸립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유삼룡씨는 부산 사람으로 농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예가 우수한데 꽹과리를 잘 쳤으며, 특히 성주풀이를 잘했다고 한다." (부산광역시, 『2013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2013, 22쪽).

정상렬(1912~1978) : 정우수의 부친. 경상북도 선산군 무을면에서 출생하여 1953년 부산 감천동으로 이주하였으며 유삼룡, 이명철등과 함께 아미농악단에 참여하여 북과 징을 쳤다.

최상택(1922~1971) : 최상택은 무을면 물골 출신으로, 아미농악 창단 이후 다시 물골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였다. 최상택과 최병삼(국립국악원 악장 역임)은 부자지간으로 최병삼 역시 무을이 고향이다. 김영윤, 「구미무을농악의 전승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20.

이명철(1905~1973) :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에서 출생하여 1·4후퇴때 부산 아미동 피란하여 유삼룡과 아미농악단을 결성하여 상쇠와 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부산농악 장구 예능보유자 이용식의 부친이기도 하다.

정윤화(1922~1986) : 경북 경주 출신으로 부산농악 초대 북 예능보유자(1980~1986).

조성현(1906~1986) : 전남 순천 출신으로 솟대쟁이패로도 활동했으며 부산농악 초대 장구예능보유자(1980~1986).

3)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구미무을농악의 연행주체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960년대 이전에는 물골농악대,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딱밭골농악대, 1990년대에는 무을풍물단, 2000년대 이후에는 무을풍물보존회와 무을농악보존회가 전승과 연행을 주도했다", "물골 출신인 최상택(1922~1971)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 감천동으로 이주하게 되어 부산농악 창단에 참여하였다." 김영윤, 「구미무을농악의 전승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4)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5) 태극도는 1921년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출신인 조철제(趙哲濟)가 세운 증산교 계열의 신종교로서 충남 태안, 전북 정읍에서 창립되었다. 안면도와 원산도에 간척사업을 벌여 20여만 평의 농경지를 만들었으며 함경북도 무산과 북만주 목단강 근처에서 벌채사업도 벌였다. 전북 전주와 충북 음성에서 금광사업에도 손을 대어 많은 수익을 올렸다. 193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해체되다시피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8894(검색일: 2023.04.13.)).

6) 황경숙, 「초기 아미농악단의 형성과정과 연희기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8, 2012, 204쪽.

7) 「근절 안되는 농악」, 『마산일보』, 1959.02.21, 2면.

8) 황경숙, 「아미동의 대표적 연희, 아미농악」, 『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사람들』, 부산구술사연구회·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89~190쪽.

9) 「시민의 성연 대단원」, 『국제신보』, 1967.10.06, 3면.

10) 국악원은 해방 직후 함화진을 중심으로 국악위원회가 국악건설본부, 국악회로 변화되면서 조직된 단체로 다

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인을 통합하였다. 특히 창악, 기악, 창극, 무용, 농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민족음악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전국농악경연대회는 함화진이 주장한 대중에 뿌리를 둔 민족음악 건설 및 국악의 대중화와 진보화를 구체화한 작업이었다(최희영, 「미군정기 일라이 헤이모위츠의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최 참여와 그 한계」, 『한국음악사학보』 66, 한국음악사학회, 2021, 230쪽).

11) 「호화, 향토예술의 성전」, 『중앙신문』, 1946.05.10, 2면

12) "제1회 '부산풍물놀이' 공연이 23~24일 하오 4시, 7시30분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가져진다… 이번 공연은 이용식, 정우수, 김종대, 김동기(종기), 백진석, 김재현 등 놀이꾼들이 펼치는 것이다… 성주풀이 장고가락 북놀음 풍물놀이 판굿으로 이어지며 김진홍 씨의 찬조로 한량무와 승무도 공연한다… 이들 연희자들의 특징은 한 사람이 한 악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셋 악기를 다루는 것이다. 부산 아미농악단에서 20년 이상 기량을 닦아온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그들의 재주를 성의를 다해 펼쳐보이겠다고 다짐한다."(이진두, 「사물(四物)에 한량무, 승무도 출연」, 『부산일보』, 1986.05.26, 7면).

13) 유철호(劉哲浩), 「두레패사물놀이란?」, 《두레패 사물놀이》, 킹레코드, 1987.

14)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95쪽.

15) 부산광역시, 『2013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2013, 22~23쪽.

16) 양희문, 「아미농악 무형문화재 6호 지정」, 『국제신문』, 1980.02.20, 5면.

17)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부산고분도리걸립」, 2010.

18) 황경숙, 「초기 아미농악단의 형성과정과 연희기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206~207쪽.

19) 정상박, 「영남농악의 민낯과 현대농악의 형성」, 『영남춤학회지』 8(2), 2020, 10~11쪽.

20) 정상박, 「영남농악의 민낯과 현대농악의 형성」, 24쪽.

21) 정범태, 『한국춤 백년 1, 한국춤의 전통을 이어온 20세기의 예인들』, 눈빛출판사, 2006, 40쪽.

22)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3책(농악,풍어제,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97쪽.

23) 국립극장, <국립극장 제10회 한국명무전> 팜플렛, 국립극장 소극장, 1984.06.27.~28.

24) 정범태, 『한국춤 백년 1, 한국춤의 전통을 이어온 20세기의 예인들』, 눈빛출판사, 2006, 109쪽.

25)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3책(농악, 풍어제, 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97쪽.

26) 채영희 외, 「황해도 깽깽이 아미농악을 탄생시키다」, 『2016 부산학연구총서, 6·25피란생활사 피란민의 삶과 기억』, 부산발전연구원, 2016, 36쪽.

27)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3책(농악, 풍어제, 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97쪽.

참고문헌

[단행본]

김익두, 『효담 김한순 평전』(자가본), 문예원, 2019.

국립부산국악원, 『근현대 부산국악사 1·2』, 2016.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3책(경상남도편)』, 1972.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3책(농악,풍어제,민요편)』, 1982.

부산광역시, 『2013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2013.

부산구술사연구회·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사람들』, 2011.

정범태, 『한국춤 백년 1, 한국춤의 전통을 이어온 20세기의 예인들』, 눈빛출판사, 2006.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채영희 외 여럿, 「황해도 깽깽이 아미농악을 탄생시키다」, 『2016 부산학연구총서, 6.25피란생활사 피란민의 삶과 기억』, 부산발전연구원, 2016.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에릭 홉스봄 지음·박지향 외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논문]

김영윤, 「구미무을농악의 전승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박종환, 「부산농악 김한순의 쇠가락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손우승, 「일제강점기 풍물의 존재양상과 성격」, 『실천민속학』 9, 2007, 289~332쪽.

오세길·김주희, 「효담 김한순의 예술혼과 예능활동」, 『영남춤학회지』 8(2), 2020, 127~146쪽.

오진호, 「부산지역 전통음악의 연구현황과 과제」, 『부산학연구논총』,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타, 2008, 128~198쪽.

정상박, 「영남농악의 민낯과 현대농악의 형성」, 『영남춤학회지』 8(2), 2020, 1~25쪽.

최희영, 「미군정기 일라이 헤이모위츠의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최 참여와 그 한계」, 『한국음악사학보』 66, 한국음악사학회, 2021, 223~249쪽.

황경숙 , 「아미동의 대표적 연희, 아미농악」, 『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아미동사람들』, 부산구술사연구회·부산대학교 엮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79~205쪽.

황경숙, 「초기 아미농악단의 형성과정과 연희기반-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8, 2012, 189~221쪽.

[신문기사, 보고서 등 기타자료]

『국제신보』, 「시민의 성연 대단원」, 1967.10.06, 3면.

『마산일보』, 「근절안되는 농악」, 1959.02.21, 2면.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제26회 부산농악정기공연팜플렛」, 부산농악60주년기념사업, 2012.

박진주,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부산농악」, 1979.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부산고분도리걸립」, 2010.

《두레패 사물놀이》, 킹레코드, 1987.2.26.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디지털아카이브 https://blog.naver.com/bgdms/222224058202.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3책(농악, 풍어제, 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1985년 MacDowell 펠로 시절 ©강순희

제10장

우리 시대 음악 (MiOT)

작곡가 강순희

강순희는 생애 절반은 학생으로, 절반은 교육자로 살았다.
순희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학생으로 돌아왔다.
무엇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의 신분이 좋았다.
학문에 매진하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1 경남 거창에서의 어린 시절

선교사들과의 생활

강순희(姜淳姬)는 193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강순희 아버지 강용득(姜龍得)은 거창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의 한국어 선생이었다. 그 덕분에 순희는 어린 시절 대부분 거창[1]에서 보냈다. 당시 거창은 1905년 전후 선교사들의 왕래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1909년에는 거창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호주 장로교 거창선교지부가 설립되어 거창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활동이 전개되었다.[2] 강용득 또한 이 시기에 거창에 머물며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강용득은 후일 서울 은석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다.

순희는 어린 시절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한 덕분에 서양 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

어머니 최재윤(崔在潤)과 아버지 강용득(姜龍得) ©강순희

어머니와 어린 순희 ©강순희

들였다. 그 시절 유치원을 다니고, 신식결혼식에 화동을 맡기도 했다. 또한 시골이지만 명절을 제외하고는 치마저고리보다 간단후크라는 서양식의 옷을 주로 입었다. 순희의 부모님 또한 선교사들과 함께 테니스를 즐겼다. 아버지는 경상남도 테니스 시합에서 챔피언까지 했다.

아버지의 오래된 전축과 어머니의 피아노 사랑

아버지 강용득과 어머니 최재윤(崔在潤)은 자녀들의 음악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아버지는 음악가도 아닌데 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셨다. 순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라디오와 오래된 전축의 SP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통해 바흐(J. S. Bach), 베토벤(Beethoven), 쇼팽(Chopin) 등 서양의 음악가들을 만났다.

어머니 또한 자녀들의 피아노 교육에 열심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는 모름지기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고, 1남 6녀의 자녀들은 모두 피아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덕분에 2명의 자녀가 대한민국 작곡가로[3] 성장했다. 음악 공부를 하다 보면 피아노를 잘 다룬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른다. 위대한 작곡가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순희는 어머니의 피아노 교육 덕분인지 몰라도 절대음감을 가졌다. 작곡가에게 절대음감이란 곡의 조성에 상관없이 음높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소양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항상 라디오는 클래식 음악만 듣고 있었고, 옛날에 명곡의 SP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뭐 사운드 박싱인 옛날 전축… 그게 내 음악적 소양이라면 소양이라 할 수 있지. (409)[4]

> 우리 어머니도 소위 말하면 신여성인데 피아노는 잘 못 치지만 피아노 건반 도레미파는 알고 있었어. 옛날에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여자는 피아노를 쳐야 한다.' 그게 어머니 머릿속에서

온 거지. (410)

순희는 자신의 음악적 소양과 출발을 아버지의 오래된 전축과 어머니의 피아노 교육이라 생각한다. 아버지의 전축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과 어머니의 피아노 교육 덕분에 순희는 자연스럽게 서양음악의 기초를 다졌고, 작곡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된 셈이다. 순희는 처음 피아노를 접했을 때부터 피아노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단다. 피아노 치기 좋아해서 매일 집과 교회에 오가며 연습했고,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자존심 센 아이

어린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다.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학급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다. 담임선생님은 순희에게 열두 꽃 중 제일 마지막 꽃 역할을 맡겼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어머니의 친구였고, 가끔 집에 와서 점심도 함께 먹곤 했는데, 자신에게 맡긴 역할이 너무 적어서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었다. 그때의 섭섭함 때문인지 몰라도 순희는 지금도 그때 부른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

'먼 산에 눈이 녹고 고목에 싹이 돋고 아지랑이 피어지는 화창한 봄날'…, 이게 불쌍한 고아 남매가 있었는데 나비 왕이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 나는 꽃이었는데 주인공은 남매고 꽃이 열둘인데 열둘 중의 제일 마지막을 내가 맡았지. 그때 담임선생님이 어머니 친구야. 어머니 친구고 집에 와서 가끔 점심 먹은 기억도 있고. 한데 나를 그 마이너 열두 꽃 제일 마지막을 맡긴 거야. 어릴 때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점수 매기는 거 하고 선생님이 매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뭐 어쨌든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며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 (410)

다행스럽게 4학년 담임선생님은 순희의 음악적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차렸다. 순희는 자기는 목소리가 좋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음악 시간에 늘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고 기억한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피아노 덕분에 시창·청음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절대음감을 가졌으니 당연한 일이다. 순희는 어린 나이에도 눈썰미도 참 좋았다. 당시 새카만 투피스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 입은 담임선생님을 기억하며,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멋질 수 없었단다.

4학년 때는 새까만 투피스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 입은 멋진 신여성 선생이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노래 하나 가르쳐주고 "강순희 일어서서 노래 불러 봐."라고 했어. 나는 목소리가 좋은 아이는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 아마 뭘 가르쳐 주면 내가 엄청나게 빨리 배웠던 것 같아. 조금 가르쳐주고 일어서서 한번 해 보라 하면 내가 노래를 쭉 불렀던 기억이 나. (411)

2 진주사범학교 시절

강순희는 진주 도동초등학교 졸업 후 진주사범학교로 진학한다. 진주사범학교는 1950년 경상남도 진주에 설립되었던 초등교원 양성학교다. 아버지 강용득은 순희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는지 순희 모르게 진주사범학교에 입학원서를 냈고, 순희는 아버지 원대로 진주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순희가 입학할 당시 진주사범학교는 6년제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중·고등학교로 나뉘어 순희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 평소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입학시험은 순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6·25 전 진주사범학교는 입학했는데 그때는 6년제였어. 그런데 6·25 이

후 중·고등학교가 갈라져서 다시 또 사범학교에 시험 치고 들어갔지. 그때 진주사범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 문제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음악의 3대 요소가 무엇이냐? 정답이 멜로디, 화성, 리듬인데, 그런 거 외워서 가서 시험 친 기억이 나네. (412)

진주사범학교 대표 피아니스트

강순희의 피아노 실력은 진주사범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꽤 유명했다. 학교 행사 대부분 피아노 반주는 순희가 맡았다. 당시는 1948년 12월 26일 '학생군사훈련실시령'에 따라 중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매주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시절이다. 순희는 군사훈련 때마다 피아노를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져와 마이크를 세워놓고 행진곡을 연주했다. 합창단 반주 활동도 열심히 했다. 학교 대표 피아니스트로 나름 특권도 누렸다. 진주사범학교는 식민지시대부터 있던 학교라 음악실에 작은 사이즈의 야마하 그랜드피아노가 하나 있었다. 피아노가 무척 귀한 시절이라 모든 학생에게 피아노를 개방하지 않았다. 몇몇 학생에게만 그랜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순희가 늘 독차지했다.

진주사범학교 시절 합창 반주하고 있는 강순희 ©강순희

진주사범학교가 일본 강점기 시대부터 있던 학교라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조그마한 게 있었어. 그 피아노는 오직 한두 학생한테만 개방했는데 내가 피아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 기억이 나는 게 군사 훈련할 때는 그 피아노를 매일 운동장에다 가지고 나와서 뚜껑을 열고 마이크를 세워두고 내가 행진곡을 치면 그 행진곡에 맞춰서 군사훈련을 했어. (412)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작곡가의 꿈을 꾸다

강순희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니스트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참가한 진주 영남예술제(현, 개천예술제)[5] 이후 순희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버렸다. 당시 영남예술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많은 학생이 참가해 예술적 기량을 겨루는 장이었다. 심사위원 또한 지금 내로라하는 작곡가 이상근, 윤이상 등이 맡았다. 영남예술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사진 자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시민이 예술제에 참석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영남예술제는 주최는 '문총진주특별지부'가 맡아 진행했으며, 10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날 강순희는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했다. 무대 건너편에 심사위원 이상근, 윤이상의 얼굴이 보이니 그렇게 떨릴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연습을 한 곡이라 실수없이 연주를 마쳤다. 다음은 서울예술고등학교[6] 재학 중인 여학생의 순서였다. 순희는 그 여학생이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 무대에서 울린 쇼팽의 발라드(Ballade)는 평생 잊지 못한다. 순희가 듣기에 너무 완벽한 쇼팽의 발라드 연주였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 중에 쇼팽 발라드(Ballade)를 연주하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던지 내가 자존심이 많이 깨져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네. 당시 서울예고가 그때 막 생겼거든. 울고 있으니 음악 선생님이 오셔서 "서울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아이들이 내려와서 콩쿨에 참여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노. 상관할 거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지. (414)

영남예술제 피아노콩쿨에 참가한 강순희
ⓒ강순희

지금 생각해 보면 예고 다니며 매일같이 개인지도를 받은 학생과 학교 음악 선생님 이외에 개인지도를 받지 않은 순희의 대결이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순희는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피아니스트로는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손도 작고 테크닉도 부족하니 오히려 작곡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후 순희는 자신의 생각대로 부산사범대학 작곡과에 입학한다.

3 부산사범대학 시절

큰스승 이상근을 만나다

강순희는 진주사범학교 졸업 후 1956년 부산사범학교[7]에 진학한다.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고픈 생각이 간절했지만 당시 형편으로 서울 유학을 꿈꾼다는 것은 보통 힘

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순희 밑으로 동생이 4명이나 있으니, 자신의 욕심만 채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순희의 이러한 결정은 결론적으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었다.

강순희는 부산사범학교에서 작곡가 이상근을 만난다. 이상근(李相根, 1922~2000)은 한국전쟁 이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은 물론 음악교육 및 문필 활동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으며, 음악교육과 공연문화를 이끌어 가는 전문음악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다.[8)]

강순희와 이상근의 만남은 부산사범학교 입학 전에도 몇 번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진주사범학교 시절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수업 하던 이상근을 본 적 있으며, 영남예술제의 심사위원으로 온 이상근을 만난 적도 있다. 이상근은 순희의 기질과 작곡가로서의 음악적 재능을 알고 순희가 더 넓은 세상에서 음악 공부를 하기를 원했다. 부산사범대학 졸업 후 원예고등학교 재직 중인 순희를 추동하여 <제1회 작곡전>을 가지게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당시 부산사범대학에는 이상근 외에도 고태국(高泰國, 성악)[9)], 김창배(金昌培, 성악)[10)]가 있었다. 음악과는 성악, 피아노, 작곡 이렇게 세 전공이 있었고, 커리큘럼은 시창·청음은 기본이고, 화성학, 서양음악사 등 지금의 음악대학에서 배우는 과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범대학이라서 음악 외에도 교육사, 국어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였다.

강순희는 부산사범학교 시절에도 아주 열심 있는 학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자신의 전공 이외에 다른 악기를 부전공으로 이수한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 이외에 작곡, 성악, 관현파트 학생 대부분은 피아노를 부전공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순희는 피아노 이외에도 바이올린도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바이올린을 너무 배우고 싶어 당시 부산사범대학 출강하던 전희봉(全熙奉)[11)]을 직접 찾아가 간절히 부탁해서 바이올린 지도를 받았다. 이 시기에 배운 보잉(Bowing)[12)], 핑거링(Fingering)[13)], 현악기의 구조와 운지법 등은 작곡가로서 현악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피아노는 당시 대구에서 활동하던 이경희(李慶姬)한테 매주 개인지도를 받았다. 당시 이경희는 서울 이화여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촉망받던 피아니스트로, 피란 시절 대구에 정착해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음악 활동

이상근 선생과 제자들 (둘째줄 오른쪽 첫 번째 강순희, ○○○, 이상근 선생, ○○○) ©강순희

을 하고 있었다.

강순희는 부산사범대학 재학 당시도 합창단 반주를 맡았다.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보다 피아노를 더 잘 쳤다고 한다. 합창단 지휘는 고태국이 맡았다. 당시 부산은 합창 운동이 아주 활발히 전개된 시기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합창단을 결성했고, 계몽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학교 홍보차 여러 곳으로 순회공연을 다녔다.

합창 반주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하루는 부산사범대학 학생들이 동래여자고등학교에 합창 공연차 갔다. 무슨 행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부른 노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이날 합창단은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Pietro Mascagni, 1863~1945)의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14]를 불렀다.

노래를 한참 부르는 중간에 무대 조명이 '탁'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무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청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내 청중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다.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캄캄한 무대 위에서 지휘자도, 반주자도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 이어갔다. 프로다운 면모다. 순희

부산사법대학 합창단
(지휘 고태국과 반주 강순희) ©강순희

는 평소 합창 반주시 악보를 늘 외우는 편이었다. 이 습관은 합창 반주 뿐만 아니라 학업에 임할때도 한결같았다. 이러한 성실함이 오늘의 작곡가 강순희를 만들었다.

4 교사 시절

부산 최초 여성 작곡발표회 – <제1회 작곡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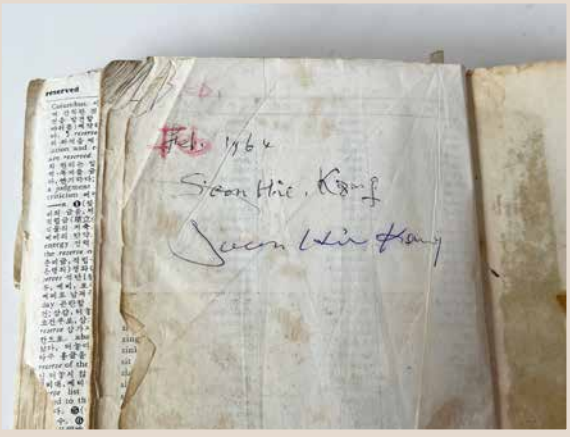
강순희는 부산사범대학 졸업 후 이상근의 권유로 첫 작곡발표회 <제1회 작곡전>(1962.11.30)[15]을 연다. <작곡전>은 이상근이 직접 붙여준 제목이다. 강순희의 <제1회 작곡전>은 부산 최초 여성 작곡발표회로 부산음악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시절 여성 작곡가가 단독으로 작곡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무척 드물었다. 당시 이상근, 최인찬(崔仁讚)[16]이 작곡발표회를 가진 정도였으니 말이다.

<제1회 작곡전>은 성황리에 마쳤다. 프로그램은 <피아노 트리오>, <현악 4중주>, <피아노와 소프라노>, <현악 4중주와 소프라노>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

작품 <피아노 트리오> 반주는 강순희가 맡았다. ©강순희

<제1회 작곡전>을 마치고 난 후 아버지와 함께 ©강순희

<제1회 작곡전>을 마치고 난 후 ©강순희



1964년 구입한 영어사전 ©강순희

성했다. 피아노 반주는 물론 강순희가 맡았다. 강순희 작곡발표회는 꽤 이슈가 되었는지 따로 광고한 적 없는데 당시 유명한 음악평론가 유신(劉信, 1918~1994)[17]이 음악평을 썼고, 연주회 당일 KBS 부산방송국에서 와서 녹음도 해 갔다. 그때 발표한 작품들은 미국 유학으로 인해 자료를 살뜰히 챙기지 못한 탓에 악보가 남아있지 않아 작곡전 관련 자료는 사진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 내가 광고한 적도 없는데 KBS 부산방송국에서 와서 녹음도 해 갔더라고. 우연히 길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지막 멘트가 "강순희 뭐였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단독으로 작곡발표회 한 사람으로 세 번째쯤 되는 거 같아. 이후에 고등학교 선생들이 작곡발표회를 한 것 같은데 단독으로 작곡발표회는 거의 없었어. 최인찬 선생도 작곡발표회를 했는데 단독으로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어. 당시 최인찬 선생도 작곡가로 꽤 알려져 있었거든. 그리고 이상근 선생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시 굉장히 앞서갔네. 전국적으로 앞서갔네. (417)

강순희는 이후로도 몇 번의 작곡발표회에 참여했고, <제1회 작곡전> 이후로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된다. 당시 작곡전을 마치고 영어사전을 구매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사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강순희는 이 사전을 자신의 인생에 비유한다. '사전이 바로 나의 인생이야!.' 낡고 찢어진 사전을 보니 강순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짐작이 된다.

교단에 서다

강순희는 부산사범대학 졸업 후 10년 정도 교편생활을 한다. 첫 부임 학교는 초량초등학교였다. 이곳에서 2~3년 음악 교사로 근무한 후 원예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부임한다. 당시 부산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중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았다. 하지만 강순희는 부산사범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교사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국에서 혼자

합격한다. 당시 시험과목은 피아노 치면서 콘코네(Concone)[18]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피아노 연주가 능숙한 강순희에게는 너무 쉬운 과제였다.

강순희의 교편생활은 그리 즐겁지 않았다. 남학생을 가르치는 게 힘들었다기보다 이미 몇 차례의 창작곡 발표회를 가진 순희에겐 노래 한 곡을 가지고 몇 학급을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것이 여간 지루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미국 유학의 꿈을 키우고 있었으니 말이다.

> 엄청나게 힘든 기억이 난다고. 남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노래 한 곡을 클래스(class) 돌아가며 가르쳤는데 아이들이야 한 시간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노래를 가르치니… 그 시절 아이들에게 필사를 많이 시켰는데 다들 평생 악보 보는 법은 잊지 않았을 거야. (419)

<제1회 작곡전> 이후 미국 유학의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학원도 지금처럼 조직적인 것도 아니고 고작 미군 부대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도였다. 의사소통엔 불편함이 없었다. 정작 문제는 미국 비자를 어떻게 받느냐였다. 어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청한 비자(visa)는 몇 년째 소식이 없었다. 주말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서 미영사관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날 때쯤 당시 원예고등학교 교장이 고생하는 강순희가 딱했는지 어떤 주무관과 연결시켜 줬는데, 그 이후 비자 받는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강순희는 5년 만에 미국 비자를 손에 쥐었다. 당시 그 어렵다는 하늘의 별을 딴 셈이다.

> 그때 유학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당시 매주 서울을 올라간 거 같아.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가면 내 순서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 당시 원예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도움을 조금 주셨지. 어떤 주무관하고 연결했는지 어땠는지 그 덕분에 패스포트를 받았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419)

5 미국 유학 시절

미국 유학길에 오르다

강순희는 1967년 12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녀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도착지는 뉴욕이었다. 당시 뉴욕까지 직항이 없던 터라 시애틀을 경유해서 뉴욕으로 입국했다. 미국 생활은 첫날부터 난리가 아니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져간 가방 지퍼가 터지는 바람에 정신도 없는 데 체류허가증, 폐결핵 사진 필름까지 다 챙겨야 했으니 말이다. 날씨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순희는 미국은 자신에겐 기회의 땅이라 생각했다.

> 추웠지. 춥기도 춥고 가지고 간 가방 지퍼가 터져서 고생한 기억이 난다. 당시 학생이라고 하면 입학 허가증, 폐결핵 사진 필름을 가지고 다녀야 했어. 그리고 그때는 직행이 없으니 시애틀에 도착하면, 이민국에서 유학생이 들어왔다고 서류를 보내고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나는 당시 춥고 덥고 그런 것도 몰랐어. 다만 나한테 온 기회라 생각한 거지. (420)

강순희의 유학 생활은 순조롭지 않았다. 한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갔지만 당시 부산사범대학은 2년 과정이라 학위 인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학부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미국 맨해튼음악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2년, 줄리아드음악학교(The Juilliard School)의 1년 과정을 거쳐 뉴욕 퀸즈 칼리지(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Queens College)의 학사 과정에 입학했다.

미국 대학은 입학할 때 모든 학생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placement test)'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력 테스트다. 학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지, 학교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학생만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강순희는 학력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고, 이례적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원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덕분에 강순희는 미국 간 지 5년 만에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다.

> 대학교 1학년 1학기부터 했다니깐. 그렇다고 120학점을 다 이수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 학점은 모자라도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거쳐서 학력을 인정받으면 대학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원 코스의 강좌를 들을 수 있었어. 나 같은 경우가 그렇지. 대학 신분을 가지고 대학원 강의를 다 들었어. 대학원 공부를 한 2년 공부를 하고 나서 학부와 대학원 졸업장을 동시에 받았어. 그러니깐 미국 간 지 5년 만에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지. (420)

유학 초창기 뉴욕에서 ©강순희

강순희의 첫 지도교수는 마리오 다비도프스키(Mario Davidowski, 1937~2019)였다. 당시 그는 전자음악 싱크로니즘(synchronism)[19]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고, 예술적 수준도 뛰어났다. 강순희가 유학 간 1967년도는 현대음악에 있어서 거의 폭발, 변화의 시대였다. 하지만 전자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순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영역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나름 작곡도 하고 개인 작곡발표회까지 했는데 그 음악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맨해튼음악학교에 다닐 때는 루드밀라 올레라(Ludmila Ulehla, 1923~2009)한테 지도받았다. 강순희는 이 선생을 아주 보수적인 음악가로 기억한다. 당시 선생이 무엇을 가르쳐줘도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나 소양이 되어 있지 않아 선생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이해했던 시기였으니, 순희나 가르치는 선생 또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으리라.

> 처음에 이 선생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나에게 전자음악 분야는 거의 오지였어. 1967년도는 현대음악에 있어서 거의 폭발, 변화의 시대였거든.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내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였겠어?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힌트나 메시지도 제대로 모를 때였어. (421)

독서노트 ©강순희

강순희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미국 학교에서도 여전했다. 1학년 1학기, 12명이 듣는 클래스 수업에서 혼자 'A+'학점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강순희는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의 독서 노트를 만들며 공부했기에 수업 중 자료가 필요하면 교수는 늘 강순희를 찾았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독서 노트는 그 시절 순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잠시 머물다 (1976-1978) / 남편의 죽음

강순희는 미국에서 결혼했다. 1973년의 일이다. 남편(Joseph Bernard Axeuroth)은 센트럴 코네티컷 스테이트 유니버스티(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코네티컷 주립대학 사회학 교수로 촉망받는 학자였다. 강순희는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한국에 온 남편을 따라 1976년부터 1978년까지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당시 음악 환경이나 기자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라 강순희는 미국에서 가져가 레코드를 수업에 활용했다. 한국에서의 2년 동안의 교육 경험은 한국 음악교육 실태와 상황을 파악할 좋은 기회였다.

> 당시 한국은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할 때였지. 76년에서 78년까지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잖아. 음악대학교에는 복사기도 없고, 시험 문제는 등사기로 냈지. 그리고 등사기가 학과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학교 주변 업체에 가서 시험 문제를 주면 등사기로 문제를 밀어줬지. 그리고 그때 서울대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듣고 설명해야 하는데 학과에 전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시 학장으로 계셨던 전봉초 선생님께 "수업 때 전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깐 금방 사 준 기억이 난다. 당시 2년 동안 미국에서 사서 가지고 간 레코드를 많이 활용했어. (423)

한국에 머무는 동안 스승 이상근과도 만났다. 이상근은 미국에서 온 제자 부부가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아 그렇게 하진 못했다. 이상근의 환대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라 한다. 이상근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순희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새해가 되면 제자 순희에게 늘 정성어린 연하장으로 새해 인사를 먼저 전했고, 작곡가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작곡가로 성장하기를 바랬다.

강순희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했어도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긴 했지만, 영주권만으로도 음악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시민권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한다. 순희는 미국 땅에 살아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늘 잊지 않았다.

> 시민권 신청은 안 했지. 내가 뭐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냐고.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서 내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면 2년 동안 국외를 나가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내가 음악 활동하는데 영주권으로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데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지. 안 그래도 이민국 즉결재판소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무관들이 나보고 너는 왜 시민권 신청

남편과 함께 ©강순희

을 안 하냐고, 나보고 시민권 신청하라고 했는데, 내가 시민권이 있어야 하는 필요도 못 느꼈고, 시민권자가 된다고 내 얼굴이 달라져, 혜택이 달라지냐고 했었지. (425)

교환교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한국에서 앓은 간염이 재발했고 선고받은 후 3개월 만에 하늘의 별이 되었다.

6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다

공부, 다시 시작하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강순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강순희는 슬픔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하트퍼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Hartford, The Hartt) 음대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녀의 삶은 늘 그랬다. 삶이 고단할 때면 늘 학문의 길에 다시 섰으며, 학문을 통해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

1980년부터 시작한 박사 학위 과정은 너무 힘들었다. 하루 3~4시간 밖에 못 자면서도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미국의 박사과정은 두 종류가 있다. Ph. D., 필로소피 오브 닥터(Philosophy of Doctor)이고, 그다음에는 DMA, 닥터 오브 뮤지컬 아트(Doctor of Musical Arts)다. 강순희는 DMA 과정을 통해 음악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학위 과정 중 수상 소식도 있다. 1983년에는 Noman Bayler 최우수 작곡상, 1985년에는 코넷티컷 주 예술진흥원 위촉상도 받았다. 학위 취득 후 MacDowell 예술원 펠로(1985)도 한다.

미국 대학의 박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Ph. D., 필로소피 오브

닥터(Philosophy of Doctor)이고, 그다음에는 DMA, 닥터 오브 뮤지컬 아트(Doctor of Musical Arts)야. 그러니까 창작은 철학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Ph. D. 학위를 거부해. 창작은 닥터 오브 뮤지컬 아트 학위를 주지. 그렇다고 해서 공부 내용이 틀리냐? 아니야. 근본적으로 미술도 그래. 미술도 최고의 학위가 Fine Art라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안 줘. 근데 한국은 미술도 Ph. D. 하고 뭐도 Ph. D. 학위를 주지. 만약에 음악사를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거는 Ph. D야. 뮤지컬로지 인 띠어리(Musicology in Theory), 뮤직컬러지 인 히스토리(Musicology in History) 그거는 이론과목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론이 주가 아니고 주된 분야가 창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은 주된 영역이 연주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Ph. D.가 아니고 이거는 DMA 아트 쪽이야. 이렇게 미국 박사학위는 DMA, Ph. D.로 나누어진다고. 요즘은 창작 쪽에도 Ph. D.라는 학위를 주는지 몰라도 적어도 출발은 그랬다고. 그리고 옛날에 미국 대학도 콘서바토리 오브 줄리어드(Conservatory of Juilliard) 이런 식이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 실기 중심의 학교를 말하는 거지. (424)

박사학위 수여식 장면 ©강순희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많이 받았지만 MacDowell 예술원 펠로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졌다. 당시 모았던 돈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피아노를 샀으니, 유학생으로서는 엄청 혜택을 받은 것이다. 강순희는 지금도 자신에게 아낌없이 베푼 미국의 혜택에 늘 감사하며, 자신 또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학교 교육 현장, 미오트(MiOT)의 결성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7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강순희

1987년 강순희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작곡 전공 교수로 임용된다. 1967년 12월 미국으로 간 지 거의 20여 년 만의 일이다. 귀국하기 전 여러 대학의 초청장을 받았지만, 부산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과 무엇보다 스승인 이상근의 후임이라는 것이 순희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통폐합된 상태라 20여 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었다. 작곡과는 이언도(李彦濤)[20], 유재룡, 조희주 3명의 선생이 있었다. 강순희는 부임 후 많은 클래스 수업을 맡았다. 당시 작곡 전공 학생을 7명만 뽑을 때라 전공 학생들 대부분은 남자 교수들 차지였고, 학과에 많은 교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전공 실기를 맡아 음악사, 작곡 문헌 등 이론과목을 가르칠 선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 학교에 오니 피아노과 교수가 9명이고, 성악교수가 7명이나 되더라고. 교수들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 어느 곳에도 이런 구조가 없지. 근데 당시 부산대학교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음악학과가 오버렛 되어서 교수들이 다 들어왔고 (427)

내가 왔을 때 비전공 사람이 학생들보다 한주 먼저 교재를 읽고 음악사를 가르치는 상황이었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학원 전체 강좌를 내가 맡게 되었어. (429)

강순희는 학과 교수들과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학과 회의 때마다 교수들과 부딪히는 날이 많았다. 유럽에서 실기 위주로 공부하고 온 교수들과 미국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마치고 온 강순희와는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학생들을 위해 '현대음악 세미나'를 열고 싶었다. 음악학도로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음악이 무엇인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느 교수는 '현대음악 너무 어려워요. 나는 현대음악 몰라요. 공부하는 것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교수로서 얼마나 책임감 없는 소리인가. 순희는 지금도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공부하지 않는 선생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강순희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선생이었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첫 시간에는 늘 '작

부산대학교 교수들과 함께(왼쪽부터 한명희(피아노), 제갈삼(피아노), 강순희(작곡), 김현경(성악) ©강순희

부산대학교 부임당시(1987) ©강순희

부산대학교 재직시 연구실에서 ⓒ강순희

곡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자신이 치열하게 걸어온 학문의 길에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란 선생의 바램이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선생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몇 학기를 넘기지 못하고 입대하거나 휴학을 했다. 학생들은 강순희의 교수법을 무척 힘들어했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먼 훗날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강순희 교수 강의였다고, 그때 조금 더 강순희의 지도를 받았다면 자신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전하기도 한다.

8 MiOT(Music in Our Time)를 결성

우리 시대 음악, MiOT를 결성하다

부산대학교 임용 후 10여 년 강의에 전담하다 보니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강순희는 김철화와 미오트(MiOT: Music in Our Time)를 결성한다. 1997년의 일이다. 당시 김철화(1961~2005)는 강순희의 권유로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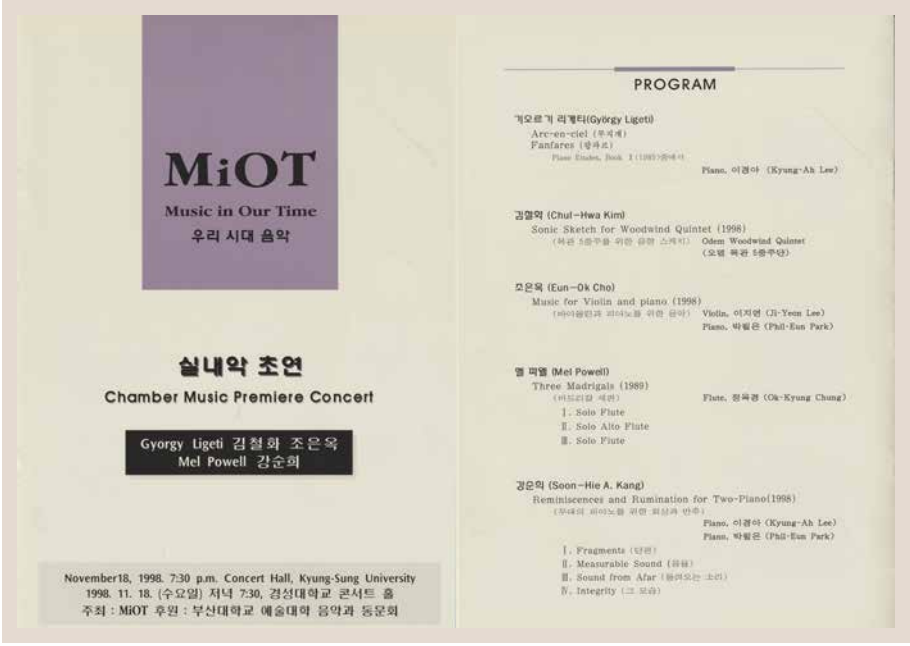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음악대학원에서 작곡 이론을 공부하고, 1997년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터였다. 김철화는 부산현대음악제 대상(1993년), 안익태 작곡상 대상(1996년)을 수상한 주목받는 작곡가였다. 이후 조은옥이 함께했다. 조은옥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졸업 후 미국 밀스대학에서 작곡 공부, 샌프란시스코 음악콘서바토리에서 전자음악 공부를 한 재원으로 당시 부산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었다.

> 처음에는 김철화 선생과 같이 시작했고, 이후 작곡 파트 강사인 조은옥 선생이 함께 했지. 그때 미오트는 부산대학교 안에 연구소를 두려고 했는데 가능하긴 한데 연구소를 두려면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야 되고, 무엇보다 2년마다 리더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분명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어. 그래서 학교 안의 연구소는 안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지. (430)

강순희는 현대음악이 어느 나라,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고, 동일된 미학적 가치관, 또는 매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통용되기에 작곡가로서 현대음악을 청중에게 어떻게 들려주어야 하는지를 늘 고민했다. 지금도 현재형이다.

> 미오트는 Music in Our Time이야. 현대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즉. 현대음악이 너무 다양하고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이게 특정한 분야의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접근을 하고 있지. (430)

미오트의 첫 연주회는 <실내악 초연(Chamber Music Premiere Concert)>이란 제목으로 1998년 11월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소개된 실내악 작품들은 헝가리 출신 작곡가 기오르기 리게티(György Ligeti)와 미국 작곡가 멜 파웰(Mel Powell)의 작품, 한국작곡가 김철화, 조은옥, 강순희의 작품이다. <실내악 초연>은 현대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청중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미오트의 첫 시도였다.



미오트 첫 공연 팸플릿 ©강순희

미오트 공연 후 ©강순희

미오트를 통해 국내외 작곡가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여성작곡가의 밤>, <대학 작곡가들의 소리>, <젊은 작곡가들의 밤> 등 다양한 주제의 연주회를 개최했다. 미오트 연주회에 참여한 작곡가와 연주자는 대부분 부산대학교 졸업생들이었다. 강순희는 대학졸업후 연주할 무대가 없어 음악활동을 못하는 제자들이 늘 안타까웠다. 그래서 미오트의 연주무대는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젊은 음악학도에게는 늘 열려있는 무대가 힘이 되었다. 미오트는 2001년 민족음악학회와 함께 '20세기 음악의 다방향적 확산과 문화적 정체성'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다. 학술지 『MiOT』도 발간했다.

이러한 과정에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 미오트의 창단 멤버인 김철화의 죽음이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2006년 미오트 정기연주회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김철화를 위해 <김철화 추모 음악회>로 열렸다. 김철화의 <피아노 트리오>,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뭇잎 하나>, <물망초>,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내면의 꽃'>, <9악기를 위한 '빛을 향하여'>라는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많은 음악인이 참여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강순희는 지금도 너무 일찍 떠나버린 김철화를 가슴에 담고 있다.

미오트는 전문단체들과도 함께했다. 뮤즈앙상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등 수많은 음악 전문단체와 음악인이 미오트의 무대를 장식했다. 25년 동안 미오트의 무대를 거쳐 간 음악인은 수백 명이 넘을 것이다.

매년 연주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기획에서 연주자 섭외까지 강순희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 고단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 게다가 창작지원금이라도 받지 못하는 해는 미오트 연주회 경비는 오롯이 강순희 몫이었다. 이런 형편에도 강순희는 2017년 MiOT Award를 만들어 젊은 작곡가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수상자는 2년마다 선출된다. 강순희는 미오트를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년을 미오트를 지켰다. 2023년부터는 인제대학교 오세일 교수가 미오트를 맡아 현대음악 시류와 동향을 탐구하여 부산 청중에게 예술 음악에 대한 최선의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9 우리시대 작곡가, 강순희

우리 시대의 작곡가 강순희

작곡가 강순희는 생애를 통해 일관된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1962년 <제1회 작곡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미국, 일본(도쿄) 등지에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솔로(Solo) 곡에서 오케스트라(Orchestra) 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곡들은 <피아노 소곡 네 편>(1972), <84년도 지구촌 후감>(1984), <소프라노와 여섯 악기를 위한 '시조 네편'>(1987)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회상과 반추>(1998), <첼로소나타 '예·이제'>(2002), <사중주의 내재율>(2004), <비가>(2007), <판타지아>(2009), <The Illumination>(2015),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2017), <세 악기의 일치감>(2019-2020) 등이다. 이 작품들은 미오트의 무대에서도 연주되었다.

> 초기 중기 후기는 분류보다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MiOT에서 주로 했지. 약 2년에 한 번씩 내 작품도 연주가 되었거든. 여기 작품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간추린 작품 활동에 보면 소프라노와 6악기를 위한 <Sijo 4편>이 있고, 세계 초연된 작품으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회상과 반추>(1998)있고, 출판된 것으로는『LUMINOSUS for Large Orchestra』(1984) 있지. 여기 보면 약 2년마다 내 작품이 연주되었지. 물론 서울, 도쿄, 마닐라 등지에서도 작품을 발표했지. (442)

강순희는 생애의 절반은 학생으로, 절반은 교육자로 살았다. 순희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의 신분이 그렇게도 편했다. 학문에 매진하다 보면 힘든 순간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돌아왔다.

배움 뒤에는 늘 교육자로 다시 돌아왔다. 부산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의 교사

일본 도쿄 연주시 ©강순희

생활, 박사학위를 받고 하트포트대학교, 코넷티컷주립대학에서 7년, 귀국 후 부산대학교에서 15년을 자신이 배운 것을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공부하지 않는 선생과, 음악학도라고 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와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었다.

강순희는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가 늘 궁금했고, 그러한 음악의 중심에 한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 나도 중심에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남은 나를 어떻게 알겠어? 모르는 거지. 알고 지나가자. 우리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호흡하고 사는데 a가 b를 모르고 b는 a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현대 특히 현대음악에 대해서 음악가 안에서도 이해가 없는 거지. 특히 연주가들은 '흥' 하고 돌아서는데 그런 태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443)

강순희는 또한 자신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음 세대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기 삶 자체가 자신의 유산이고 그렇기에 남은 여생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내 한 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그게 유산인데, 내가 어떻게 전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별 동력이 없잖아. 내가 했던 거 이것이 어떻게 다음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그거지.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뭐 어떤 의미 있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일거수일투족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거지. 내가 죽어서까지 이거 어쩌고저쩌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하는 거지. (443)

1988년에는 대한민국 작곡상도 받았고, 정년 후 2016년에는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했다.

강순희는 우리 시대 작곡가의 표상(表象)이다. Music in Our Time.

①하트포드대학 시절 ©강순희
②하트포드대학 시절 동료 작곡가들과 함께 ©강순희
③제9회 대한민국작곡상 시상식(1988) ©강순희
④제9회 대한민국작곡상 시상식(1988) ©강순희

미주

1)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한국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10년부터 1914년까지 호주에서 거창으로 8명의 남선교사와 9명의 여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들은 거창에서 교육사업을 포함하여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교육사업은 명덕강습소를 열어 정규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하여 야간 학교를 개설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선교사들은 프레더릭 매크레이(Frederick Macrae, 1884~1973), 에셀딕슨(Ethel Dixon, 1889~1975), 스텔라 스코트(Stella Scott, 미상~1961) 등이다(양명득 저, 『호주선교사열전-마산과 거창』, 나눔사, 2003, 100~119, 184~195, 200~231쪽).

2) 주성택, 「호주장로교회의 경남지역선교: 교육사업을 중심으로(1891~1942)」, 서울신학대학 석사논문, 2016, 20쪽.

3) 작곡가 강순미(姜淳美)는 1948년생으로 강순희의 막내동생이다. 작곡가 강순미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도미하여 맨해튼음악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석사,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 명예교수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작곡가 사전』, 시공사, 1999, 14~15쪽).

4) 「2022 부산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5) 영남예술제는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949년 10월 3일 제1회 영남예술제로 개최되었다. 이후 1959년 영남예술제에서 개천예술제로 명칭을 바꿨다. 1983년부터는 경상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개천예술제 홈페이지(http://www.gaecheonart.com/sub/sub1_5.php/ 검색일: 2023.05.16.).

6) 서울예술고등학교는 부산과 인연이 깊다. 서울예술고등학교는 피란 시절 부산 영도에 있던 이화여자고등학교의 가교사에서 이화예술고등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했다. 그리고 서울 복귀 후 1953년 서울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1956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예고 50주년] 그 과거·현재·미래」, 『경향신문』, 2003.04.07. (검색일: 2023.05.16.)).

7) 부산사범학교는 초중등교원 수급을 위해 1946년에 개교하였다. 1961년 부산사범대학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초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다시 독립되어 부산교육대학으로 1980년까지 2년제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1981년 서울교대와 함께 4년제 과정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1993년 부산교육대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8) 이순욱 외 여럿, 『한국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음악, 작곡가 이상근』, (재)부산문화재단, 2021, 186쪽.

9) 고태국(高泰國, 1917~1977)은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으며, 1947년 11월 부산에 정착하여 동래중, 금성고, 동래여고 교사와 부산교육대학(전, 부산사범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고태국은 부산사범학교 재직 시절인 1957년 10월에 음악 교사와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콜 에오리안(Chor Aeolian) 합창단을 조직하여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를 했다. 정기연주회 레퍼토리는 클래식음악, 경음악, 흑인영가, 세계 민요와 영화 음악 등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구성되었다.

10) 김창배(金昌培, 1922~1988)는 경성음악학교 예과 2년을 수료하고 일본 동양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성악 공부를 하다가 1945년 학업을 접고 귀국한다. 귀국 후 김창배는 경북공고, 동래여중, 경남중, 부산사범대학, 한성여자대학교(현, 경성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고태국과 함께 초창기 부산의 합창 운동을 이끌었으며, 부산의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1년 김창배가 지휘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가 부산 최초의 오페라 공연이었다.

11) 전희봉(全熙奉, 1915~)은 서울 출생으로 홍난파, 안병소 등에게 바이올린 사사를 하였으며, 1951년부터 1960년까지 부산에 머무르면서 부산사범대학에 출강하였다.

12) 보잉(Bowing)은 바이올린 활로 연주하는 기법을 뜻한다.

13) 핑거링(Fingering)은 바이올린 손가락 위치(운지)를 뜻한다.

14)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는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Pietro Mascagni)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에 나오는 노래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렌지 꽃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종달새는 숲속에서 노래한다/ 오 빛나는 눈동자의 소녀들아/ 새들도 짝을 찾아 날아가듯/ 우리도 그대들에게로 날아간다/ (생략)

15) 강순희 <제1회 작곡전> 풍경은 제갈삼이 쓴 『초창기 부산음악사』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순희(姜淳姬)의 「작곡전」이 있었다. 「현악 4중주」, 「피아노 3중주」, 「프룻트 3중주」, 「현악 4중주와 소프라노를 위한 가곡」등 여성으로서 야심만만한 작품을 발표했다."(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15, 214쪽).

16) 최인찬(崔仁讚, 1923~2009)은 경상남도 사천 출생으로 ISCM, 창악회, 한국작곡가협회, 국민악회 이사를 지낸 바 있다. 작곡가 이상근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으며, 1956년 4월 7일에는 함께 최인찬, 이상근 작품발표 연주회를 가졌다.

17) 유신(劉信, 1918~1994)은 전라남도 해남 출생으로 본명은 유신종(劉信鐘)이다. 1970년대까지 부산에서 창작 활동과 문필활동을 했으며, 한국예술평론협의회 및 한국음악평론가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작품집으로는 『보리피리』(1968), 『갯벌』(1973)과 『화랑가』(1973), 『꽃댕기』(1975), 『꽃노래』(1977)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국악통론』(1983), 『음예술의 새로운 체험』(1987), 『음악감상론』(1988), 『음악연주론』(1988) 등이 있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작곡가 사전』, 297~298쪽).

18) 콘코네(Concone)는 성악 발성곡이다. 성악을 시작하는 학생은 꼭 해야 하는 교과과정으로 성악발성 또는 성악연습곡, 시창교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 동시성 음악을 일컫는다. 동시성 음악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소리와 음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음악으로, 여기에는 우연성 음악, 전자 음악등이 포함된다.

20) 이언도(李彦濤, 1932~2000)는 부산의 작곡가로 영남악파 1세대인 이상근의 제자다. 일찍이 스승 이상근의 영향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상근과 함께 음악 교과서 편찬 작업에 정성을 다했다. 음악 교과서로는 1978년 이상근·이언도가 공저한 『고등 음악』과 1995년 펴낸 『고등 음악』이 있다. 작품은 가곡, 소규모의 실내악·합창·관현악곡 등이 있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작곡가 사전』, 357~358쪽).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오희숙, 『작곡으로 보는 한국 현대음악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9.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공저, 『우리양악 100년』, 현암사, 2001.

이순욱 외 여럿, 『한국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음악, 작곡가 이상근』, (재)부산문화재단, 2021.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15.

주성택, 「호주장로교회의 경남지역선교: 교육사업을 중심으로(1891~1942)」, 서울신학대학 석사논문,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 『한국 작곡가 사전』, 시공사, 1999.

[신문기사 및 보고서 등 기타자료]

「MiOT 올해 주제는 '여성'」, 『부산일보』, 2010.10.23, 22면.

「이상근·최인찬·김철화」, 『부산일보』, 2020.10.18, 22면.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강순희 외 여럿, 『MiOT 우리 시대 음악』 3, MioT, 2004.

음악교육자 배일환 ©배일환

제11장

관악활동의 신념과 실천

음악교육자 배일환

배일환은 특히 기초훈련에 집중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한 학기 정도 지난 시점부터 행진곡 연주 교육을 했다면
동의공고는 2학년 때까지 롱톤(Long-tone)만 시켰다.
초반에는 지루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는 듯 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가속이 붙는 시스템이다.
2학년이 지나면서부터 괄목할 만큼 빠르게,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1 음악의 가치와 음악교육의 신념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는 음악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한다." 배일환의 신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활동과 음악교육을 실천했다. 수많은 제자를 음악가로 길러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배일환 자신도 음악에 빚진 바 적지 않다. 음악은 그의 직선적이며 강직한 성품을 보완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다.

음악의 가치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악을 부전공한 어느 외교관의 일화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외교 현장에서 음악은 소통과 매개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마침내 국익을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한다. 예능교육은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 미국에 유명한 비행기 학교가 있어요. 학장을 만나보고 커리큘럼을 보니, [음악, 미술, 체육]만 가득한 거라. 비행 항공 학교인데 비행기를 절대 안 보여주는 거라. 그라믄 누가 하노. 니가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중략) 미리 다 보여주면 타성에 의해 창의력이 안 나와. 세계적인 그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적인 부자로 만든단 얘기지. (중략) 이렇게 되니까 상상을 못하는 비행기가 나오는 거라. 음악, 미술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쁜 게 나오고 한단 말이야. 그 음악, 미술을 해야된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음미체로 되어 있지. 한국의 교육자들이 가서 보고 미스프린트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거라. (452)[1]

음악과 미술 교육은 비행기 제작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비행기를 제작하는 학교 커리큘럼에 예능 비중이 큰 까닭은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능교육을 통해 배양한 창의력은 상상 초월의 획기적 기능을 가진 새로운 비행기를 탄생하도록 하는 밑거름이라 본다.

배일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세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예체능

배일환 ©배일환

교육에서 비롯되며, 예술의 수준은 도시나 국가의 품격과도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입시 교육을 중시하는 공교육에서 예체능 교육은 쉽게 뒷전으로 밀려난다. 교육시수 역시 시류에 따라 손쉽게 재단되곤 했다.

음악교육 현장의 문제와 한계

배일환은 교육부에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행정가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방부에는 군인, 법원에는 판사"가 일하는데 교육부 업무는 교사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가 맡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 보았다. 이

론으로 무장을 한다거나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질 좋은 교육정책을 담지할 수는 없다. 예체능 교육의 현실은 더욱 열악했다.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는 일반 교과목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다. 교육의 효율성만을 좇아 예체능 교육을 도외시함으로써 도덕과 인성, 인간관계와 삶의 즐거움과 같은 가치가 쉽게 무시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시수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과목 시수부터 줄여나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줄이자 했어요. 교육부에는 선생이 없어요. 교육부에는 전부 일반인들이 일을 해요. 이러니 음미체 수업시간을 줄이자는 논의가 생겼지. 처음에 체육시간 줄이려고 하니까 체육 선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다음에 음악, 미술 줄인다 하니까 음악선생들은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래서 어찌 됐나. 음악 미술 시수가 줄어드니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 미술 교사가 과원이 되니까 음악선생들이 한문과목, 가정과목을 가르치는 이상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 교사들이 모여서 음악수업 정상화를 위해 항의 연주회도 하고 했어요. (451)

사실 국영수 편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예체능 과목 축소 현상은 이미 초중고 교육현장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예체능 과목 교사들이 시위나 음악회의 형식으로 항의를 표현했음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많은 음악교사들이 한문이나 기술, 가정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으며 끝내 교단을 떠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예체능 과목의 운명이 이처럼 전개된 원인은 교육부의 현장 인식 부족이나 예체능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에만 있지 않다.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일반에서도 국영수 편중 학습의 문제점이나 지덕체를 중심으로 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라는 경쟁에서 승리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겼다. 대학 진학을 경쟁의 최종 지점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나 진학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보류시켜 두었던 셈이다. 배일환은 삶을 슬기롭게 꾸려나가거나 일터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교육은 예체능 교육이라 본다.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고등학교 악대부 활동과 음악인으로의 성장

동래중학교와 해동고등학교 악대부 활동

배일환은 1947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부산진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재능을 보였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곧 담임을 맡은 김점홍은 어린 배일환의 재능을 북돋워 주었다. 동래중학교에 진학하자 음악교사로부터 악대부 입단을 권유받았다. 그 음악 선생님은뒷날 동래여고와 부산예고에서 교편을 잡은 작곡가 하오주였다.

> 나발소리 들으니까 아 저거 하고 싶다 생각하는데… 음악시간에 선생님이 너는 악대부 해야 돼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악대부에 공부 잘하고 착실한 애들만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밴드부에 학생회장, 규율부장, 반장 다 있는 거라. (중략) (497)

음악적 재능보다는 입학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중심으로 규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어떻든 음악에 관심이 있던 배일환으로서는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동래중학교 악대부는 합주 실력이 탁월해 진주 개천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주목을 끌었으며, 시가행진에 차출되는 일도 잦았다. 처음 잡은 악기가 트럼펫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악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나중에는 색소폰이나 바리톤, 심벌과 드럼 등 타악기도 다루게 되었다.

> 색소폰은 E^{b}, B^{b} 있거든요. 트럼펫은 B^{b}인데, 알토 색소폰은 조성이 달라서 악보도 다릅니다. '솔'자리를 '도'로 이조(transposition) 해서 불곤 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는 평생 써먹는 거예요. (중략) 애들 앞에서 알토 색소[폰] 가지고 B^{b} 악보를 바로 쎄리[마구] 불고 하니까 애들이 신기[해] 하지요. (470)

악대부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는 없었다. 교칙본이나 악기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교사는 주법을 가르치기보다 "무조건 많이" 불도록 권유했다. 배일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주법을 터득한 셈이다. 그때 체득한 주법이나 이조 능력은 언제라도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숙련을 넘어 체화된 셈이다. 그래서인지 배일환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왜 어릴 때부터가 중요하냐면,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어릴 때 배운 게 사고의 기준이고 지식의 영원한 기억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음악을 같이 같이한 친구들이 음악을 전공해서 성악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했습니다. 결국 밴드부 활동이 계기가 된 겁니다. 저도 밴드부 음악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관악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54)

해동고등학교 악대부에서 ©배일환

해동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악대부 활동을 계속했다. 악대부 활동을 함께하던 친구와 선후배는 대개 군악대에 복무했다. 그 즈음 새로 창설한 소방악대에 입단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음악인이나 음악교육자가 되었다. 배일환은 군수사령부 관악대에서 복무했다. 동의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지도교수 정원상)했으며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중고교 악대부 활동은 음악가로 입문하는 계기였던 셈이다.

부산시향 입단과 악보계 활동

배일환은 1960년대 1~2년, 1971년부터 3~4년 정도 부산시립교향악단 악보계(Librarian)로 일했다. 대학 입학 전이다. 1974년 부산시향이 시민회관에 입주할 무렵[2] 퇴임했는데 차석(또는 부수석) 단원이었다고 한다.[3] 초대 지휘자 오태균 시절 공연장은 왕자극장이었으며 중요한 연주는 제일극장에서 열리는 편이었다. 둘 다 음향반사판이 설치되지 않은 극장이다. 공연 도중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교향악단의 수준 역시 "요새 대학교보다 못한" 정도였다. 정규 대학 출신 연주자 수도 적었다. 이 무렵 부산 지역 고등음악교육기관은 빈약했다. 1955년 설립한 국립부산사범학교에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1960년대 초반 경성대학교 전신인 한성여자실업대학에서 음악교육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나마도 피아노와 성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 전문 연주자 배출은 어려운 실정이었다.[4] 그런데도 관객은 많았다. 오케스트라 실연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음악회였기 때문이라 한다. 공용악기로 팀파니 2개를 갖추고 있어[5] '적당히' 치곤 했으며, 꼭 필요한 악기는 군악대나 신앙촌에서 대여하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당시 부산시향의 월급은 2~3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박봉이었던 까닭에 소위 '밤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관악기 연주자가 밤일을 병행했다. 현악기 연주자보다 개인교습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관악기 연주자들은 학교 밴드나 군악대 출신이 많았다.

3 부산 지역 고교 악대부의 전통과 동의공고 관악단

부산 지역 고교 악대부의 전통

부산은 일제강점기부터 고교 악대부 역사가 깊은 지역이다. 해방기에는 경남상업학교, 금성중학교, 부산중학교, 동래중학교에 악대부가 있었다.[6] 취주악단, 관악단, 브라스밴드와 같은 명칭으로 불렸다. 1949년 8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으로 열린 전국취주악경연대회에서 부산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연주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7]

배일환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중고교를 다닌 1960년대 동래중, 배정중, 해동고, 항도고(당시 전포동 소재, 현 가야고)에 악대부가 있었다고 한다. 해방기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부산중학교, 즉 부산고에는 악대부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 일제강점기 때는 부산상고, 경남상고. 학교 밴드 다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있던 악기가 부산상고에 있었는데 안 버리고 나뒀는데 꺼내보니까 푹 썩어서. 경남상고의 악기도 푹 썩었고. (470~471)

해방기에는 식민지시대 때 사용하던 악기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보관해두었던 관악기가 쓸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던 모양이다. 악대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악기구매를 비롯해 학교 당국의 지원이 절실했을 것이다. 해방기까지 이어지던 고교 악대부 전통은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배일환의 모교 해동고등학교 악대부는 특히 유명했다.

> 아주 유명했어요. 김동조 선생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에피소드도. 악기 참 귀할 때인데. 해동고에 바리톤 색소폰이 있더라고. 구경도 못 했는데. 미국제도 있고. 요즘도 바리톤 색소폰이 귀한데 그때 있었으니까. 가끔 악기 살 때 보니까 배 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학교에서도 협조를 잘했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나발을 부셔서 욕심이 많으셨지. (478)

해동고등학교 악대부는 귀한 악기를 여럿 보유하고 있었으며 악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도한 이는 음악교사 김동조(1929~2010)다. 부산원예고등학교[8] 출신이며 1955년부터 해동고등학교에서 일했다. 작곡가로 활동한 김동조는 뒷날 박이옥과 함께 부산지역 관악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부산여자대학에서 정년퇴임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육자였던 그는 배일환의 의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배일환은 고교 2학년 때부터 김동조로부터 화성학과 피아노를 배웠으며, 뒷날 관악합주 지도의 세밀한 방법도 배웠다. 해동고등학교 악대부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했다. <이탈리아 기상병 서곡>, <에그몬트 서곡>, <카르멘 서곡>과 같은 기악곡을 비롯해 다양한 왈츠곡, 김동조 작곡 <농촌의 아침> 등 수많은 곡을 공부하고 연주했다. 이러한 경험이 배일환의 음악과 음악인생에 밑거름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배일환

박이옥과 해동고등학교 악대부 ©배일환

은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나의 의식은 오롯이 선생님의 깊은 정신을 배워서”라고 회고했다. 한국관악협회 회장으로 일할 때 ‘김동조선생님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1980~2000년대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관악단

1970년대를 지나면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악대부 활동이 활기를 되찾았다. 입시 부담이 비교적 적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가령, 1974년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1976년 부산기계공고·대광고, 1977년 동의중학교에서 악대부를 창단했다. 관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 두루 포진해 있었다는 사실도 쉽게 넘길 수 없다. 악대부 활동을 통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음악 전공으로 진학하는 사례도 많았다. 협력과 조화라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악대부 활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 거기도 규율이 있습니다. 군대 규율보다 더 엄할지 모르지. 그걸 극복한 애들은 견뎌 나가고 못하면 지쳐 나갑니다. 결국 그걸 견디는 애들이 군대나 사회 나가도 잘합니다. (중략) 밴드부는 조직이라.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사회생활 다 잘합니다. 조직, 단결. 밴드부 출신들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상급자 대하는 거, 하급자 대하는 거. (481)

학생 연주단체에 군대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작동했다는 점은 돌아볼 지점이다. 그럼에도 협력과 단결,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해 음악이라는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낸 경험은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배일환은 고교 악대부 활동의 전성기로 1980~1990년대를 꼽았다. 악대부 대신 관악단 또는 관악합주단이라는 명칭이 정착된 시기도 이 무렵이다.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던 교련 과목이 여전히 교육과정에 들어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국가나 지역 차원의 대규모 행사들이 치러지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이 무렵 고교 관악단은 교

내활동의 차원이 넘어서 부산지역 관악활동의 주요 축이라 할 수 있다. 제1~10회까지 부산관악제에 참여한 고교 목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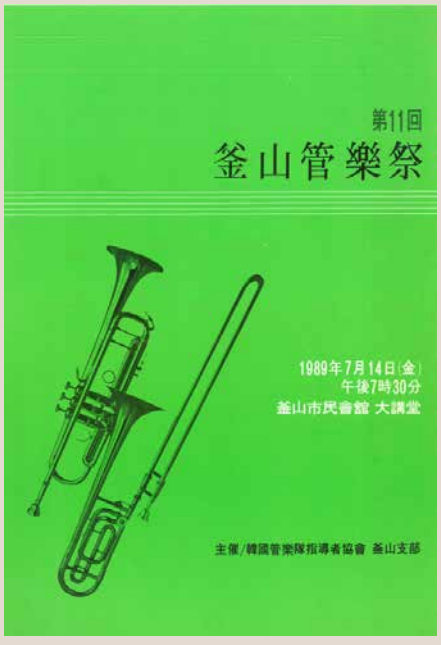
제1회 부산관악제(1974. 6.) 해동고, 동아고, 광성공고, 대동고, 대양공고, 가야고, 동래공고, *소방악대
제2회 부산관악제(1981. 7.) 해양고, 예원공고, 부산기계공고, 계성여상, 성도고, 동아고, 동의공고, *수영국민학교
제3회 부산관악제(1981. 12.) 덕원공고, 성심여상, 대양공고, 양정국교, 광성공고, 동주여상, 전원악대, 계성여상
제4회 부산관악제(1982. 12.) 상록고, 덕원공고, 성심여상, 해양고, 광성공고, 동주여상, 대양공고, 성도고
제5회 부산관악제(1983. 7.) 대양공고, 해양고, 계성여상, 부산기계공고, 성도고, 상록고, 동아고, 성심여상, 동원공고, *아카데미관악단
제6회 부산관악제(1984. 7.) 동명공고, 성심여상, 동아고, 계성여상, 성도고, 동주여상, 대양공고
제7회 부산관악제(1985. 7.) 동의공고, 동명공고, 해양고, 동주여상, 광성공고, 덕원공고, *아카데미관악단
제8회 부산관악제(1986. 7.) 동의공고, 상록고, 부산기계공고, 동명공고, 아카데미 관악단(금관5중주)
제9회 부산관악제(1987. 7.) 동주여상, 해양고, 동의공고, 동명공고, 광성공고, 부산기계공고, 중앙여실, 상록고
제10회 부산관악제(1988. 7.) 해양고, 동아고, 경성대, 부산기계공고, 동의공고, 상록고, 동주여상
제11회 부산관악제(1989. 7.) 동주여상, 부산기계공고, 동의공고, 광성공고, 계성여상, 상록고

고교 관악단의 활약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말에는 고교 관악단이 9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 이른다.[9] 대학입시에 밀려 인문계고교 관악단은 대부분 해체 위기에 처한 데다 실업계 고교 관악단마저 존립을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제28회 부산관악제(2009. 10.)에는 부산기계공고, 대양전자정보고, 동주여고, 동의공고, 동명정보고, 예원정보여고, 제29회 부산관악제(2010. 7.)에는 백양고, 대양전자정보고, 동의공고, 예원여고, 부산기계공고, 동명정보고가 참여했다. 실업계고교를 중심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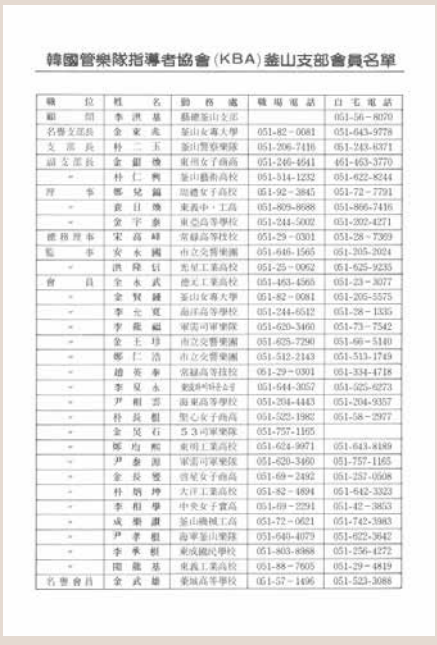
이게 활성화하려면 행진도 하고 요즘은 행진하면 도로가 막혀 못 합니다. 한국 부모와 일본 부모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일본 오사카 정화여고, 세

이카 여고. 마칭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에 하거든. 부산도 몇 번 왔는데. 햇빛에 얼굴과 손이 새까맣게 탑니다. 관중들이 애들이 새카맣게 분장을 했구나 합니다. 근데 한국에 마칭을 한다 하면? 부모들이 다른 애는 해도 니는 하지 마라. 얼굴 탄다. 반대로 일본의 부모들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니는 다른 애들보다 열심히 해라. 그러니 서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국은 안 합니다…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482)

2000년대 이후 부산지역 고교 관악단 활동은 빛을 잃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 아니겠는가. 전국적으로 사정은 같다. 그런데도 입시 위주의 교육과 치열한 경쟁 시스템이 지덕체를 배양하고 전인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의 고교 밴드부 활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뭇 비교가 된다.



제11회 부산관악제(1989.7.14) 팸플릿 표지
©배일환


韓國管樂隊指導者協會(KBA)釜山支部會員名單

職位	姓名	勤務處	職場電話	自宅電話
顧問	李洪基	慶熙釜山支部		051-56-8070
名譽支部長	金東元	釜山女專大學	051-82-0081	051-643-9778
支部長	朴二玉	釜山警察樂隊	051-206-7416	051-243-4371
副支部長	金銀煥	東州女子商高	051-246-4541	461-463-3770
〃	朴仁興	釜山藝術高校	051-514-1232	051-622-8244
理事	鄭兌鎬	加禮女子高校	051-92-3845	051-72-7791
〃	裵日煥	東義中·工高	051-809-8688	051-866-7416
〃	金宇泰	東亞高等學校	051-244-5002	051-202-4271
總務理事	宋高峰	常綠高等技校	051-29-0301	051-28-7369
監事	安水國	市立交響樂團	051-646-1565	051-205-2024
〃	洪陸鈺	光星工業高校	051-25-0092	051-625-9235
會員	金永武	德天工業高校	051-463-4565	051-23-3077
〃	金賢鍾	釜山女專大學	051-82-0081	051-205-5575
〃	李允寬	海洋高等學校	051-244-6512	051-28-1355
〃	李龍福	軍需司軍樂隊	051-620-3460	051-73-7542
〃	金王珍	市立交響樂團	051-625-7250	051-66-5140
〃	鄭仁浩	市立交響樂團	051-512-2143	051-513-1749
〃	趙英奉	常綠高等技校	051-29-0301	051-334-4718
〃	李見永	載誠吹奏樂社	051-644-3057	051-525-6273
〃	尹相雲	海東高等學校	051-204-4443	051-204-9357
〃	朴長根	聖心女子商高	051-522-1982	051-58-2977
〃	金見石	5·3司軍樂隊	051-757-1165	
〃	鄭均鎬	東明工業高校	051-624-9971	051-643-8189
〃	尹泰淵	軍需司軍樂隊	051-620-3460	051-757-1165
〃	金長望	雲星女子商高	051-69-2492	051-257-0508
〃	朴鳴坤	大洋工業高校	051-82-4894	051-642-3323
〃	李相學	中央女子實高	051-69-2291	051-42-3853
〃	成樂謙	釜山機械工高	051-72-0621	051-742-3983
〃	尹孝根	海軍釜山軍隊	051-640-4079	051-622-3642
〃	李承根	載成國民學校	051-803-8988	051-256-4272
〃	閔龍基	東義工業高校	051-88-7605	051-29-4819
名譽會員	金武雄	釜城高等學校	051-57-1496	051-523-3088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 부산지부 회원 명부(1989년)
©배일환

배일환과 함께 부산지역 고교 관악단 활성화를 주도한 이로 홍융신, 김현종, 김우태 등을 들 수 있다. 해군군악대 출신 홍융신은 배일환의 고교 선배로 네댓 살 연상이다. 그는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였으며 몇 해 전 작고했다. 김현종은 성도고등학교, 김우태는 동아고등학교에서 각각 교편을 잡았다. 배일환과는 각각 3살 연상, 4살 연하로 비슷한 연령대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고일봉(동명공고, 부산항만물류고), 송고봉(대광고), 김은환(동주여상), 윤상운(해동고), 하귀천(예원여고), 하수은(경남상고), 박운규(선화여상), 전영무(덕원공고), 김용조(부산기계공고), 김대명(소년원 밴드부), 박인흥(광성고, 중앙여실) 등을 들 수 있다.[10] 이들은 대개 관악 전공자이며, 부산지역 관악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관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경남공고 관악단을 이끌던 작곡가 김종태도 기록할만하다. 뒷날 장학사가 된 그는 배일환과 함께 부산교사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배일환은 이 단체에서 6년간 지휘자로 활동했다.

일본 마칭밴드 연수와 국내 마칭밴드 강습 활동

배일환은 1980년대 초반 마칭밴드 연수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이라 교육부와 경찰청 승인을 받고 외무부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안기부 교육을 받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다.

> 마칭밴드라는 거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움직이고 포메이션을 만들고 하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중략) 내가 배우기 전까지 한국에도 있긴 했어. 적당히 그냥 뭐. 방식을 모르니까 그냥 막 모양을 만들고 했는데. 내가 일본 마칭밴드 지도자협회 강습을 받았거든. 거기서 발급하는 자격증 3급을 받았어요. 그 뒤에 2급 전문지도자 코스 자격증을 받았지요. (454~455)

일본 마칭밴드지도자협회에서는 매년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강습회를 개최한다. 매회 300~5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연수는 하루 9시간씩 5일간 받는다.

교육 강도는 높은 편이며,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이 엄격한 규율 아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 정시 시작, 정시 종료, 야간 교육. 아직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 합니다. 거기서 내가 뭔가 철학이 확 바뀌었어요. 사회적, 교육적 철학이, 음악적 철학이. 일본이 한 30년 앞서 있거든요. 쇼크를 받았지요. (455)

참가자들의 열의 또한 대단했다. 야간강습까지 빼곡한 일정 후에 주어지는 짧은 자유시간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 야간강습을 마치고 숙소에서 피로도 풀 겸 술 한잔하잖아요? 술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밖을 잠깐 보니, 사람들이 전부 복도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라. 마칭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밤이 되니까 창문 유리, 현관문 유리 등에 비치는 자세를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잘 때 자니까. 그 충격으로 우리가 술 마셔서 되겠나. 먹지 말자. 일본사람보다는 잘해야 안 되겠나 열심히 하자 했지요. (457)

배일환은 바지에 다리가 긁혀 피가 나고, 딱지가 앉을 만큼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강습을 마치면 심사가 진행된다.

> 필기시험도 보고 자세, 동작, 콘티, 포메이션 등 심사를 받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정확한 보폭과 정확한 회전 각도 등 쉽게 말하면 로봇이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동작을 해야 합니다. 가는 코스가 있어요. 돌고 또 가고 돌아서 오고, 돌면서 박자 맞추고 하지. 이게 딱 컴퓨터 기계처럼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일본 해상자위대 중사, 우리처럼 해군군악대 중사야. 그 사람은 3번 떨어졌대. 그런데 잘해요. 그때 나는 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떨어진 거야. 엄격히 한 거예요. 이 얘기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과 임원들이 한국 사람 더 못하는데 왜 합격을 시켜주나

하니,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한국 사람은 저 정도만 해도 합격시켜줘야 해, 저 사람이 한국 가서 가르치면 저 수준 이상 안 올라간다. 그래야 마칭은 항상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이랬다 하더라고. 무섭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문화침략을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한국 와서 강습할 때 철저히 했어요. 마칭을 하는 대원들의 자세와 동작이 통일이 되고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거든. (457~458)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달음이 많은 경험이었다. 그는 총 3번 연수에 참여하여 1981년 2급 전문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드럼메이즈(Drum Major, 악단 지휘자), 깃발(Color Guards, National Flag의 호위자들), 프랙(Flag, 삼각 깃발) 등을 모두 다루었다. 이 무렵 해외여행 시 환전 액수를 여권 뒤에 기록해야 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강습비 등으로 170만원을 사용했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00~800만 원에 달한다. 배일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칭밴드 강습회를 진행했다.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마칭을 내가 알고 있으면 170만 원 외화를 쓴 거고, 10명을 가르치면 17만 원을, 100명을 가르치면 17,000원을 … 1년에 두 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부산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대구, 서울, 광주, 전주 등등 막 돌아다니면서 약 20년간 했습니다. (456)

일본 연수 때 들은 심사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을 잊지 않고 군대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교육했다.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모두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일본에서 구해 온 관악 악보도 널리 공유했다. 도쿄 야마하 악기점 지하는 악보 서점이다. 그 넓은 공간에 한국에서는 귀한 악보들이 즐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악보를 들여다보곤 했다.

한국은 악보 하나 구하려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화를 다 합니다. 그걸 받으면 손으로 다 적는 겁니다. 틀린 게 많거든. 다른 음악이 나와.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악보는 자산이다 하고 안 줘. 그래서 일본에서 악보를 좀 구매해왔습

니다. 저는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에서 구한 악보 무조건 다 나누어 줬습니다. 내 개인의 자산 아니다. 같이 공유하자고 했습니다. (455)

일본 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성과는 무가지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정보였다. 주로 실제 연주에 필요한 노하우들이었다. 여기에서 얻은 손가락 단련법을 피아노 전공자에게 알려주니 음색이 또렷해졌다. 부산대 제갈삼 교수조차 깜짝 놀랄 만큼 매우 실용적인 팁이었다. 일본 잡지 『밴드 저널』 원포인트 레슨 코너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온가쿠노 토모사(音楽の友社)에서 발간하는 잡지다. 목관악기부터 타악기까지 다양한 주법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일본 관악계 소식을 꼼꼼하게 수록한 정기간행물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11] 그는 『밴드 저널』을 20년간 구독했다. 남포동에 문기서점에서 연간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할 수 있었다. 일본 마칭밴드 연수 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배일환의 음악인생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관악 교수법 개발과 동의공고 관악단 지도

고교 관악단 운영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중 악기의 공급을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학교가 관악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다양했다. 포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의 권유로 전교생이 플루트를 연주하여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관악단이 학교의 명성을 높인 사례이다.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났지만 이내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바람에 관악단 운영이 어려워졌다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서울에서는 관악단 활동을 전략화함으로써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도 했다.

밴드부로 명성이 뛰어난 서울의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여학교인데 밴드부가 있어. 학교가 어떠냐 하면 학교에서 관악단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니까 좋은 악기도 많고 좋은 학생들도 모이고 레코딩 튜바[소리를 더 쉽게 녹음하기 위해 벨이 정면을 향하도록 개조한 튜바]가 2대. 기가 막히는 거라. 이 밴드부가 숙명여대,

이화여대. 여학생이니까. 남자애들이 없으니까 숙대, 이대 음대 관악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 은광여고가 일류학교로 변해버렸어. 은광여고 참 잘했습니다. (482)

고교 관악단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관악단 지도자의 사명감이 필수적이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관악에 대한 열정 없이 지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배일환은 부산진구 양정동에 소재한 동의공업고등학교 관악단을 지도했다. 관악기는 서양에 비해 체격이 작은 동양인이 연주하기에 불리한 악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악기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법도 제각각이다. 현악기와 달리 소리를 내는 구조가 각기 다르며 소리가 나오는 타이밍도 서로 다르다. 가령 목관악기는 리드(Reed)의 형태가 악기마다 서로 다르며, 금관악기는 주자의 치아와 입술의 모양과 상태에 따라 주법을 달리해야 한다. 교칙본을 살펴보아도 정답이란 없다. 인터넷 검색도 없던 시기이니 정확한 주법을 배우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악기의 특징 뿐만 아니라 학생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고려해 지도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옳은지

동의공고 관악단 연주회 ©배일환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가르치면 음악을 망치게 된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교칙본을 학습하거나 우수한 연주자로부터 배웠으며, 악기 구조를 연구했다. 여기에 경험을 통한 노하우까지 꾸준히 축적함으로써 자신만의 교수법을 개발하고 확립해 나갔다. 그럼으로써 악기마다 좋은 소리를 내는 요령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고 개인 연습을 통해 테크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를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었다.

배일환은 특히 기초훈련에 집중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한 학기 정도 지난 시점부터 행진곡을 연주했다면 동의공고는 2학년 때까지 롱톤(Long-tone 연습, 한 음을 지속적으로 길게 내는 연습)만 시켰다. 초반에는 지루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는 듯 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가속이 붙는 시스템이다. 2학년이 지나면서부터 괄목할 만큼 빠르게,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어(Ear) 트레이닝, 즉 음정 맞추기 훈련도 강화했다. 이론만으로는 결코 익힐 수 없는 영역이면서 합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친 덕분인지 경북도향, 대구시향, 울산시향, 창원시향, 부산시향직업 연주단체에 입단한 제자들이 많다.

4 부산 지역 관악활동의 전통과 아카데미관악단

한국관악지도자협회(KBA) 부산지부와 부산관악제

부산지역 관악활동에서 박이옥(1937-2001)의 존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영도에서 태어난 그는 해동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61년부터 1983년까지 22년간 모교 악대부를 지도했다. 1942년 창설한 해동고 악대부는 1952년 전국음악콩쿠르 악대부 우승, 1954년 제5회 진주개천예술제 우승, 1955년 제2회 전국취주악경연대회 우승, 1956년 제3회 3·1절 기념 취주악콩쿠르 우승, 1965년 제17회 부산학생음악콩쿠르 우승 등 각종 경연대회를 석권했다. 고교 악대부의 수준을 능가할 만큼 큰 성과를 이

룬 셈이다. 1950년대 이 악대부를 지도한 작곡가 김동조는 '국가의 자랑거리'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박이옥은 동아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해서도 교내 취주악단 창립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해양경비대 악대, 육군본부 군악대 복무를 거쳐 관악인으로 자리잡았다. 군악대에서 관악기 주법을, 이상근 문하에서 작곡을 배웠다. 1974년 창립한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KBA) 부산지부 초대 사무국장(지부장 이홍기)에 취임하면서 취주악계 지도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74년 6월 30일 협회 창립기념회와 함께 개최한 제1회 부산관악제는 부산관악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박이옥은 1987년부터 6년간 지부장을 맡아 부산지역 관악 활성화를 주도하였으며 부산관악계의 실질적 지도자로 역할했다.[12)]

특히, 1977년 김동조와 부산교향취주악단을 창단하여 부산관악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단장 김동조와 함께 상임지휘자로 이름을 올린 박이옥은 7월 15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단연주회 팸플릿을 통해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을 느껴 이 악단을 창단했음을 천명하였다.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단체인데도 관현악단과 같은 섬세함을 갖추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한다는 취지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손양호(오보에), 김도기, 하종수, 남상재, 이승근, 박운규(클라리넷), 김동조(바순),[13)] 김영근, 이명호, 이갑석(더블베이스) 등이 결합했다. 197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동이 뜸해지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 단체는 1987년 부산관악단으로 재창단하였다. 이때 박종혁(지휘), 전이동(트롬본), 박찬엽(플루트), 이종태(트럼펫), 정인호(호른), 정우철(트롬본), 김장섭(호른) 등 관악 연주자들이 후원회원으로 결합했다.

마칭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1975년 제2회 밴드·오케스트라·코러스 학술대회와 1977년 제4회 전일본 마칭밴드대회에 참석한 박이옥은 1981년 일본 마칭밴드지도자협회 2급 자격증, 이듬해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1983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 마칭밴드지도자협회 공인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지문현과 함께 일본마칭밴드지도자협회(JMBDA) 특별회원 제1호에 위촉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관악계의 신망을 바탕으로 관악활동을 통한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했다. 마칭밴드와 관련한 이론과 실기, 국내외 협력 기반을 다진 그는 1990년 한국마칭밴드지도자협회(KMBDA) 창설하

여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때 배일환은 사무국장직을 맡았다. 이 단체는 '부산에 본부를 둔 전국 단체'로 지역이 음악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14] 당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남궁요열(한국관악협회장), 부회장 김동조(부산여전), 자문위원 김재봉(현풍중),
이사장 박이옥(부산경찰악대장), 부이사장 곽기동(조선대부속고), 사무국장 배일환(동의중),
감사 신창규(경상여고), 이봉성(영광종고)

그밖에도 1978년 한국해양대학 취주악단 지도자, 1979~1981년 부산 최초의 민간회사 기반 관악대인 명성취주악단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84년에는 부산경찰악대 창설을 주도하면서 해동고등학교를 떠나 부산경찰악대 대장으로 취임했다.[15] 그가 작곡한 <경찰기동대가>는 간결하면서도 취주악의 특성을 잘 드러낸 곡이라 한다. 그는 관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지도법을 총망라하여 『알기 쉬운 마아칭밴드 교본』(1991)을 비롯해 교본 6권을 남겼다. 저서의 머리말에 따르면, 그는 마칭음악, 마칭의상, 마칭악기의 한국화를 도모했다. 우리 가곡과 민요의 편곡을 비롯해 전통 의상과 악기를 마칭밴드에 접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이옥은 김동조와 더불어 부산지역 관악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음악교사이자 관악합주 지휘자, 마칭밴드 지도자였다. 관악기와 관악에 관한 해박한 지식 및 화성학과 관현악법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작곡과 편곡에도 능했다. 악보 및 자료 수집가로도 유명했으나 그가 보유했던 자료는 부산에서 갈무리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박이옥은 관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른 악기군과 달리 실내외 무대연주는 물론이고 야외 연주를 비롯하여 행진을 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있으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클래식음악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구현할 수 있어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관악합주의 특징과 강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열정적으로 관악운동을 전개한 부산음악인이라 하겠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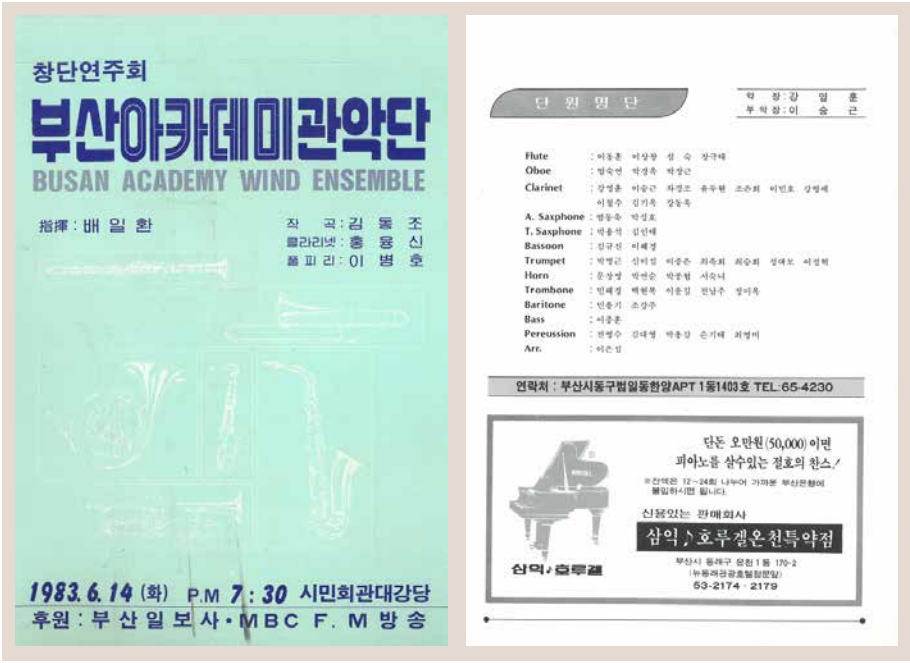
아카데미관악단 창단과 후속세대의 양성

아카데미관악단은 1983년 배일환이 창단한 관악단이다. 부산교향취주악단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관악 연주단체로 꼽힌다. 일본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뿐만 아니라 직장에 이르기까지 수만 개 관악단이 활동하는 데 비해 부산을 비롯한 한국에는 관악 연주단체가 빈약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했다. 연주자는 배일환의 제자들과 관악 애호가를 중심으로 꾸렸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실전 경험과 아울러 고도의 테크닉을 배우고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뮤직캠프를 수준 높게 구성했다. 간절곶에 있는 학교를 대여해 6개 교실에서 일주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훈련했다. 클라리넷 김형곤, 트럼펫 이강일, 트롬본 유전식, 김대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들을 초빙했다.

> 클라리넷 김형곤 씨, KBS교향악단. 독일서 공부했어요, 트럼펫 이강일 씨, 트롬본 유전식 씨. 한양대 학장 했지요. 세 명을 불러서 캠프를 했어요. (중략) 근데 애들이 울었어요. 김형곤 씨 같은 경우는 리드를 셀렉트(Select)를 쓰는데, 지[자신의] 입에 맞는 거 쓰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주는 거라. 애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감격하는 거라. 거기다 소리 좋제. 애들이 감격하는거라. (중략) 애로가 많았지. 돈도 없는데. 결혼반지도 팔고. 부산일보 기자가 배샘 아파트 파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 해 여름에 또 뮤직캠프를 했습니다. 그때는 플루트까지 했어요. 김형곤, 이강일, 유전식, 김대원 넷이서. 그리 했지요. (463)

캠프를 꾸리려면 숙박 및 숙식비, 교통비, 레슨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 두 차례 캠프를 치르는 데 아내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무리가 되더라도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후학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카데미관악단과 도야마켄[부산현(富山県)] 시민취주악단 친선교환연주회는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일본 관악 수준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만큼 실력을 다잡아야만 했다. 강도 높은 연습을 위해 경남 욕지도에서 7일간 합숙훈련을 치렀다. 1층은 넓은 홀이라



부산아카데미관악단 창단연주회 팸플릿 표지 ©배일환　　부산아카데미관악단 창단연주회 단원 명단 ©배일환

합주하기에 적합했고 2층에는 방이 여럿이라 파트 연습에 안성맞춤이었다. 몰입 훈련은 단원들을 훌쩍 성장시켰다. 7일간 3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욕지도에서 나는 고구마와 쌀을 활용하여 음식을 마련했다. 배일환의 아내가 조리를 도맡고 단원들이 도와가며 해결했다. 욕지면과 주민, 해군부대에서도 호의를 베풀어주었다. 고마움을 담아 공회당에서 욕지면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갈채를 받았다. 친선교환연주회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합숙훈련을 통해 세련되게 단련한 앙상블을 선보였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배일환은 이 일을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감동적인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카데미관악단은 1983년 6월 14일 창단연주회 이후 1989년까지 정기연주회를 이어갔다. 배일환은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으며, 1984년 제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배소암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1985년 열린 제5회 정기연주회는 아카데미 시민관악단으로 꾸렸다. 일본과 아카데미관악단은 부산관악제에도 꾸준히 참가했다.

5 관악인의 자부심과 한국관악협회장

관악기란 나무나 금속 재질의 관에 공기를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은 목관악기이다. 플루트보다 음역대가 높은 피콜로, 오보에 족이면서 더 화려한 소리를 내는 잉글리시 혼, 바순보다 낮은 음역의 콘트라 바순 등 다양하다. 금관악기는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가 대표적이다. 목관악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족이라도 음역대에 따라 악기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음색과 음역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관악합주다. 화려한 음색과 웅장함, 목관과 금관을 아우르는 악기의 다양성은 관악합주 특유의 매력이다.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악파트는 다수의 연주자가 대개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 비해 관악기 주자들은 소수이면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야 한다. 주요 선율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관악기의 몫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관악기 연주자 수준은 그 교향악단의 수준을 상징한다. 관악파트 수석 주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여러 교향악단에서 관악파트 수석 주자로 외국인 연주자를 기용하는 경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악의 역사는 1800년대 말 곡호대와 1900년 결성한 대한제국 군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하면서 축소되었다가 망국의 회한 속에 1910년 이왕직악대로 격하된다. 이마저도 1916년 해산하자 연주자들은 생계를 위해 무성영화 반주자나 학교 악대 지도자로 뿔뿔이 흩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창군과 더불어 군악대 창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군악대와 군악학교 연주대는 해방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전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피란수도 부산은 여러 군악대와 육군군악학교의 본거지로 관악의 세례를 듬뿍 받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17]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결성한 관악단체는 1946년 10월 창단한 전국취주악연맹이다. 미군부대와 일제 적산으로 불하된 악기로 학교 악대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조직되었으며, 미군정 문교부 지원으로 한국관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961년 학교악대지도자협회를 거쳐[18] 1973년 전국관악지도자협회가 창설되었다. 창설 이후 10년 만에 도 단위마다 1개 지부가 설치될 만큼 관악 저변 인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오늘날

한국관악협회 정기총회 ©배일환

아시아태평양관악협회 총회 ©배일환

한국관악협회(Korea Brassband Association)의 전신이며, 한국음악발전 도모, 전문관악인 양성, 국제적 음악문화 교류를 통한 관악인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도모한다. 2023년 현재 서울(2개), 광역시(6개), 특별자치시(2개), 도(6개), 해외(1개)로 총 17개 지회와 시에 7개의 지부로 나누어 국내외사업본부를 두고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대한민국관악제, 대한민국 관악상, 대한민국 관악독주경연대회, 대한민국 창작관악콘테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 『윈드&브라스(WIND & BRASS)』를 창간하기도 했다. 역대 회장은 1대 이재옥, 2대 이교숙, 3대 남궁요열, 4대 박종완, 5대 김완기, 6대 김대식, 7대 이은옥, 8대 노덕일(1999~2013), 9대 배일환(2014~2018), 10대 박병학(2019~2023년 현재)이 맡았다.[19]

부산관악인이 한국관악협회 회장직을 맡은 일은 배일환이 처음이다. 투표로 뽑는 선출직이며, 임기는 3년에 2년 연임이 가능하다. 부산관악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배일환은 재임 기간 몇몇 변화를 지향했다. 그중 평가의 구조와 체계의 변화를 도모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다.

> 잘한 거는 심사위원들. 한국 사람들 다 알거든. 군대, 대학, 같은 지방 등. 다 알음알음 알게 돼 있거든. 내가 외국인들을 심사를 썼어.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한국 하나 있고. 이래 넣었어요. 6명을 외국 사람 넣었어요. 내가 회장할 때 심사 채첨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대충 듣고 으음 90점이네. 이게 아니고. (중략) 다 싫어하더라고. 음정, 음색, 표현, 리듬, 앙상블, 사운드 바란스. 지휘. 이 지휘가 음악을 좌우하는데. 요런 종목을 정해서, 섹션을 정해서, 여기 만점은 얼마다 얼마다 딱 정했는거라. 합계, 예를 들면 200점. 비중 있는 게 음정하고 음색, 요거는 비중을 더 주고. 특별히 점수가 나쁜 거는 뒤에다가, 타악기 템포가 불안했다, 트럼펫이 실수했다, 클라리넷 소리는 안들리고 북소리만 들렸다. 이런걸 적으라는거라. 심사도 발전해야 되거든. (490)

첫째, 심사위원 인적 구성의 변화를 꾀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있을 수 있는 결합

구조를 타파하고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셈이다. 둘째, 채점 항목을 구체화했다. 셋째, 음정이나 음색처럼 음악의 질과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가중치를 주도록 하였다. 넷째, 감점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두루뭉술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셈이다. 기록을 철저하게 남긴 일도 마찬가지다.

> 기록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관악협회가 40년, 50년 돼도 기록이 없어요. 나는 콩쿠르 하면 심사위원 채점한 거 이런 메모도 다 남겨놨어요. 다음에 보면 공부도 되거든. 한국사람은 기록을 안 하거든요. 일본사람들이 우리 관악한 거 전부 다 목록하고, 리스트하고 분석까지 해놨더라. 무슨 곡 제일 많이 했고, 어느 학교가 제일 잘하고. 이런 거를 일본에서 해 놨더라니까. (489)

기록은 곧 역사이며 사료다. 지나온 일들을 말해주는 한편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소홀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기록이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기록문화를 되새길 만하다. 공연기록과 레퍼토리, 참여 학교와 참여자 명단, 평가까지 세심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다가 이루지 못했던 일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인이 내부에 있었다는 점이 더욱 아쉽다.

6 방하착(放下着), 음악인생을 돌아보며

현직에서 은퇴한 요즘 옛 벗들과 함께 연주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박종관, 박찬엽, 이구일, 강영훈, 홍동곤 등이 그들이다. 나이가 들어도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함없다. 음악이 개인의 삶은 물론 도시 및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고 여기는 신념도 마찬가지다. 은퇴한 관악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자 한다. 무슨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부울경 시민대회 및 실버 서포터즈 발대식 축하공연 지휘 ©배일환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되 치밀하게 준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편이다. 부산원로교향악단이나 부산교사오케스트라 활동이 그 예다.

2023년 3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부울경시민대회 및 실버서포터즈 발대식 축하공연에서 부산시민관악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는 구 단위에도 관악단이 있는데 부산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늘 안타깝다.

음악 안 했으면 경찰이나 군인했을 거예요. 돌격 아니면 후퇴 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경찰 했으면 아주 강성 경찰이 됐을 거야. 원리 원칙대로만. (중략) 음악을 했으니까 역지사지도 알고 하지. 학교 근무할 때 좌우명이 인과응보, 사필귀정, 역지사지. 맨 마지막에 방하착(放下着). 집착의 반대말. 내려놔라. 방하착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집착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나 가능하면 방하착이 낫지. 비우

부산시니어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연주 ©배일환

고 살아라. (493)

타고난 곧고 강직한 성품에 유연함과 역지사지의 덕성을 더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었을 것이다. 뿌린 만큼 거두고, 행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적은 노력에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교육자로, 관악단과 마칭밴드 지도자로, 그리고 관악활동가 및 관악 리더로서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에 비로소 방하착에 이를 수 있었으리라. 그 중심에는 늘 음악이 있었다. 배일환의 삶은 음악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교육현장과 문화판에서 오롯이 실천한 것이라 하겠다.

내가 요만큼 알면 접한 면이 적지요. 내가 이만~큼 알면 접한 면이 넓어. 많이 알면 접하는 면이 많아서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접한 면이 적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라. 내가 스스로 체득한 거야. (494)

배일환은 조그만 점 하나와 둥근 원을 그려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모를수록 오만해지고 많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뜻이다. 멋진 비유였다. 부산관악사의 한 자락을 옹골차게 일군 한 음악인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음악적 삶이 여전히 기대되는 까닭이다.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2) 부산시민회관은 1970년 9월 30일 착공하여 1973년 8월 준공하였다.

3) 교향악단 단원은 악기별로 수석단원(principal player), 부수석단원(vice-principal player), 평단원(tutti player)으로 위계회되어 있다.

4) 남영희·이순욱,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97, 2021, 211~247쪽.

5) 전문 연주단체에서 팀파니는 4개가 1조다.

6) 당시 중학교는 현재 고등학교이다(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79~146쪽).

7) 이때 지도교사는 변종택이다(「전국 취주악 경연대회서 부중 당당 우승」, 『부산일보』, 1949.08.20, 2면).

8) 1938년 동래공립농업전수학교로 설립하여 1942년 3년제 동래공립원예전수학교로 승격한 학교다. 1949년 6년제 동래공립원예중학교, 1950년 부산원예고등학교, 1970년 부산실업고등학교, 1974년 동래공업고등학교의 변전을 거쳐 1978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되었다.

9) 백현충, 「부산 유일의 '관악 축제'」, 『부산일보』, 2009.10.29, 32면.

10) 공립학교인 전자공고, 경남공고, 기계공고에는 교사들이 순환했다.

11) 뒷날 그가 한국관악협회장으로 일할 때 번역 발간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저작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다.

12) 배일환도 함께했다. 1989년 회장단과 부산지부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홍기(한국예총부산지부), 명예지부장 김동조(부산여전), 부지부장 김은환(동주여상), 박인흥(부산예고), 이사 정태호(주례여고), 배일환(동의공고), 김우태(동아고), 총무이사 송고봉(상록기술고), 감사 안영국(부산시향), 홍융신(광성공고), 회원 전영무(덕원공고), 김현종(부산여전), 이윤관(해양고), 이용복(군수사 군악대), 김왕진(부산시향), 정인호(부산시향), 조영봉(상록기술고), 이하영(동성하이타운쇼핑), 윤상운(해동고), 박장근(성심여상), 김경석(53사 군악대), 정균희(동명공고), 윤태원(해수사 군악대), 김장섭(계성여상), 박병곤(대양공고), 이상학(중앙여실), 성낙찬(부산기계공고), 윤효근(해군부산악대), 이승근(동성초등학교), 민용기(동의공고), 명예회원 김무웅(동래고).

13)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순 주자로, 단장이자 작곡가 김동조와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14) 김원명, 「박이옥의 음악세계와 부산 음악문화에 끼친 그의 영향」, 『음악과 민족』 23, 2002, 129쪽.

15) 「시경 악대조직, 대장엔 박이옥씨」, 『부산일보』, 1984.07.31, 10면.

16) 박이옥의 삶과 음악활동에 관해서는 김원명의 앞의 논문을 바탕으로 공연 팸플릿,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17) 남영희·이순욱, 「한국전쟁기 군악대와 정훈음악」, 『로컬리티 인문학』 28, 2022, 151~182쪽, 남영희, 「한국전쟁기 부산의 정훈음악」, 『한국민족문화』 83, 2022, 123~160쪽.

18) 1961년 조사한 학교별 악대 편성 현황에는부산지역 악대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음악총람 상권』, (사)한국음악협회, 1991, 362~384쪽.

19) 한국관악협회 홈페이지 http://www.ikbaband.com

참고문헌

[단행본]

민경찬, 『숭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7.

부산교육대학교60년사발간위원회,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교육대학교, 2006.

새문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100년사 1887-1987)』,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이유선, 『증보판 한국양악백년사』, 음악춘추사, 1985.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제, 1974.

정원상, 『정원상의 음악인생: 그때 그 노래소리가』, 비움, 2009.

제갈삼,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세종출판사, 2006.

최삼화, 『부산관현악단의 발자취』, 샘뮤직, 2017.

최창언, 『대한제국의 양악 도입과 그 발자취』, 한국학술정보(주), 2020.

(사)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총람 상권』, 1991.

[논문]

김원명, 「박이옥의 음악세계와 부산 음악문화에 끼친 그의 영향」, 『음악과 민족』 23, 2002, 115~136쪽.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낭만음악』 9, 1990, 7~56쪽.

남영희, 「한국전쟁기 부산의 정훈음악」, 『한국민족문화』 83, 2022, 123~160쪽.

남영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 『한국문학논총』 91, 2022, 5~46쪽.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남영희·이순욱, 「한국전쟁기 군악대와 정훈음악」, 『로컬리티 인문학』 28, 2022, 151~182쪽.

남영희·이순욱,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97, 2021, 211~247쪽.

[신문기사, 보고서 등 기타자료]

백현충, 「부산 유일의 '관악 축제'」, 『부산일보』, 2009.10.29, 32면.

「시경 악대조직, 대장엔 박이옥씨」, 『부산일보』, 1984.07.31, 10면.

「전국 취주악 경연대회서 부중 당당 우승」, 『부산일보』, 1949.08.20, 2면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동의관악제 팸플릿』, 무궁화관, 1982.09.11.

『부산관악제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89.07.14.
『부산관악제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2004.10.21.
『부산관악제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2014.06.10.
『부산관악축제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17.10.16.
『부산시민관악단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85.05.20.
『부산아카데미관악단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83.06.14.
『부산아카데미관악단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84.07.11.
『아카데미관악단 팸플릿』, 부산산업대학교 콘서트홀, 1984.12.26.
『아카데미관악단 팸플릿』,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1989.10.06.
한국관악협회 홈페이지(http://www.ikbaband.com/)

팀파니스트 전영수@전영수

제12장

박카스클럽에서 카네기홀까지

팀파니스트 **전영수**

부산의 팀파니스트 전영수는 우범지대라 불리던
'부산 조방 앞'에서 태어나 자랐다.
드럼을 치며 남포동 고고클럽을 누비던 그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팀파니스트가 되어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
카네기홀에 섰다. 30년간 부산시향이라는 부산의 소리에 힘을 실었고
수많은 후속세대를 길러냈다. 민간 오케스트라 유코를 창단하여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1 조방 앞에서의 성장과 음악

피란민 어머니 김준한과 조방 앞

전영수의 어머니 김준한의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이다. 1921년생이다. 한국전쟁 중 피란하여 부산 동구에 자리를 잡았다. 연고가 전혀 없던 김준한은 이저런 장사를 시작했다. 하루는 성남국민학교(현, 성남초등학교)에서 미군군악대 연주를 듣게 되었다. 부근에 미군 55보급창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군악대의 멋진 제복과 다채로운 관악기 소리에 매료되었다. 피란살이의 고단함마저 잊은 채 구경했다. 아들을 낳으면 음악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 입학식 ©전영수

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날에도 이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으니 김준한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라 하겠다.

전영수가 태어난 곳은 조방 앞이다. 부산에서는 우범지역으로 꼽혔던 곳이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파고를 넘다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 5평, 7평 쪽방살이에 내몰린 사람들이 거칠게 살아내야 하는 삶의 전장이 아니었을까.

조방 앞이라는 동네가 구조적으로 험한 동네거든요. 조선방직 앞이라는 말인데, 6·25 끝나고 부산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었다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국제고무, 신발공장, 삼화고무, 연탄회사, 부산진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시장만 해도 몇 개고. 데레사여고 가는 철길 옆에 마차골목이라는 사창가, 삼일극장, 삼성극장, 보림극장. 청소년들이 타락하기 딱 좋은 거는 거기 다 있다고. 모조리. 매축지라고 불렀는데 조방 앞 부두 쪽. 철거민, 피란민들, 5평, 7평 쪽방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조건 남의 것 뺏들고, 안 뺏길라는 그룹이 생기고. (552)[1]

공장과 터미널, 시장과 사창가, 극장이 즐비한 조방 앞 풍경은 전영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오가는 길목에서 불량한 형들을 만나 돈을 빼앗기기 일쑤인 데다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어린 전영수는 맞거나 당하기 싫어서 중학교에 진학하면 운동부에 가입해야겠다 결심했다. 당시 동아중학교는 수정동에 위치했다. 지금의 부산일보사 자리다. 이 학교에는 유도부가 있었다. 전영수가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육체에 힘살이 조금씩 붙자 괜히 젠체하며 거칠어졌다. 게다가 한창 무리를 지어 다닐 무렵 아닌가. 운동부 친구들과 어울려 내내 바깥으로 나다니며 사고를 치는 일도 더러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 무렵 아들에게 기타를 안겨준 이는 어머니다. 전영수는 처음으로 기타를 들었던 열네 살의 크리스마스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한 거는 열네 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한테는 이

상하게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열네 살에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운동을 하고, 음악은 안 했는데. 열네 살 나는 그해,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날, 우리 어머니가 통기타 하나를 사주셨어요. 내가 하도 밖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때 한참 통기타 붐이 일어날 때지. 청바지, 통기타 세대들이 한참 붐을 일으킬 때인데. 내 기억이 생생해. 기타 제목이 베토벤이야. 그때 당시 돈으로 1,500원인가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타를 사주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래 음정 맞춰가지고 뚱뚱~ 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 (506)

전영수는 금세 악기에 매료되었다. 주법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갔다. 친구들과 밤늦도록 놀다 들어온 날에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돌아보면, 조방앞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이는 드문 편이다. 이저런 이유로 단명한 친구도 적지 않다. 전영수는 음악하는 벗들과 어울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조방 앞을 떠나면서 삶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은 것 같다고 회고한다. 기타는 음악가라는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였다.

깊은 모정,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건넌 힘

철이 덜 들었던 게다. 고교시절 전영수는 어머니 속을 무던히도 썩였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탈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머리가 굵어지자 사고를 치는 일도 차원이 달라졌다. 위태롭고 위험한 시기였다.

중학교를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내가 학교를 들어간 게, 경남공고를 나왔거든요. (중략) 그때 경남공고는 박정희시대 뭐 화학공업 육성이라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았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어영부영 다니다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 폭력 선생을 만났어. 허구헌~날 두드려 맞는 거라. 지각한다고 맞고, 도망간다고 맞고, 공부 못한다고 맞고. 이렇게 학교생활해서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학교를 그

부모님과 함께 동아중학교 입학식 ©전영수

만뒀어요. (506)

학교를 그만둔 17살 전영수는 동대문시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짐을 날랐다. 기술도 경력도 없이 지방에서 올라온 촌뜨기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달리 무엇이 있었을까. 몸은 고단한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큰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전영수가 흥미를 가질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다. 3월부터 꼬박 6개월 짐꾼으로 일한 영수는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다.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부산에 돌아온 그는 하릴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월을 보내다가 고교 2학년에 복학한다. 자퇴한 전영수가 복학을 하다니. 그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깊은 모정과 지혜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자퇴를 휴학으로 처리해 두었다.

친구들과 경남공고 교정에서 ©전영수

경남공고 축제에서 밴드 연주 ©전영수

자퇴하겠다 마음먹은 그 순간에는 아들의 뜻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복학은 했어도 여전히 학교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다. 동기들은 3학년이 된 시기 전영수는 여전히 2학년이었기 때문이다. 하급생 취급을 견디기 어려워 갈등과 마찰이 자주 빚어졌다. 여름방학이 되자 다시 서울행을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요량이었다. 아는 형 김영기의 영향이 컸다. 김영기는 그룹사운드에서 드럼을 치던 인물이다. 전영수가 친형처럼 따랐던 태원 형과 친구이기도 해 믿을만했다. 태원은 울산에서 주먹깨나 쓰다 부산에 정착한 참이었다. 김영기는 함께 서울로 가 그룹사운드 보조 일을 권했다. 1년이면 드럼을 잘 칠 수 있게 된단다. 무엇보다 예쁜 여자들과 재밌게 놀 수 있다는 말은 더없이 솔깃했다.

집을 나오면서 돈이 될 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챙겼다. 장물아비에게 팔았더니 17만원을 주었다. 전영수는 이 돈을 영기 형과 흥청망청 써버렸다. 신나게 돈을 쓰다 보니 금세 돈이 바닥났다. 고속버스 차비만 겨우 마련해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청계천 5가에 있는 클럽 아마존에 도착했다. 낮에는 커피숍이다가 밤이 되면 술집으로 변한다. 이 무렵 대중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묘한 영업 형태다. 돈을 구해오겠다며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라던 김영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다.[2] 돈도 없고 아는 이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두려웠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 정확히 6일을 굶었다. 이저리 얻어먹으며 버티다가 부산으로 돌아왔다. 1974년 9월 2일이었다.

2 그룹사운드 결성과 나이트 진출

그룹사운드 결성과 나이트클럽 진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좋아서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한다. 전영수가 드럼 스틱을 단단히 붙잡게 된 계기는 김영기였다. 원수 같은 김영

기를 잡으려면 드러머가 되어 밤무대 밴드에 입단해야 한다.

> 집에 내려와서 내가 하루를 고민했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잡을까. 생각했더니 오냐, 니 드럼 쳤지, 나도 드럼 쳐서 고 바닥으로 들어가서 잡는다 이러고. 그날부로 드럼 학원에 수강신청을 했지. 한 달 수강료 3천 원. 현대음악학원이라고 고관입구 올라가는 데, 초량에 있었어. (508)

학원 상호는 기억나지 않는다. 전영수로서는 처음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곳이지만 요즘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겨우 대여섯 명 정도 앉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좁았다. 악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고무판 하나에 드럼이 하나 있는 정도였다. 전영수의 학원 생활은 유별났다. 오전 9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6~7시면 어김없이 학원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문을 열 때까지 계단에 앉아서 악기도 없이 비팅연습을 했다. 전영수의 드럼 연습은 학원 문이 닫히는 밤 10시까지 그칠 줄 몰랐다.

드럼연습에 빠져 지낸 지 10개월이 지났다. 그해 겨울 무렵, 두 사람이 전영수를 찾아왔다. 부산진고등학교 그룹사운드 출신이란다. 함께 그룹사운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전영수는 거절했다. 애초 그룹사운드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 그때는 캄보밴드가 있고 그룹사운드가 있었거든요. 캄보밴드는 뭔가 하면, 그때 부산에 나이트클럽이 많았거든요. 한참 그게 유행할 때였지. 다방 DJ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일반 고고클럽이 한… 11시 되면 다 문 닫는다고. 그러면 고고클럽에서 놀던 친구들 중에 돈이 좀 있는 애들은 또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야. 나이트클럽에 A팀은 캄보밴드예요. 그거는 나이 든 사람들 위주로 댄스음악, 춤추는 음악을 가볍게 하는데, 기술들이 좋지, 그 사람들은. 그럼 B팀은 그룹사운드야.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하는건데. 저는 목표 자체가 서울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갔던 형이 캄보밴드 출신이니까. 그 형을 잡을라면 캄보밴드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 그룹사운드는 관심이 없는 거야. (509)

전영수의 회고에 따르면, 이 무렵 부산의 밤무대에는 캄보밴드와 그룹사운드가

공존했다. 캄보밴드는 대체로 연주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로 구성한 밴드이며, 그룹사운드는 학생이나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밴드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다. 아직 대학 그룹사운드의 분화와 발달은 나타나기 이전이지만,[3] 고교마다 그룹사운드가 있었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인 연주 활동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에서도 그룹사운드의 존재감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캄보밴드와 그룹사운드 간 실력 차이는 컸다. 고고클럽이 젊은이들이 맥주와 기본적인 안주로 노는 곳이라면, 나이트클럽은 그래도 양주에 접대부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었다. 부산에서도 나이트클럽에 가면 상당한 실력을 갖춘 캄보밴드를 만날 수 있었다. 실력이 뛰어나다면 대개 서울에서 온 팀이었다. 이태원이나 미8군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미8군 쇼는 실력에 따라 A, B, C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이 떨어져 자존심이 상해 내려오는 경우,[4] 매니저와 마찰이 생긴 경우, 돈 문제에 얽힌 경우 등 다양한 사연 때문에 부산에 체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영기를 잡기 위해 드럼을 시작한 전영수로서는 그룹사운드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어 캄보밴드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또래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다.

> 근데 임마들이 내-(내내) 찾아오는 거야. 부산에 우리 나이 또래에서 드럼 니가 제일 잘 친다고 소문났더라 이러면서. 하자하자 해가지고. 귀찮아 죽겠는데, 내 귀가 좀 얇다고. 자-꾸 와서 하자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마 하자 이래 가지고. (…웃음…) (509)

또래 중 드럼을 가장 잘 친다는 달콤한 칭찬에 홀딱 넘어가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은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얇은 귀'라 하지만, 김영기의 꼬드김에 넘어갔던 그 대책 없는 순진무구함과 무엇이 다르랴. 전영수는 새롭게 결성한 밴드 활동에 전념한다. 한 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일에 몰두하는 성품이다. 밴드 이름은 필그림으로 정했다.

나이트클럽 그룹사운드 활동은 1975년 6월 무렵까지 계속했다. 처음 계약을 맺은 곳은 부산역 앞 뉴포트호텔이다. 이 바닥에서 성공하리라는 청운의 꿈으로 가슴이 잔뜩 부풀었던 때다. 호텔 지배인은 그 꿈에 금세 찬물을 끼얹었다. "어데 이런 싸구려

고고클럽 음악을 가지고 감히 나이트로 왔노? 음악 바까~"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시련이 컸다. 실전에 투입되기에는 아직 음악 수준이 형편없었던 셈이다. 그저 음반을 듣고 따라 연습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소위 무대포로 실전에 내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실전 무대는 전영수에게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했다. 이 클럽의 A팀은 송성진과 비쥬스였다.[5] 전영수는 이 팀이 연주할 때 드러머의 연주를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손과 발을 쓰는 방법이 눈을 사로잡았다. 때로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기다시피 무대에 오르는데도 무대 위에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드럼을 그처럼 잘 칠 수 있냐고 물었다. "연습해라, 임마." 단순한 진리다. 손과 몸에 성실하게 익힌 음악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지금도 전영수가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세월 기다려라. 연습하고."

뉴포트호텔에서는 정확히 2주 만에 쫓겨났다. 매니저는 계약금으로 받은 3개월치 임금과 함께 잠적했다. 남포동 미화당백화점 옆 박카스클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갈 곳이 없어진 그룹사운드 필그림은 허름한 숙소를 전전하다 초량 뒷골목 텍사스거리[6] 뉴욕바에서 일하게 되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유흥주점에서 한국인 밴드 활동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안 되는 일도 암암리에 가능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경험은 슬펐다. 몸집이 큰 흑인들이 춤을 추다 흥에 겨운 나머지 오르간 위에 올라앉는 바람에 악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얼마간 일을 하다가 밴드를 재정비하여 마산 낙원클럽으로 옮겨갔다. 비교적 오래 일을 했던 곳은 경주였다. 그 당시 클럽이 많던 곳이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은 여관에 거하던 다른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음반을 냈다고 자랑하며 잠을 깨웠다. 전영수는 그의 자랑에 별로 호응해주지 않았다. 솔직히 배가 아팠다고 한다. 장발의 기타리스트는 무명 시절의 함중아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친구들이 하나둘 입대하면서 밴드활동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그룹사운드 활동 재개

친구들의 입대로 밴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홀로 남은 전영수는 부산진시장에서 커튼 장사를 하던 선배를 따라녔다. 1970년대 말은 아파트 건축이 붐을 일으킨 시

기다. 커튼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한 달 평균 500만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었다. 주택복권 당첨금이 100만 원이던 시절이니 실로 굉장한 벌이였다. 시장이 휴무인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이면 밤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이태원과 신촌을 누비며 희귀한 음반이나 소위 빽판을 사들였다.

군대에 갔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대한 친구들은 다시 밴드를 하자며 전영수를 찾아왔다. 결국 커튼 장사를 그만두고 다시 송정으로 갔다. 이 무렵 그룹사운드 음악은 제법 나아졌다. 친구들이 군대에 다녀온 데다 연주력이 꽤 괜찮은 이들을 영입해 재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음악 수준이 사뭇 달랐다. 경주의 여러 클럽을 비롯해 진해 해군장교클럽, 마산 크리스탈호텔 등 여기저기 찾는 곳이 많았다. 그럼에도 밤무대 그룹사운드 음악은 한계가 많았다. 악기를 연주하는 기본 테크닉을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빨리 놀리는 연습이 거의 전부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것도 아니었다. 레코드판을 듣고 악보를 따는 식인데 그마저도 그저 연주에 필요한 일종의 표식에 불과한 정도였다.

사실 무슨 곡이든 일단 들으면 80~90% 정도 흐름이 정리되고, 두세 번 들으면 들고나는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영수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대충 모면하는 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그거도 한계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가령 패티김 쇼를 하고 이러면. 야, 이 양반이 약속대로 노래를 부르다가 판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면 한 바퀴 더 돌리고 이러면 내가 헷갈리는 거야. 약속대로 아닌데,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B팀 드럼 중에 보니까 MBC 관현악단 있다 뭐 이런 애들 있더라고. 그러면 드럼만 살짝 바꾸는 거지요. 야 내가 담배 한 보루 사줄게, 니 좀 쳐라. 앞에는 우리 멤버고 드럼만 바뀌는 거라. (중략) 그래가지고 마 어거지로 마 이래저래 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가 지금쯤 와가 돌아보면 아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지. 진짜 웃기는 이야기지. (513~514)

1977년 미진회관에서 ©전영수

1981년 늘노래 선교단 공연 ©전영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했던가. 순간순간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했다. 돌아보면 그 시절에나 가능했을, 실로 우스운 일이었다. 그 무렵 밤무대에서 악보를 제대로 읽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군악대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군악대와 군 교향악단은 오늘날 공공 교향악단의 모태가 되었을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군악대와 군악학교는 음악을 수학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기도 했다.[7]

그룹사운드 필그림은 부산과 경남지역 여러 도시의 밤무대를 전전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온전히 채운 적은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 그렇게 밤무대 쇼는 밤마다 계속되고, 그룹사운드의 요란한 사운드 역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절이었다. 전영수와 그룹사운드 친구들에게도 푸른 청춘의 나날들이었다.

3 선교단 활동과 대학 진학

밤무대에서 선교단으로

그룹사운드 활동이 웬만큼 궤도에 올라서던 즈음이었다. 하루는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친구를 다방에서 만났다. 교회에 다니던 그는 전영수에게 늘노래선교단 입단을 권유했다. 밤일을 하면서 매달 4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벌이가 절반도 되지 않는 선교단으로 선뜻 옮겨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운명이었을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동했다.

전영수는 기어이 밴드에 안녕을 고한 다음 월급 15만원을 받고 선교단 생활을 시작했다. 늘노래선교단이었다. 1976년 노문환을 중심으로 창단한 늘노래선교단은 그룹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크리스천 밴드였다.[8]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 1970년대 전 세계로 확산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색소폰과 기타, 드럼으로 구성한 그룹사운드로 팝, 록, 포크, 컨츄리 등 다양한 대중음악 스

늘노래 선교단 단원들과 함께 ©전영수

타일에 기독교정신과 신앙적 메시지를 담아 표현했다. 당시의 교회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형태였음에도 수많은 집회와 공연을 통해 확산되면서 교회음악이 새로워지는 계기를 만든 단체이기도 했다.

선교단활동은 녹록하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들이 보는 눈빛도 곱지 않았다. 밤무대 출신인 데다 인상마저 사납다는 것이다. 그뿐이랴.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고 고분고분 말을 듣는 법이 없다. 온갖 말썽의 근원, 전영수는 선교단에서 눈엣가시처럼 불편한 존재였다. 눈치조차 없었는지 한동안은 주변의 불편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서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때 그를 붙잡아 준 인물들이 있다. 지금은 목사가 된 노문환과 파라과이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고광삼은 마음을 다해 전영수의 흠을 덮어주고자 했다. 이들의 친절은 전영수가 선교단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대학 진학과 새로운 미래

늘노래선교단은 무궁화관에 기반을 두었다. 1976년 준공한 이사벨여자고등학교(현 이사벨고등학교) 대강당이다. 선교단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때였다. 친구 서영식[9]을 통해 이사벨여고 교사 강덕자를 알게 된다. 강덕자는 전영수에게 대학 진학을 권유한다. 한마디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학에 진학해 제대로 음악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이었다.

전영수는 음대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소문했다. 누군가 트롬본이 비교적 쉬우니 해보라며 권유했다. 마우스피스에서 나는 침 냄새가 너무 역했다. 도저히 참기 어려웠다. 노래를 잘하니 성악은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마침 그때 늘노래선교단 친구 강군모가 동의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다.[10]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는 1981년 신설한 학과다. 전영수는 동의대학교 강사 함도관을 소개받아 매달 레슨비 8만원을 내고 3개월간 지도를 받았다.[11] 독일, 이탈리아, 한국 가곡 1곡씩을 거의 외우다시피 준비했다. 슈만 <두 사람의 척탄병>, 헨델 <라르고>, 김민부 시·장일남 작곡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당시 부산대학교에서는 타악기, 그것도 팀파니 연주자를 선발한다는 공고를 냈다. 전영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입시 정보가 어두웠던 탓에 부산대학교에는 지원하지 못했다.

> 그래가지고 동의대 시험 쳤지요. 52명 뽑는데 53명 왔거든요. (…웃음…) 82학번 53명 왔어요. 난 그 한 명이 낸 줄(나인 줄) 알았어요. 시험 치고, 그때는 뭐 [합격자 명단을] 학교 가서 봐야 되잖아요. 학교 가가 보니까 합격했더라고. 너무 좋은데 내려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려니까 공중전화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내가 좋아가지고 이래 있다가 낮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갔더만 우리 엄마는 그냥 당연히 떨어지가 술 마시고 온다고. 한 번 더 치면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 대학교 붙었다고 합격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우리 엄마 한 3일 울더라. 그 대학생 됐다고. (518)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된 셈이다. 악기나 교강사가 제대로 갖추어진 시절은 아니

었으나 대학은 전영수에게 또 다른 세계이자 기회가 되었다. 대학생활 동안 전영수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전영수의 드럼 실력은 대학사회에도 입소문이 나 있었다. 여러 연주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아카데미관악단과 부산관현악단이 대표적이다. 아카데미관악단은 늦깎이로 입학한 동기 배일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12] 부산관현악단은 유호석의 주도로 1981년 창단한 부산의 민간교향악단이다. 부산관현악단에서 몇 차례 연주를 함께하던 어느 날, 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활동 하는 노일송 목사 있거든요. 그 친구 시립합창단도 하고, 내 대학교 동긴데, 임마가 내하고 술 마시다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 내보고 딴따라 같으니라고 욕하는 거야. "음악 하면 말이야. 시립교향악단을 가야 그기

어머니와 함께 동의대학교 졸업식 ©전영수

진짜 예술인이지. 니가 술집에서 드럼 치면서 딴따라잖아.” “개새키, 니, 내 시향 가면 어짤래?” “내 평생 형이라 부를께.” (524)

대학 졸업반이던 그때, 전영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음악 하면서 딴따라 소리 듣지 않으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하면 된다. 전영수는 선언했다. “내 인생에서 이제 클럽생활은 없다. 나는 시향 간다.” 1985년 3월 2일이었다.

4 부산시립교향악단 입단과 전문연주자로서의 활약

부산시립교향악단 연구단원 입단과 전문 팀파니스트로의 도약

결심을 굳힌 전영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하 ‘부산시향’) 입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루 18시간 이상 꼬박 연습했다. 이 과정에서 손을 돌리는 속도는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했다. 예전에는 사기꾼 김영기를 잡아야겠다는 일념이 동력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컸다. 전영수는 대학 4학년 때 결혼했다.

졸업반이 될 때까지도 학과에 아직 악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고무판 하나만 죽어라 칠 수밖에 없었다. 시향의 오디션 곡은 자유곡이었다. 팀파니, 스네어 드럼, 실로폰 곡을 각각 한 곡씩 쳐야 했다. 동의대에 출강하던 김인수 선생을 통해 오디션 기회를 요청했다. 특별오디션이었다. 오디션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2월 박종혁 지휘자가 전영수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지휘자 박종혁과 악장 오충근을 중심으로 수석 단원 10여 명이 심사했다. 전영수를 뽑자는 사람은 지휘자를 제외하면 한 사람도 없었다. 인상이 험악하다, 교향악단에 들어오면 분명 사고를 칠 것이다, 저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클래식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유가 다양했다. 지휘자만큼은 달랐다. 미국에서도 저 정도 테크닉을 갖춘 연주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휘자와 심사위원들 간에 옥신각신 격한 설전이

오갔다고 한다. 저녁 6시가 훌쩍 넘어 사방이 어둑한 무렵 부산시향 악보계(Librarian) 박병곤의 귀띔을 받았다. 나이트클럽에서 트럼펫 주자로 일했던 인물이라 전영수와는 밤무대 시절 연이 있던 차였다. "아이고 전 선생, 마 연구단원으로 됐습니다."

전영수는 1986년 3월 연구단원으로 부산시향에 입단했다. 연구단원은 정단원이 아니라 실습 단원 신분이다. 정단원이 되기 위한 절차라 하지만 월급은 고작 6만 4천 원에 불과했다. 월급으로 생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드럼을 쳐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저리 버텨나갔다.

이듬해 8월 정단원 오디션이 열렸다.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되자 형편이 다소 나아졌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급여 수준은 대략 50~80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무렵 전영수에게 또 다른 도전이 생겼다. 뜻하지 않게 팀파니를 맡게 된 것이다.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에서 제2의 지휘자라 불릴 만큼 중요한 악기다. 대개 타악기 파트 수석주자가 맡는다. 연구단원에게 팀파니 연주를 맡기는 일은 일종의 파격이었다. 무리도 뒤따랐다. 팀파니라는 악기조차 구비하지 못한 대학에서 마땅한 교육을

팀파니를 연주하는 모습 ©전영수

받았을 리는 만무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팀파니만 문제가 아니었다. 전영수는 타악기 전반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분윳값을 마련하기에도 벅찬 벌이였지만 전영수는 잘하고 싶었고 또 잘해야 했다. 승부욕이 강한 그로서는 심벌이나 치면서 그저 자리만 보전하며 음악을 하기는 싫었을 것이다.

> 내로서는 좋은 게 아니고 날벼락이지. 와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고. 팀파니 공부를 어데서 좀 해야겠는데. 그때 마침 서울에 박광서 선생이 비엔나국립음대 졸업하고 홍콩필하모니 수석으로 있다가 그때 국립교향악단이 KBS교향악단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었거든요. KBS교향악단 팀파니 수석으로 앉으니까. 우리 학교 김은정 교수가 비엔나 국립음대 나왔는데 내보고 그 양반 소개를 해주더라고. (538)

부산에서는 마땅한 선생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동의대학교 성악과 김은정 교수가 팀파니스트 박광서의 연락처를 건넸다. 전영수는 박광서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길로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2주에 한번 부산-서울을 오가는 이 여행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전영수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체계적인 테크닉 수업이기도 했다. 분윳값 때문에 혹은 그밖의 다른 어떤 이유로도 레슨을 거르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전영수는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테크닉과 그 음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연중 계속되는 부산시향의 연주활동은 학습한 기량을 적용하는 장이었다. 배운 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실전이다. 전영수는 실제 연주를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을 연마했다. 주변 소리의 다양한 변화나 복잡한 변박의 흐름 가운데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오며, 손놀림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연습했다. 전영수의 테크닉은 날로 진화하며 섬세하게 다듬어져 갔다.

10년간 서울 레슨을 마무리할 무렵 폴란드 쇼팽음악원을 졸업했다. 커리큘럼은 서울고등음악원과 자매결연으로 진행했다. 방식도 다소 수월했다. 쇼팽음악원 교수들이 서울에 들어와 2개월간 수업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여름과 겨울 두 시즌에 12학점을 따고 마지막 학기만 바르샤바에서 3개월간 수학하면 디플롬을 받는다. KBS교향악

단을 비롯해 전문 교향악단 단원들, 즉 프로 연주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영수도 그중 한 사람이다.[13] 그는 실력자로 꼽히는 에드워드 이비츠키로부터 배웠다.

전영수가 뛰어난 팀파니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체계적인 테크닉 교육과 훈련이었다. 드럼 연주로 구축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레슨의 효과는 다른 사람의 몇 배가 컸을 것이다. 둘째, 누구보다 성실했다. 연습이 시작되기 적어도 2시간 전 튜닝을 마치고 개인 연습을 시작한다. 전영수와 함께 부산시향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각은 물론 흔한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연습을 빼먹는 일도 전영수의 사전에는 없었다. 셋째, 겸허한 자세였다. 전영수는 연주를 마친 다음에는 자신의 플레이가 어떠했는지 누구에게라도 물었다. 지휘자에게도, 새파랗게 어린 신입 단원에게도, 음악이라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무 단원에게도 거침없이 물었으며, 어떤 의견이라도 경청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

쇼팽음악원 에드워드 이비츠키 교수와 바르샤바에서 ©전영수

다.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태도가 전영수를 중단없이 성장하게 만든 가장 큰 바탕이었으리라. 미숙한 테크닉으로 대가인 양 행세하는 연주자들이 넘쳐나는 이즈음 되새겨볼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부산 음악인의 소외와 내부 갈등의 폭발

부산시향 입단 후 1년 정도 생활하자 직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향이 시민회관에 상주하던 시절이며 부산문화회관 입주를 코앞에 두었던 무렵이었다. 사실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피곤했다.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직장 내 나뉘어진 파벌 때문에 단원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계명대 출신 대구파 세가 가장 강했으며 한양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출신으로 이루어진 서울파가 다음이다. 무리를 지어 어울리는 장소도 구분되었다. 휴게 공간에서조차 암암리에 일종의 규율이 작동했다. 정작 부산사람은 세가 적었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지 못할 만큼 눈치를 봐야 했다.[14)]

부산시향은 1962년 설립되었다. 서울시향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한 시립 단체이자 급여를 받는 직업 교향악단이다. 부산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음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일찍 설립되었던 까닭에 한국전쟁 이후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된 음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수밖에 없었다. 이기홍, 박종혁과 같은 대구 출신 음악인들이 수석지휘자를 거쳐 가면서 계명대, 영남대 출신 단원 수가 늘어났다. 일찍부터 여러 지역 음악인들이 부산시향에 자리를 잡았던 터라 지역이나 출신학교를 기반으로 생긴 파벌과 갈등은 해묵은 문제였다.

그러던 차에 타악기 수석이자 팀파니스트 김인수가 퇴직을 하게 되었다. 이른바 부산 출신이다. 1988년 5월이었다.

> 그 양반도 해군군악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부산시향에서 그냥 막 엉터리들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이 양반이 정년퇴직을, 생일 날짜로 짤라버리더라고. 88년도 5월인데, 딱 생일 날짜에 아웃시키더라고. 그러면 정년퇴임식을 해주던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아웃돼 가지고. 옛날에 초읍에 반공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정년퇴임식을 초읍에 반공회관에 가서 하더라고. 가니까 이 양반이 막 울면서 "세상에 집에 기르던 개도 집을 나가면 밥을 먹는지 어째 하는지. 내 평생 몸 바쳐가지고 일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되나?" 하면서 막 울더라고. (526)

공이 있건 없건 한 음악인의 은퇴 장면으로는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이는 전영수만이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향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전영수는 시향을 그만둔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철저히 의제화하기로 결심했다. 부산시향이 더 이상 학연이나 지연의 전장이어서도 안 되며 부산음악인을 홀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전영수는 모교 동의대학교에서 총대와 학회장을 비롯해 학생들을 불러 모아 부산시향의 현실을 설명하고 대학사회에서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촉구했다. 1988년 6월 24일 금요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열린 부산시향 제214회 정기연주회에[15] 부산대, 동아대, 산업대(현 경성대)를 비롯해 6개 음대에서 300명이 모였다. 삭발한 대학생들은 객석 중간 열을 점령했다. 휴식 시간이 되자 "부산 음악문화 저해하는 지휘자 물러가라", "부산시민 자존심 우리 권리 되찾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했다. 이 일로 후반 연주는 40여 분 지연되기까지 했다.[16] 결국 박종혁 지휘자는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자진 사퇴했다.

전영수가 입단하기 전의 일이다. 1981년 부산시향은 악단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한 차례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가 재창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전격 초빙한 지휘자가 박종혁이었다.[17] 그는 7년간 부산시향을 이끌며 시향 발전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 지휘자의 사퇴와 그 과정을 두고 지휘자를 옹호하며 사퇴서 반려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주장에도 설득력은 충분했다.

음악인들과 음악전공대학생들이 박씨의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박씨가 시향 단원 채용과 협연 및 지휘자 선정에서 부산출신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씨는 재임 7년여 동안 10여 회의 오디션을 통해 단원의 반수 이상을 바꿨는데 주로 부산출신이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울, 대구 등 타지역 출신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악단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얘기이고, 부산

음악인들은 가뜩이나 활동무대가 좁은 부산출신 연주자들이 설 땅을 잃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부산음악인들도 박 씨가 시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사감이 없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향은 시민의 것인 만큼 부산음악인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18]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시기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타지역 출신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좀더 정확하게는 이때 부산시향 정원은 82명으로, 부산 출신 28명, 서울 출신 27명, 대구 출신 24명이었다.[19] 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부산 출신 단원이 34%에 불과했다. 물론 연주단체로서 뛰어난 연주력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설 곳이 없는 지역 예술가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부산지역 유일의 직업 교향악단 부산시향의 단원 구성 문제는 무시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소위 부산시향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장되었다. 부산시립예술단 내 다른 단체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20] 부산시향에서 촉발된 지역 예술인 홀대 문제는 부산지역 문화환경과 문화행정의 개선 요구로 확대되었다. 부산시립예술단에 잠복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도에서 드러내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변화를 추동하게 만든 계기였던 셈이다. 이 일로 해촉 위기에 내몰렸던 전영수는 징계위원회 소명을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다. 사태는 컸지만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셈이다. 다만 지휘자 박종혁에 대한 회한이 남는다. 박종혁은 1990년 새로 설립한 충남교향악단을 이끌다 1996년 2월 28일 공연장에서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다.

부산시향 내부 갈등의 골은 좀처럼 봉합되지 못했다. 부산시향이 시민회관에서 부산문화회관으로 옮겨간 다음에도 부산출신 단원과 대구·한양대·서울대 출신 단원으로 양분되어 대립했다. 거친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리허설이 제대로 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음대 학생들을 예비 연주자로 대기시키기도 했다. 대구출신 단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후 부산시향에는 부산출신 연주자 수가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현악파트에 부산대학교 출신 연주자들의 입단이 현저히 늘어났다.

부산시향의 수석지휘자들

1989년 부산시향이 러시아 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Mark Gorenstein)을 영입하면서 내부 갈등은 조금씩 진정세에 들어갔다. 실력을 갖춘 지휘자가 음악으로서 갈등을 잠재운 셈이다. 러시아가 아직 소비에트 연합(소련) 체제였던 시절이지만 냉전이 와해되고 예술에도 해금 조치가 봇물처럼 쏟아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 부산시향이 러시아 지휘자를 영입했다는 사실은 부산 예술계의 진취성과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클래식음악과 발레 등 서양음악 연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서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연주자를 찾을 수 있는 국가였다. 국내 시립교향악단이 외국인 지휘자를 영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마크 고렌슈타인은 실력으로 악단의 소란을 잠재우는 한편 연주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관객의 호응과 지지도 한껏 이끌어냄으로써 부산시향 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객석은 점차 늘어났으며, 서울 공연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부산시향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러나 고렌슈타인과의 마지막은 좋지 못했다. 1991년 가을 예술감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시립예술단조례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문화회관과 고렌슈타인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고렌슈타인은 오디션과 연주자 선정에 관한 전권을 지닌 음악감독 겸직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거절되자 문화회관측 관리들의 반예술적 몰이해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12월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21] 계약된 임기는 이듬해 11월까지였으므로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었던 데다 고렌슈타인의 성과가 뚜렷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결국 고렌슈타인은 1991년 12월 13일 제252회 정기연주회를 끝으로 부산시향을 떠났다.

고렌슈타인이 퇴진한 다음 러시아 지휘자 블라디미르 킨(Vladimir Kin)을 영입했다. 불행히도 킨은 부산시향을 맡고 나서 이내 해외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재임기간은 1993년 2월부터 그해 4월까지였다.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반초 차브다르스키(Vanco Cavdarski)가 부산시향을 맡았다. 1993년 9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수석지휘자로 재임했으며, 이후 동아대학교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여러 언어에도 능통한 인물이었다. 그도 해외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한국말로 하면 다 그냥 양반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고렌슈타인은 워낙 좀 밸라고[별나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사람이고. 블라디미르 킨이나 반초 같은 사람은, 특히 반초 같은 사람은 전쟁을 피해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 단원들 반대에 의해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내가 제일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아니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여서[여기서] 그만두라 하면 저거 나라로 갈 수도 없고. 완전 난민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때 거 뭐 어떻게 보면, 반초가 단원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는데. 단원들 습성이 희한하더라고. 센 놈이 나오면은 엎드리면서 뒤에서 꽁알거리고, 좋은 사람이 오면 앞에서 달라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딱 교향악단 단원들의 습성 자체가 참 노예근성들이 있다 내 그래 생각을 하지, 좀. (532)

반초 차브다르스키 이후 부산시향을 맡은 이는 곽승이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리신차오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7년 6개월간 부산시향과 함께했다. 앞선 지휘자들에 비해 재임기간이 길었다. 부산시향이 음악적으로 발전하게 된 토대를 마련한 이는 마크 고렌슈타인이다. 그가 음정으로 정확하게 다듬으면서 고급스럽게 흐르는 음악으로 만들었다면 이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지휘자는 곽승이다.

내가 볼 때 리신차오 와가지고 초창기 때. 고다음에 곽승 지휘자 한 중반쯤? 초창기 때는 사실 좀 엄했고, 서로 눈치 본다고 정신없었고. 조금 익숙해지고 미국 순회연주 같이 갔다 오고, 또 뭐 아시아연주 가고 이렇게 하는 고 시점. 그때가 뭐 전국적으로 보면 월드컵도 있었고 이것저것. 국가적인 일이 많았지. 그게 시대하고 맞물려가지고. 곽승이라는 지휘자 때문에 부산시향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느낌. 고다음에 리신차오가 오고 난 뒤에는 음악이 전반적으로 세련되어 간다는 느낌. 근데 그 이면에는 곽승이라는 지휘자의 8년 동안의 리듬 트레이닝이 된 그 여파가, 영향이 어느 정도 왔다고 보지. (536)

곽승이 특히 집중한 부분은 음악적 기초였다. 곽승은 정확한 리듬과 음정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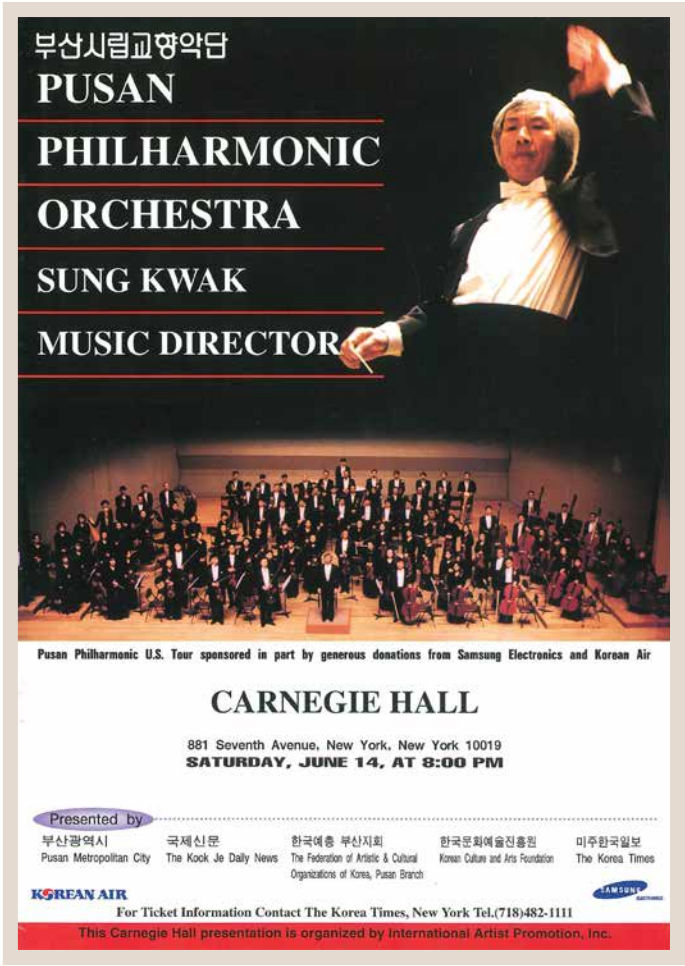
했다. 부산시향 단원 중에는 아직도 그의 지휘로 연주한 곡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며 큰 공부가 되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한편 우수한 연주자를 초빙하고 공용악기를 정비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부산시향의 유명한 수석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영입이나 하프시코드 구매도 이때 이루어졌다.

곽승 시절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단연 미국순회연주회였다. 1997년 로스 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4개 도시에 부산의 교향악 수준을 알린 것이다. 특히 6월 14일 뉴욕 카네기홀 연주는 대한민국 교향악단 사상 최초의 카네기홀 연주 기록이었다. 그 무렵 카네기홀은 음악인이라면 꼭 한번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였다.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인색하기로 유명한 뉴욕타임스에서는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 한국의 전통 가락」이라는 리뷰를 내놓았으며, 동아일보에서도 「한국에 이런 교향악단이 있었습니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워싱턴 D.C. 공연에서도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리뷰를 수록했다.[22]

> 꿈이지, 꿈. 지금도 생각해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부산시향이 뉴욕 카네기홀에 다시 설 수 있겠어요? 지금 수준 가지고. 내가 볼 땐 못 섭니다. 돈으로 발라서 설라면 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음악이나 지휘자의 레벨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놓고 봐서는 나는 향후 20~30년은 그 시절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곽승이라는 지휘자가 있던 고 시기로부터 50년이 지나도 다시 그 시절로 갈 수 있을까 보면, 안 되는 거죠. (533)

부산시향의 미국순회연주회는 지역 교향악단이 이루어낸 쾌거였다. 카네기홀에 선 그 순간은 모든 단원들에게 잊지 못할 한순간으로 남았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Alexander Anissimov)가 맡았다. 2005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부산시향과 함께했다. 벨라루스 출신의 그는 쇼맨십이 뛰어나 객석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음은 중국인 리신차오(Li Xincao)가 수석지휘자로 취임했다. 부산시향이 초청한 외국인 지휘자 가운데 최초의 중국인이자 부산시향 사상 최연소 지휘자였다. 기존의 지휘자와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지휘자였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단원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



부산시립교향악단 카네기홀 연주회 전단 ©남영희

히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젊은 지휘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만큼 탁월한 해석을 선보였다. 단 한 사람의 반대조차 없을 만큼 완벽하게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리신차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9년 6월 1일이었다. 리신차오는 부산시향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많이 시도했다. 베토벤, 브람스, 부산의 머리글자를 딴 BBB프로젝트는 연주력의 기초를 되짚는 계기였으며, 오페라 인 콘서트(Opera in Concert)는 적은 비용으로 오페라 전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형 세트만 제외하고 분

장, 의상, 연기 등 오페라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형태다. 연출을 직접 맡았는데, 오페라의 배경을 부산으로 옮겨 각색하기도 하여 대단한 재미를 선사했다. 비엔나 유학시절 수천 편의 오페라를 감상한 경험 덕분에 한계가 많은 상황에도 막힘이 없었다. 음악도 연출도 모두 탁월했다.

그럼에도 리신차오의 퇴진은 여느 지휘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갈등과 다툼을 싫어하는 성품에도 소용돌이에 휘말려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와 교향악단 운영을 둘러싼 근거없는 소문이 사실처럼 둔갑해 경찰 수사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23] 근거없는 의심, 세력다툼과 자리욕심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결국 헛소동으로 종결되었다.[24]

전영수의 정년퇴임은 리신차오의 퇴임 공연에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17~18일 열린 송년음악회다.

리신차오 그만두는 날 나도 같이 그만뒀지. 공교롭게. 내 정년퇴임식 하는 날.

지휘자 리신차오(Li Xincao)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남영희

리신차오도 마지막 공연. 베토벤 나인[9번 교향곡]. 그게 영상이 있더라고. 애들[제자들]이 보내주대. 감동스럽더라. 마지막에 꽃 하나 들고 이래 뜨드드드드드드. 내 한테 오더라고. (535)

리신차오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연주를 모두 마친 리신차오는 미리 준비한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전영수에게 건넸다. 리신차오는 전영수를 '전파니'라 불렀다. 팀파니는 단연 전영수라는 뜻이다.

5 연주 단체의 결성과 교육활동

연주 단체의 결성과 운영

팝스 앤 퍼커스는 팝 뮤직과 타악기의 만남을 지향했다. 2000년대 중후반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타악기 교실이 많이 열렸다. 전영수의 제자들이 방과후학교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의 제자를 길러내기 시작했다. 방과후수업에서도 재능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가 팝스 앤 퍼커스다. 팝스 앤 퍼커스는 10여 년 정도 유지했다. 그간 후속세대 타악기 주자들이 여럿 배출되었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이하 유코)는 음악을 통한 사회 참여를 지향한다. 2006년 소아암과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자는 중지를 모아 설립했다. 전공자들로 구성한 4관 편성 교향악단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시향을 비롯해 창원시향, 포항시향과 같은 경남·북 지역 시립교향악단 연주자들이 동참했다. 매년 사랑나눔 음악회를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로 꾸준히 열었으며 사랑의 열매[25]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지금껏 기부금 총액은 6억원 정도 된다. 유코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부산시 감사패, 2008

팝스 앤 퍼커스 공연 ©전영수

년 생명나눔재단 감사패를 받은 데 이어 2009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직업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연주자를 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거니와 연주 기량도 균질하지 않고 단원들이 처한 환경도 각기 달랐다.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단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공이 들었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비용이다. 뜻을 함께하는 단원들의 갹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벤츠 유재진 회장이고.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창단연주부터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근 한 3년 정도를 석 달에 한 번씩 1,500만 원씩 연주경비를 그 양반이 만들어줬어요. 중간에 미국 갈 때 1억 연주경비 도와주셨고, 또 그다음에 미국 갔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3,000만 원인가 얼마 또 해 주시고. (549)

고마운 사람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가 스타자동차 유재진 회장이다. 전영수가 볼멘소리를 할 때면 탐탁지 않을 때조차 선뜻 후원금을 내놓았다. 유 회장의 음악 사랑과 사회기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겠지만 그만큼 전영수를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창기 유코는 음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단체를 지향했다. 15년을 넘긴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다. 부산에는 부산시향 외 직업 연주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에서 배출한 젊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회적 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부산지역 민간 교향악단의 계보를 잇고 이를 건실하게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신중년세대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이즈음 전영수가 가장 재미나게 활동하는 단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자이거나 주부들이다. 전공을 했거나 전공 수준으로 기량을 단련한 사람들도 있다. 신중년세대의 합주는 생각보다 훨씬 큰 즐거움이다. 황혼에 이른 삶의 의미와 맞닿는다. 쉽고 간단한 곡이 아니라 무겁고 어려운 곡에 도전한다. 무엇인가를 함께 해내는 일, 그럼으로써 느끼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다. 저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이야기들과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소소한 즐거움이리라.

전문 연주자 양성 시스템의 부재

음악 실기지도는 대개 도제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영수는 200명 가까운 학생을 타악기 전공자로 길렀다. 절반 이상은 원하는 대학에 보냈다. 불행히도 대학 입시에 성공한 다음에는 90% 이상 레슨을 그만둔다. 직업 오케스트라 입단을 꿈꾸는 제자가 있으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전영수의 교수법은 다정하지 않다. 그러나 틀림이 없다. 타악기의 생명은 리듬이다.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기초를 다잡는 것이다.

간혹 자랑스러운 애들이 몇 명 있긴 하지요. 내 손을, 내 손에서만 음악 해가지고. 오리지날로. 어데 뭐 대학 때는 전영수한테 했다가 서울 가서는 누구한테 하고 유학 갔다왔다, 이런 애들 말고. 딱 내한테서만 한 애들 있어요. 유학 가더라도 계속 연결해가면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레슨비 받고 단순하게 기술 가르친 그런 애들 있고. 기술 이전에 서로 인간적으로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사람 관계가 먼저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 내가 겸손 떠는 이야기라고. 저는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선생이라고 평생 믿고 따르는 애들 보면 감사하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쯤 오니까, 그 애들이 나중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라도 니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고 이러면, 그래도 뭐 전영수 선생이 자기 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이 한 10명만 되면 성공한 거지. (543~544)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전영수에게서만 타악기를 배워 전문 연주자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제자들이 여럿이다. 전국 여러 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족한 인격'의 스승이라 자신을 낮추며, 잘 성장해준 제자들에 공을 돌린다. 전영수는 교향악단 팀파니스트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테크닉은 부산시향 입단 후에 배웠다고 한다. 제대로 된 공부는 실전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공부는 프로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진짜배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내가 그랬듯이. 나는 내가 그랬으니까 너거도 그래라가 아니라, 프로 오케스트라 들어가 보니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애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유 나는 이미. 내인테 누가 배우러 안 오나 이러고 있으니까. (중략)음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544)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음정과 박자에 맞게 그저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다. 전체적인 음악 안에서 소리의 크기와 질감을 살려내야 한다. 훌륭한 테크닉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연습과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영수의 경우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를 갈무리하거나 전

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더 문제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배워도 쓰일 곳이 없는 데다 얄팍한 지식이나 테크닉만으로도 우쭐댈 수 있는 클래식 음악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곡마다 전영수의 손과 머리에 축적된 노하우를 갈무리할 길이 없는 점은 크게 아쉽다. 베토벤 교향곡들,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롯시니 <윌리엄 텔 서곡> 등에 각별한 해결책들을 찾아냈다. 그런 곡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노하우를 구조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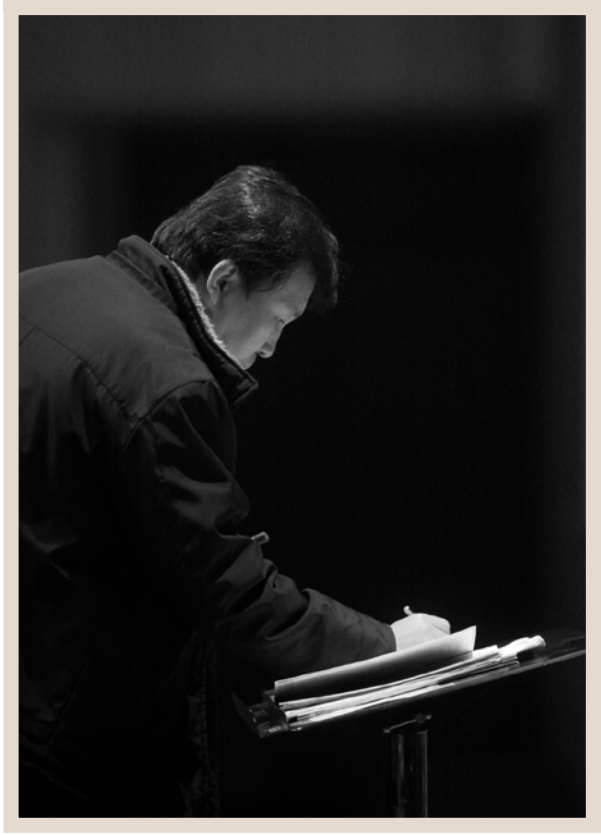
6 필그림홀에 깃들어

필그림홀과 언제나 그리운 무대

유코의 안정적인 연습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마련한 공간이 필그림홀이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연스포츠센터 3층에 자리했다. 필그림은 전영수가 결성한 첫 그룹사운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즉흥적으로 마련한 공간인데 아래층이 볼링장이라 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이 적어 안성맞춤이다.

구비하고 있는 타악기는 최고 수준이다. 종류와 수량, 악기의 질 면에서 비교할 곳이 없다. 팀파니, 마림바, 차임, 드럼 등 대형 타악기부터 자잘한 소품류까지 고루 구비했다. 천생 연주자답게 악기 욕심이 한없다. 좋은 악기가 이미 있는데도 소리가 좋은 악기를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진다. 악보실도 수준급이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레퍼토리가 많고 그만큼 악보도 많다. 오케스트라 총보와 파트보를 섹션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관리한다. 음악감독 최영화의 공이 크다. 악보는 연주단체의 양식이니 악보실은 연주단체의 곳간이라 할 수 있다.

팀파니 실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비결은 연습이다. 팔꿈치 통증은 이미 오래된 데다 최근에는 어깨 근육이 종이 티슈처럼 얇아져 통증이 만만찮다. 그런데도 매일



악보를 보며 ©전영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부산시향에서 일할 때처럼,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아침 필그림홀에서 악기를 만진다. 둥둥~ 조용한 튜닝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여전히 무대에서 러브콜이 많다. 전영수의 연주에 대한 신뢰가 폭넓다. 거리가 먼 곳이라도 대우가 시원치 않아도 무대라면 만사 제치고 달려간다. 천생 연주자다.

광대의 숙명

어느 날, 재래시장 바닥에서 연주해야 할 일이 생겼다. 전영수는 무대를 가리지 않고 또 무대에 임하면 최선을 다한다. "역사상 예술인이 언제 대접받았던 때가 있었나요". 그는 '광대의 숙명'이라며 웃는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모차르트를 일컬어 '궁정시대의 시민 예술가'라 했다. 정신은 이미 시민의 시대에 있지만 아직 그러한 시대

가 도래하지 않았던 천재 작곡가의 비운을 압축적으로 말해준다.[26] 오늘날에는 '시민 시대의 궁정 예술가'들이 많다. 시대의 변화는 이처럼 가파른데 여전히 궁정 예술가로 대접받고 행세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들 말이다. 젠체하며 몸집을 한껏 부풀려봤자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예술가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 추하지 않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지. 나이 드니까 별로 할 일들이 없더라고. 걸었다, 놀러 다닌다 하는데, 저는 20, 30회 연간 공연해요. 유코 정기연주회, 외부 초청 공연도 그렇고. 좋은 일이지요. 평생 해왔던 일을 갈 때까지 이 일로 가니까 좋더라고. 음악이라는 것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 괴롭히는 일 아니잖아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악기도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 많이 썼거든요. 질이 좋거든. 사용하면서 뿌듯하고, 내어줄 수도 있고. 빌려 쓰는 것도 나이 들어서 꼬질하니 벌벌 떠는 것도 싫고. 자기 꿈을 펼치고자 하는 애들이. 시장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중략) 좀 잘 됐으면 좋겠고. (553)

부산의 팀파니스트 전영수는 우범지대라 불리던 부산 조방 앞에서 태어나 자랐다. 드럼을 치며 남포동 고고클럽을 누비던 그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팀파니스트가 되어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 카네기홀에 섰다. 30년간 부산시향이라는 부산의 소리에 힘을 실었고 수많은 후속세대를 길러냈다. 민간 오케스트라 유코를 창단하여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치밀한 계획보다는 마음이 움직이는대로 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좌충우돌도 많았지만 돕는 이들이 많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진심이 가닿은 것이다. 그에게 음악은 곧 삶이다. 오늘도 중단없이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음악은 흐르고 공연은 계속된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부산음악인 전영수의 이야기와 그의 시대를 여기에 기록했다.

미주

1)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괄호 안은 쪽수이며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하다.

2) 50년이나 흘렀는데도 김영기의 소식은 지금껏 듣지 못했다. 그때는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저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란다.

3) MBC대학가요제는 1977년 시작되었다.

4) 미8군쇼는 AA(더블에이), A, B, C 등급을 두었다. 드러머 이상훈에 따르면, 더블에이는 실력이 탁월하다는 뜻이지만 더블에이를 받지 않기 위해 오디션에서 적당히 엉터리로 연주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블에이 등급은 장교를 대상으로 공연하는데 공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314쪽.

5) '비둘기'라는 뜻의 피죤스(pigeon)를 비죤스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텍사스거리는 부산역 맞은편 상해거리와 인접해있다. 상해거리는 1993년 부산시와 상해 자매결연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게 된 곳으로, 1884년 청나라가 초량에 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청관거리로 형성되었다가 중국 신해혁명 이후 화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차이나타운이 되었다. 상해거리와 맞붙은 텍사스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주점이 늘면서 텍사스거리 또는 텍사스골목이라 불렸으며, 1990년대에는 러시아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러시아인을 상대로 한 업소가 많았다.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유흥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2007년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색적인 문화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7) 정원상, 『정원상의 음악인생: 그때 그 노래소리가』, 비움, 2009,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낭만음악』 9, 낭만음악사, 1990, 7~56쪽.

8) 노문환 목사는 CCM의 대부로 불린다.

9) 서영식은 늘노래선교단 창단멤버로, 유명한 CCM <늘 노래해>를 비롯해 많은 곡을 작곡했다. 이국적인 외모로 여성 팬이 많았다.

10) 뒷날 노문환의 처남이 된 강군모는 CBS 국장을 지냈다.

11) 뒷날 함도관은 동의대학교에서 학장을 지내고 은퇴했다.

12) 배일환은 1980년대 일본 마칭밴드 지도자협회 연수를 받고 국내에 마칭밴드 활동을 전파하였으며, 부산지역 관악활동 및 관악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한 인물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9대 한국관악협회장을 지냈다.

13)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해외 유학을 위해 2년 정도의 유급 휴가 제도를 운영했다. 교향악단 방준실, 홍성택 등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재직 중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14)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던 시절이다.

15) 부산직할시 문화회관, 『부산직할시립예술단 공연보』, 1993, 79쪽.

16) 「음악회서도 시위」, 『부산일보』, 1988.06.25.

17) 「단원-지휘자 불화, 부산시향 어디로」, 『조선일보』, 1988.07.19, 9면.

18) 「단원-지휘자 불화, 부산시향 어디로」, 『조선일보』, 1988.07.19, 9면.

19) 「부산시향 어디로 가나」, 『부산일보』, 1988.06.27.

20) 「부산 문화계 분규 잇따라」, 『동아일보』, 1988.07.29, 7면.

21) 「부산시향 평지풍파, 지휘자 권한제한 '사표소동'」, 『부산시향』, 1991.12.12.

22) Allan Kozinn, "Korean Folk Tunes Vying With Grand Orchestral Colors", The New York Times, June 17 1997; Cecelia H. Porter, "P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Washington Post, June 19 1997; 이규민 특파원, 「한국에 이런 교향악단이 있었습니까」, 『동아일보』, 1997.06.19.

23) 남영희, 「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21.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지휘자, 리 신차오」, 『국제신문』, 2019.11.18, 21면.

24) 백현충, 「라크리모사-눈물의 날」, 『부산일보』, 2016.06.14.

25) 현재는 생명의 열매를 통하지 않고 부산지역의 병원을 지정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하고 있다.

26)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지음·박미애 옮김, 『모차르트, 사회적 초상: 한 천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포노, 2018.

참고문헌

[단행본]

부산교육대학교60년사발간위원회,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교육대학교, 2006.

부산직할시 문화회관, 『부산직할시립예술단 공연보』, 1993.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탄생과 혁명』, 을유문화사, 2022.

신현준·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절정과 분화』, 을유문화사, 2022.

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80: 욕망의 장소』, 을유문화사, 2022.

신현준·최지선·김학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90: 상상과 우상』, 을유문화사, 2022.

정원상, 『정원상의 음악인생: 그때 그 노래소리가』, 비움, 2009.

제갈삼,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세종출판사, 2006.

최삼화, 『부산관현악단의 발자취』, 샘뮤직, 2017.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공연보 2: 1993~1998』, 1999.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지음·박미애 옮김, 『모차르트, 사회적 초상: 한 천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포노, 2018.

헤르베르트 하프너 지음·홍은정 옮김, 『세계의 오케스트라』, 경당, 2012.

[논문]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낭만음악』 9, 1990, 7~56쪽.

남영희, 「한국전쟁기 부산의 정훈음악」, 『한국민족문화』 83, 2022, 123~160쪽.

남영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 『한국문학논총』 91, 2022, 5~46쪽.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21.

남영희·이순욱, 「한국전쟁기 군악대와 정훈음악」, 『로컬리티 인문학』 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151~182쪽.

남영희·이순욱,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11~247쪽.

[신문기사 및 보고서]

「관 주도·지역차별 예술정책 시정 촉구」, 『한겨레』, 1988.8.9, 5면.

「단원-지휘자 불화, 부산시향 어디로」, 『조선일보』, 1988.7.19, 9면.

「된다…안된다…」, 『부산일보』, 1989.3.18.

「부산 문화계 분규 잇따라」, 『동아일보』, 1988.7.29, 7면.

「부산시향 어디로 가나」, 『부산일보』, 1988.6.27.

「부산시향 평지풍파, 지휘자 권한제한 '사표소동'」, 『부산시향』, 1991.12.12.

「시향 수석지휘자 '킨'이냐 '코프만'이냐」, 『부산일보』, 1992.10.29.

「음악회서도 시위」, 『부산일보』, 1988.6.25.

남영희, 「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7. 팀파니스트 전영수」, 『국제신문』, 2019.4.7, 21면.

남영희, 「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10. 지휘자 곽승」, 『국제신문』, 2019.6.3, 21면.

남영희, 「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13. 아마추어 연주자 모녀」, 『국제신문』, 2019.7.14, 21면.

남영희, 「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21.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지휘자, 리 신차오」, 『국제신문』, 2019.11.18, 21면.

남영희, 「지휘자와 대통령」, 『부산일보』, 2022.5.6.

백현충, 「라크리모사-눈물의 날」, 『부산일보』, 2016.6.14.

왕성상, 「광복 70주년 기록으로 본 '금지곡들'」, 『기록인 2015+Autumn』 32, 2015, 81쪽.

이규민, 「한국에 이런 교향악단이 있었습니까」, 『동아일보』, 1997.6.19.

Allan Kozinn, "Korean Folk Tunes Vying With Grand Orchestral Colors", The New York Times, June 17 1997.

Cecelia H. Porter, "P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Washington Post, June 19 1997.

「부산 현대사 자료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음악, 시대를 읽다-부산에서 활동한 음악가들」, 부산광역시, 2022.

부산 구술사 총서 1

구술로 보는
부산음악의 **역사**

발행	부산광역시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T. 051-888-5057)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디자인·제작	엔크리에이티브(주) 도서출판 예린원
원문공개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https://bssisa.com)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639-01
ISBN	979-11-85308-57-9 (04910) 979-11-85308-56-2 (04910) (세트)

이 책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부산광역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술로 보는

부산 음악의 역사

집필자 (집필 순)

이순욱 부산대

명수현 부산대

조성일 (재)부산문화회관

오광수 국제신문

정민경 부산대

심창신 부산시설공단

김종군 락인코리아

김도희 부산대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서정아 부산대

남영희 부산대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639-01

구술로 보는

부산 음악의 역사

비매품/무료

9 791185 308579 04910

ISBN 979-11-85308-57-9
ISBN 979-11-85308-56-2 (세트)